제주학연구 53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양정필 · 윤용택 · 강영봉 · 정세호 · 안행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하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발 간 사

석주명 선생은 근현대 제주학을 개척한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반 제주인이라 말할 정도로 제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가치를 깨닫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세상에 알렸습니다. 선생이 남긴 제주도 관련 자료들은 4·3사건 이전 것들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석주명 선생의 학문 경향은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나비와 곤충 연구에만 몰입하였다가 제주도 연구를 거치면서 융합학문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제주도방언집』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제주도문헌집』, 『제주도수필』,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자료집』 등 6권의 제주도 총서는 석주명 선생의 학문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서적들입니다. 그럼에도 6권의 제주도 총서 가운데 『제주도방언집』을 제외하고는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없어서, 각각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평가해볼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어 왔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석주명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주명 선생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이가 거의 없고, 그의 논저, 사진, 유고, 유품들이 산재해 있어서 그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의 생애와 학문 여정을 살필 수 있는 사진, 영상, 유고, 논저, 유품 등 관련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리하여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제주학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학회 윤용택 회장님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을 맡은 양정필 교수님과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석주명에 대한 기초연구 성과물이 제주를 연구하는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에게 널리 향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제 주 연 구 원
원장 김 동 전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석주명(1908~1950)은 나비박사와 제주학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제주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였기에 스스로를 반(半)제주인이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세상이 제주도의 가치를 모를 때 가장 먼저 그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그가 제주도 연구에 많이 공헌한 사실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석주명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그의 생애, 나비연구, 제주도 연구 등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석주명의 학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르다.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한낱 나비 연구가이자 곤충학자에 불과했던 그는 제주학 연구를 거치면서 그는 명실상부한 통합학자가 되었다. 그의 6권의 제주도총서, 즉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 『제주도문헌집』, 『제주도수필』,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자료집』에 대한 연구는 그의 학문세계 전반을 파악하는 데도 필요하다.

○ 그가 남긴 제주도 관련 자료들은 제주4·3 이전 것들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의 제주도 연구는 단순한 제주학이 아니라 한국학의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다. 하지만 6권의 제주도총서 가운데 『제주도방언집』을 제외하고는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없어서 각각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석주명은 1930~40년대에 여러 편의 나비채집기를 남겼지만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일본학술지에 실려 있고, 80년 이상 지나다보니 상당 부분 멸실된 상황이다. 그의 나비채집기들은 그가 나비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시대상황을 읽을 수 있는 주요 자료여서 이들을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석주명에 대한 이야기가 초등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가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에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면서 오늘날 석주명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세상이 제주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는 제주도의 가치를 깨닫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세상에 알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를 기리기 위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석주명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의 논저, 사진, 유고, 유품들이 산재해 있어서 그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그의 생애와 학문 역정을 살필 수 있는 사진, 영상, 유고, 논저, 유품, 관련자료 소재를 파악하고, 사후에 이루진 기념사업과 행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 석주명의 제주도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6권의 <제주도총서>, 즉『제주도방언집』,『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제주도문헌집』,『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제주도곤충상』,『제주도자료집』과 기타 제주도 관련 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의 제주도 연구의 공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 일본어로 된 석주명의 <나비채집기>, 즉 '백두산나비채집기', '조선 동북단지역 나비채집기', '조선 동북지방 나비채집기', '관모연봉 나비채집기', '북조선동물채집기' '남조선동물채집기' 등을 번역함으

로써 그가 나비박사로 성장하는 과정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널리 알리 위한 것이다.

○ 석주명의 생애와 학문 역정을 살필 수 있는 사진, 영상, 유고, 논저, 유품, 관련자료 소재와 내용을 파악하고, 사후에 이루진 기념사업과 행사의 관련자료들을 정리함으로써 추후에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연구범위

○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즉『제주도방언집』,『제주도의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제주도문헌집』,『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제주도곤충상』,『제주도자료집』과『석주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등 그가 남긴 제주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그의 제주도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 일본어로 된 그의 <나비채집기>, 즉 '백두산나비채집기', '조선 동북단지역 나비채집기', '조선 동북지방 나비채집기', '관모연봉 나비채집기', '북조선동물채집기', '남조선동물채집기' 등을 수집하여 번역할 것이다.

○ 언론, 지인, 연구자들을 통해 그의 생애와 학문 역정을 살필 수 있는 기초자료인 사진, 영상, 유고, 논저, 유품 등의 관련 자료의 내용과 소재를 파악하고, 사후에 그를 기리는 행사와 사업들의 내용을 정리한다.

4.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18년 05월 01일 ~ 2018년 10월 30일

5. 연구방법 및 절차

○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등 그가 남긴 제주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거친 후 각 연구의 분야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일본어로 된 <나비채집기>를 수집하여 번역하며, 그의 생애와 학문 역정을 살필 수 있는 기초자료인 사진, 영상, 유고, 논저, 유품 등의 관련 자료의 내용과 소재를 파악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그를 기리는 행사와 사업들을 정리한다.

○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논평을 들을 수 있는 중간 세미나와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여 그 자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석주명에 대한 기초연구 성과를 보완할 것이다.

6. 연구내용

○ 이병철이 제주도연구회 44회 연구발표회(1990년 5월 26일)에서 「석주명과 제주도」를 발표한 이래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명한 바 있다. 2000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주최 2000년 학술세미나(10월 7일)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故 석주명 선생 재조명>, 2003년 석주명 선생 기념비 제막(6월 11일)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학의 선구자,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의 삶>, 2011년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학술대회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을 조명하다>(10월 7~8일), 2011년 제주문화예술재단 하반기 강좌 <제주학의 선구자들, 제주를 빛내다> 등이 있었다.

○ 하지만 그동안 석주명의 제주학 또는 제주도 연구에 대한 발표나 강좌에서 정작 그의 제주학과 제주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6권의 <제주도총서> 가운데 『제주도방언집』을 제외하고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도방언집』을 포함하

여,『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제주도문헌집』,『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제주도곤충상』,『제주도자료집』 등 제주도총서 6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것의 의의를 평가하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제주학의 과제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 석주명의 나비채집기의 번역 소개이다. 석주명은 20여년간 나비채집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한 나비채집기들을 1930~40년대의 박물학회지와 곤충학회지 등에 남겼다. 하지만 그의 나비채집기들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다 그 학술지들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나면서 대부분 멸실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나비동호회 나비전문학술지『제피루스Zephyrus』에 실린 '백두산나비채집기', '조선 동북단지역 나비채집기', '조선 동북지방산 나비채집기', '관모연봉 나비채집기',『석주명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에 실린 '남조선동물채집기', '남조선동물채집기',『조선박물학회잡지』에 실린 <북조선 나비채집기>, <남조선 나비채집기> 등을 번역하였다.

○ 제주학의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그의 유품, 관련사진, 원고, 논저, 석주명 전기, 평전, 연구서, 대본 등의 도서와 영상, 음성기록물, 그리고 그를 기리는 사업과 관련된 영상, 사진, 출판물, 물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7. 연구의 기대 효과

○ 석주명은 일제강점기, 해방정국, 분단조국, 한국전쟁 등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살았다. 평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개성과 일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개성, 제주, 서울에서 나비, 에스페란토, 제주도 연구를 하였다. 그는 제주학의

선구자, 나비박사, 에스페란토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학 선구자인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 전모를 밝히는 것은 제주학의 뿌리를 찾고, 제주학의 과제를 드러내는 성과를 얻게 되고, 그의 제주도 연구는 한국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그의 제주학에 대한 연구는 제주학이 한국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석주명은 정규대학이 아닌 고등농림학교를 나왔고, 대학교수가 아닌 중등교사였지만, 당시의 일본 석학들을 실력으로 누르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 학력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래 전에 실증해준 석주명이 세계적 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밝히게 된다면 우리의 청소년과 교육자와 전문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 그는 민족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 한민족이 동시에 존경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 자연, 인문, 사회분야 학자들이 소통이 부족한 자연과학자와 인문사회학자들이 동시에 흠모할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화합에 도움이 되고, 분리된 우리 학계에서 소통을 이루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

○ 그는 스스로를 반(半)제주인이라 한 바 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제주의 가치를 모를 때 제주도를 연구하여 제주를 세상에 알렸다. 제주도가 그런 위대한 인물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그를 기리는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제주도가 석주명 연구의 메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영천동에 석주명기념관을 건설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치할 석주명의 유품과 그의 사진, 원고, 원저 등이 거의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석주명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는 앞으로 들어설 석주명기념관의 자료수집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 5

1.『제주도방언집』분석 및 평가 (강영봉) ····· 5
2.『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분석 및 평가 (양정필) ····· 34
3.『제주도문헌집』분석 및 평가 (윤용택) ····· 72
4.『제주도수필』분석 및 평가 (강영봉) ····· 101
5.『제주도곤충상』분석 및 평가 (정세호) ····· 142
6.『제주도자료집』분석 및 평가 (양정필) ····· 166
7. 석주명의 나비채집기 번역 (안행순) ····· 198
8. 석주명의 유품과 관련 유물들 (윤용택) ····· 283

Ⅲ. 결 론 ····· 307

■ 참고문헌 ····· 310

■ 분야별 전문가 회의록 ····· 317

■ 전문가 워크숍 회의록 ····· 322

■ Abstract ····· 327

Ⅰ. 서 론

석주명은 1908년 10월 17일(음력 9월 23일)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6일(음력 8월 25일) 서울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일제강점, 해방정국, 한국전쟁 등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42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 나비와 제주도(濟州島) 연구에 몰입하였고, 국제어인 에스페란토 보급에 힘썼다.

그는 평양에서 서당과 보통학교를 마치고 숭실학교에 다니다가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여 1926년 졸업하였다. 그는 1929년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농학과(농예생물전수)를 졸업함으로서 배움의 길을 마쳤다. 그는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에서 나비연구의 기초가 된 곤충학과 국제어인 에스페란토를 배웠고, 그것은 훗날 그가 나비연구자와 에스페란토운동가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귀국 후에 함흥 영생고보 박물교사로 근무하다 1931년 모교인 송도고보에 전근하여 11년 동안 박물교사로 부임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나비박사가 되었다.

그는 개성을 중심으로 나비채집을 시작하여 1933년 백두산, 1934년 함경북도와 간도 용정지방, 1935년 금강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1936년 전라남도 해안과 제주도, 1937년 경상남도, 1938년 묘향산, 평안남북도, 사할린, 북해도, 1939년 북경, 만주, 몽골, 1940년대 함경남북도, 만주, 1941년 압록강유역과 평안북도 등에서 나비채집을 하였다. 송도중학교를 사직한 후인 1942년에는 개마고원,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등에서 나비채집을 마무리하였다. 그는 나비채집을 위해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는 동안 지역이 달라지면 식생이 달라지고, 나비분포가 달라지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석주명은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가 한반도와 같은 점도 있지만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제주도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가 제주도 연구에 몰두했던 이유는 한반도와 다른 제주도의 자연은 우리 민족의 터전을 확장해주고, 우리 문화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의 문화는 우리문화의 뿌리를 찾고, 궁극적으로 우리문화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

의 제주도 연구는 국학 연구의 연장이었다.

그는 적어도 제주도를 세 차례 방문하거나 체류했다. 첫 번째는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주도의 나비를 채집하기 위해 1개월 남짓 체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산접류채집기」와 「제주도의 회상」에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1943년 4월 24일부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소속인 개성의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이 개장하면서 부임하여 1945년 5월 개성으로 복귀할 때까지 2년 남짓 근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1948년 2월경에 제주도를 찾아 일주하였다.

그는 1936년 여름 한 달 제주도에서 나비채집하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하여 1943년 4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소속의 개성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으로 전근하게 된다. 자연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에서 사계절을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벽지 근무를 자원했던 것이다. 그는 제주도에 장기간 체류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전문분야인 나비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폭을 넓혔다. 그는 제주도에 부임하자마자 육지와 너무나 판이한 여러 가지 현상에 흥미를 느끼고 나비와 더불어 '제주도'를 그의 연구 테마로 삼았다. 그는 제주도에 애초에는 1년 머물 계획이었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1945년 5월까지 머물면서 곤충채집부터 방언, 인구, 제주도 관련 문헌과 자료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읽은 것 중에 제주도에 관한 것이 나오면 즉시 적당한 제목을 붙여 카드에 기록해 쌓아두었다.

곤충에서 시작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언어, 역사, 문화, 사회문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간다. 그의 제주학 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제주도총서 속에 결집되어 있다. 그의 학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르다. 그가 1943년 4월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 에스페란토 관련 글들을 빼고는 그의 연구 대부분은 나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머물게 되면서 그의 학문적 연구는 인문사회분야까지 확장된다.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는 한낱 나비 연구가이자 곤충학자에 불과했던 그는 제주학 연구를 거치면서 단순한 곤충학자가 아니라 자연, 인문,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통합학자가 되었다.

석주명은 세상이 제주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는 제주도의 가치를 깨닫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세상에 알렸다. 그가 해방 직전 2년여 동안 제주도에 체류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시기는 제주4.3 이전이어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서 제주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석주명으로서는 학문적으로 최고 절정기였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기였다. 그리고 제주도를 떠난 직후에는 개성에서, 해방 이후에는 서울에서 제주도 관련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는 해방 직전인 1945년 5월에 제주도를 떠나고, 그 후 2년 동안 제주도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주도총서를 기획하고 발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서울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 <중앙신문>, <조선인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대동신문>, <동아일보>, <조선의약신보>, <독립신보>, <현대일보> 등 십여 종의 신문에 등장하는 제주도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의 '해방 이후 4년 동안의 신문기사로 본 제주도'는 **당시 미국이 제주를 보는 시각,** 제주가 전남에서 분리되어 도로 승격되는 과정, 콜레라 창궐로 390여명 사망, **당시 미국이 제주도를 보는 입장**, 제주4.3의 계기가 된 1947년 3.1절 시위사건에 대한 각 중앙신문들의 견해, 태도, 제주4.3을 보는 미군정의 견해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석주명은 제주도시험장 근무를 마치고 1945년 5월 개성의 본소로 귀임한 직후 제주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6월경 수원 '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1946년 9월 서울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장을 맡으면서 제주도의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제주도총서로 정리해낼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1948년 2월 <제주신보>에 기고한 '조선의 자태'(1948. 2. 6)에서 제주다움과 제주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바삐 한국의 지식인들이 금싸라기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연과학도였던 그가 인문사회학적 연구를 직접 수행하여 마침내 제주도총서를 남김으로써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의 제주도총서 발간 계획은 그의 생전인 1950년 6월에 탈고한『제주도자료집』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저자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月까지 만 2개년여 제주도에 살면서 수집한 제주도에 관한 자료는, 8·15해방 직후 총서로 하여 6권의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신문사출판국의 호의로, 2개월에 1권씩 모두 1년 동안에 필(畢)하려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그만큼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제주도총서의 발간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집 제주도방언집(1947), 제2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1949), 제3집 제주도문헌집(1949), 제4집 제주도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문)(교료[校了]), 제5집 제주도곤충상(채자료[採字了]), 제6집 제주도자료집(탈고[脫稿])으로, 이 제6집에는 제1~5집에 들지 않은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자료란 것이 저자가 주로 잡지에 기고한 기간·미간의 졸편들로서 그 중에는 기고했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도 약간 있다. 이 제6집이 제주도총서의 종권(終卷)이므로 친지의 권고도 있고, 또 연구하는 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말에 졸저목록을 부록으로 넣기로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총서는 그의 생전에 『제주도방언집(1947)』,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1949)』, 『제주도문헌집(1949)』 등 3권만 출간되었다. 나머지 『제주도수필(1968)』, 『제주도곤충상(1970)』, 『제주도자료집(1971)』은 이미 집필이 끝나거나, 활자가 뽑히고 교정이 완료되었지만, 그가 한국전쟁으로 졸지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완간되지 못하고 유고로 남았다가 여동생 석주선의 노력으로 1971년에야 완간되었다. 아래에서는 그의 제주도총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제주학의 선구자로서 석주명의 진면목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그가 남긴 나비 채집기 중 일본어로 된 것을 번역하여 수록하고 또 그의 유품과 유물을 정리함으로써 추후 그를 기리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Ⅱ. 본 론

1. 『제주도방언집』 분석 및 평가

1) 개요

이 『濟州島方言集』은 石宙明의 첫 제주도 관련 서적이다. 표지 중앙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濟州島方言集』이라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로 「石宙明 著」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1949년 「石宙明 著」가 위에 인쇄된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이나 『濟州島文獻集』과는 다른 점이다. 발행처는 뒤표지에 「서울신문社出版部刊行」이라 되어 있다. 신문 제호인 '서울신문'이 그대로 쓰인 점이 특이하다. 속표지는 표지와는 달리 『濟州島方言』이라 되어 있으며, 판권장에는 표지와 똑같이 『濟州島方言集』이라 표기되어 있다. 출판 사항은 세로로, '西紀 1947年 12月 25日 印刷/西紀 1947年 12月 30日 발행, 臨時定價 250圓/著者 石宙明/發行者 河敬德/印刷者 金元植/發行處 서울신문社出版部'로 되어 있다. 전체 188면이다.

이 책은 '제1편 濟州島方言集(7~94면), 제2편 考察(95~136면), 제3편 隨筆(137~188면)' 등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차는 아래와 같다.

序

第1篇 濟州島方言集
ㄱ~ㅎ

第2篇 考察
第1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의 共通語
第2章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의 共通語
第3章 濟州島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第4章 濟州島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第5章 濟州島方言과 半島 代表의 4方言

第6章 濟州島方言中全羅道・慶尙道・咸鏡道・平安道等諸地의 方言과
一致하고 所謂標準語와는 相異한 諸語
第7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의 共通語
第8章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第9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第10章 濟州島方言과 咸鏡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第11章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第12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第13章 濟州島方言과 他4方言의 相關度
第14章 濟州島方言과 半島 方言3個式을 組合해서 吟味함
가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나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咸鏡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다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咸鏡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라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마 本章의 總括
第15章 濟州島의 北部語及 南部語와 半島各地方言의 關係
가 北部語와 各地方言의 共通語
나 南部語와 各地方言의 共通語
다 本章의 總括
第16章 濟州島方言 中 朝鮮 古語인 것
第17章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島方言
가 濟州島方言 中 蒙古語와 關係있는 것
나 濟州島方言 中 支那語와 關係있는 것
다 濟州島方言 中 滿洲語와 關係있는 것
라 濟州島方言 中 日本語와 關係있는 것
라 本章의 總括
第18章 參考文獻
後記

第3篇 隨筆

‘목차’와 본문을 비교할 때, ‘제17장 나’의 ‘濟州島方言中支那語와 關係있는 것’이 본문에는 ‘濟州島方言中中國語와 關係 있는 것’으로, ‘支那語’가 ‘中國語’로 바뀌어 있다.

‘제1편 濟州島方言’에서는 7,012 어휘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편 考察’에서는 무려 18장의 내용으로 다른 지역 방언과의 비교는 물론 蒙古語를 비롯하여 中國語, 滿洲語, 日本語 등과 비교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제3편 수필’에서는 378개 표제항에 따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2) 내용

속표지 다음의 ‘序’(3면)에서 ‘해방 후 우리말을 찾는 데 분망한 사실, 1947년 6월에 탈고한 사실,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감사’ 등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序

1943年 4月부터 1945年 5月까지 滿 2個年餘를 筆者는 濟州島에서 生活할 機會를 가졌다. 京城帝國大學附屬生藥硏究所 濟州島試驗場에서 勤務하였었는데, 專門하는學問外에 틈틈이 蒐集한 濟州島資料의 하나가 이것이고, 日本帝國主義時代의 末期의 일이라 勿論露骨的으로는 못하였으나, 所謂 大學의官吏라고해서 比較的 自由로운몸이였든關係로 能率을내었다. 1945年 5月에 開城에 있는 本所로 轉勤할 때도 多幸히 아모損失이 없이 와서 內面的으로 틈틈이整理하다가, 8月 15日 우리民族이 解放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 곧 이것을 表面에 내놓고 整理에奔忙하였었다. 그리고 1947年 6月에 들어와서야 脫稿하게되었으니 이일은 前後 5個年에 亘하야 된 것이다.

이것을 完成하기에는 標準語를 비롯하야 地方語를 敎示하야주신 여러동무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責任을 分明케하기爲하야, 그곳마다 그동무들의 尊名은 記錄하야 敬意를表하였다. 이제 다시 여긔서 感謝의뜻을 表하고싶다.

여긔서 本書의 內容에對하여 조금 記錄하고 싶다. 第1篇方言集의 內容인 語彙는 좀더 長期間을許한다면 좀더 蒐集할 수가 있었겠고 이 第1篇을 基礎로한 第2篇 考察은 諸學者라면 좀더 發展시켰을 것이다. 專門外인 筆者라도 共通方言을 %로 計算해보고도싶었으나 仔細한 것은 專門家에게 밀기로 하고 筆者는 그傾向만 알 수 있는 것으로 滿足하기로하였다.

1947. 6. 25. 서울에서
지은이 적음

이 '序'에 이어서 '目次'를 제시하고, 제1편 간지 다음에 18개 항의 일러두기 성격의 글을 싣고(9~11면) 있다.

(1) 여기 蒐集한말은 筆者의 濟州島生活 2個年間에 島內各處에서 蒐集한것이나, 主로는 涯月面出身張周鉉, 西歸面 好近里出身 金南雲 兩君의助力으로 文世榮氏의 朝鮮語辭典을「텍스트」하야 모흔것이다.

(2) 그러나 筆者의 生活한場所가, 西歸面 吐坪里이니 南部語가 比較的으로 많을 것이다.

(3) 濟州島語는 1方言으로 볼 수 있으나 濟州, 旌義, 大靜의3地方語로 다시 논흘수도 있고, 또 一地方語도 部落마다 多少相違하니 細分한다면 끝이 없다. 그래서 便宜上 上記의 兩君을通하야 系統的으로 漢拏山을 中心으로 北部語와 南部語로 二分하야 蒐集하얐다.

(4) 方言이라해도 單語에 限하지않고 必要에依해서는 語句까지를 包含해서 言語現象全體를 取扱하얐다.

(5) 1語 或은1句에는 1枚의 카드를 使用키로하고 濟州語. 標準語及日本語를 記錄하야 그 資料를 整理하였다.

(6) 濟州島에는 半島에서는 벌서 消滅된「ㆍ」의 發音이 아직 남어있는데, 이것이 濟州島에서는 極히많히 쓰인다. 즉 ㅏ도안이요, ㅓ도안이요, /ㅏ/도안이라, 거진 ㅚ의 發音으로「ㆍ」字를 復活시키는 수박게없었다.

(7) 個年間에 蒐集한카드의 수는 約1萬枚이였으나 重複된 것도 있었고, 僅微의綴字의 相違에 不過한것도 적지 않아서 適當히選定키로 하였다. 다음의表는 綴字選定의 標準이라고 볼 수 있고 卽앞字는 選定된 것, 뒷字는 落選된것들이다. 그리고 同意語는 =로連絡해서 同一한 場所에서 볼수 있도록 하였다. (표 생략)

(8) < , >는 强弱, 大少及頻稀를 意味한다.

(9) 濟州語中 (括弧內)에있는字는 그有無에 不關하고 意味가 같다.

(10) 便宜를 爲하여 反對語는 兩方共히 同一場所에 重複되게 記入하고 連續的語는 最初語 個所에 重複하여 系統的으로 全部를 記入하였다.

(11) 形便에따라 說明語 又는 用例는 附記하였다.

(12) 이 책은 辭典이않이요, 어떤 것은 語尾의 變化같은 것도 실려서 體制가 좋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것을 基礎로 그文法을 歸納함에 便케하였다.

(13) 「〃」의 標는 同上 혹은 同前의 뜻이다.

(14) 半島標準語가 없는 것에는 —를 附하고 말았다. 그러나 약간의 新稱도 附하였다.

(15) 물론 半島標準語로도 通하는 것이 많고 標準語가 一層 廣範圍로 쓰일 때라도 同意語의 濟州語가 있다면 이冊의 目的대로 濟州語만을 使用하였다.

(16) 全體的으로 보아 統一되지 않은點이 많은 것은 筆者도 遺憾히 생각하는 바이다.

(17) 半島標準語中에는 京城出身 徐廷俊, 開城出身 金器重兩氏의 도움으로 記錄한 것이 적지 않다.

(18) 特殊語들은 따로모아 다음의 諸篇을 編輯하였다.
① 植物의 濟州島名
② 動物의 濟州島名
③ 濟州島의 洞里名

'第1篇 濟州島方言集'은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1940)을 텍스트로 張周鉉(涯月面 下加里 出身, 仁同 張氏 後裔, 1920~1975. 그의 조카인 제주대학교 張元碩 교수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제주농업학교를 나왔고, 해방 후 서울약대를 졸업하여 제주와 서울에서 약국을 개업한 바 있다. 한국전쟁 때는 군의관으로 참전하기도 하였다. 서귀포 생약연구소에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제주시교육장을 지낸 張周烈이 그 아우이다.), 金南雲(西歸面 好近里 出身, 光山 金氏 後裔, 1920~1998. 金光協 시인의 부친) 2人을 주제보자로 하여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單語에 限하지않고 必要에依해서는 語句까지를 包含해서 言語現象全體를 取扱"하여 7,012 표제항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濟州語를 標準語보다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까지는 標準語를 앞세우고 이에 대응하는 方言形을 제시하는 것이 주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濟州島方言이라는 하나의 지역 방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ㄱㄴㄷ별 표제항 수는 다음과 같다.

ㄱ-121	ㄴ-433	ㄷ-595
ㄹ-3	ㅁ-585	ㅂ-761
ㅅ-888	ㅇ-795	ㅈ-796
ㅊ-241	ㅋ-118	ㅌ-143
ㅍ-187	ㅎ-347	총-7,012

'ㄹ'부의 3 어휘는 '락태(약대), 롱낭=농낭=우박(녹나무), 링금(사과)' 등이다.

'第2篇 考察'의 내용을 목차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구분의 편의를 위하여 목차 앞에 ■표를 달았다.)

■第1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의 共通語

여기서 全羅道方言은 "光州 부근서 流用하는" 것이며, 光州 출신 張亨斗氏의 도움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濟州語・全羅道語・標準語' 3단 구성이며, 언급된 표제항은 785개 항이다. 이 가운데는 '濟州語와 共通語로 볼 수 있는 것' 445항, '濟州語와 全同하다고 볼 수 있는 것' 340항이다.

■第2章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의 共通語

여기서 慶尙道方言은 "大邱 附近서 流用하는" 것이며, 大邱 출신 白甲鏞氏 夫妻의 도움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濟州語・慶尙道語・標準語' 3단 구성이며, 언급된 표제항은 859개 항이다. 이 가운데 '제주어와 공통어로 볼 수 있는 것' 521항, '제주어와 全同하다고 볼 수 있는 것' 338항이다.

■第3章 濟州島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여기서 咸鏡道方言은 咸鏡道 "朱乙 附近서 流用하는" 것이며, 朱乙 출신 尹京烈氏 夫妻의 도움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濟州語・咸鏡道語・標準語' 3단 구성이며, 언급된 표제항은 740개 항이다. 이 가운데 '濟州語와 共通語로 볼 수 있는 것' 412항, '濟州語와 全同하다고 볼 수 있는 것' 328항이다.

■ 第4章 濟州島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여기서 평안도방언은 평안도 "平壤 附近서 流用하는" 것이며, 平壤 출신의 筆者 자신과 夫人 그리고 동생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濟州語·平安道語·標準語' 3단 구성이며, 언급된 표제항은 274개 항이다. 이 가운데 濟州語와 共通語로 볼 수 있는 것' 156항, '濟州語와 全同하다고 볼 수 있는 것' 118항이다.

■ 第5章 濟州島方言과 半島 代表의 4方言

이 장은 앞의 '第1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의 共通語, 第2章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의 共通語, 第3章 濟州島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第4章 濟州島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을 종합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계'는 필자가 추가한 내용임)

구분	全羅道方言	慶尙道方言	咸鏡道方言	平安道方言
濟州語와 共通	445	521	412	156
濟州語와 全同	340	338	328	118
계	785	859	740	274

곧 "大體로 濟州島方言에는 全羅道及慶尙道의 分子가 最多量이 混入되여있고, 다음으로 咸鏡道와 相當히 關係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平安道와는 가장 關係가 적은 것을 알수가 있겠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 第6章 濟州島方言中全羅道·慶尙道·咸鏡道·平安道等諸地의 方言과 一致하고 所謂標準語와는 相異한 諸語

여기서는 18개 어휘를 들고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꼭감(곶감)　　골미(골무)　　괄쎄ᄒᆞ다(괄시하다)
기매키다(기막히다)　　냄비(남비)　　다문(단)
댕기다(다니다)　　떠댕긴다(떠다니다)　　매끼다(맡기다)

뽐뿌(펌푸)	서답(빨래)	정ᄉᆞ꾼=장사꾼(장사아치)
쟁길잠(잠길잠)	절렴(전염)	질들다(길들다)
ᄌᆞ취=자취(자췌)	춤(침)	패(파派)

■ 第7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의 共通語

이 7장에서는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慶尙道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標準語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메(가마)'부터 '훤ᄒᆞ다(환하다)'까지 125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第8章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이 8장에서는 '濟州島方言・慶尙道方言・咸鏡道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標準語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심(가슴)'부터 '한질(큰길)'까지 106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第9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이 9장에서는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咸鏡道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標準語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심(가슴)'부터 '화리(화로)'까지 91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第10章 濟州島方言과 咸鏡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이 10장에서는 濟州島方言・咸鏡道方言・平安道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標準語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거들거리다(꺼떡거리다)'부터 '헤우다(헤다)'까지 91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第11章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이 11장에서는 濟州島方言・慶尙道方言・平安道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標準語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메(가마)'부터 '피우다(풍기다)'까지 23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第12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이 12장에서는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平安道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標準語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메(가마)'부터 '푸릿푸릿(푸릇푸릇)'까지 19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第13章 濟州島方言과 他4方言의 相關度

이 13장은 앞의 '第7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의 共通語'부터 '第12章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까지의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方言	共通語數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慶尙道方言	125
濟州島方言・慶尙道方言・咸鏡道방언	105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咸鏡道方言	91
濟州島方言・咸鏡道方言・平安道方言	45
濟州島方言・慶尙道方言・平安道方言	23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平安道方言	19

이 표에 따라, "全羅道와 慶尙道가 가장 關係가 깊고, 버금으로 慶尙道와 咸鏡道, 全羅道와 咸鏡道의 順으로 되고, 平安道가 가장 關係가 옅다. 根元이 相異한 語彙가 들어있는 關係인지 平安道와 咸鏡道와는 多少關係가 있고 平安道와 慶尙道, 平安道와 全羅道는 가장 關係가 적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그리고 제5장과 제13장을 종합하여 "濟州島方言은 가장 全羅道及 咸鏡道방언과 관계가 깊고, 다음으로 咸鏡道에 關聯되여 있다. 그리고 平安道와는 가장 關係가 적고, 더욱이 平安道와 南部朝鮮과의 關聯은 至極히 적다."고 하였다.

■第14章 濟州島方言과 半島 方言 3個式을 組合해서 吟味함

㉮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咸鏡道方言의 共通語

이 절에서는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慶尙道方言・咸鏡道方言' 등 4개 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표준어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심(가슴)'부터 '한질(큰길)'까지 52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濟州島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咸鏡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이 절에서는 '濟州島方言・慶尙道方言・咸鏡道方言・平安道方言' 등 4개 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표준어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거들거리다(써썩거리다)'부터 '축은ᄒᆞ다(누습하다)'까지 12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咸鏡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이 절에서는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咸鏡道方言・平安道方言' 등 4개 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표준어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뎡이다(동이다)'부터 '퇴씨(토끼)'까지 7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濟州島方言과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의 共通語

이 절에서는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慶尙道方言・平安道方言' 등 4개 方言을 '共通方言'으로 묶고, 표준어와 견주고 있다. 곧 '共通方言・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메(가마), 구신(귀신), 눈에훤ᄒᆞ다(눈에 선하다), 셍기다(섬기다), 쟁기(장기)' 등 5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本章의 總括

이 절은 앞에서 본 4개의 절 내용을 표로 제시하여 총괄하고 있다.

方言	共通語數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慶尙道方言・咸鏡道方言	52
濟州島方言・慶尙道方言・咸鏡道方言・平安道方言	12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咸鏡道方言・平安道方言	7
濟州島方言・全羅道方言・慶尙道方言・平安道方言	5

이 도표도 제13장에서 논의한 바와 일치함을 지적하고 있다.

■ 第15章 濟州島의 北部語及 南部語와 半島各地方言의 關係

㉮ 北部語와 各地方言의 共通語

이 절에서는 '共通方言・各地方語・標準語' 3단 구성으로, '게위(거위)'부터 '후리메(두루마기)'까지 22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南部語와 各地方言의 共通語

이 절에서도 '共通方言・各地方語・標準語' 3단 구성으로, '가개비(청개구리)'부터 '후리매(두루마기)'까지 35개의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本章의 總括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나열된 어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 분	공통어로 볼 수 있는 것	全同한 것
北部語와 半島地方語의 共通語數	22	12
南部語와 半島地方語의 共通語數	35	28
北部語와 全羅道方言의 共通語數	10	6
南部語와 全羅道方言의 共通語數	10	9
北部語와 慶尙道方言의 共通語數	10	4
南部語와 慶尙道方言의 共通語數	10	7

이 도표에서, '①濟州語南部에 半島諸地方語와 共通되는 말이 一層 많다. 즉 北部에는 交通關係로 一層標準語가 많이 流入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②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은 같은 程度로 가장 많이 混入되어 있고 다음으로 咸鏡道와 相當히 關係가 깊고 平安道와는 가장 關係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咸鏡道方言과 平安道方言이 南部에 意外로 적지 않다. ④北部에서는 平安道方言은 흔적조차 볼 수 없고 다음으로 咸鏡道方言이 微弱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 第16章 濟州島方言 中 朝鮮古語인 것

이 16장에서는 유래한 어휘를 '濟州語・古語・現代標準語' 3단 구성으로, '가라믈(검은말)'부터 'ᄒᆞᆫ일(한일)'까지 200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 第17章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島方言

㉮ 濟州島方言 中 蒙古語와 關係있는 것

이 절에서는 張慶燮・趙善一 두 분의 도움으로, '濟州語・蒙古語・標準語' 3

단 구성으로, '가라ᄆᆞᆯ-하라모리-검은말'부터 'ᄒᆞᆯᄉᆞᆯᄒᆞ면-ᄒᆞᆯᄉᆞᆯ-건뜻하면'까지 240개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 濟州島方言中 中國語와 關係있는 것

이 절에서도 張慶燮·趙善一 두 분의 도움으로, '濟州語·中國語·標準語' 3단 구성으로, '고치젤-졘(매미)-작은매미·도료'부터 '확확-콰이콰이-쌀리'까지 53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 濟州島方言 中 滿洲語와 關係있는 것

이 절에서도 張慶燮·趙善一 두 분의 도움으로, '濟州語·滿洲語·標準語' 3단 구성으로, '가라ᄆᆞᆯ-카라모린-검은말'부터 '태젼ᄒᆞ다-타이첸-태기밧고나르다'까지 22개의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濟州島方言 中 日本語와 關係있는 것

이 절에서는 '濟州語-標準語' 2단 구성으로, '가내-안내'부터 '후로-목욕탕'까지 50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 本章의 總括

이 절은 마지막 장인 17장의 총괄로 다음과 같은 언급하고 있다.

濟州語와 "관계있는 外國語로는 蒙古語·中國語·滿洲語·日本語 등"을 들 수 있는데, "量으로나 質로나 蒙古語는 斷然 濟州島方言의 한 큰 基本要素로 되어 있고 本島가 元의 勢力下에 있었을 때에 漢族도 적지 않게 入島하였든 關係로 漢語의 影響도 적지 않다. 특히 馬에 關한 말로는 滿蒙兩語가 많이 輸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點에 對해서는 이미 小倉進平氏의 論한바도 있다(大正13年, 昭和5年). 拔出된 日本語의 數는 滿洲語의 數보다는 많지만은 이것들은 最近에 輸入된 것들이요 基本的의 것들도 많으니 濟州島方言乃至朝鮮語에 影響될 바 至極히 적다."(131~132면)

■ 第18章 參考文獻

參考文獻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되다. 金澤庄三郎의 『廣辭林』부터 平山泰正의 『內鮮滿漢 東洋大辭典』 등 88개의 參考文獻을 들고 있다.

‘第2篇 考察’의 마지막으로 4개 항의 ‘後記’를 싣고 있다.

後記

이상으로 끝을 맺기로 하니 아래와 같은 不足感을 느낀다.

(1) 語彙 蒐集에 더 노력할 것. 더욱이 山北部 즉 濟州邑을 중심으로 한 北部語 蒐集에는 一層 노력할 것이다.

(2) 一層 완성할려면은 旌義를 중심으로 한 東部語, 大靜을 중심으로 한 西部語도 蒐集하야겠고 적어도 大靜語만은 추가하야 된다.

(3) 동시에 半島 代表 諸地의 方言辭典을 작성하야 比較硏究에 편케하야 한다.

(4) 될 수 있으면 音標 文字를 사용할 것이고, 여기서는 취급치 않은 南方諸語와도 비교할 것이다.

‘第3篇 隨筆’에서는 ‘가마귀’부터 ‘힌 밥주리와 고치 밥주리’까지 378개 표제항에 따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 표제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마귀, 가마귀 똥케우리듯, 가슴의 語源, 가져오다, 각씨가 아싸우면 처가집 주먹낭도 아싸워흔다, 갈째의 古語, 갈이, 감옷, 감저, 강 누엉 자젠, 강올싸. 갓다의 古語, 갑다, 깨와 쇠, 깻묵, 거지, 써머타, 게나제나, 게우리, 鷄鳴, 고기잡이, 고노(河野六朗)씨의 濟州島方言觀, 고룸쿨, 고무래, 고총(古冢), 고치잴과 왕잴, 쏙대기, 곤(접두사), 곰팡, 쏨치, 곽, 광산쾅, 쫭. 괴기, 구덕, 구뭄 일뢰선 보럼 우친다, 굴메=그르메, 쑴본다, 굿한다, 굿다, 쒕쒕, 그년의 ᄇᆞ름, 그득의 古語, 기둥의 古語, 기러기의 語源, 기시린 도야지가 ᄃᆞ라맨 도야지 타령흔다=쌍얼쳉이가 외얼쳉이 타령흔다, 기아=기와, 깃쌰원, ᄀᆞ대, ᄀᆞ라봅서, ㄴ과 ㅇ, 나(어미), 郎可朔其, 나것 일코 나함박 버른다, 나맛심, 나와너, 난지와 나니고구 난지노 히도다가, 납헤치, 넹바리, 년(접미어), 노루의 語源, 논다는말, 농립모, 누어서 지름썩 먹기, 눈다, 느티나무, ᄂᆞ물, 놈쎄, ᄊᆞ와 ᄐᆞ, ᄡᅳ→ᄐᆞ, 다래끼, 다투다, 高橋亨氏 蒐集의 民謠, 단지, 당오백 절오백, 대머리, 대죽, 大門, 代表的 民謠, 댕댕이덩굴, 떡, 돗잠에 개쑴, 돗추념, 돗풀아흔냥 개풀아닷돈ᄒᆞ니 양반인가, 돌당 바도 ᄆᆞᆯ방위, 돌래떡, 돔박낭, 돔박생

이, 돗치, 動物의 幼生의 名稱, 똥뀐다, 돼지, 되미(鯛), 됴료(蛸蟟), 등지, ᄃᆞᆨ발그리듯, ㄹ의 初音語, 마눌의 濟州語, 마디의 古語, 마음의 變遷, 말라리아, 말슴의 古語, 말(馬)의 種類, 말젯(접두어), 말축, 망아지의 語源, 망태기, 매, 매미의 濟州語, 머돌, 머루의 語源, 머리와 대가리, 먹는말, 멩게낭, 멩마구리, 모관놈, 摹瑟浦, 母音三角에 位置되는 ᄋᆞ음, 목산지대, 몫의 濟州語, 무낭, 무당의 名稱, 무사, 무숫기, 물롯, 물미와 세미, 물오름, 民謠, ᄆᆞ쉬, ᄆᆞ쉬의 나이, ᄆᆞᆯ랑소, ᄆᆞᆯ망, ᄆᆞᆯ발이 저즈야 잘 산다, 바가지, 바구니, 바농 젼등이 ᄌᆞᆯ라매여 바농질 헤여지나, 바다(海), 바람, 바람의 語源, 바위, 발 막아 능나, 방뚱의 아웁은흔 사름, 方言, 방울, 밧의 良否, 밧의 語源, 버금, 버렝이와 생이, 벌 집 거시다, 벙어리의 濟州語, 뼁, 베염고장, 벼룩의 語源, 便所 兼 豚舍, 뼘, 병신말, 병신소, 복, 복닥낭, 본향, 奉天水, 父母와 子女의 關係를 말하는 名詞, 부-애, 불임질, 불알, 비ᄊᆞ럽다, 비바리, 비온 날 쇠ᄎᆞᆼ지갓치, 悲鳴의 말, ᄇᆞᆨ개기와 ᄇᆞᆺ개기, ᄇᆞᆨ금, ㅆ→ㅅ, 사농, 사농캐 언똥 들어먹듯, 사닥다리, 사름 잇수까, 사이의 古語, 산뒤, 산물, 살찻보리거쥭차 먹은덜 씨아시사 한 집에 살랴, 삼승할망, 삼춘, 三神人名考, 상자, 새끼, 새우의 語源, 석, 石坡, 선흘, 城邑里, 城板岳, 셋(접두어), 셍완, 소, 소의 語源, 소도리, 소매, 속, 속았소이다, 손으로 강알 막듯, 손자의 古語, 솔낭, 솥, 수질, 首神房, 숭눙, 숭어 뛰면 복쟁이 뛴다, 쉬, 시로미, 시루의 語源, 시집, 씨름, 식게 먹으레 간다, 植物名, 新舊面名, 神山說, 실푼간에 선썩, 심방, 심방나비, 심방의 名稱, 十二支에 依한 사람의 名稱, ᄉᆞ리비, ᄉᆞ방, 솔오름, 숫도덕분에 나팔불기, 아오제(弟)의 古語, 아이아(兒字)의 古語, 아편의 濟州語, 안반, 안즌방이ᄉᆞᆺ, 앙살운 암캐갓치 앙앙ᄒᆞ지 마라, 애기씨와 년, 앵도의 濟州語, 야로꼬쩨, 야마시(山師), 야이, 語尾, 어비어비, 御乘生岳, 어연간하다, 어질선, 얼럭소, 엇수다, 에미일흔 송애기, 여드레 팔십리, 女子의 名稱, 엿, 영등ᄉᆞᆯ, 瀛洲, 예반초, 예산이 파산이라, 예수, 小倉進平博士의 朝鮮語方言의 硏究(1944), 小倉進平博士의 濟州島方言觀, 오그랭이글ᄌᆞ, 오돌쏙, 오롯과 느릇, 오름, 溫突과 燃料, 瓦浦, 왕,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語, 牛角, 牛耕, 牛島, 牛馬 부릴 때 내는 소리, 牛色의 欠點, 우자, 웃쓰릇놈, 유마, 유자의 語源, 陸地人에게 判異한 말의 例, 이렁, 이슬에 큰 사름, 이영 기영 저영, 이월ᄇᆞ름에 가문소샐이 오그라진다, 蟻項, 離虛島, 인항이, 咽喉의 痙攣, 日本語에서 由來한 濟州方言, 입덧나는 現象, ᄋᆞ, ᄋᆞ音韻 分布, ᄋᆞ音의 變할만한 素質, ᄋᆞ音과 ㅇ音, 자굴, 자리회, 左右便, 짜다, 짜다와 차다, 잠자리, 장겐쏘, 장남, 장쿨내비, 전어, 絶壁, 제코도 못 쓰는 것이 남의 코 쓸랴고 흔다, 濟犬, 濟涼, 濟馬와 才馬, 濟州, 濟州島方言과 半島諸方言의 方言과의 關聯, 濟州島方言과 朝鮮 古語, 濟州島方言에 關한 文獻, 濟州島方言의 語彙, 濟州島方言의 特徵, 濟州島神歌, 濟州島와 蒙

古, 濟州島의 別稱, 濟州의 別稱, 조개, 조건, 조근(접두어)와 새끼(접미어), 照里劇, 趙藷, 조칵매기 ᄇᆞ비듯, 종달새, 주제, 중숭, 中止한다는 말, 지나가는 비, 지대, 지름떡 먹기, 지ᄉᆞ기 닥글만 ᄒᆞ다, 地歸島, 支那語에서 由來한 濟州方言, 地名, 地方婦女의 性格을 나타내는 民謠, 地實, 진달래, 진드기, 찔레나무, 짐병, ᄌᆞ밤낭, ᄌᆞ배기, 참새, 遮歸, 妻父와 妻母, 체(篩), 초기, 鞦韆의 方言, 친척의 濟州語, ㅋ으로 變한 ㅌ 或은 ㅍ, 칼의 古語, 코끼리의 語源, 코대에 바농 세암직이 쏠 성어린다, 코시, 콜과 쿨, 쿨, 큰(접두어), 탈, 耽羅의 語源, 탕수, 터앗, 터진 항에 물 지리듯, 토수, 特異한 接尾語, 팽, 포겥, 퐁낭, 풍덩이, 風神, 風神祭, 픈다, 학(鶴), 한냥, 할미옷, 향유초, 허멩이 문세, 허벅, 호미, 酷暑 酷寒의 表現, 화본, 확확, 흔들흔들, 힌 밥주리와 고치 밥주리

이들 표제항 가운데는 'ㄴ과 ㅇ', 'ㅺ→ㅅ', 'ᄋᆞ音韻 分布', 'ᄋᆞ音의 變할만한 素質', 'ᄋᆞ音과 ᄋᆡ音', 'ㅋ으로 變한 ㅌ 或은 ㅍ' 등 語學的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隨筆文學'으로서의 '隨筆'이 아닌 일종의 '言語隨筆'임을 알 수 있다.

3) 평가

첫째, 해방 이후 한국인 최초의 방언 자료집이다.

방언 자료집은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上卷, 1944), 河野六郎의 『朝鮮方言學試攷』(-鋏語考-, 1945) 등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 石宙明에 의해 한국인 最初의 方言資料集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方鐘鉉 교수가 서울신문(1948년 3월 12일자)에 발표했던 글은 실은 감동적이다.(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1989, 136-137에서 재인용함)

> 신년 벽두에 조흔 책이 나왓다.
>
> 방언은 즉 우리말의 일부분이오 다만 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우리말인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말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반드시 이 방언의 중요함을 느끼는 것이니 사라서 활용되는 실제어를 응용할수가 잇고 죽어서 이미 문헌화한 古語를 이것에 의하여 밝힐수도 있는 것이다.
>
> 그런데 이번에 전문이 다른 이 동물학자의 손에서 가장 흥미를 쓸고 잇는 제주도의 방언이 집대성된 것은 과연 경탄을 마지안는 일이며 또 이 방면

전문가에게도 크게 충동을 주엇스리라고 밋는다

이 책은 단순히 방언학자가 꾸민 방언집만이 아니다 그 목차에 나타나 잇는 것으로 알수 잇거니와 제1편이 方言集이요 제2편이 방언의 考察이오 제3편이 방언의 수필로 되어 그 방언집에서 우리는 제주도방언의 사전으로 이것을 인용할수가 잇스며 그 고찰에서 우리는 他方言과 비교의 결과를 엿볼수가 잇고 그 수필에서 우리는 흥미잇는 가운데 이 방언의 지식을 자세히 할수가 잇게 되었다

여기서 이 방언집이 우리의 方言學上에 장차 가저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귀하다 語彙며 音韻 방면은 물론이오 제주도 방언의 문법까지도 이것에 의하여 조성될수가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가치 우리에게 學的資料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일반으로 편익을 주는 점에서 이 책은 실로 귀하다고 할 것이다

끗트로 이 방언집의 맨마지막 페이지에 실려잇는 수필단어한개를 그대로 소개하고 이것을 마추려고 한다

호미. 濟州語로 '호미'라면 육지의 '낫'(鎌)을 의미하고 조선 어민이 흔히 쓰는 '호미'는 제주도에는 없다 육지서 쓰는 '호미'와 같이 쓰고 形狀도 近似한 것은 '골개' 혹은 '골갱이'란 것인데 호미의 날이 자루와 같이 좁게 되여 갈고리 비슷이 되어있다. 돌이 많고 흙이 輕鬆한 곳에서 除草하는 데는 이 형상이 유리할 것이므로 자연 이런 變形의 農具가 생겼을 것이다

이와갓틈으로 이 方言隨筆은 동시에 濟州島의 一般을 알려는 이의 조흔 재료도 된다.

둘째, 방언형을 앞세운 자료집이다.

방언 자료집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자료 배열도 표준어를 앞세우고 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을 제시하였다.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上卷, 1944)나 河野六郎의 『朝鮮方言學試攷』(-鋏語考-, 194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石宙明은 방언형인 濟州語를 앞세우고, 이에 대응하는 標準語形을 제시하고 있다. 方言形을 앞세운 것은 새로운 시도로, 이후 박용후의 『제주방언연구』(1960)나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研究』(자료편, 1962)(물론 이 자료집 전편은 방언형을 앞세우고 있으나, 후편은 표준어를 앞세우고 있음)도 방언형을 앞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1995)의 『濟州語辭典』이나 개인 제작의 자료집도 모두 방언형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石宙明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셋째, '濟州語' 명칭을 사용했다.

石宙明의 자료집이나 수필 등에서 '濟州島方言'이나 '方言' 또는 '地方語'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濟州語'나 '濟州島語'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濟州語'인 경우,『濟州島方言集』의 어휘 배열은 '濟州語'와 '標準語'로 구분하여 그 밑으로 해당 어휘들을 나열하고 있다.『濟州島資料集』의 목차에서는,「農業 關係의 濟州語」「林業 關係의 濟州語」「畜産 關係의 濟州語」「海産 關係의 濟州語」등 '濟州語'가 겉으로 드러나게 사용하고 있다. 어휘 나열인 경우는 어김없이 '濟州語'를 항목 명칭으로 쓰고 그 아래로 방언형을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濟州語'란 명칭은 일본인 학자 小倉進平이 1913년「濟州島方言」에서 사용한 용어다.

> 濟州島には朝鮮の古語が存在して居ないか。島國に數百年前の古語が存して居ることあるは旣に前にも述べた通りである。まだよく調べて見ぬが濟州島にも必ず此の事があるに違ひない。自分が思ふに京成語の'來る'といふ語は '오와', '오시고'などとなつて오の語幹に何等い附屬物が無いが命令法になると'오나라'といふ樣に'ㄴ'の分子が突然侵入して來る。どうも不思議である。然るに濟州語では '오람수다', '오람서', '오람저'の樣に多くの場合に'ㄹ'の分子が出て來る。此の'ロ'が卽ち京成語の'ロ'に當るので、濟州語は寧ろ朝鮮語の古形を存して居るものではないかと思はれる。これはほんの一例であるが、よく調べたら幾ら澤山あるか解ないだらうと思ふ、(『朝鮮及滿洲』69호, 1913:58)

> (제주도에는 조선의 옛말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섬나라로 수백년 전의 옛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다. 아직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경성어의 '오다'라고 하는 말은 '오와', '오시고' 등이 되면서 '오' 어간에 어떤 부속물이 없지만 명령법이 되면 '오나라'처럼 'ㄴ'이 갑자기 삽입된다.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런데 제주어에서는 '오람수다', '오람서', '오람저'처럼 대부분의 경우 'ㄹ'가 들어간다. 즉 이 'ㄹ'가 경성어의 '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어는 오히려 조선어의 古形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잘 조사해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문이 풀린 거라고 생각한다.)

石宙明의 '濟州語'라는 명칭은 '참고문헌'에 小倉進平의 「濟州島方言」(『朝鮮及滿洲』, 大正2年, 3-5월호, 1913)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濟州語'란 명칭은 石宙明을 거쳐, 1995년에 제주도가 발간한 『濟州語辭典』에서 명명한 바 있다. 2009년 그 후속 작업도 『改正增補 濟州語辭典』이라 표제어를 달고 있다. 한편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주어'를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로 정의하여 쓰고 있다.

넷째, 관용 표현 자료까지 포함하였다.

이는 '일러두기' 성격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方言이라 해도 單語에 限하지 않고 必要에 依해서는 語句까지를 包含해서 言語現象 全體를 取扱하였다." 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어는 물론 어절, 활용형, 관용구, 속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ㄱ'부에서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가마귀똥케우리듯
- 가오랏수다(다녀왔습니다)/간오랏수다(다녀왔습니다)
- 각시가 아까우면 처가칩 주먹낭도 아까워흔다
- 깜막이져버렷다
- 갠첼나무래고 챈젤나무랜다
- 거지치안이흔체
- 게구제구=게나제나
- 게메말이우다(그러게말이요)
- 고개ᄀᆞ닥거리다(고개 끄덕거리다)
- 고개드렁메다(목뒤 까지걸처메다)
- 고냥터졋다
- 괏쟉섯다(곤두섯다)
- 고기낙근다(고기잡는다)
- 쇠떡먹기=지름떡먹기(식은죽먹기, 약과먹기)
- 쇠염시냐(쓸냐)/쇠우라(쓸이라)
- 구뭄일뢰선보럼우친다(수무일에 오기시작한 비 눈은 다음달 보름날 까지 끗하지 안는다)
- 굴메튼다(그네 뛴다)
- 쑬려안는다(쑬어안는다)

- 굼지나다(금나다)/굼지ᄀᆞᆯ르다(갑을작정하다)/굼지치다(호가하다)
- 숨박그다(침배트다)
- 굿올리다(북돗다)
- 궁냥설는다=궁냥ᄒᆞᆫ다(궁네한다)
- 귀씻미쳣다(잡귀가 들엇다)
- 귀튀우는소리(변죽울리다)
- 쒸와준다(쒸어준다)
- 글러먹다(ᄉᆞᆯ혀먹다)
- ᄉᆞᆯ릴탕(湯)
- 금우루센다(검흐르다)
- 기시린도야지 ᄃᆞ라멘도야지타령ᄒᆞᆫ다
- 씨와입다=포입다(껴입다)
- ᄀᆞ라봅서(말좀하십시오)
- ᄀᆞ람써(말하고 잇다)
- ᄀᆞ목갓다/ᄀᆞ묵그다
- ᄀᆞᆨ겁ᄒᆞᆫ사름(갑쌉한 사람)
- 쌋싹안ᄒᆞᆫ다(움쑥안하다)

小倉進平의 『朝鮮語方言の研究』(上卷, 1944)에는 '~한 모양이다'는 항목이 하나 올라 있을 뿐이다.

다섯째, '남부어'와 '북부어'를 구분하였다.

'일러두기' 성격의 글에 따르면, "筆者의 生活한 場所가, 西歸面 土坪里이니 南部語가 비교적으로 많고", "系統的으로 漢拏山을 중심으로 北部語와 南部語로 二分"하여 수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로, "완성하려면 旌義를 중심으로 한 東部語, 大靜을 중심으로 한 西部語도 蒐集"해야 한다는 것은, 짧은 제주 체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山南과 山北의 文化 差異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언어는 社會의 反影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시대 東道縣과 西道縣, 조선시대 濟州牧·旌義·大靜으로 나눈 삼현 분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언어지리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글 「국학과 생물학」 중 「4. 방언과 곤충」의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 곤충상에 의한 육지 구분, 즉 곤충 분포에 따른 육지 구분은 인위적인 구분과도 도저히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구분선은 대륙을 중단(中斷)도 하고 소지역에 있어서도 행정구역과는 일치가 안 된다. 또 비교적 분포가 넓은 곤충 종류는 동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산지(産地)에 따라 지방적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지방에 나는 같은 종의 곤충에 있어서도 그 종류의 개체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만하면 방언과 곤충 사이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지방차와 개체 차이로 보아 공통점-이 많아서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연구할 수도 있겠고 또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해방 전에 경성대학 제주도시험장에 2개년여나 체재해 있었는데, 제주도의 독특한 방언을 들을 때 곧 방언과 곤충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전공으로 하는 나비류를 종별로 지도상에 분포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방언에도 응용하여, 약간의 단어를 선택하여 그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려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문헌을 약간 조사하는 중 이 방법은 벌써 Gilliéron이 불란서 언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일본에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음을 알고는 불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 80~81면)

아마 이런 생각이나 구상은 그의 나비 분포도 작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헌을 약간 조사하는 중 이 방법은 벌써 Gilliéron이 불란서 언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일본에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음을 알고는 불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는 언급에 이르러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섯째, 濟州語와 다른 方言 또는 外國語와의 比較이다.

그는 濟州島方言을 全羅道方言, 慶尙道方言, 咸鏡道方言, 平安道方言 등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濟州島方言에는 全羅道方言과 慶尙道方言의 要素가 多量 混入되어 있고, 다음으로 咸鏡道方言도 相當히 關係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平安道方言과는 가장 關係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다만 비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는 하지만 濟州島方言을 다른 方言과 비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 있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濟州島方言을 蒙古語・滿洲語・中國語・日本語 등과 비교를 하였다. 『濟州島方言集』과 『濟州島資料集』에서 비교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濟州島方言集	濟州島資料集	비 고
몽고어	240/(251)	184/(190)	張慶燮・趙善一
지나어(중국어)	53	31	〃
만주어	22	16	〃
일본어	50	49	-
마래어	-	33	-
비도어	-	15	-
안남어	-	12	-

비교언어학의 입장에서 볼 때 '마래어, 비도어, 안남어'와의 비교는 자연스럽지 못한다.

또 다른 방언 또는 외국어와 비교하는 '考察'에서는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고 있다는 점도 독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점도 돋보이는 점이다.

일곱째, '言語隨筆'의 개척이다.

『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 첫머리에 "나의 滿 2個年 間의 濟州島 生活(1943~1945)을 中心으로 濟州島에 關하여 내가 본것 들은것 읽은것들을 適當한 題目을 붙잡아 隨時로 카드에 記錄한것이 있는데 其中에서 濟州島 方言에 多少라도 關係된것"(139면)을 모아 '隨筆'이란 이름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곧 '言語隨筆'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그 주요 대상이 되고, '濟州島 方言에 多少라도 關係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삼춘**. '삼촌'의 뜻임은 勿論이요 '삼촌댁'보고도 '삼춘'이라면 되니 便利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삼춘'은 親密한어른의 呼稱에도 廣範圍로 使用할 수

가 있는 말이니 대단히 便利한말이다.(164면)

牛馬부릴 때 내는 소리.

왕: 山北서 소를 停止시킬 때 하는 소리
화-아-ㅇ: 山南서 〃
왕왕: 소의 方向을 變할 때 하는 소리
어려려려: 말의 方向을 〃
이ᄅᆞ: 말의 動作을 催促할 때 하는 소리 즉 '이라'(174면)

자리회. 자리는 濟州島 特産이라고 볼만 하고 여러 가지로 料理해서도 먹지만 普通은 회로 해서 먹은 것이 普遍化하였는데 特히 南部에서 發達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회를 만드는 法은 頭部와 內臟의 一部를 一刀에 切棄하고 다름엔 鰭들을 切棄해서 양념한 찬 된장국에 넣서 먹는다. 양념엔 깨, 초, 마눌, 파 等을 使用하고 외같은 것도 넣는다. 자리회 먹으러가자 하면 밥과 양념만 가지고 海岸에가서 회를 만들어 副食物로삼아 먹는다. 자리는 곳 變하는 고기다.(177면)

진드기. 濟州島는 진드기의 섬이랄 만큼 진드기가 많은데 其種類는 세가지다. 1은 丸型이고 濟州말로 '부구리', 2는 扁型으로 '진독' 或은 '진둑', 3은 小型이고 若干 긴 것으로 '서미역'이라고 한다.(183면)

푼다. 標準語 '판다'의 뜻임은 勿論이나 '아들딸 장가 시집 보낸다'를 '아들딸 푼다'라고하니 掠奪結婚의 遺風을 말함일까.(187면)

4) 과제

石宙明 스스로도 '후기'에서, "語彙 蒐集에 더 노력할 것", "旌義를 중심으로 한 東部語, 大靜을 중심으로 한 西部語도 蒐集하야겠고 적어도 大靜語만은 추가", "半島 代表 諸地의 方言辭典 작성", "音標 文字를 사용", "南方諸語와도 비교"도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과제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補完 作業이 뒤따라야 한다.

이 보완 작업은 연구자 개인 또는 기관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연구자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주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보충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濟州語辭典』을 비롯하여 『改正增補濟州語辭典』을 발간한 바 있으나 이 후속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石宙明(1947:185)은 몇 접두사에 대하여, "'큰(接頭語). '큰-, 맏-'의 뜻. 순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하여 그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재구성해 보이면 <표 1>과 같다.

<표 1> 석주명이 제시한 접두사와 차례

2	3	4	5
큰-	큰-	큰-	큰-
조근-	셋-	셋-	셋-
	조근-	말젯-	큰말젯-
		조근-	조근말젯-
			조근-

<표 1>에 따라 '아덜'(아들)을 그 예로 들면, '아덜'이 둘이면 그 순서에 따라, '큰아덜, 족은아덜'이라 하고, 셋이면 '큰아덜, 셋아덜, 족은아덜'이 된다. 셋까지는 고유어 계통의 접두사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넷부터로, 고유어 계통의 접두사가 부족하니 그 보충으로 한자어 계통의 '말젯(末-)-'을 빌려 써서 '큰아덜, 셋아덜, 말젯아덜, 족은아덜'이라 한다. 다섯이면 한자 계통의 접두사 '말젯-'을 '큰말젯-, 족은말젯-' 둘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큰아덜, 셋아덜, 큰말젯아덜, 족은말젯아덜, 족은아덜'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넷인 경우와 다섯인 경우를 조사해 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2> 넷인 경우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1	큰-	큰-	큰-	큰-
2	셋-	셋-	셋-	셋-
3	큰족은-	욱은-	말젯-	족은-
4	족은-	족은-	족은-	말젯-

우선 고유어 계통(유형 1, 2)과 한자어 계통(유형 3, 4)으로 나눌 수 있다. 고유어 계통은 '큰, 족은'은 활용한 경우(유형 1)와 새로운 어형인 '욱은'이 나타나는 경우(유형 2)로, 나뉜다. 또 한자어 계통인 경우는 '말젯'이 내포된 의미 그대로 적용된 경우(유형 4)와 고유어 사이에 끼어드는 경우(유형 3)로 구분된다. 곧 石宙明은 하나의 유형으로 본 것도 실제 조사에서는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다섯인 경우

구분	유형1 동복리	유형2 세화리	유형3 표선리	유형4 가시리	유형5 수망리	유형6 하원리	유형7 구억리	유형8 가파리	유형9 조수리	유형10 도련1
1	큰-	큰-	큰-	큰-	큰-	큰-	큰-	큰-	큰-	큰-
2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3	큰족은-	말젯-	욱은-	말젯-	말젯-	족은-	말젯-	족은-	큰말젯-	말젯-
4	말젯-	큰족은-	(말젯-)	큰말젯-	큰족은-	말젯-	족은-	큰말젯-	족은말젯-	족은말젯-
5	족은-	족은-	족은-	족은-	족은족은-	족은말젯-	족은족은-	족은말젯-	족은-	족은-

다섯인 경우는 무려 10개 유형이나 조사되었다(유형 아래는 대표적인 조사 마을로, 시계 방향으로 제시한 것임). 石宙明이 제시한 것과의 차이는 확연하다.

또 石宙明(1947:152)은 '말젯-'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말젯(接頭語)**. 넷 중 셋째의 뜻이고, '큰말젯'은 다섯 중 셋째, '조근말젯'은 다섯 중 넷째의 뜻이다. 예,

말젯놈, 말젯상제, 말젯아들　　넷 중 셋째
큰말젯놈, 큰말젯상제, 큰말젯아들　　다섯 중 셋째
조근말젯놈, 조근말젯상제, 조근말젯아들　다섯 중 넷째

‘말젯’, ‘큰말젯’, ‘족은말젯’은 <표 2>와 <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말젯:　① 넷 가운데 셋째를 이르는 접미사.
② 넷 가운데 넷째를 이르는 접미사.
③ 다섯 가운데 셋째를 이르는 접미사.
④ 다섯 가운데 넷째를 이르는 접미사.
큰말젯:　① 다섯 가운데 셋째를 이르는 접미사.
② 다섯 가운데 넷째를 이르는 접미사.
족은말젯: ① 다섯 가운데 넷째를 이르는 접미사.
② 다섯 가운데 다섯째를 이르는 접미사.

이 예를 통하여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南部語와 北部語, 東部語와 西部語 등 지역적 차이를 밝히는 일이다.

언어는 일정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三國遺事』의 소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나무숲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같다.(吾君耳如驢耳)”라는 말이 대나무숲이 산수유나무숲으로 변한 다음에는,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吾君耳長)”로 바뀐다. 이는 곧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제주도는 고려시대에는 116년 동안 東道縣과 西道縣 2현 체제였다. 이 2현 체제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濟州牧, 旌義縣, 大靜縣 3현 체제로 근 500여년 동안 이어진다. ‘돌하르방’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크기나 모양이 상이한 것도 행정 체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 행정체제는 언어에서도 分界線으로 작용하여 東西 差異를 만들고 있다. ‘물때’라든가 ‘문어’, ‘톳’만 보아도 東西 差異가 확연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주어의 실제 발음을 기록하는 일이다.

方言은 口語를 그 生命으로 한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石宙明 자신도 "音標 文字를 사용"할 것을 提起하고 있다.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다. 소위 아래아[ㆍ]의 발음, 음운 변화도 고려하면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폭낭'의 경우 그 발음은 [퐁낭]이다. 'ㄴ' 앞에서 'ㄱ'은 'ㅇ'으로 변화하는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퐁낭]으로 발음되나 표기할 때는 '폭낭'이어야 한다. '폭낭'의 열매를 '폭'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폭낭'은 '폭'이라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렇다고 발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구술채록을 할 때 녹음 파일은 물론 비디오 촬영도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 '아래아'를 발음할 때의 입 모양 등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그 이상 교육적 효과는 없을 것이다. 濟州語를 채록할 때 전사, 녹음, 영상 자료 구축은 필수 사항이다.

넷째, 다른 방언과 비교 시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무엇을 비교할 때는 그 비교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濟州島方言集』 제2편 考察에서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시된 7,000여 어휘를 비교하는 일은 품이 드는 일이다. 기초어휘 350여 개를 비교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물론 이 경우도 도출되는 결과는 비슷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언어와의 비교는 共通祖語에서 分化한 언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石宙明의 비교는 共通祖語에서 分化한 蒙古語, 滿洲語는 물론 이에서 벗어난 中國語, 比島語, 安南語까지 비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섯째, 濟州語와 關聯한 蒙古語 語彙 目錄이다.

石宙明은 濟州島方言과 蒙古語를 비교하여, "어휘 7000여개중 蒙古語에 關係된 것은 拔記하면 實로 240에 達한다"(130면) 하였다(실제 어휘 수는 251개이다). 240개 蒙古語 目錄에 대하여 이기문 교수는 "대충 보아도 의문을 던져주는 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제시된 몽고어 단어들 중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차용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예들이 눈에 띈다. 대명사의 '나', '너'와 몽고어 '미니', '치니'(屬格形)의 연결, '이신디'의 '디'와 몽고어 '디'(處格接尾辭)의 연결, '저디'(저곳)와 몽고어 '나디'(칼가 nad인 듯, 몽고문어 naɣadu)의 연결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물'(馬)과 몽고어 '모리'(mori), '아방'(父)과 몽고어 '아바'(aba), '어멍'과 몽고어 '어머'(eme)는 차용어가 아니라 同源語로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목록에는 '蒙古式 地名'이라 하여 '가소름, 가시낭봉오지, 간드락' 등 20여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무어라 말하기조차 어렵다."(『國語語彙史硏究』, 1991:168)라고 언급하고 있다.

蒙古語로 제시된 어휘들에는 '맹맹, 멩막멩막, 자글자글, 탕탕, 텀불랑, 확확' 등 擬聲語와 擬態語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굿사라'는 '비켜라'라 하는 뜻이라면 몽골어로는 '자마스'가 될 것이며, '놈쎄'(무)의 몽골어는 '차간 만징', '마농'의 몽골어는 '송긴'이다. '부섭'은 『훈민정음』 '용자례'에 나오는 '브섭'(爲竈)으로, 이를 몽골어로 표현한다면 '갈 토고' 또는 '톨가'가 될 것이다.

또 '소본'은 한자어 '소분'(掃墳)으로, "오랫동안 외지에서 벼슬하던 사람이 친부모의 산소에 가서 성묘하던 일"을 말한다. '손또매'의 '또매'는 일본어로 '묶음'의 뜻을 지닌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일곱째, 어원 문제다.

'제3편 수필'에는 "~ 語源"이라는 제목의 글이 많다. 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심방' 등 몇 어휘를 보자.

> **심방의 명칭**: 村山智順氏에게 의하면 尋訪(shin pang)은 神房(shin pang)에서 유래하였고 神房은 僧房이 轉한 것 같다 하고 이 名稱은 咸北, 濟州島等地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분명 '심방'이고 또 '神房'이 咸北에서 쓰인다고 하나 咸北 어느 地方인지 알 수가 없다.(『濟州島方言集』, 168)

> **심방**. 陸地의 '무당'의 뜻이고 男女가 다 있어 世襲的 職業이며 賤民에 속한다. 村山智順氏에 의하면 '尋訪'(shin pang)은 '神房'(shin pang)에서 유래

하였고 '神房'은 '僧房'이 轉한 것 같다고 하고 이 名稱은 咸北, 濟州島 등지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분명히 '심방'이고 또 '神房'이 咸北에서 쓰인다고 하나 咸北 어느 지방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語源은 同音語인 馬來語의 simbang(不可信의 뜻)일 것으로 생각된다. (『濟州島 隨筆』, 54)

이 두 내용에 따르면, 濟州語 '심방'은 馬來語 곧 말레이어에서 온 것이 된다.

『월인석보』와 『능엄경언해』에도 '심방'이 나타난다. 특히 『능엄경언해』(1461,8권) '巫祝'의 협주(夾注), "巫ᄂᆞᆫ 겨집 심방이오 祝ᄂᆞᆫ 男人 심방이라"는 구절에 '심방'이라는 어휘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현용준(『濟州島巫俗資料事典』, 1980:885)은 "심방이란 말은 무가에선 '신의 성방(神-刑房)'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神房'의 자음동화인 듯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신의 성방'이 '신방'으로 줄어들고, 이 '신방'이 '신방>심방>'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ㄴ+ㅂ'이 'ㅁ+ㅂ'됨은 'ᄒᆞᆫ쁴>함께', 'ᄒᆞᆫ보로>함부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야로ᄉᆞᆼ떼', '장겐ᄲᅩ'는 어떤가?

야로ᄉᆞᆼ떼. 이 말은 濟州島서 全般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西歸面 法還里에서만 들은 말인데 아이들의 말로 『야~우섭다』의 뜻이다. 이 말은 蒙古語에서 由來한 것으로 蒙古語로도 그 發音 그대로이고 아이에게 限하는 것도 아니고 一般的으로 쓰이는 『야~ 우섭다』의 뜻이다.(170)

장겐ᄲᅩ. 大槪 4人 以上 時에는 이 標準語의 『장겐ᄲᅩ』를 使用하고 少數時는 『털락쇼시』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蒙古語이다.(177)

'야로ᄉᆞᆼ떼'는 "야~ 무섭다"('우섭다'는 '무섭다'의 오기로 보임)라면 蒙古語 '무섭다'는 '아아마루'라 한다. 아이들이 말할 때는 '이~이~이~'라고 하는데, "야로ᄉᆞᆼ떼"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만일 '우섭다'가 '우습다'라면 이에 대응하는 蒙古語는 '이헤르테이'이다.

표준어로 인식하고 있는 '장겐ᄲᅩ'에 대응하는 蒙古語를 '털락쇼시'라고 했는데, 몽골에는 아예 '가위바위보' 놀이가 없다. 손가락 내밀기 놀이가 있는데, 이를 蒙古語로 '뎀베'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 '솔오름'에 대하여, 石宙明 스스로 "全體가 蒙古式의 地名인듯싶다."가 "무슨 뜻일까."로 수정한 內容 變化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솔오름(米岳)**. 西歸面에 있는 山名인데 濟州式으로 發音한다면 '쏠오름'이라야 되는데 '솔오름'이라 하니 이 '솔'은 分明히 '米'의 뜻은 아니다. '솔오름'이란 全體가 蒙古式의 地名인듯싶다.(『濟州島方言集』, 169)

> **솔오름(米岳)**. 西歸面에 있는 山名인데 濟州式으로 發音한다면 '쏠오름'이라야 되는데 '솔오름'이라 하니 이 '솔'은 分明히 '米'의 뜻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濟州島 隨筆』, 130)

'語源'의 문제는 쫀쫀한 검토가 필요하다.

石宙明의 『濟州島方言集』은 여러 과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방종현 교수가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學的資料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일반으로 편익을 주는 점에서 이 책은 실로 귀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평가는 지금도 유효하다.

2.『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분석 및 평가

1) 개요

이 책은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제2권에 해당하며, 1949년 3월 30일 서울신문사 출판국에서 초판(46판, 252쪽) 발행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겉표지에는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영어명: The Life Measure of the Inhabitants of the Ze Zu Islands(Quelpart Island)로 되어 있고, 판권지에는 표지의 제목 중에서 영문 제목이 없다. '濟州島人口論'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책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의 목차는 총 3編으로 되어 있고 제1편은 2장으로, 제2편은 16장으로, 제3편은 별도의 장이 없다. 부록으로 '双童의 調査'를 수록하였다.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2편이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편과 부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석주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본서는 제주도의 인구 문제를 필자가 自己流로 조사한 것인데, 제1편에 의하여 조사연구의 방법을 알 수가 있겠고, 제2편에 의하여 각 부락의 인구 상태가 밝혀지고, 제3편에 의하여 제주도 전체의 인구 문제의 槪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의 末部에 부록으로 '双童의 조사'를 附하였는데, 이것은 본서의 내용을 검산해 준 것과 같은 결과로 의의가 있다.' 이처럼 본서의 각 편과 장들 그리고 부록은 긴밀한 연관 속에서 배치되었다. 본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第1編 緖論
第1章 緖言
第2章 調査硏究의 方法

第2編 各論
第1章 西歸面吐坪里
第2章 西歸面法還里
第3章 西歸面新孝・下孝里

第4章　朝天面咸德里
第5章　朝天面橋來里
第6章　舊左面上道里
第7章　舊左面松堂里
第8章　表善面城邑里
第9章　濟州邑吾羅里
第10章　翰林面明月里
第11章　大靜面大靜
第12章　安德面和順里
第13章　南元面衣貴里
第14章　表善面兎山里
第15章　翰林面楮旨里
第16章　翰林面龍水里

第3編 總括
(附錄) 双童의 調査

2) 내용

제1편 서론 앞에 목차에 없는 두 편의 글이 실려 있다. 하나는 제목이 없는 짧은 글로 4.3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문 초록이다.

4.3 관련 짧은 글에서 석주명은 4.3으로 대다수의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된 결과 1944-45년의 중산간 마을을 다루고 있는 본서는 그 의의가 더욱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즉 그는 지난 5년 사이 인간 생활에서 가장 큰 변동이 있었고 그 영향이 제주도에 큰 영향을 끼쳐서 이 책을 발행하던 당시까지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주도로 이상 지역의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룬 토평리, 교래리, 송당리, 상도리, 오라리, 명월리, 의귀리, 토산리의 제1구, 저지리 등의 부락 기록은 벌써 역사적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위 마을들이 4.3으로 큰 피해를 입어 마을 기록이 사라졌을 것인데 본서는 5년 전 그 마을의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기록이 되고, 또 출판과 동시에 고전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석주명이 이 글을 쓴 시기는 1949년 2월 19일이다. 주지하듯이, 당시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많은 마을이 불태워졌던 시기이다. 당시 석주명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비극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서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다른 하나는 영문 초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서의 총괄적인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싣고 있다.

(1) 제1편 서론

가. 제1장 서언

석주명은 서언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그는 1943년 4월 경성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에 부임하여 해방 직전까지 2년 남짓 제주도 생활을 하였다. 기존의 인구 조사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석주명은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비교적 인구이동이 없는 마을들을 생물학적으로 조사하여 그 마을의 생명의 양을 측정하려는 목적에서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 특정 마을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16개 조사 마을은 개별적으로도 의의가 있고 전체로도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각 면장, 구장, 반장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에 대해 사례하고 있다.

나. 제2장 조사연구의 방법

이 장에서는 본인이 수행한 조사 연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가 조사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표를 설명한다. 그가 16개 마을의 생명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조사표 양식은 다음 쪽에 제시하였다.

이 조사표에 대해 설명하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왼쪽 것은 조사표 양식을

1) 석주명은 제주도에서는 자녀의 사망률이 높아서 도민 중에는 5세까지는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그 결과 출산 신고는 지연되거나 또는 호적에 빠진 아이 혹은 호적 상의 허위 연령이 많아서 호적으로는 제대로 된 제주도 생명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녀의 출산과 사망에 대해서 그 양친에게 묻는 것이었다.

보여준다. 빈칸이 채워진 오른쪽 것은 실제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를 보여준다. 표본의 맨 위 칸 번호는 조사 대상 마을에서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조사 대상 인물의 순서를 말한다. 성명과 연령은 조사 대상 인물의 인적 사항이다. 조사 연월일은 실제 석주명이 그 대상 인물을 조사한 날짜이다.

출산 자녀순을 보면 15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조사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가진 사례가 15명이어서 15칸으로 하였다고 한다. 출산 자녀순의 번호는 조사 대상 인물이 낳은 자녀의 순서이다. 즉 1은 첫째를, 2는 둘째를 3은 셋째를 의미하며 그 이하도 같다. 출산 자녀를 크게 현존자와 사망자로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남녀로 구분하였다.

오른쪽 표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조사 당시 55세의 오씨 성을 가진 남자는 일생에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첫째는 남아였고 조사 당시 35세였고, 생존해 있었다. 둘째는 여아였는데, 3살 때 사망하였다. 셋째, 넷째는 각각 남아와 여아였는데, 이 둘 모두 5살과 3살 나이에 사망하였다. 다섯째는 남아였고, 조사 당시 27세로 살아 있었다. 이하도 같은 방식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존자 연령의 숫자는 조사 당시 나이이며, 사망 연령의 숫자는 사망 당시 나이이다. 오씨가 얻은 12명의 자녀의 성비는 6남6녀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남아 3명과 여아 4명이 조사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진 해인 1944년 당시 그는 3남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번호	성명		연령		조사 연월일
자녀 출산 순	현존자 연령		사망 연령		
	남	여	남	여	
1					
2					
3					

번호	성명		연령		조사 연월일
274	吳○○		55		44.11.11
자녀 출산 순	현존자 연령		사망 연령		
	남	여	남	여	
1	35				
2				3	
3			5		

자녀 출산 순	현존자 연령		사망 연령	
	남	여	남	여
7				
8				
9				
10				
11				
12				
13				
14				
15				
계				
총계				

자녀 출산 순	현존자 연령		사망 연령	
	남	여	남	여
7				3
8		20		
9			6	
10		15		
11			1	
12	12			
13				
14				
15				
계	3	2	3	4
총계	**12**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석주명은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4천여 개 수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사표를 볼 수 없다. 조사표의 행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4천 여 개의 조사표를 토대로 석주명이 작성한 다양한 통계표들이다. 이들 통계표도 의미가 있지만, 최초의 조사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석주명은 자녀의 상황을 완전히 구명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남자로 한정하였다. 부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석주명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남자들은 몇 명의 처첩을 갖고도 불명예로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석주명은 이 점에 주목해서, 여성을 상대로 조사할 경우 자신이 몇 명의 남자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사실 그대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다만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가정은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살고 있고 이들 모두 자녀를 낳았다면 각각에게 1매의 조사표를 주어서 각자의 자녀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식에 의하면 호수와 조사 매수를 보고 그 지역의 가족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호수보다 조사 매수가 월등히 많으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집

안이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호수와 조사 매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거의 모든 집안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임을 의미한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마을은 대가족보다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다수였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도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석주명에 의하면 가정을 이루고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대체로 불구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물은 생식력이 있어서 완전한 개체이니(석주명 강조) 이 자녀의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해서도 자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취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유산이나 사산 등도 제외하였다. 반면 생후 1분이라도 생명이 있었던 경우나 불구자나 정신병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쌍둥이 경우는 두 번 출산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자녀는 출산 순서로 기입하였는데, 부자연스럽게 나이 차가 큰 경우에는 보정하였다고 한다. 남편이 오사카 방면으로 돈벌이로 간 관계로 자녀 간에 나이 차가 크게 나는 일은 흔하였다고 한다.

조사하면서 높은 乳幼兒 사망률은 장래가 되었다. 왜냐하면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출산 신고의 缺無 또는 지연 등으로 가족 수나 연령이 일치하는 가정은 극히 적었다. 그마다 당시는 전시여서 소위 애국반 명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조사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구장과 반장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다만 어려서 죽은 자녀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조사는 한계가 있고, 본 조사 결과보다 실제 유아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으니 비교적 완전한 조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평하고 있다.

각 마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일정 분량의 조사표가 수합되었다. 석주명은 이를 토대로 우선 연령별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이는 해당 마을의 조사표를 연령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만 같은 연령의 피조사자가 둘 이상이면 이를 합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조사표를 보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개별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후대 연구자들이 본서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석주명은 다섯 살을 한 등급으로 하여 위의 연령별 일람표를 재정리한 표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조사자의 연령순에 따라 그들이 얻은 자녀의 현존자와 사망자 수 및 그 비율 그리

고 현존자와 사망자 별 남녀 수 및 그 비율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였다. 각 장의 2절은 '조사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 세 개의 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석주명은 타지에 나간 사람(그는 이들을 외주자 혹은 出稼人이라고 부르고 있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가장 큰 관심은 피조사자의 자녀 상황이지만, 이와 비교 대고하기 위해서는 마을별 인구 구성 및 외주자 통계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부부가 함께 出稼한 경우에도 가족 일부가 남아 있으면 출가인으로 보았다. 다만 가족 전체가 출가했을 때는 이들을 외주자로 즉 그 부락을 떠난 사람들로 보았다. 일제강점기인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많이들 오사카 등지로 가서 일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조사는 1944년 2월 7일부터 1945년 4월 5일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완료하였다.

(2) 제2편 각론

16개 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제2편 각론'은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마을에 대해 하나의 장을 할애하고 있다. 조사 마을은 3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절에서는 해당 마을을 선정하게 된 배경, 그 마을의 유래 및 연혁, 현재 상황, 농어업 상황 및 주요 농작물, 主食 및 음료수 문제, 주요 성씨, 특이한 사실 등을 다루고 있다. 1944-45년 당시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절은 '조사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고, 해당 마을에서 수집한 조사표를 토대로 3개 내외의 표를 작성하여 제지하고 있다. 그 표는 앞서 언급한 연령별 일람표, 이 표를 다섯 살 단위로 묶어서 재정리한 표, 연령순에 따라 자녀의 현존자와 사망자 수 및 그 비율 그리고 현존자와 사망자 별 남녀 수 및 그 비율을 정리한 표 등이다.

3절은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2장에서 제시한 표를 토대로 그 마을의 자녀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그 마을에서 가장 다산인 사람을 소개하고, 이어서 유아 사망률이 높은 당시 상황에서 육아 성적이 좋은 사례와

그 반대인 육아 성적이 제일 나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 당시 신생아의 남녀 비율을 제시하고, 이후 생존자와 사망자의 수 및 그 비율도 제시하였다. 대개 출생 당시에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지만, 성장하면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사망하여 결국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면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주자에 대해서도 고찰하는데, 대개 16-40세의 남자가 많이 出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출가가 많은 만큼 조사 당시 마을의 현존자 성비는 여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3절은 대개 이러한 내용이었다. 이하에서는 각 마을의 특징과 인구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2절은 대부분 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1장 서귀면 토평리(1944. 11.7-25 조사)

① 지역과 연혁: 토평리의 주요 마을은 해안으로부터 3km쯤 되고 해발 100m쯤 되는 곳에 위치하였다. 호수는 300여 호이며, 해안에도 8호가 있었지만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오히려 행정상 다른 마을로 되어 있지만 동쪽의 서상효의 약 80호는 인접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다고 보고 석주명은 이 서상효도 조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서 토평리란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연혁을 간단히 적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성씨로 군위 오씨, 경주 김씨, 제주 부씨를 들고 있다. 마을민의 2/3은 오씨 일족이었다. 석주명이 보기에 토평리는 유서 있는 양반 마을로, 제주도 남부에서 가장 부강하였지만, 신문화가 수입괴고 일본이 침략하면서부터, 또 보천교, 도박, 주색 등이 원인이 되어 점차 해안 마을에 비하여 뒤떨어지기 시작하여 조사 당시에는 빈촌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② 토평리의 상황: 산간마을로 마을민은 전부 농민이었다. 마을 호수는 360여, 인구는 1600명이었다. 토평리도 다른 마을처럼 육지와의 교섭은 적고 오사카 방면과의 교섭은 많아서 외래 풍습이 혼입되어 있었다. 다만 해안 마을과 비교하면 외래풍의 침입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③ 조사 내용: 360여 호의 가호로부터 373매의 조사표를 채집하였다.

④ 고찰: 토평리에서 수집한 373매를 고찰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다산인 기록은 74세의 남자가 한 명의 부인으로부터 15명의 자식을 낳은 것이다. 육아 성적이 가장 좋은 사례는 44의 남자가 한 명의 부인으로부터 낳은 9명의 자식을 모두 성장시킨 것이었다. 가장 육아 성적이 나쁜 사례는 45세의 남자가 4명의 자식을 낳고 한 명도 남기지 못한 것이었다. 78세의 한 남자도 11명의 자식을 낳아 단 한 명만 생존하기도 하였다.

보통 가정의 신생아 수는 6-10명이었고, 남자 한 사람이 일생에 낳은 자녀 수는 평균 6.54명이었다. 석주명은 조사대상 중 고령자의 경우 사망 자녀 수가 적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1인당 산아 수는 6.54명을 넘을 것으로 보았다. 373매의 조사표에 기록된 자녀 수는 1867명이었다. 이 1867명이 태어날 당시 성비 비율은 남아 52%, 여아 48%였다. 그리고 생존자와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 생존자 64%, 사망자 36%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존자 64%의 남녀 비율은 각각 32%로 같았다. 반면 사망자 비율 36%는 남아 20%, 여아 16%로 이루어져서 사망자는 남아의 비율이 높았다. 정리하면 출산 당시에는 남자 52%, 여자 48%의 비율이었지만, 5-6세가 되기 전에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사망함으로써 성장하면서는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를 능가하였다. 사망자는 1-5세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비율이 78%를 차지하였다. 6-10세는 11% 수준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육아 경험이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한편 토평리의 외주자는 80명 정도로 그 비율은 5% 내외였다.

제2장 서귀면 법환리(1944. 12.15-18 조사)

① 전언: 산간 마을인 토평리를 조사한 석주명은 비교를 위해서 해안 마을을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토평리 바로 아래의 해안 마을로 보목리가 있다. 그런데 250호의 소마을이어서 제외하였다. 당시 300호 이상의 해안마을로는 법환리가 유일하였다고 한다. 법환리가 선택된 이유이다.

② 법환리의 상황: 호수 430여, 인구 2,000명이었다. 430호는 주위 약 4km의 평탄치 않은 해안에 비교적 밀집해 있었다. 전부 어민이었고 시국 관계로 농업에도 종사하니 반어반농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자는 전부 해녀였다. 토양은 토평리보다 훨씬 비옥해서 풍요하였다. 그래서 옛날부터 본도 굴지의 대마을이었다고 한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제3위의 마을이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첫째는 김녕(500여 호), 둘째는 두모(400여 호), 셋째가 법환(300여 호)이었다고. 1940년대 상황을 보면 4km 거리에 있는 신흥 도시 서귀포의 발전으로 법환리 마을은 폐퇴된 편이었다. 그러나 법환리 주민 중에는 출가인이 많고 타처에서 성공한 이는 더욱 많았다. 서귀포도 법환리 사람의 세력 범위에 속하였다고 한다. 대표 성씨는 康氏로 호수로나 인구로나 반 이상을 점하였다.

③ 조사의 내용: 430여 호의 법환리 마을에서 채집한 조사표는 393매였다.

④ 고찰: 가장 다산인 기록은 41세의 남자가 6명의 여자로부터 18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었다. 가장 좋은 육아 성적은 63세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로부터 10명의 자녀를 얻어 모두 성장시킨 것이고, 가장 안 된 경우로는 52세의 남자가 4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모두 사망한 경우이다. 또 55세의 남자가 9명의 자녀 중 2명만 생존한 경우도 있었다.

법환리의 경우 남자 1명이 일생 동안 6.26명의 자녀를 얻었다. 393매의 조사표에 기재된 출산 자녀 수는 1983명이었다. 이들의 출생 당시 성비를 보면 남자 52.5%, 여자 47.5%였다. 그리고 이들 중 생존자와 사망자의 비율은 생존 74%, 사망 26%였다. 사망의 경우 토평리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따라서 출산 비율은 남아가 높지만 성장하면서는 여아가 남아를 능가하였다.

사망의 경우만 살펴보면 1-5세 유아 사망이 62%, 6-10세 소아 사망이 12%, 11-15세 소아 사망은 6%였다. 어느 경우에도 남아의 사망률이 여아의 그것보다 높았다. 다만 20-30세의 남자 사망률이 6%로 약간 고율이었다. 이에 대해 석주명은 특별히 분석하지 않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만 적고 있다.

외주자는 234명으로 그 비율은 11% 정도였다. 토평리에 비하면 그 숫자나 비율이 훨씬 높다. 해안마을에서 출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법환리는 토평리보다 사망률과 출산률이 모두 낮았고 특히 사망률이 낮았

다. 출산 정지선(최근 5개년 간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을 조건으로 함)도 토평리는 55·56세 사이에 있는 반면 법환리에서는 67·68세 사이에 있었다. 이에 대해 석주명은 법환리가 토평리에 비해 健全한 부락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환리는 해안 부락으로 산간 부락인 토평리와는 상이하고 가옥의 구조도 일층 발달되었고 사용 水量도 일층 많은 관계로 외관만으로도 정결하고 또 신선한 해산물도 일층 풍부히 섭취하고 있다.' 석주명은 법환리 사람들이 토평리 사람들보다 건강한 이유로, 상이한 조, 풍부한 식부, 신선한 해산물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을을 비교한 석주명은 두 마을의 차이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조사 결과의 차가 너무 심해서 다음에는 서귀면 내의 중간 부락으로 볼 수 있는 신효리, 하효리를 조사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제3장 서귀면 신효·하효리(1944. ⅳ.4-17 조사)

① 전언: 신효리와 하효리는 행정상 2개의 里이지만 석주명은 연속된 마을로, 완전히 한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서 구분할 것이 못 된다고 하여 함께 다루고 있다. 두 마을의 호수는 약 530, 인구는 약 2,700명으로 석주명은 이 두 마을이 산간마을인 토평리와 해안 마을인 법환리의 중간 부락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② 조사의 내용: 4일 간 숙박하면서 조사하였다고 한다.[2] 약 530호의 이 마을에서 채집한 조사표는 583매였다.
③ 고찰: 최고의 다산 기록은 59세 남자가 15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었다. 가장 좋은 육아 성적은 44세 남자가 10명의 자녀를 얻어 모두 잘 키운 것이고, 그 반대는 72세의 남자가 8명의 자녀를 얻어 한 명도 키우지 못한 경우였다.

신효·하효리의 남자 한 사람은 일생 평균 5.83명의 자녀를 얻었다. 신생아의 출생 당시 성비를 보면 남아 51%, 여아 49%였다. 그리고 출생 이후 생존

2) 그렇다면 장 제목에 텃붙인 조사기간의 '4-17'은 '14-17'의 오기일 것이다.

자와 사망자 비율은 각각 75%, 25%였다. 사망자의 성비를 보면 각 연령계급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많다. 그 결과 출산 시 성비는 남아가 조금 높았지만 대체로 35·35세 구간을 경계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게 되었다. 조사 당시 생존자 남녀 성비는 남자 48%, 여자 52%였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 사이에 사망한 경우가 71%에 달하고, 6-10세 구간에는 11%로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훨씬 저하하였다. 어떤 계급 연령에서도 남아의 사망률은 여아에 비해 대체로 높았다. 21-30세 구간의 사망률도 7% 정도로 높았다.

외주자는 249명으로 8% 수준을 보였다. 외주자 249명 가운데는 남자가 205명, 여자는 44명이었다. 출가인 수는 토평리와 법환리의 중간이고, 연령 분포는 두 마을과 일치하였다.

세 마을 조사를 끝낸 석주명은, 토평리, 법환리, 신효·하효리 조사로 서귀면의 사정은 알 수 있지만, 이것만 갖고 제주도 전반을 운운할 수 없으므로 다음에는 서귀면의 반대 편에 위치한 조천면 해안마을 함덕리와 산간마을 교래리를 조사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제4장 조천면 함덕리(1944. x .26-30 조사)

① 전언: 함덕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석주명은, 함덕리가 조천면에서 조천리와 병칭되는 큰 명읍이고 순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함덕리에는 일본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함덕리는 다른 해안마을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민가가 비교적 밀집하여 대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체 호수는 869호였고, 동쪽에 떨어진 72호의 평사동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실제 조사 호수는 약 800호, 인구는 3,67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② 조사의 내용: 약 800호로부터 수집한 조사표는 744매였다.

③ 고찰: 최고의 다산 기록은 55세 남자가 4명의 부인에게서 19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었다. 육아 성적이 가장 좋은 예로는 70세의 남자가 2남7녀를 모두 성정시킨 것이고 그 반대는 74세의 남자가 1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얻고 모두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13명의 자녀 중 여덟째까

지는 모두 남아였고, 이후 5명은 모두 여아였다고 한다. 13명의 아이들은 모두 3살이 되어 죽었다고 한다. 함덕리에서는 1명의 남자가 일생에 7.28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나왔다.

신생아의 성비는 남자 53%, 여아 47%였다. 출생 이후 생존자와 사망자의 비율은 각각 65%, 35%였다. 앞의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성비는 각 계급 연령에서 대체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그 결과 성장함에 따라 그 비율에서 여아가 남아를 능가하게 되는데, 그 경계선은 15·16세 구간이었다. 함덕리의 생존자 성비는 남자 48%, 여자 52%였다. 사망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세 때 사망한 비율이 77%에 달하고, 6-10세의 자녀에서는 10%로 감소하였다. 외주자는 326명으로 그 비율은 대약 8% 수준이었다.

제5장 조천면 교래리(1944. x .31- xi .1 조사)

① 전언: 교래리는 제주도 제일의 산간벽지 마을로 조천에서 남쪽으로 14km쯤 되는 산기슭, 해발 400m의 평야에 위치하였다. 상동과 하동으로 된 당시 교래리의 호수는 57호, 인구 311인이었다. 산벽 마을이지만 교래리는 교통의 요충이어서 오래된 마을이고, 20년 전까지는 200호 이상이었고, 10년 전까지도 100호 이상의 마을이었다고 한다. 음료수는 溜水를 사용하지만,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적고 있다. 부근 토지는 광평하여서 천연의 목장이어서 축산이 상당히 성하였다고 한다.
② 조사의 내용: 55호, 304인으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60매였다.
③ 고찰: 가장 다산의 기록은 48세의 남자가 9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었다. 가장 좋은 육아 성적은 51세의 남자가 4남3녀를 얻어 모두 성정시킨 것이고, 그 반대는 47세의 남자가 1남3녀를 얻어 1남만을 남긴 것이었다.

남자 한 사람이 일생 5.33명의 자녀를 얻었다. 출산 자녀의 남녀 성비는 남아 51%, 여아 49%였다.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은 각각 73%, 27%였다. 이는 법환리와 비슷한 비율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사망자 중 1-5세의 비율이 67%를 달하고 그 이후는 점감하였다.

외주자를 보면 13명으로 그 비율은 약 4%였다. 이는 다른 마을에 비해 대단히 적은 수치였다. 석주명은 그 원인에 대해서, 타지로 이주한 집이 많은 때문이고 이 마을이 퇴폐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

교래리를 조사한 석주명이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래리는 사망률이나 출산률이 낮았다. 결혼도 비교적 늦고 따라서 초산도 늦었다. 이에 대해 조사 인원이 적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교래리는 비교적 건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였다. 토지의 척박 내지 빈곤으로 주민의 결혼 내지 초산이 늦어지고 그것이 낮은 사망률과 출산률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교래리는 약간 특수한 마을이라고 생각한 석주명은 교래리와 같은 환경으로 주민이 훨씬 많은 마을을 조사해보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선택한 마을은 송당리였다.

제6장 구좌면 상도리(1945. ⅰ.29-30 조사)

① 전언: 애초에는 송당리를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송당리에서 해안으로 내려온 마을도 조사할 필요를 느껴서 상도리를 조사하였다. 상도리는 일주도로를 걸쳐서 남북으로 양단되어 있고, 약 130호가 있었다. 옛날부터 이 마을은 100호 내외를 유지하여서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한다. 마을의 생활정도는 중류이며, 양반 마을인 만큼 마을의 하인이 없는 관계로 하인들은 다른 마을에서 왔다고 한다. 또 양반 마을이면서도 시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교육 받은 사람이나 관공리가 비교적 많았다. 그래서인지 다른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혼, 재혼의 풍습도 극히 적은 듯하다고 적고 있다.

② 조사의 내용: 약 130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128매였다.

③ 고찰: 상도리에서는 남자 한 사람이 일생 7.11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나온다. 출산아의 남녀 성비를 보면, 남아 53%, 여아 47%였다. 생존자 및 사망자 성비는, 각각 69%, 31%였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 자녀 사망률이 72%에 달하고 6-10세의 자녀에서는 12%로 줄어든다. 이후 연령 대에서는 훨씬 더 줄어든다. 그리고 각 구간에서 남아 사망률이 여아보다 높은 것은 다른 마을과 같았다.

생존자의 성비를 보면, 남자 49%강, 여자 51%약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출산된 자녀의 성비를 노년기, 중년기, 청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노년기의 경우 남자 55%, 여자 45%, 중년기에서는 남자 53%, 여자 47%, 청년기에서는 남자 52%, 여자 48%였다. 결국 본 마을에서 출산되는 자녀의 성비는 남자 53%, 여자 47%로 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7장 구좌면 송당리(1945. ⅰ.31-ⅱ. 1 조사)

① 전언: 송당리는 고래로 교래리와 병칭되는 유명한 산간마을이지만 환경은 교래리와 해안 마을의 중간형을 띤다고 적고 있다. 송당리는 대수동, 중하동, 상동 및 대장동의 4개 동으로 되어 있지만, 대장동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세 마을을 보면 대수동 50여 호, 중하동 80여 호, 상동도 80여 호로 되어 있었다. 이 세 동의 총호수는 약 220호였다.

음료수는 1km 이상이나 멀리 떨어진 溜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다. 옛날부터 이 마을은 폐퇴하는 기색은 안 보이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 외지에 나가서 교육 받는 사람도 많았다. 전형적인 산간 농촌이지만, 농산물은 각종이 다 풍부하여서 식생활에서는 도내 제일이라 적고 있다. 특히 무는 도내 제일이라고 하여 마을사람들의 자랑거리였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는 덕분인지 주민은 의외로 정결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송당리가 도내 제일의 산자여명한 곳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② 조사의 내용: 약 220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240매였다.

③ 고찰: 송당리에서는 남자가 일생에 약 6.24명의 자녀를 얻었다. 신생아의 남녀 성비를 보면, 남아 50%강, 여아 50%약이었다. 산아의 성비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다른 마을과 다른 양상이었다. 다만 5·6세 가량이 되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역시 다른 마을과 상이한 양상이었다. 신생아의 생존자 및 사망자 비율을 보면, 각각 64%, 36%였다. 생존자의 성비는 남자 48%, 여자 52%였다. 이는 태어날 때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지만 이후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사망함으로써 여아 비율

이 높아진 것이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5세가 83%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점하였다. 6-10세는 6%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낮아졌다.

한편 산아의 성비는 노년기에서는 남자 49%, 여자 51%, 중년기에서는 남자 50%, 여자 50%, 청년기에서는 남자 53%,여자 47%였다. 산아의 성비로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석주명은 남자 50%강, 여자 50% 약으로 함이 무난하다고 적고 있다.

외주자는 86명 정도로 7%의 비율을 점하였다. 16-40세 구간인 청년기의 외주자가 58명을 차지하여 다수를 차지하였다.

제8장 표선면 성읍리(1945. ii .3-4 조사)

① 전언: 성읍리는 애초에 조사 대상 마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주도 동남부 마을이 비어서 그 대표 마을로 성읍리를 선정하였다. 성읍리는 古邑으로 옛날 3군 시대의 군청 소재지였고 폐군 후에도 오랫동안 표선면의 首邑였다. 그런데 일주도로로 인해 약 10년 전부터 경찰관 주재소나 면사무소 등이 표선리로 이전하여서 성읍리는 쇠퇴해가는 흐름이고, 지금은 전형적인 농촌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본 마을은 잡혼, 중혼의 폐가 많고 부부 연령의 차가 20년 이상의 예도 많았다. 그 중에는 30년 이상의 차가 있는 부부도 있어서 옛날의 특권계급의 유풍을 느꼈다고 한다. 또 농촌마을이면서도 소비도시의 모습이 보이고 도박도 성행하였다고 한다. 옛날 관기의 유풍도 남아 있었다. 요컨대 성읍리에는 고문화의 편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토지는 척박하지만 면적이 넓어서 농산물은 비교적 풍부하였다. 전체적으로 마을은 역사가 오랜 만큼 빈촌이 아니라 부촌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음료수는 불편하여서 마을에서 500m 떨어진 溜水를 이용하였다. 성읍리는 1,2구로 이루어졌는데, 원거리에 있는 2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호수는 251호였다.

② 조사의 내용: 조사대상 251호로부터 수집한 조사표는 227매였다.

③ 고찰: 성읍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자는 일생에 5.78명의 자녀를 얻었다. 신생아의 성비를 보면, 남아 53%약, 여아 47%강이었다. 생존자 및 사망자 비율을 보면 각각 68%, 32%였다. 사망자에 국한해서 보면 모든 연령 계급에서 남아의 사망 숫자가 여아보다 많았다. 그 결과 성장함에 따라 여아가 남아를 능가하였다. 성읍리에서는 그 구간이 25·26세 사이에 위치하였다. 생존자의 성비는 남자 48%, 여자 52%로 다른 일반 마을과 비슷하였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가 대부분을 점하여 71%에 달했다. 6-10세에서는 12%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낮다. 이 역시 다른 마을과 비슷한 경향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석주명은 제주도의 남북 양측에서 일치할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마을에서도 대략 일치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 대상 마을은 모두 제주도 동측에 편재해서 서측의 수 개 마을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제9장 제주읍 오라리(1945. ii .24-25 조사)

① 전언: 제주읍에서도 한 마을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심한 석주명은, 비교적 고촌이요 이름 있는 중산간 마을이요 인구 이동도 심하지 않은 오라리를 선정하였다. 오라리는 정실(39호), 牟梧(54호), 사평(78)의 3개 동으로 된 제1구와 연미동(69호), 서(66호), 호월구(52호)의 3개 동으로 된 제2구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정실동과 월구동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사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4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옛날부터 양반 마을이었고 환경적으로는 특기할 것은 없었다. 식료수는 유수이고 원거리에 있어서 불편하였다.
② 조사의 내용: 조사 대상 호수는 267호였고, 채집한 조사표는 309매였다.
③ 고찰: 가장 다산인 기록은 57세의 남자가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17명의 자녀를 얻은 경우였다. 육아 성적이 가장 좋은 사례는 36세의 남자가 38세의 부인로부터 3남4녀를 낳아 모두 생존한 것이다. 그 반대는 54세의 남자가 한 명의 부인으로부터 9자녀를 얻고 2명만 생존하였다. 오라리의

남자 한 사람은 일생 6.03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자녀의 성비를 보면 남아 53%, 여아 47%였다.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은 각각 72%, 28%였다. 출생 당시에는 남아가 많았지만 성장하면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사망하여서 결국 25-26세 쯤에는 역전이 되어 여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생존자의 성비를 보면 남자 48%, 여자 52%를 보였다. 이는 다른 마을과도 같은 결과이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에 사망한 경우가 71%에 달했고, 6-10세에 사망한 경우는 9%로 낮았다. 그 이후에는 훨씬 낮았다. 어느 연령 계급에서도 남자 사망률은 여자보다 대체로 높았다.

제10장 한림면 명월리(1945. ii .27- iii .2 조사)

① 전언: 명월리는 한림면을 대표할 수 있는 중간 마을이다. 최근 관청, 학교 등이 일주도로변의 한림리로 내려가면서 적막한 마을이 되었지만, 옛날엔 지금의 동명, 상명의 두 마을도 포함한 대명월리를 형성하고 성벽까지 둘려 있었고 많은 인재도 배출하였다. 현재 명월리는 상(60호 가량), 중(120호 가량), 하(60호 가량)가 각각 이재한 3개동으로 되어 있다. 동서 1.5km, 남북 3km의 지역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명월리는 동명리를 포함한 것이다. 동명리 역시 상(50호 가량), 중(30호 가량), 하(80호 가량)가 각각 이재한 3개동으로 명월리의 3개동과 대체로 병행되어 있고 특히 하동 두 마을은 완전히 연속되어 있다. 조사 대상 명월리는 옛날의 대명월리에서 상명리를 제외한 지역으로 동서 2km, 남북 3km 지역에 약 420호가 있다.

음료수는 하동서는 제주도에서 첫째 가는 양질이요 풍부한 泉水인데 또 편리도 하다. 중, 상동에서도 溜水만은 아니니 비교적으로 편리한 편이었다. 이 물이 비교적으로 淨潔하여 말라리아 蚊의 발생이 특히 많은 관계인지 민간에는 말라리아가 비교적 많다.

② 조사의 내용: 420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444매였다.

③ 고찰: 가장 다산의 기록은 66세의 남자가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다. 육아 성적이 가장 좋은 사례는 52세의 남자가 52세의 부인으로부터 4남4녀를 얻어 모두 성장한 경우이다. 그 반대는 52세의 남자가 1명의 부인으로부터 7명의 자녀를 얻어 모두 실패한 경우였다.

명월리의 남자는 일생에 5.81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온다. 산아의 성비를 보면 남아 52%, 여아 48%였다. 그리고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은 각각 71%, 29%였다. 사망자는 모든 연령 계급에서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많았다. 그 결과 성장하면서 여아의 비율이 남아를 능가하게 된다. 그 경계선은 10-11세로 나타난다. 생존자의 성비는 남자 48%, 여자 52%였다. 이는 다른 마을과 비슷하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가 대부분을 점하여 69%에 달하였고, 6-10세에서는 12%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훨씬 저하하였다.

외주자는 184명으로 그 비율은 약 8.5%였다. 15-40세 구간인 청소년기의 외주자가 133명으로 다수를 점하였다.

제11장 대정면 대정(1945.iii.13-14 조사)

① 전언: 대정면의 보성리, 안성리, 인성리의 3개 리가 합하여 되어 있다. 3개의 리이지만 연속된 한 마을로 주의 2km여의 옛 성벽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읍이고 옛날에도 그러했던 모양이다. 소위 중간 지대의 양반마을인 구읍인 만큼 환경도 좋고 기분도 좋은 마을이지만 옛날의 유풍은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한다. 보성리는 75호, 안성리는 68호, 인성리는 109호로 모두 252호였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27호를 제외한 225호가 조사 대상이었다.
② 조사의 내용: 225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308매였다.
③ 고찰: 가장 다산인 기록은 53세의 남자가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다. 육아성적이 가장 좋은 사례는 48세의 남자가 4남5녀를 얻어 모두 잘 키운 것이고, 그 반대는 64세의 남자가 7명의 자녀를 얻어 그 중 1명만 생존한 경우였다.

신생아의 성비를 보면 남아 51%, 여아 49%의 비율이었다. 그리고 생존자와 사망자의 비율은 각각 75%, 25%의 비율이었다. 출산 당시에는 남아가 많았지만, 남아의 사망률이 높아서 성장하면서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를 능가하였다. 그 경계 연령은 15-16세 간으로 볼 수 있다. 즉 15-16세 이전에는 남자가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여자가 많았다. 생존자의 성비를 보면 남자 49%, 여자 51%였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가 대부분을 점하여 72%에 달했고, 6-10세에서는 10%로 내려갔다.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낮아졌다. 한편 외주자를 보면 117명으로 그 비율은 약 8%이었다.

제12장 안덕면 화순리(1945.ⅲ.14-15. 조사)

① 전언: 대정과 비슷한 화순리를 선정한 이유는 청년 남자가 많이 죽는 마을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화순리는 대정과 근거리이고 환경도 비슷하지만 음료수가 곳곳에 있는 용천수여서 비교적 편리한 마을이었다. 호수는 303호이고 주민의 약 반수는 양씨가 점하였다. 해안으로부터 산에 걸친 마을이고 옛날부터 양반마을이다.
② 조사의 내용: 303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307매였다.
③ 고찰: 가장 다산인 기록은 74세의 남자가 13명의 자녀를 얻은 사례였다. 가장 좋은 육아 성적은 62세의 남자가 2남6녀를 얻고 전부 잘 키운 것이었고, 그 반대는 65세의 남자가 아홉 자녀를 얻고 8명의 자녀를 잃은 경우였다. 석주명은 화순리의 남자의 경우 일생에 6.17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보았다.

신생아의 성비는 남아 51.5%, 여아 48.5%였다. 생존자 및 사망자 성비는 각각 72%, 28%였다. 사망자의 성비는 각 연령 계급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따라서 출생 당시 성비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지만, 성장하면서 여아의 비율이 높아졌다. 생존자 성비는 남자 48%, 여자 52% 수준이었다. 역전되는 경계 나이는 10-11세 무렵이었다.

사망자 상황을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가 75%를 점하였고, 6-10세가 11%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낮아졌다. 특이하게도 16-25세의 연령대에서

도 사망자는 8%를 점하였다. 외주자는 128명으로 약 8% 수준이었다. 노년기의 외주자는 없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16-40세 구간의 청소년기로 81명이었다.

제13장 남원면 의귀리(1945.iii.27-28 조사)

① 전언: 이전엔 남원면의 首府였지만 10여 년 전에 면사무소나 주재소 등이 일주도로에 있는 남원에 내려간 이래로는 적적한 마을이 되었다. 옛날부터 양반 마을이다. 마을은 대단히 넓고 188호가 산재하였다. 주요 성씨는 군위 오씨, 제주 양씨, 경주 김씨, 제주 고씨 등이었다.
② 조사의 내용: 188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224매였다.
③ 고찰: 남자 한 사람이 일생에 6.78명의 자녀를 얻는 것으로 나왔다. 신생아의 성비를 보면 남아 48.5%, 여아 51.5%였다. 이는 제주도의 일반 마을과는 약간 상이한 결과였다. 즉 출산 당시부터 여다인 경우였다. 그리고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을 보면 각각 63%, 37%였다. 사망자를 좀더 자세히 보면, 1-5세가 70%에 달하여 대부분을 점하였고, 6-10세에서는 12%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내려갔다. 석주명은 의귀리 마을에 대해서, 출산 자녀 성비가 다른 마을과 반대로 여자가 많아서 전형적인 제주도 마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적고 있다.

외주자 수는 102명으로 약 10% 수준이었다. 의귀리에서도 청소년기의 외주자 수가 75명이 되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제14장 표선면 토산리(1945.iii.28-29 조사)

① 전언: 토산리는 다소 환경이 상이한 2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산쪽의 토산리 1구는 옛날부터 토산리의 본거요 정의군 이전 시대에는 토산현이 있던 마을이었다. 약 30년 전까지도 600호 가까이 있었던 대마을이었다. 당시는 가까이 남토산에 좌정한 유명한 토산당으로 인해 무격이 30-40명이나 있던 소비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해안지대의 발

전으로 쇠퇴하는 경향이며 조사 당시에는 약 80호이고, 남토산과 같은 규모의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해안의 토산리 제2구는 소위 남토산으로 옛날에는 한촌에 불과했는데, 해안지대의 비옥함과 유명한 토산당의 인연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조사 당시에는 80호나 되는 마을이 되어 소위 북토산과 상대할 만하게 되었다. 제1구(북토산), 제2구(남토산)가 모두 옛날부터 계급적으로 구별되지 않았고 이는 여타 마을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였다. 두 마을 모두 옛날부터 양반 마을이었고 토산당으로 인해 명성이 높은 마을이었다.

두 마을의 차이점은, 첫째 농업을 보면 해안지대의 남토산이 한층 풍요하였다. 둘째 음료수는 북토산에서는 泉水요, 남토산에서는 湧水이므로, 남토산에는 음료수와 관련 있는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피병이 많았다. 두 마을의 호수는 약 160호였다.

② 조사의 내용: 채집한 조사표는 북토산에서 87매, 남토산에서 81매로 총 168매였다.

③ 고찰: 두 마을에서 가장 다수를 점한 연령 계급은 56-60세의 사람들이었다. 남토산은 북토산에 비하여 출산율은 한층 높고 사망률은 낮았다. 이를 보고 석주명은 남토산이 한층 건강지대라고 판단하였다. 두 마을 신생아의 성비를 보면 남아 51%, 여아 49%였다. 그리고 생존자 및 사망자 비율은 각각 72%, 28%였다. 사망자의 성비는 모든 연령 계급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그 결과 출생 당시 남녀 성비는 51% 대 49%였지만, 성장하면서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그것을 능가하였다. 토산리에서 그 경계 연령은 5-6세 사이였다. 사망자를 자세히 보면, 1-5세가 대부분을 점하여 73%에 달하였고, 6-10세에서는 7%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훨씬 저하하였다. 26-30세 구간은 5%여서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주 인구는 70명으로 그 비중은 약 8%였다. 16-40세 연령 구간인 청소년기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15장 한림면 저지리(1945. iv. 3-4 조사)

① 전언: 석주명이 저지리를 선정한 이유는 오로지 天水만을 식수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天水 이용으로는 제주도에서 첫째가는 마을이라고 적고 있다. 부호가에는 십 수 개의 물항아리를 갖고 있으니 最奧의 물항아리는 마르는 일이 없어서 50년 이상 경과한 물도 희귀할 것이 없었다고 한다. 泉水 등은 여름철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변질되어 마실 수 없지만, 이 天水는 저장하면 곤두벌레 발생 유무에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하면 泉水 이상으로 정화되어서 우량한 음료수가 된다고 적고 있다. 저장항아리는 토기로 적색보다도 흑색의 것이 일층 좋다고 한다. 석주명은 실제로 50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는 물을 시음하였고, 실로 훌륭한 물이어서 놀랐다고 한다.

저지리는 옛날부터 알려진 산간 마을로 2구, 6개 동, 400여 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석주명은 남쪽으로 2km 떨어진 명리동(90호), 서쪽으로 1.5km쯤 떨어진 수동(90호), 북으로 1km 떨어진 북동의 40호를 모두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마을은 비교적 중앙에 밀집한 남동(70호), 동동(50호), 중동(60호) 및 북동의 10호 등 190호였다.

② 조사의 내용: 190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184매였다.

③ 고찰: 조사 결과 남자 한 사람이 일생에 6.72명의 자녀를 얻는 것으로 나온다. 신생아의 성비를 보면 남아 54%약, 여아 46%강이었다. 그리고 생존자 및 사망자 비율은 각각 72%, 28%였다. 사망자의 성비는 모든 연령계급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생존자의 성비를 보면 남자 47%, 여자 53%로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였다. 이렇게 역전되는 구간은 대개 40-41세로 볼 수 있었다.

사망자를 자세히 보면 1-5세가 대부분을 점하여 76%에 달했다. 그 이후에는 훨씬 저하하였다. 다만 16-20세 구간에서 6%의 비율로 약간 고율이어서 주목된다.

외주자는 65명으로 7% 수준이었다. 청소년기의 외주자가 48명으로 다수를 점하였다.

제16장 한림면 용수리(1945. iv .4-5 조사)

① 전언: 조사 대상 용수리는 제1구만이고 그 중에서도 해안에 밀집한 160여 호의 마을로 한정하였다. 용수리 160여 호는 밀집해 있어서 농가가 산재한 제주도의 일반 마을과는 다르고 오히려 육지에서 보는 농촌과 같다고 적고 있다. 해안 마을인 만큼 반농반어였고 여자는 전부 해녀였다고 한다. 음료수는 전부 용수였다. 석주명이 용수리를 선정한 이유는 부근의 차귀도, 와도 기타에 의해서 많은 청년이 사망한다는 전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② 조사의 내용: 160여 호로부터 채집한 조사표는 159매였다.
③ 고찰: 용수리의 남자는 일생에 6.61명의 자녀를 얻는 것으로 나왔다. 본 마을에는 육아 성적이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그 중에는 1남10녀를 얻고 전부 잘 키운 사례도 있었다. 산아의 성비를 보면, 남자 49.%, 여자 50.5%였다. 생존자와 사망자의 성비는 각각 74%, 26%였다. 사망자를 자세히 보면, 1-5세가 대부분을 점하여 75%에 달했고, 그 이후는 훨씬 감소하였다.

외주자는 76명으로 8% 수준이었다. 청년기의 외주자가 60명으로 다수를 점하였다.

(3) 제3편 총괄

제2편에서 다룬 16개 마을의 조사결과를 말 그대로 총괄하고 있다. 제주도의 생명 조사에 대한 석주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다만 바로 앞서 살펴본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조사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론인 만큼 정리해 보았다.

석주명이 조사한 마을은 9면 16개리로 당시 제주 본도의 12면 160개리와 비교하면 10%의 비율이었다. 조사 마을은 인구 이동이 심하지 않고 외래풍도 많이 수입되지 않은 곳이어서 조사 마을 평균은 제주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석주명은 잡혼, 재혼, 중혼 등이 많은 이유를 여성의 경제 활동과 경제력에서 찾기도 하였다. 즉 여자의 경제 활동이 많은 만큼 여자도 경제력을 갖고 있어서 잡혼, 재혼, 중혼 등이 많다는 것이다. 한림면 협재리 같은 마을에서는 초혼 부부는 2할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우선 석주명은 마을의 출산율과 인구 구성을 토대로 제주도민을 다음과 같은 네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제주도민의 연령에 의한 구분

노년기	56세 이상
중년기	41-55세
청년기	15-40세
유년기	15세 이하

석주명이 조사한 16개 마을의 호수와 채집한 조사표 수는 다음과 같았다.

<표 3> 16개 마을의 호수와 조사표 수

마을 이름	호수	조사 표수	조사표/호수
토평리	360여	373	1.0
법환리	430여	393	0.9
신하효리	약530	583	1.1
함덕리	약800	744	0.9
교래리	55	60	1.1
상도리	약130	128	1.0
송당리	약220	240	1.1
성읍리	251	227	0.9
오라리	267	309	1.2
명월리	약420	444	1.1
대정	225	308	1.4
화순리	303	307	1.0
의귀리	188	224	1.2

위 표를 보면 호수와 조사표 수는 전체로 보면 대략 일치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父子가 동일 세대에 사는 대가족을 선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대정이 다소 예외적인데, 석주명은 이를 두고 舊邑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고 적고 있다. 한편 법환리, 함덕리, 성읍리에는 비교적 여성 세대주가 많아서 쇠퇴해 가는 징조를 볼 수가 있다고 적고 있다.[3)]

결혼 연령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별로 없어서 16~20세 사이에 하는 이가 가장 많았다. 대체로 유복한 사람일수록 빠르고, 빈천한 사람일수록 늦었다고 한다. 옛날 양반 집에서는 남자 8~9세에 10년이나 연장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예도 있었지만, 대체로 여자는 5살쯤 연상으로 부모 본위의 결혼이라고 적고 있다. 다만 조사 당시에는 외국풍이 들어온 때문에 40세 미만의 사람에서는 부부의 연령에 심한 차이는 없고 또 近頃에는 대부분이 여자가 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도민의 결혼 연령에 대해서는, 출산 상태 등을 참작해서 남자는 20세 경, 여자는 18세 경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도내에는 결혼에 관한 미신이 많았는데, 석주명은 이를 타파하여야 할 누습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장 다산인 기록은 토평리의 74세 노인이 한 부인으로부터 15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고, 함덕리의 55세 남자는 네 명의 부인으로부터 19명의 자녀를 얻기도 하였다. 육아 성적이 가장 좋은 사례는 용수리에서 11명의 자녀를 전부 성장시킨 것이었다. 그 반대는 함덕리의 74세 노인이 한 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출산하고도 모두 실패한 경우였다.

각 마을에서 남성이 일생 얻은 자녀 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출산율

마을	자녀 수	마을	자녀 수	마을	자녀 수	마을	자녀 수
토평리	6.54	교래리	5.33	오라리	5.96	의귀리	6.78
법환리	6.26	상도리	7.11	명월리	5.81	토산리	6.08
신하효리	5.83	송당리	6.00(6.24)	대정	5.61	저지리	5.92(6.72)
함덕리	7.28	성읍리	5.78	화순리	6.15(6.17)	용수리	6.61

3) 여성 세대주 문제는 제2편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조사 현장에서 얻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 대상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위 표에 의하면 함덕리는 최고, 교래리는 최저, 평균은 6.19이므로 제주도 남성은 일생에 6명 정도의 자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출산 자녀 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석주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첩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남자 본위로 조사한 것, 미혼자는 물론 기혼자라도 자녀를 얻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조사에 넣지 않은 것. 반면 저율인 이유에 대해서는, 노년기 사람들 중에는 출산을 계속하는 이가 적지 않고, 고령자의 자녀 중 사망자는 누락되는 경향이 있고, 도민은 유아 사망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리 상세히 조사해도 기록에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조사 대상 마을의 신생아 성비와 생존해 있는 마을 사람(출가인 포함)의 남녀 성비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성비와 남녀 수의 역전 경계선

마을	출산 성비(남:여)	마을민 성비(출가인 포함)	남녀 수의 역전 경계선
토평리	52:48	49:51	5~6세 사이
법환리	52.5:47.5	46:54	40~41세 사이
신하효리	51:49	48:52	35~36세 사이
함덕리	53:47	48:52	15~16세 사이
교래리	51:49	49:51	15~16세 사이
상도리	53:47	49:51	50~51세 사이
송당리	50강:50약	48:52	5~6세 사이
성읍리	53:47	48:52	25~26세 사이
오라리	53:47	48:52	25~26세 사이
명월리	52:48	48:52	10~11세 사이
대정	51:49	49:51	15~16세 사이
화순리	51.5:48.5	48:52	10~11세 사이
의귀리	48.5:51.5	47:53	0~1세 사이
토산리	51:49	47:53	5~6세 사이

<표 5>에 의하면 출산 당시 성비는 대체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조사 마을의 평균은 남아 52%, 여아 48%였다. 물론 마을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다. 다만 의귀리와 용수리 두 마을은 출생 당시부터 여아의 비율이 남아보다 높았다. 그리고 마을민(출가인 포함)의 성비는 예외 없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평균하면 남자 48%, 여자 52%로 출산 당시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생아의 성비와 살아 있는 주민의 남녀 성비가 역전된 이유는 남자가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출산 자녀 전체 중에서 조사 당시 생존자와 사망자의 비율은 <표 6>과 같다.

<표 6> 출산 자녀 중 생존자와 사망자 비율(남:여)

마을	생존자	사망자
토평리	64(32:32)	36(20:16)
법환리	74(37:37)	26(15.5:10.5)
신하효리	75(38:37)	25(13:12)
함덕리	65(33:32)	35(20:15)
교래리	73(40:33)	37(12:15)
상도리	69(38:31)	31(16:15)
송당리	64(31:33)	36(19:17)
성읍리	68(34:34)	32(19:13)
오라리	72(37:35)	28(16:12)
명월리	71(36:35)	29(16:13)
대정	75(37:36)	25(13:12)
화순리	72(37:35)	28(15:13)
의귀리	63(30:33)	37(19:18)
토산리	72(35:27)	28(16:12)
저지리	72(38:34)	28(16:12)
용수리	74(35:39)	26(15:11)

위 표에 의하면 출산 자녀의 70%가 생존하여 마을 주민(출가인 포함)을 구성하고, 나머지 30%는 사망하였다. 70%의 생존자는 마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63%에서 75% 구간에 위치하고 그 성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30%의 사망자도 마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25%에서 37% 구간에 있었다. 사망자가 최저인 곳은 25%의 신하효리와 대정, 26%의 법환리와 용수리 등이었다. 이들 마을은 모두 음료수 공급이 비교적 편리한 곳이었다.

반면 사망률이 최고인 곳은 37%의 의귀리, 36%의 토평리, 송당, 35%의 함덕리 등이었다. 이들 마을은 모두 음료수 공급이 불편한 곳이었다. 다만 토평리에는 최근 수도 시설이 되었으니 장래는 그 사망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사 대상 인원이 극히 적은 교래리를 제외하면 어느 마을이나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평균 15:14이다. 즉 출산 당시 남성 52%, 여성 48%의 비율이었던 것이 출생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16%의 비율로, 여자는 14%의 비율로 30%가 사망하였다. 그 결과 마을민(출가인 포함)의 성비는 남자 48%, 여자 52%로 역전되었다.

사망자의 연령별 상황을 보기 위해서 <표 7>를 작성하였다.

<표 7> 자녀의 연령별 사망률(%)

마을	1~5세(남:여)	6~10세	계
토평리	78(43:35)	11	89
법환리	62(34:28)	12	74
신하효리	71(37:34)	11	82
함덕리	77(43:34)	10	87
교래리	67(29:38)	8	75
상도리	72(39:33)	12	84
송당리	84(45:39)	6	90
성읍리	71(41:30)	12	83
오라리	71(40:31)	9	80
명월리	69(36:33)	12	81
대정	72(38:34)	10	82

마을	1~5세(남:여)	6~10세	계
저지리	76(41:35)	6	82
용수리	75(44:31)	6	81
평균	73(39:34)	10	83

위 표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자녀의 사망률은 어린 계층일수록 높아서 대부분은 1-5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 비율은 평균 73%에 달하였다. 5-10세도 10%에 달했다. 사망자의 80% 이상은 10세 이전에 세상을 떴다. 1-5세 사망률의 높은 순서는 84%의 송당리, 78%의 토평리, 77%의 함덕리 순이었다. 반면 1-5세 사망률의 낮은 순서는 62%의 법환리, 67%의 교래리, 69%의 명월리 등이었다. 조사 대상 인원이 적은 교래리를 제외하면 어느 마을에서나 사망률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석주명은 유아의 사망률이 높은 것도 높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사망률은 어린 계층일수록 높았고, 항상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았다. 그 결과 출산 당시의 성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지만, 성장하면서 여자는 남자를 따라잡고 후에는 능가하였다.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다가 능가하는 경계선을 석주명은 남녀 수의 지배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녀 수의 역전 경계선이 보다 적절할 듯하다.

1-2세의 사망률과 3-5세의 사망률 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고, 엄마의 분만 경험 내지는 육아 경험도 자녀의 사망률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석주명은 사망률이 높은 유아의 죽음은 대체로 신경증상을 동반하는데 하절에는 소화기병, 동절에는 호흡기병이 원인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청년기의 낮지 않은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석주명은 폐결핵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당면 문제는 소아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인데, 이것은 위생 사상의 보급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 제주도에는 피부병이 매우 많고 기타의 병자도 많은데, 이는 바람과 輕鬆한 토양과의 관계, 식수의 결핍, 온난 등 제주도의 자연이 배출한 것으로 제주도가 결코 건강지대가 아님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석주명은 또한 높은 사망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도민이 술과 담배를 과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 오락이 전무한 지역이니 이것을 금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왜 남자가 많이 죽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별문제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단지 도민의 비위생적인 생활과 남존여비의 풍습을 그 주요 원인의 일부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인구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호수와 인구 관계를 표시한 것이 <표 8>이다.

<표 8> 호수와 인구의 관계(1호당 인수)

마을	호수	인구						계
		현주자 수			외주자 수			
		남	여	계	남	여	계	
토평리	360	778 (2.2)	867 (2.4)	(4.6)	74 (0.2)	6 (-)	(0.2)	(4.8)
법환리	430	818 (1.9)	1145 (2.7)	(4.6)	200 (0.6)	34 (0.1)	(0.6)	(5.2)
신하효리	530	1193 (2.3)	1485 (2.8)	(5.1)	205 (0.4)	44 (0.1)	(0.5)	(5.6)
함덕리	800	1618 (2.0)	2053 (2.6)	(4.6)	296 (0.4)	30 (-)	(0.4)	(5.0)
교래리	55	145 (2.6)	159 (2.9)	(5.5)	11 (0.2)	2 (-)	(0.2)	(5.7)
상도리	130	296 (2.3)	361 (2.8)	(5.1)	56 (0.4)	3 (-)	(0.4)	(5.5)
송당리	220	607 (2.8)	607 (2.8)	(5.2)	61 (0.3)	25 (0.1)	(0.4)	(5.6)
성읍리	251	508 (2.0)	605 (2.4)	(4.4)	66 (0,3)	7 (-)	(0.3)	(4.7)
오라리	267	656 (2.5)	795 (3.0)	(5.5)	86 (0.3)	18 (0.1)	(0.4)	(5.9)
명월리	420	883 (2.1)	1090 (2.6)	(4.7)	150 (0.4)	34 (0.1)	(0.5)	(5.2)

마을	호수	인구						계
		현주자 수			외주자 수			
		남	여	계	남	여	계	
의귀리	188	415 (2.2)	549 (2.9)	(5.1)	87 (0.5)	15 (0.1)	(0.6)	(5.7)
토산리	160	350 (2.2)	443 (2.8)	(5.0)	53 (0.3)	17 (0.1)	(0.4)	(5.4)
저지리	190	389 (2.0)	480 (2.5)	(4.5)	51 (0.3)	14 (0.1)	(0.4)	(4.9)
용수리	160	337 (2.1)	515 (3.2)	(5.3)	61 (0.4)	15 (0.1)	(0.5)	(5.8)
계 or 평균	4689	10253 (2.2)	12718 (2.7)	(4.9)	1637 (0.4)	328 (0.1)	(0.5)	(5.4)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서에서 취급한 호수와 인구는 제주도 전체의 약 10%였다. 제주도의 1호는 5인 가족이고 매호에서 약 절반의 출가인을 내고 있다. 여기에는 취급치 않은 가족이 모두 나간 출가인도 고려하면 제주도에는 출가인이 없는 집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가족을 가진 호수가 많은 곳은 6.3명의 대정을 수위로, 5.5명의 교래리, 오라리 등이었다. 반면 가족수가 적은 곳은 4.4명의 성읍리, 4.5명의 저지리 등이었다.

호수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석주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가. 대정에는 대가족이 많은 점으로 단연 제주도 제일이요 번영의 양상이 보인다. 나. 다음은 오라리, 의귀리, 교래리 순이다. 다. 용수리에는 특별히 여자가 많은 것을 알겠다. 라. 성읍리에는 여자 세대 주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가족이 많은 점으로 단연 제주도 제일이요 쇠퇴해 가는 징조가 분명히 보여 이 마을의 폐퇴적 풍습이 새삼스레 양해된다. 마. 그 다음은 함덕리, 법환리의 순이다. 바. 저지리와 토평리에는 비교적 소가족이 많다.' 이상의 내용 대개 본서에 실린 통계표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석주명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출가인은 그 4/5를 남자가 점하고 대부분은 대판 방면에서 활약하고 일부는 동경 방면에 가 있었다. 여자는 출가인의 1/5를 점하고 해녀로서 일본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적고 있다.

석주명은 각 마을의 인구 구성 및 외주자 통계표를 그림으로도 만들어서 제

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6개 마을 모두가 인구 구성에서 조롱박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가족 모두가 나간 출가인이 매우 많고, 1-5세 연령대는 만 5년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즉 석주명은 가족이 모두 나간 출가인은 이주자로 취급하여 외주자에는 산입치 않았고 연령은 보통 나이(만 나이 아님)에 의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함덕리, 의귀리 및 저지리에서 1-5세 계급이 최다수를 점한 것은 이 세 마을의 출산율이 모두 심히 높은 때문이었다. 더욱이 법환리, 신하효리, 함덕리, 성읍리, 대정, 토산리 등에는 이출자가 심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도리의 26-30세, 저지리의 41-50세가 극히 적은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6개 리의 인구 구성 및 외주자를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표 9> 16개 리 총계의 인구 구성 및 외주자 통계표

연령	현주자 수		외주자 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96-100	1	2		
91-95	5	14		
86-90	27	58		
81-85	100	144		
76-80	98	137	-	1
71-75	249	365	1	-
66-70	310	445	1	2
61-65	394	482	6	1
56-60	426	506	17	1
노년기 소계	1610	2153	25	5
51-55	406	510	18	6
46-50	484	650	63	6
41-45	406	581	98	8

연령	현주자 수		외주자 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6-30	338	628	246	30
21-25	545	930	455	49
16-20	926	1222	272	82
청년기 소계	2553	4164	1308	202
11-15	1606	1534	40	44
6-10	1617	1606	36	24
1-5	1517	1520	49	33
유년기 소계	4794	4660	125	101
합계	10253(41%)	12718(51%)	1637(7%)	328(1%)
총계	**22971(92%)**		**1965(8%)**	

외주자는 거의 전부가 출가인이요, 유년기의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간 경우였다. 외주자 중에 포함된 유학생은 극소수였디. 외주자 내지 출가인의 대부분을 점하는 연령 계급은 <표 10>에서 볼 수 있다.

<표 10> 출가인의 대부분을 점하는 연령 계급

마을	연령대	마을	연령대	마을	연령대
토평리	16-40	송당리	16-40	의귀리	16-55
법환리	16-45	성읍리	26-55	토산리	16-55
신하효리	16-55	오라리	16-45	저지리	16-45
함덕리	16-40	명월리	16-45	용수리	21-45
교래리	16-40	대정	16-55		
상도리	16-50	화순리	16-45	계	16-55

위 표에 의하면 제주도의 출가인은 청년기 및 중년기가 그 대부분을 점하는데, 특히 청년기에서 극성하고 중년기에 들어서는 점차로 귀경하여 노년기이 들어서는 전부가 귀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출가인 가운데 16-55세가 점하는 비율을 정리하면 <표 11>이 된다.

<표 11> 16~55세 사이의 출가인 비율(%)

마을	남	여	계	마을	남	여	계
토평리	89	9	97	토산리	64	13	77
법환리	82	12	94	오라리	79	10	89
신하효리	77	14	91	명월리	71	15	86
송당리	64	9	73	대정	71	15	86
성읍리	81	5	86	화순리	55	17	72
함덕리	82	7	89	저지리	68	14	82
교래리	69	15	84	용수리	74	14	88
상도리	88	2	90				
의귀리	80	9	89	평균	75	11	86

위 표에 의하면 제주도의 출가인은 16~55세가 8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남자가 75%, 여자가 11%로 나온다. 따라서 유년기를 제외한 청년기 이상에는 더욱 여자가 많이 마을에 남게 된다.

16세 이상의 현주자 수를 산출하면 <표 12>과 같다.

<표 12> 16세 이상의 현주자 수(남:여 백분비)

마을	남녀 수	비율	마을	남녀 수	비율
토평리	444:563	44:56	명월리	493:726	40:60
법환리	406:728	36:64	대정	357:478	43:57
신하효리	613:891	41:59	화순리	383:486	44:56
함덕리	757:1295	37:63	의귀리	221:343	39:61
교래리	79:99	44:56	토산리	200:294	4060
상도리	151:230	40:60	저지리	201:301	40:60
송당리	286:385	43:57	용수리	192:333	37:63
성읍리	309:399	44:56			
오라리	384:507	42:58	평균		41약:59강

위 표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성인으로는 남 4할에 여 6할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가 남의 1배 반이나 되는데, 이것은 물론 출가인의 존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 된다.

제주도에 출가인이 많은 것은, 제주도의 자연이 척박한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것은 남자의 출어와 자연의 척박에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출산 당시에는 남자가 많지만, 남자가 높은 사망률과 남자 출가인이 많은 것, 여자가 활동적이어서 심리학적으로 많게 보이는 것 등으로 여다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 육지의 문화가 농후하게 이입될 때는 이 여다 현상은 희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수자에 대해 살펴보면, 제주도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먼저 81세 이상의 고령자만을 정리해 보면 <표 13>와 같다.

<표 13> 81세 이상의 고령자 수(현주자에 대한 백분비)

마을	남	여	계	마을	남	여	계
토평리	12	12	24(1.5)	명월리	15	16	31(1.6)
법환리	13	26	39(2.0)	대정	8	17	25(1.8)
신하효리	18	32	50(1.9)	화순리	6	12	18(1.2)
함덕리	12	29	41(1.1)	의귀리	4	10	14(1.5)
교래리	1	1	2(0.7)	토산리	3	5	8(1.0)
상도리	4	4	8(1.2)	저지리	5	6	11(1.3)
송당리	8	10	18(1.6)	용수리	2	10	12(1.4)
성읍리	11	15	26(2.3)				
오라리	12	13	25(1.7)	평균			352(1.5)

위 표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고령자가 평균 1.5% 있고, 마을에 따라 0.7-2.3% 변동이 있지만 특별한 경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고 있다. 망률이 낮은 여자에게서 장수하는 이가 단연 많은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였다.

석주명은 사망률이 높은 제주도에 고령자가 비교적 많은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거열한 자연 도태의 결과 강장한 사람만이 남는다. 둘째, 식품에 동물질의 '자리'와 식물질의 '떡'이 극히 풍부하다. 셋째, 정신적 충동을 받는 일이 적고 원시적 생활을 한다. 등도 고찰되는 사항들이다.

3) 과제

석주명의『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석주명 및 제주도총서를 연구한 논문들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지만, 본서에 실린 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연구는 없는 것 같다.『제주도의 생명조사서』와 관련된 과제는 당연히 본서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제주도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서에 실린 다양한 통계 자료의 가치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대상 16개 마을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은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분석한 석주명의 업적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석주명이 수집한 조사표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석주명이 가공한 통계표들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해당 마을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1944~45년 당시 자료만 있을 뿐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원 자료를 활용할 수 없고 또 특정 시기의 자료만 존재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가 16개 마을의 조사 통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16개 마을의 조사 통계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새로운 연구가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석주명이 분석한 내용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통계표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출하는 작업이야말로 핵심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나온 국세조사의 제주도 인구 동향, 해방 후의 제주도 인구 동향까지 포괄하여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물론 이들 조사는 마을 단위로까지 내려가지 않고 대개 면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제주도 인구의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추세가 마을 단위에서도 관철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주자에 대한 통계가 주목을 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달라서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1930년대 제주도 인구의 1/5, 약 20%가 출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면 <표 9>의 내용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6개 마을의 출가인 비율을 10%도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쟁 말기에 귀환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출가한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내용은 'Ⅰ. 전언'에 있는 내용들이다. 매우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일주도로가 부설되면서 전통적인 중심 마을이 쇠퇴하고 일주도로변 마을이 새롭게 중심지로 부상한 문제, 각 마을마다 상이한 식수 상태를 그 마을 주민의 건강 상태 및 사망률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 등은 현재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주명이 간단하게 언급하였지만, 이들 문제 역시 충분히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제주도는 女多의 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석주명의 조사에 의하면 출생 당시에는 남아가 많았지만, 성장하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사망하면서 여자의 비율이 높게 되었다. 그런데 조사 당시 女多라고 말할 만큼 여자의 비율이 크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석주명은 젊은 남자들 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외지로 出稼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럼 외지 출가가 거의 없었던 조선 후기에도 제주도는 여다의 섬이라는 기록들이 있다. 당시에는 남자들이 바다에서 당하는 조난 사고로 많이 죽어서 여다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 여다 현상의 원인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 셈인데, 女多의 섬이라는 실체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주명의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는 비슷한 유형의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유형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연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본서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표들은 당시 제주도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본서는 충분히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본서의 내용들은 향후 연구자들의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다.

3.『제주도문헌집』분석 및 평가

1) 개요

이 책은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제3권에 해당하며, 1949년 11월 1일 서울신문사에서 초판(46판, 252쪽) 발행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겉표지와 책자를 소개하는 판권지에는『濟州島文獻集』으로, 속표지에는『濟州島關係文獻集』(영어명: A List of the Literatures concerning on Is. Quelpart)으로 되어 있어서, 책 제목을 말할 때 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책의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제목을 속표지에 실린『제주도관계문헌집』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서는 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겉표지와 판권지에 실린 제목을 존중한다는 점에서『제주도문헌집』을 택하기로 한다.

『제주도문헌집』은 위에서 보듯이 저자명순, 내용순, 주요문헌 연대순, 서평, 총괄 등 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석주명은 총괄 편에서 "本書에는 여태까지 著者가 읽은 論著들을 書誌學的으로 排列하야 濟州島에 關한 硏究에 關心을 가진 學徒들에게 참고로 드릴려고 한다."고 책을 쓴 의도를 말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 연구에 필요한 문헌들을 1,074매 카드로 정리하여, 1,074편의 문헌을 수록하였고, 책의 편집이 끝난 후에 발간된 22편의 문헌을 추가함으로써 총 1,096편의 문헌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와 각각의 카드 매수는 다음과 같다.

第1章 著者名順
　第1節 朝鮮人部(가나다順) ..... 282 편
　第2節 日本人部(アイウ順) ..... 774 편
　第3節 西洋人部(abc順) ..... 21 편
第2章 內容順
　第1節 總論部 ..... 42 편
　第2節 自然部 ..... 433 편
　　1. 氣象
　　2. 海洋

3. 地質鑛物
4. 植物
5. 動物(昆蟲을 除外)
6. 昆蟲
第3節 人文部 ..... 599 편
1. 言語
2. 歷史
3. 民俗
4. 地理
5. 農業(林畜水産을 包含)
6. 其他産業
7. 政治・行政
8. 社會
9. 衛生
10. 敎育・宗敎
11. 文化
第3章 主要文獻年代順 ..... 183 편
第4章 書評 ..... 26 편
第5章 總括
[追加分] ..... 22 편

2) 내용

(1) 저자명순

제1장 '저자명순'에서는 우리나라 저자들은 가나다순으로, 일본인 저자들은 アイウ순으로, 서양인 저자들은 abc순으로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어서 저자의 이름만 알면 쉽게 관련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조선인부

제1절 '조선인부'에서는 석주명 자신이 읽었던 우리나라 사람이 쓴 제주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저서, 논문, 신문기사, 잡지의 잡문, 사진 등 282편의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姜英善・李敏載 - 생물학, 上, 서울, 1948.
古山子 - 東與圖, 23冊, 寫本, 哲宗朝(1850-63).
高在烋 - 標準語와 方言; 正音, 第22號, 30-33頁, 昭和13年(1938).
高禎鍾 - 濟州島便覽, 濟州, 昭和5年(1930).
昆蟲部(石宙明) - 朝鮮産蝶類標準目錄(水原農事試驗場所藏); 農事試驗場彙報, 第15號, 第1號, 48-55頁, 昭和18年(1943).
權悳圭 - 朝鮮史(原名・朝鮮留記), 京城, 1945.
權文海 - 大東韻府群玉, 20卷20冊, 英祖22年(1746).
奎章閣編 - 耽羅賓興錄, 正朝18年(1794)
金斗奉 - 濟州島實記, 耽羅誌補遺, 濟州, 昭和7年(1932)
〃 耽羅誌 全, 濟州, 昭和8年(1933)
.....
石宙明 - 濟州島産蝶類採集記(一亞種の記載を含む); Zephyrus, vol.7, p150-174, 1937.
〃 濟州島の思ひ出; 地理學研究, 第14卷, 第5號, 27~29頁, 1937.
〃 나의 指標; 獨立新報, 1949年1月7日, 1面
〃 겨울의 동물(1~2); 진달래, 창간호, 21~23頁, ; 2월호, 28~30頁, 1949.
〃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 서울, 1949.
.....
朝鮮文朝鮮 - 口繪, 朝鮮에 在한 高山의 比較; 第77號, 25頁, 大正13年(1924).
〃 口繪, 濟州城內全景 並同上 城山浦全景; 第101號, 大正15年(1926).
〃 口繪, 濟州島西歸浦 天地淵瀑布; 第106號, 大正15年(1926).
〃 表紙繪, 濟州島眼境橋; 第120號, 昭和2年(1927).
〃 口繪, 濟州島漢拏山의 放牧; 第129號, 昭和3年(1928).
〃 濟州面長會議; 第129號, 127頁, 昭和3年(1928).
.....
洪翼杓 - 星湖僿說 1-5, 京城, 昭和4年(1929). 原著者는 李瀷(1682-1764)
洪姝瓊・洪茂瓊 姉妹著 - 朝鮮衣服・婚姻制度의 研究, 서울, 1948.
洪漢杓 - 初夏日記 ; 民聲, 7・8合併號, 81-82頁, 여름 隨筆欄, 1948.

〃 動亂의 濟州島 이모저모, 新天地, 8月號, 104-110頁, 1948.
黃山德 - 標準世界史年表, 서울, 1948.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손닿는 대로 모으고, 자신이 읽었던 논저들은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에서 쓰인 책이나 글들이어서 당시 제주도 모습과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 자료들이다.

하지만 제목만 놓고 볼 때 권덕규(權悳圭)의 『조선사』, 황산덕(黃山德)의 『표준세계사연표』, 홍주경(洪姝瓊)·홍무경(洪茂瓊) 쌍둥이 자매의 『조선의복·혼인제도의 연구』, 석주명의 "나의 指標", "겨울의 동물" 등과 같이 제주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논저들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논저 속에 제주도가 관련 내용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나. 일본인부

제2절 '일본인부'에서는 석주명 자신이 읽었던 일본인이 쓴 제주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저서, 논문, 신문기사, 잡지의 잡문, 사진 등 774편의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會田重吉 - 濟州島の産業事情(1-3); 朝鮮, 5月號, 88-113頁, 6月號, 67-85頁; 7月號, 93-115頁, 大正15年(1926).
〃 濟州島의 産業事情(1-3); 朝鮮文朝鮮, 第106號, 52-63頁, 第107號, 32-48頁; 第108號, 41-55頁, 大正15年(1926).
靑柳綱太郎 - 濟州島案內, 明治38年(1905)
.....
秋葉隆 - 濟州島に於けゐ蛇神の信仰(遮歸文化圈の試み); 靑丘學叢, 第7號, 100-110頁, 昭和7年(1932).
〃 朝鮮巫俗傳說; 朝鮮, 5月號, 87-107頁, 昭和8年(1933).
〃 村祭の二重組織; 朝鮮民俗, 第2號, 5-10頁, 昭和9年(1934).
〃 朝鮮巫俗文化圈; 朝鮮, 4月號, 39-50頁, 昭和10年(1935).
〃 濟州島の民俗;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38-40頁, 昭和16年(1941).
.....

小倉進平, 濟州島俚諺傳說(上, 中, 下); 若竹, 大正2年, 2-4月號, 1913.
〃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大正2年, 3-5月號, 1913.
〃 慶尙南道方言; 朝鮮彙報, 4月號, 109-115頁, 大正4年(1915).
〃 朝鮮に於けゐ日本語學; 國學院雜誌, 第22卷, 第10號, 11-23頁, 大正5年(1916).
〃 朝鮮語學史, 京城, 大正9年(1920); 增補版, 東京, 昭和15年(1940).
〃 朝鮮語の歷史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價値; 朝鮮, 2月號, 24-32頁, 大正13年(1924).
.....
濟州循環軌道株式會社創立事務所 - 事業界の處女地 濟州島, 東京, 昭和2年(1927).
濟州島循營林署 - 濟州島植物, 昭和5年(1930). 中井猛之進氏調查報告書 內容 轉載.
濟州島廳 - 濟州島勢一斑, 昭和3年末 現在(謄寫版), 1929.
濟州島廳 - 濟州島勢要覽, 昭和十年(1935); 昭和十二年(1937).
.....
中井猛之進 - 濟州島ノ羊齒ニ就テ; 植物學雜誌, 第27卷, 第323號, 512-4頁, 1913.
〃 朝鮮植物, 上卷, 東京, 大正3年(1914).
〃 濟州島及莞島植物調查報告書, 朝鮮總督府, 大正3年(1914).
〃 濟州島ノ枸橘ト梅; 植物學雜誌, 第28卷, 第325號, 29頁, 1914.
〃 濟州島ノ躑躅; 同上, 29頁.
〃 椎栂ノ栽培ニしで類ノ應用; 同上, 29頁.
.....
原口九萬 - 濟州島火山岩中の班晶及第三紀化石; 地球, 第10卷, 第5號, 350-7頁, 昭和3年(1928).
〃 濟州島アルカリ岩石(豫報其一-三); 地球, 第10卷(1928), 第6號, 416-22頁; 第11卷(1929), 第2號, 111-23頁; 第3號, 210-5頁.
〃 濟州火山島岩; 小川博士還曆記念地學論叢, 595-649頁, 1圖板, 昭和5年(1930).
〃 濟州島, 濟州島廻り; 日本地理風俗大系, 第17卷, 64-87頁, 東京, 昭和5年(1930).
〃 濟州島ノ地質; 朝鮮地質調查要報, 第10卷ノ1, 1931.
〃 濟州島産火山岩造岩鑛物の研究; 火山, 第1卷, 第1號, 45-52頁, 昭和7年(1932).
.....

森爲三 - 濟州島採集の主ㅈなる鳥類に就て(第2回報告); 鳥, 第9號, 235-8頁, 大正9年(1920).

〃 濟州島夏季鳥類觀察記; 鳥, 第26號, 45-7頁, 1928.

〃 濟州島ノ兩棲類及爬蟲類ニ就テ; 朝鮮博物學會雜誌, 第6號, 47-52頁, 1928.

〃 濟州島所生植物分布に就て; 文敎の朝鮮, 第38號, 33-54頁, 1-4圖版, 1928.

〃 濟州島の陸産物概論; 同上, 56-60頁, 1圖版.

.....

吉村謙一郎 - 朝鮮に於ける海運施設; 朝鮮, 7月號, 69-74頁, 大正12年(1923)

〃 朝鮮に於ける航路標識の現況; 朝鮮, 8月號, 74-83頁, 大正13年(1924)

米村末喜 - 航海の話, 東京, 昭和2年(1927).

臨時國勢調査課 - 昭和十年國勢調査府邑面別 內鮮 外國人の人口概數; 調査月報, 第7卷, 第8號, 25-88頁, 昭和11年(1936).

군국주의 일본은 제주도의 어느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전반적, 다각적,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일본인들이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연과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 수탈하기 위한 자료였다. 그들이 제주섬의 동식물, 지질, 기후, 정치, 경제, 사회, 방언, 민속, 무속, 등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 대단히 광범위하게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석주명은 다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대체로 일본인들의 제주도의 연구는 외부자의 시각과 지배자의 시각에서 이뤄졌기에 제주사회와 문화에 대한 곡해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자료들은 오늘날 제주도 연구자와 제주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이면서 비판적 검토 자료가 되고 있다.

다. 서양인부

제3절 '서양인부'에서는 영어사전을 비롯하여 서양인이 쓴 21편의 논저 실려 있는데,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dams A. - The Zoology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under the Command of Captain Sir Edwards belcher, C. B., F. R. A. S., during

the years 1843-46, London, 1850.

Allen J. A. and Andrews R. C. - Mammals Collected in Korea; Bull. Ann. Mus. Nat. Hist., vol. 32, 1913.

Anderson M. P. - Forty Days in Quelpart Island; Overland Monthly, San Francisco, April, p. 392-401, 1914.

.....

Bertha S. Ohlinger – The Island of Quelpart; The Korean Repository, vol. 1, p. 94-6, 1892.

.....

Tatum T. - Description of two new species of Carabus from Asia; Ann. Mag. Nat. Hist., (1), vol. 20, p. 14-5, 1847.

Thomas O. - List of Small Mammals from Korea and Quelpart; Proc. Zool. Soc. London, vol. 2, p. 853-65, 1906.

.....

서양인의 논저는 21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서구인들이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2) 내용순

제2장 '내용순'에서는 총론부, 자연부, 인문부로 나뉘어져 있다.

가. 총론부

제1절 총론부에서는 제주도 연구를 위해 필요한 도서들 가운데 총론적 논저, 교과서류, 사전류 등 일반적 논저 42편을 수록하고 있다.

高禎鍾 – 濟州島便覽, 濟州, 昭和5年(1930).

金斗奉 – 濟州島實記, 耽羅誌補遺, 濟州, 昭和7年(1932)

〃 耽羅誌 全, 濟州, 昭和8年(1933)

朴萬奎(朴澤茂雄) - 朝鮮植物學界槪觀 ; 科學朝鮮, 第8卷, 第1號, 27-30頁, 昭和18年(1943)

石宙明 – 濟州島地名을 포함한 動植物名 ; 國立科學博物館動物學部硏究報告, 第1卷, 第1號, 1~4頁, 1946.

〃 濟州島南端部의 自然 더욱이 그곳의 蝶相에 대하야 ; 同上, 10~16頁.

〃 中等生物 : 生物學敎科書, 1947 ; 改訂版, 1948, 서울.

〃 國學과 生物學 ; 金貞煥編 現代文化讀本, 35-36頁, 1948, 서울.

.....

大原利武 - 海流と民族移住關係, 朝鮮, 8月號, 12-16頁, 1圖版 ; 10月號, 109-112頁; 11月號, 74-79頁, 大正9年(1920).

岡村周諦 - 生物學精義, 再增補版, 東京, 1943.

濟州島廳 - 濟州島勢一斑, 昭和3年末現在(謄寫版刷), 1929.

〃 濟州島勢要覽, 昭和10年 ; 昭和12年, 1935 & 1937.

.....

Bertha S. Ohlinger - The Island of Quelpart; The Korean Repository, vol. 1, p. 94-6, 1892.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 Secon edition, U. S. A., 1934.

총론부는 제주도 일반을 다룬 논저들과 제주도의 인문, 사회, 자연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론서, 교과서, 영어사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자연부

제2절 자연부에서는 기상(17편), 해양(8편), 지질광물(38편), 식물(158편), 동물(곤충제외 118편), 곤충(95편) 등 6개 항목에서 433편의 논저를 수록하고 있다.

(ㄱ) 기상 - 17편

現代科學社調査部-朝鮮科學家總觀(其一), 觀象臺及測候所 ; 現代科學, 創刊號, 78頁, 1946.

大原利武 - 朝鮮の風水害に就て ; 朝鮮, 6月號, 103-124頁, 昭和6年(1931).

龜岡榮吉 - 四季の朝鮮, 京城, 大正15年(1926)

.....

朝鮮總督府 - 朝鮮の氣象 ; 調査月報, 第1卷, 第6號, 69-81頁, 昭和5年(1930).

〃 朝鮮の雨量 ; 同上, 第1卷, 第8號, 31-72頁.

〃 昭和5年 朝鮮の氣候 ; 同上, 第2卷, 第6號, 67-83頁, 昭和6年(1931).

.....

(ㄴ) 해양 - 8편

大原利武 - 日本近海の海流に就て ; 朝鮮及滿洲, 第182號, 76-79頁, 大正12年(1923).

〃 日本近海の潮流 ; 同上, 第183號, 34-37頁, 大正12年(1923).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 - 海洋調査要報, 第4-7號, 京城, 1930-36.

〃 朝鮮近海海洋圖, 年次(發行年), 1928(1930); 1929(1930); 1934(1935), 1937(1939), 1938(11939), 京城.

.....

(ㄷ) 지질광물 - 38편

神津俶祐 - 本邦に於けるアルカリ-岩石の存在(附 韓國濟州島及白頭山 に於けるアルカリ-岩石) ; 地質學雜誌, 第17卷, 第200號, 193-201頁, 昭和43年(1910).

.....

原口九萬 - 濟州島火山岩中の班晶及第三紀化石; 地球, 第10卷, 第5號, 350-7頁, 昭和3年(1928).

〃 濟州島アルカリ岩石(豫報其一-三); 地球, 第10卷(1928), 第6號, 416-22頁; 第11卷(1929), 第2號, 111-23頁; 第3號, 210-5頁.

〃 濟州火山島岩; 小川博士還曆記念地學論叢, 595-649頁, 1圖板, 昭和5年(1930).

〃 濟州島, 濟州島廻り; 日本地理風俗大系, 第17卷, 64-87頁, 東京, 昭和5年(1930).

〃 濟州島ノ地質; 朝鮮地質調査要報, 第10卷ノ1, 1931.

〃 濟州島産火山岩造岩鑛物の研究; 火山, 第1卷, 第1號, 45-52頁, 昭和7年(1932).

.....

(ㄹ) 식물 - 158편

都逢涉 - 朝鮮藥用植物의 優秀性 ; 現代科學, 創刊號, 20-21頁, 1946.

都逢涉 沈鶴鎭 - 朝鮮植物圖說, 有毒植物篇, 서울 1948.

朴萬奎 - 朝鮮産食蟲植物ニ就 イテ; 朝鮮博物學會雜誌, 第27號, 23-25頁, 1939.

〃 朝鮮高山植物目錄 ; 同上, 第9卷, 第33號, 1-12頁, 1942.

.....

石戶谷勉 - 濟州島の植物と將來の問題(附) 野外植物鑑別法 ; 文敎の朝鮮, 第38號, 71-92頁, 1928.

〃 朝鮮の植物と藥草に就て ; JODK 講演集, 第一輯, 41-52頁, 昭和3年(1928).

〃 朝鮮植物採集一番鎗の記 ; 朝鮮及滿洲, 第242號, 38-40頁, 昭和3年(1928).

〃 染井吉野櫻の原産地(果して濟州島なりや) ; 同上, 第258號, 67-68頁, 昭和4年(1929).

.....

中井猛之進 - 濟州島ノ羊齒ニ就テ; 植物學雜誌, 第27卷, 第323號, 512-4頁, 1913.

〃 朝鮮植物, 上卷, 東京, 大正3年(1914).

〃 濟州島及莞島植物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大正3年(1914).

〃 濟州島ノ枸橘ト梅; 植物學雜誌, 第28卷, 第325號, 29頁, 1914.

〃 濟州島ノ躑躅; 同上, 29頁.

〃 椎栂ノ栽培ニしで類ノ應用; 同上, 29頁.

.....

森爲三 - 南鮮植物採取目錄(承前完); 朝鮮總督府月報, 第3卷1, 第6號, 66-72頁, 大正2年(1913).

〃 朝鮮スミレ屬に就物て; 朝鮮, 7月號, 33-57頁, 大正9年(1920).

〃 朝鮮植物名彙; 朝鮮總督府, 大正11年(1922).

〃 濟州島所生植物分布に就て; 文教の朝鮮, 第38號, 33-54頁, 1-4圖版, 1928.

.....

(ロ) 동물(곤충을 제외) - 118편

元洪九 - 濟州島に於けるヤイロテウの習性に就いて; 動物學雜誌, 第43卷, 第517號, 666-668頁, 1931.

〃 朝鮮半島に於けるヤイロテウの渡來經路 ; 동상, 第44卷, 第528號, 397頁, 1932.

〃 余の蒐集したる 朝鮮産鳥類目錄 ; 水原高農創立二十五周年記念論文集, 27-48頁, 昭和7年(1932).

〃 漢拏山高地帶に於て 蕃植鳥類及ヤイロテウの習性に就いて; 文教の朝鮮, 3월號, 79-83頁, 昭和7年(1932).

.....

上田常一 - 朝鮮産金錢蟹に就いて ; 植物及動物學, 第3卷, 第3號, 644-45頁, 1935.

〃 濟州島の蟹類 ; 動物學雜誌, 第48卷, 第6號, 314-321頁, 1936.

〃 濟州島の海の動物 ;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59-61頁, 昭和16年(1941).

.....

森爲三 - 珍島ヤイロテウ; 朝鮮彙報, 11月號, 91-4頁, 大正7年(1918).

〃 濟州島採集の主なる鳥類に就て(第2回報告); 鳥, 第9號, 235-8頁, 大正9年(1920).

〃 朝鮮ノ雉ニ就テ; 朝鮮博物學會雜誌, 第3號, 21-34頁, 大正14年(1925).

〃 朝鮮ノ爬蟲類ニ未記錄一種ヲ增加ス ; 同上, 제5號, 86頁, 1927.

〃 濟州島夏季鳥類觀察記; 鳥, 第26號, 45-7頁, 1928.

〃 濟州島ノ兩棲類及爬蟲類ニ就テ; 朝鮮博物學會雜誌, 第6號, 47-52頁, 1928.

〃 濟州島及對馬島の動物分布狀を考察して 內鮮兩陸分離の時代とを推論す; 朝鮮, 1月號, 14-25頁, 昭和3年(1928).

〃 濟州島の陸産動物概論 ; 文敎の朝鮮, 第38號, 55-60頁, 1圖版, 1928.

〃 濟州島の陸の動物 ;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55-58頁, 昭和16年(1941).

.....

Anderson M. P. - Forty Days in Quelpart Island; Overland Monthly, San Francisco, April, p. 392-401, 1914.

.....

Thomas O. - List of Small Mammals from Korea and Quelpart; Proc. Zool. Soc. London, vol. 2, p. 853-65, 1906.

(ㅂ) 곤충 - 95편

石宙明 - ヒメウラナミジヤノメの變異研究並に 其學名に就て ; 動物學雜誌, 第47卷, 第562-3號, 627-31頁, 1935.

〃 朝鮮産 Aphantopus hyperantus Linne に就て [부] 眼狀紋及其他班紋研究上一新樣式; 同上, 第47卷, 第562-3號, 627-31頁, 1935.

〃 濟州島産蝶類採集記(一新亞種の記載を含む) ; Zephyrus, vol. 7, p. 150-74, 1937.

〃 濟州島の蝶類 ; 科學時代, 第19號, 40-41頁, 1945.

〃 濟州島의 蝶類 ; 朝光, 第11卷, 第1號, 44-46頁, 1945.

〃 京城大學付屬生藥研究所 濟州島試驗場附近의 蝶相 ; 국립과학박

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第1卷, 第1號, 5-9頁, 1946.

〃 朝鮮産蝶類總目錄(조선나비의 조선이름) ; 同上, 第2卷, 第1號, 1947.

〃 濟州島의 蝶類 ; 同上, 第2卷, 第2號, 1947.

〃 朝鮮나비이름의 由來記濟 ; 京城, 1947.

元炳徽 - 漢拏山동무들과 安州동무들 ; 송경곤충연구회 회보, 第1號, 117-124頁, 1932.

趙福成 - 朝鮮産鍬形蟲科ニ就テ ; 朝鮮博物學會雜誌, 第12號, 56-60頁, 3圖版, 1931.

〃 朝鮮産班蝥科ニ就テ ; 同上, 第14號, 54-62頁, 1圖版, 1932.

....

市河三喜 - 濟州島の昆蟲 ; 博物の友, 第6卷, 第33號, 185頁, 1906.

다. 인문부

제3절 인문부에서는 언어(79편), 역사(75편), 민속(46편), 지리(121편), 농업(임축수산을 포함 67편), 기타산업(22편), 정치· 행정(17편), 사회(75편), 위생(18편), 교육·종교(7편) 문화(72편) 등 11항목에서 599편의 논저를 수록하고 있다.

(ㄱ) 언어 - 79편

.....

文時赫 -『·』字는 果然 無用일가 ; 正音, 第14號, 3-4頁, 昭和11年(1936).

.....

方鍾鉉 - 古語, 方言, 俚諺硏究의 途程 ; 朝光, 第3卷, 第1號, 63-68頁, 昭和12年(1937).

〃 濟州島方言採集行脚 특히 加波島에서 ; 朝光, 第3卷, 第1號, 63-68頁, 昭和12年(1937).

.....

石宙明 - 濟州島方言, 서울, 1947.

.....

李崇寧 - 母音『·』의 音價巧 ; 新興, 第8號, 96-113頁, 昭和10年(1935).

〃 朝鮮語異化作用에 對하여 ; 震壇學報, 第11卷, 1-42頁, 1939.

理想人 - 고양이(猫)의 시골말 ; 한글, 第9卷, 第8號, 10頁, 昭和16年(1941).

林 和 - 濟州島民謠 全 ; 朝鮮文庫, 2-4, 朝鮮民謠選, 特別附錄, 207-246頁,

昭和14 (1939).
濟州島一讀者 - 시골말 ; 한글, 第9卷, 第2號, 11-12頁, 昭和16年(1941).
朝鮮語學會 - 方言採集表, 一回 ; 한글, 第4卷, 第9號, 附錄, 1-8頁, 昭和11年(1936).
趙潤濟 - 濟州島の民謠 ;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41-43頁, 昭和16年(1941).
崔暎海 - 濟州島뱃노래 ; 한글, 第10卷, 第2號, 14頁, 昭和17年(1942).
崔鉉培 - 方言採集(시골말캐기)에 對하야 ; 한글, 第4卷, 第6號, 1-4頁, 昭和11年(1936).
〃 한글갈(正音學), 京城, 昭和17年(1942).
.....
小倉進平,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大正2年, 3-5月號, 1913.
〃 慶尙南道方言; 朝鮮彙報, 4月號, 109-115頁, 大正4年(1915).
〃 朝鮮に於けゐ日本語學; 國學院雜誌, 第22卷, 第10號, 11-23頁, 大正5年(1916).
〃 朝鮮語學史, 京城, 大正9年(1920); 增補版, 東京, 昭和15年(1940).
〃 朝鮮語の歷史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方言の價値; 朝鮮, 2月號, 24-32頁, 大正13年(1924).
〃 濟州島方言; 靑丘學報, 第5號, 26-70頁, 昭和6年(1931).
.....

(ㄴ) 역사 - 75편

權悳奎 - 朝鮮史(原名・朝鮮留記), 京城, 1945.
奎章閣編- 耽羅賓興錄, 正朝18年(1794).
金庠基 - 三別抄와 그 亂에 대하야(1-3) ; 震檀學報, 제9卷, 1-29頁, 1938 ; 第10卷, 19-58頁, 1939 ; 第13卷, 34-85頁, 1941.
金錫翼, 耽羅紀年, 京城, 大正7年(1918).
金壽卿譯(모리스・ 쿠랑著) - 朝鮮文化史序說, 京城, 1946.
普光洞人 - 千石致富한 淸白吏 - 능청스런 濟州牧使의 理財法 ; 第22號, 8頁, 1949.
石宙明 - 耽羅古史 ; 國學, 第3號, 25-28 & 36頁, 1947.
.....
李丙燾譯 - 蘭船濟州島難破記(하멜漂流記)(1-3) ; 震檀學報, 第1卷, 175-219頁, 1938 ; 第2卷, 163-193頁, 1935 ; 第3卷, 166-189頁, 1935.
.....

李元鎭, 耽羅志, 孝宗癸巳(1653).
朝鮮語學會 - 하멜표류기(1-9) ; 한글, 第4卷, 第2-6, 8-11號, 昭和11年(1936).
崔南善 - 濟州島의 文化史觀 ; 每日新報, 昭和13年9月16日-10月3日, 1938 & 六堂崔南善講演集(3) 朝鮮의 文化, 79-126頁, 서울, 1948.
.....
原 口 - 濟州島の烽燧 ; 地球, 第10卷, 第4號, 309頁昭, 昭和3年(1928).
.....

(ㄷ) 민속 - 46편
金仁承 - 濟州島特輯表紙(濟州島海女) ;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昭和16年(1941).
方鍾鉉 - 歲時風俗集 ; 朝光, 1-12月號, 1940 & 單行本, 京城, 硏究文庫, 1946.
石宙明 - 馬羅島エレヂー ; 城大學報, 第80號, 2面, 1944.
〃 兎山堂由來記 ; 鄕土, 9月號, 15-18頁, 1946.
宋錫河 - 風神考; 震檀學報, 第1卷, 156-166頁, 1934.
柳完熙 - 濟州島の子守り ; 伊藤卯三郎編 朝鮮及朝鮮民族, 第1輯 附錄, 14-15頁, 昭和2年(1927).
.....
赤松智城 - 濟州島俗信雜記; 朝鮮民俗, 第3號, 8-11頁, 昭和15年(1940).
秋葉隆 - 濟州島に於けゐ蛇神の信仰(遮歸文化圈の試み); 靑丘學叢, 第7號, 100-110頁, 昭和7年(1932).
〃 朝鮮巫俗傳說; 朝鮮, 5月號, 87-107頁, 昭和8年(1933).
〃 濟州島の民俗;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38-40頁, 昭和16年(1941).
.....
近藤時司 - 三柱の神(三姓穴傳說) ; 文敎の朝鮮, 第38號, 93-95頁, 1928.
〃 朝鮮神話傳說の特異性 ; 朝鮮, 2月號, 35-52頁, 昭和7年(1932).
紫陽三郎 - 濟州島の海女 ; 朝鮮及滿洲, 第333號, 69頁, 昭和11年(1936).
田口禎熹 - 濟州島の海女 ; 朝鮮, 7月號, 67-69頁, 昭和8年(1933).
高橋亨 - 民謠に現はれた 濟州の女 ; 朝鮮, 1月號, 43-78頁, 昭和8年(1933).
朝鮮彙報 - 濟州島風俗 ; 口會, 4月號, 39-50頁, 昭和10年(1935).
朝鮮敎育會 - 濟州島風俗(口會) ; 雜誌, 第32號, 大正3年(1914).
.....

(ㄹ) 지리 - 121편

古山子 - 東與圖, 23冊, 寫本, 哲宗朝(1850-63).

金永上 - 濟州島觀察記(上下) ; 서울신문, 1946年12月18-19日.

金振福 - 獨立記念, 大韓國全圖, 京城, 1945.

金冲庵 - 濟州風土錄, 1519-20.

虜鎰煥 - 寶庫· 濟州島觀察記(上中下) ; 東亞日報, 1946年12月19-21日.

.....

石宙明 - 濟州島の思ひ出; 地理學硏究, 第14卷, 第5號, 27~29頁, 1937.석주명

申景濬 - 徒路考, 4卷4冊, 寫本, 李朝英祖46年(1770)

申東起 - 濟州 漢拏山 ; 東光, 7月號, 44-45頁, 1931.

李殷相 - 耽羅紀行 漢拏山 ; 京城, 昭和12年(1937)

.....

市河三喜 - 濟州島紀行(明治38年, 1905) ; 博物之友, 1,3,5月號, 明治39年(1906) & 昆蟲·言葉·國民性, 336-378頁, 昭和14年(1939).

今村鞆一 - 濟州島の漢拏山峰 ; 朝鮮及滿洲, 第285號3, 55-56頁, 昭和6年(1931).

海野淵平 - 濟州から京城·長崎へ ; 朝鮮, 9月號, 129-132頁, 大正14年(1925).

江崎悌三 - "Samarang"の東洋探險 ; 植物及動物, 第1卷, [上]406-410頁, 昭和8年(1933).

岡村菊堂 - 下孝里川を探賞して ; 文敎の朝鮮, 第38號, 110-113頁, 1928.

.....

中村新太郎 - 濟州島な外國ご Quelpart島と呼ぶことに就いて; 地球, 第4권, 76항, 1925.1925.

〃 朝鮮地名の考說(1-7) ; 地球, 第4卷,(1924), 82-91頁 ; 162-170頁 ; 243-249頁 ; 395-404頁 ; 477-487頁 ; 第5卷(1926), 76-85항 ; 165-173頁.

西野義三 - 濟州島の旅 ; 朝鮮及滿洲, 第344號3, 57-61頁, 昭和11年(1936).

.....

(ㅁ) 농업(임축수산을 포함) - 67편

農商工部水産局 - 韓國水産誌 : 第一輯, 隆熙2年(1908) ; 第三輯, 明治43年(1910).

石宙明 - 나무를 심그자 ; 民聲, 4, 34-35 & 38-39頁, 1948.

孫晋泰 - 甘藷傳播考 ; 震檀學報, 第13卷, 86-109頁, 1941.

〃 고구마와 감자 傳來說 ; 朝光, 第7卷, 第8號, 45-52頁, 昭和16年(1941).

李元睦 - 椎栩人工栽培試驗 ; 林業試驗場時報, 第8號, 22-52頁, 昭和8年(1933).

.....

全羅南道種苗場報告 - 第5-7號, 大正5-7年(1916-18).

同上 : 濟州支場報告, 大正元年(第2號)-10年度(第11號), 大正2-12年(1913-23).

田中半治 - 濟州島の牧畜 ; 朝鮮, 6月號, 82-94頁, 昭和5年(1930).

.....

道家充之・長倉純一郎 - 南韓森林調查書 ; 韓國森林調查書, 前篇, 東京, 明治38年(1908).

吉崎建太郎 - 濟州島 ; 韓國水産誌, 第3輯, 380-473頁, 明治43年(1910).

.....

(ㅂ) 기타산업 - 22편

文定昌 - 朝鮮の市場, 東京, 昭和16年(1941).

張憲植 - 全南産業の進展と將來 ; 朝鮮, 10月號, 209-214頁, 大正14年(1925).

會田重吉 - 濟州島の産業事情(1-3) ; 朝鮮, 5月號, 88-113頁 ; 6月號, 67-85頁 ; 7月號, 93-115頁, 大正15年(1926)

〃 濟州島의産業事情 ; 朝鮮文朝鮮, 第106號, 52-63頁 ; 第107號, 32-48頁 ; 第108號, 41-55頁, 大正15年(1926).

.....

(ㅅ) 정치・행정 - 17편

李朝正祖 - 諭耽羅民人書, 1冊印本, 正祖5年(1781).

〃 諭濟州三邑綸音, 1冊印本, 正祖17年(1793).

〃 諭濟州綸音, 1冊印本, 1777-1800.

.....

朝鮮總督府 - 地方行政區域一覽 ; 月報, 第1卷, 第1號, 129-1514頁, 明治44年(1911).

〃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 京城, 明治44年(1912).

(ㅇ) 사회 - 75편

金鍾潤 - 動亂의 濟州島, 民聲, 7.8合併號, 26-31頁, 1948.

徐仁均 - 朝鮮社會民族運動의 回顧, 京城, 1945.

石宙明 - 濟州島의 女多現象, 朝光, 4월호, 39-41頁, 1945.

〃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 서울, 1949.

宋之文 - 在大阪朝鮮人의 生活相 ; 朝光, 第5卷, 第2號, 205-307頁, 昭和4年(1939).

.....

善生永助 - 朝鮮の犯罪と環境 ; 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23輯, 昭和3年(1928).

〃 生活狀態調查(其二) 濟州島 ; 朝鮮總督府調查資料 第29輯, 昭和4年(1929).

.....

水城寅臨時國勢調查課 - 昭和十年國勢調查府邑面別 內鮮 外國人の人口概數; 調查月報, 第7卷, 第8號, 25-88頁, 昭和11年(1936).雄 - 濟州島の人と村 ; 朝鮮, 9月號, 33-57頁, 昭和8年(1935).

(ㅈ) 위생 - 18편

文仁柱 - 朝鮮ニ於ケル地方病性象皮病ノ硏究, 第二編, 濟州島ノ調查成績 ; 朝鮮醫學會雜誌, 第29卷, 第8號, 1426-43頁, 1939.

〃 南洋地方の象皮病과 其病の病因 ; 東京醫事新誌, 第3178號, 6-14頁, 昭和15年(1940).

石宙明 - 濟州島의 象皮病 ; 朝鮮醫報, 第2卷, 第1號, 38-39頁, 1945.

朝鮮文朝鮮 - 高齡者가 많은 濟州島 ; 第184號, 115頁, 昭和8年(1928).

崔臣海 - 濟州島診療行 ; 朝光, 5月號, 74-81頁, 昭和19年(1944).

.....

(ㅊ) 교육· 종교 - 7편

世文社 - 全國男女諸學校案內便覽, 서울, 1948.

李昌根 - 朝鮮佛敎の變遷 ; 朝鮮總攬, 689-96頁, 昭和8年(1933).

影井市藏 - 敎授目に就きて ; 朝鮮敎育會雜誌, 第38號, 27-29頁, 大正4年(1915).

善生永助 - 朝鮮儒林の分布 ; 朝鮮, 3月號, 40-52頁, 昭和9年(1934).

全羅南道 - 全南の敎育と宗敎, 光州, 昭和13年(1938).

.....

(ㅋ) 문화 - 72편

權文海 - 大東韻府群玉, 20卷20冊, 英祖22年(1746).

金炳淳 - 新國民讀本, 第一卷, 京城, 1946.

金秉河 - 博物敎育家 元洪九先生 ; 朝光, 第2卷, 第1號, 55-57頁, 昭和11年(1936).

金翊煥 - 阮堂先生全集五冊, 京城, 昭和9年(1934).

金春澤 - 北軒(居士)集, 20卷7冊, 1670-1717, 孫 斗秋가 刊行(1936).

邦逢涉 - 濟州漢拏山의 하로밤 ; 朝光, 第2卷, 第7號, 130-132頁, 昭和11年(1936).

文鍾鉉 - 鄕土文化를 차자서, 第四班, 濟州島行 ; 朝鮮日報, 昭和13年5月31日-6月8日, 1938. (1)書籍, (2-3)女子, (4-5)方言, (6-7)民謠.

.....

李德鳳 - 金剛과 漢拏山 ; 朝光, 第2卷, 第8號, 281頁, 내가 잊지 못하는 그山 그江, 昭和11年(1936).

李秉岐 - 天池와 白鹿潭 ; 半島の光(鮮文版), 8月號(第46號), 20頁, 鎖夏隨筆, 昭和16年(1941).

.....

鄭芝溶 - 白鹿潭, 京城, 1946.

丁若鏞 - 牧民心書, 48卷16冊, 寫本, 1762-1736.

朝 光 - 濟州島畫報, 其1-2; 第3卷, 第9號, 昭和12年(1937).

〃 名士漫問漫答(2) 濟州島를 하나 떼어준다면 거긔서 무엇을 하시겠읍니까 ; 第4卷, 第12號, 233-236頁, 昭和13年(1938).

.....

趙貞喆 - 靜軒瀛海處坎錄, 4卷2冊, 印寫本, 純祖24年(1824)

朱耀燮 - 新刊評 李殷相著 '漢拏山" ; 朝光, 第4卷, 第2號, 219-221頁, 昭和13年(1938).

向江犬吾 - 濟州島の思出 ; 文敎の朝鮮, 第38號, 100-108頁, 1928.

森悟一 - 南鮮のユートピア多島海の夏 :濟州島に於ける 或日の印象 ; 朝鮮及滿洲, 第237號, 55-57頁, 昭和2年(1927).

森生(爲三) - 濟州島漫談 ; 文敎の朝鮮, 第38號, 109頁, 1928.

(3) 주요문헌연대순

제3장 '주요문헌연대순'에서는 1,2장에서 다룬 1,074편의 논저 가운데 제주도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주요 논저 183편을 골라 다음과 같이 발행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 제주도관계의 단행본 26
○ 제주도 관계의 논문 121
⊗ 제주도에 논급한 단행본 10
× 제주도에 논급한 논문 26

계 183

◎ 金冲庵 - 濟州島風土錄, 1519-1520.
⊗ 魚叔權 - 稗官雜記, 明宗9年(1554)?
◎ 李元鎭 - 耽羅志, 孝宗癸巳(1653)
⊗ 趙曮 - 海槎日記, 英祖40年(1764)
◎ 李朝正祖 - 諭濟州綸音, 1冊印本, 1777-1800.
◎ 〃 諭耽羅民人書, 1冊印本, 正祖5年(1781).
◎ 〃 諭濟州三邑綸音, 1冊印本, 正祖17年(1793).
⊗ J. F. G. De la Perouse - A Voyage round the world, in the years 1785, 1786, and 1788. Translation from the French, 1798.
⊗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 60卷60冊, 寫本, 憲宗朝(1840頃). 耽羅異果辨證說(第25卷) ; 漢拏山辨證說(第35卷).
⊗ 洪良浩 - 耳溪集, 50卷22冊, 憲宗9年 (1843)
× Tatum T. - Description of two new species of Carabus from Asia; Ann. Mag. Nat. Hist., (1), vol. 20, p. 14-5, 1847.

.....

○ 中井猛之進 - 濟州島及莞島植物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大正3年(1914).
〃 濟州島ノ枸橘ト梅; 植物學雜誌, 第28卷, 第325號, 29頁, 1914.
〃 濟州島ノ躑躅; 同上, 29頁.

.....

○ 江口保孝 - 濟州島出稼海女 ; 朝鮮彙報, 5月號, 166-170頁, 大正4年(1915).
○ 黑田長禮・森爲三 - 濟州島採集の主なる鳥類に就(て(附 濟州島産鳥類目錄) ; 鳥, 第7號, 73-88頁, 大正7年(1918).
◎ 金錫翼, 耽羅紀年, 京城, 大正7年(1918).
○ 保 科 - 朝鮮濟州島西中面 チタン鐵鑛 ; 地質學雜誌, 第26卷, 460-1頁, 大正8年(1919).

.....

× 李能和 - 朝鮮巫俗考 ; 啓明, 第19號, 1-85頁, 京城, 昭和2年(1927).
◎ 濟州循環軌道株式會社創立事務所 - 事業界의 處女地 濟州島, 東京, 昭和

2年(1927).

◎ 朝鮮敎育會 - 文敎朝鮮, 濟州島夏季大學號 ; 第38號, 1928

○ 川崎紫太郎 - 濟州島の地質學的觀察 ; 同上, 12-32頁, 1-2圖版.

.....

○ 森爲三 - 濟州島所生植物分布に就て; 文敎の朝鮮, 第38號, 33-54頁, 1-4圖版, 1928.

〃 濟州島の陸産物概論; 同上, 56-60頁, 1圖版.

〃 濟州島ノ兩棲類及爬蟲類ニ就テ; 朝鮮博物學會雜誌, 第6號, 47-52頁, 1928.

.....

○ 原口九萬 - 濟州島火山岩中の班晶(二) ; 地球, 第11卷, 第4號, 54-55頁, 1929.

○ 〃 濟州島別刀峰西北海岸の火山岩層層中に捕獲せられた花岡岩片に就 いこ ; 地球, 第12卷, 第2號, 94-99頁, 1929.

○ 〃 濟州島の火山岩に就 いこ ; 地質學雜誌, 第36卷, 281頁, 1929.

○ 〃 濟州島アルカリ岩石(豫報其一-三); 地球, 第10卷(1928), 第6號, 416-22頁; 第11卷(1929), 第2號, 111-23頁; 第3號, 210-5頁.

.....

○ 中山蕃 - 濟州島の馬に就 いこ ; 朝鮮, 4月號, 56-82頁, 昭和6年(1931)

○ 小倉進平 - 濟州島方言; 靑丘學報, 第5號, 26-70頁, 昭和6年(1931).

◎ 朝鮮敎育會 - 文敎朝鮮, 濟州島夏季大學號 ; 第38號, 1928

.....

◎ 金斗奉 - 耽羅誌 全, 濟州, 昭和8年(1933).

× 秋葉隆 - 朝鮮巫祖傳說 ; 朝鮮, 5月號, 87-107頁, 昭和86年(1933)

○ 田口禎熹 - 濟州島の海女 ; 朝鮮, 7月號, 67-69頁, 昭和8年(1933).

.....

○ 石宙明 - 濟州島産蝶類採集記(一亞種の記載を含む); Zephyrus, vol.7, p150-174, 1937.

.....

◎ 武內愼一 - 靑風號(濟州島特輯) ;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昭和16年(1941).

.....

◎ 石宙明 - 濟州島方言, 서울, 1947.
○ 〃 耽羅古史 ; 國學, 第3號, 25~28 & 36頁, 1947.
◎ 〃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 서울, 1949.

여기서 언급된 108편의 논저들은 제주도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논저들로, 우리의 고전, 일본과 서양인의 제주도 연구 관련 논저들을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시대순으로 수록하고 분석하고 있어서 석주명의 학문적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4) 서평

제4장 '서평'에서는 제주도 관계문헌 가운데 27권의 주요 문헌들 가운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평하고 있다.

高禎鍾 - 濟州島便覽, 濟州瀛洲書館, 昭和5年(1930).
내용이 비교적으로 충실하여 훌륭한 책이다.
金斗奉 - 濟州島實記, 耽羅誌補遺, 濟州, 昭和7年(1932) 初再版 ; 昭和7年(1932) 3版 ; 昭和7年(1932) 4版.
2편을 합친 책인데 중판하면서 보유하였다. 7000부나 소화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으로 보아 추천할 수가 없는 책이다. 필자는 1944년에 그 저자 자신과 만났었다.
金斗奉 - 耽羅誌 全, 濟州, 昭和8年(1933)
등사(謄寫)로 500부 간행한 것인데 대부분이 도내(島內)에 배포되었다고 하고 비매품이지만 1원(圓)씩에 배포되었다고 한다.
石風生 - 濟州島實記 ; 民聲, 7.8合併號, 28-31頁, 1948,
내용에 오류가 지나치게 많다.
洪萬宗 - 東國歷代總目 上, 下, 肅宗31年(1705)
고을나(高乙那) 15대손이 신라에 가서 국호(國號)를 타왔다는 이야기가 신라문무왕 때라고 명기된 책이다.(하권), 홍만종은 순오지(旬五志)의 저자로 저명(著名)하다.
洪良浩 - 耳溪集, 50卷22冊, 憲宗9年 (1843)
탐라삼성기(耽羅三姓記)는 권(卷)14에 있고, 기타에 제주도에 관한 기사가 곳곳에 있다.

葛城末治 - 校訂 世宗實錄地理志, 8卷1冊, 世宗大王實錄 第148-155卷, 朝鮮總督府中樞院刊, 昭和12年(1937)

제주목(濟州牧)은 제151권에 비교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B. Koto –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 ; Jour, Coll. Sci, Imp. Univ. Tokyo, Japan, vol, XIX, Art. 1, 1903.

이 저자 소등문차랑(小藤文次郎)은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는데, 이 조선 산악론(山岳論)은 획기적이고 훌륭한 고전이다.

杉山奉一 - 濟州島要覽, 濟州, 昭和17年(1942).

저자 자신이 경영하는 관광안내소의 선전용으로 인쇄한 것이지만 잠시 오는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팜플렛이다.

原口九萬 – 濟州島ノ地質; 朝鮮地質調査要報, 第10卷ノ1, 1931.

조선총독부지질조사서 발행, 46배판, 34면, 2+9도판, 영문텍스트 12면, 1도판, 별도판1(제주도지질 10만분의 1). 가장 신뢰할만한 훌륭한 책이다.

Tatum T. - Description of two new species of Carabus from Asia; Ann. Mag. Nat. Hist., (1), vol. 20, p. 14-5, 1847.

岡本半次郎박사는 Carabus monilifer(=Captodabrus)를 제주도 최초 기록의 곤충이라고 하였지만 원문에는 "in the Corean Archipelago"라고 있고, Samarang호는 제주도 이외의 여러 섬에도 기항했으니 기실 불명(不明)한 일이다.

제주도 관계문헌 가운데 주요 논저로 꼽히거나 많이 읽히는 주요 문헌들 에 대해 간단하게 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의 독서나 학문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저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비판적 검토를 거친 후에 이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5) 총괄

석주명은 제5장 '총괄'에서 이 책은 "자신이 읽은 논저들 가운데 서지학적으로 배열하여 제주도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도들에게 참고로 드릴려고" 썼으며, 훗날 개편할 때에 고인(古人)들의 문집(文集)이나 서양의 논저들을 보충하려 한다면서 미완의 저서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조선인 저자 중에서 석주명(石宙明, 1908-1950; 나비, 기타 47편), 최남선(역사 13편), 방종현(조선어 11편) 등 주요 저자 10인을 소개하고 있고, 일본

인 저자에 중에서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 식물 66편),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885-1971; 사회 43편), 모리 다메조(森爲三, 1884-1962; 동식물 31편),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 1982-1944; 방언 30편), 우에다 츠네카즈(上田常一; 박물 16편),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勉; 식물 13편), 구로다 나가미치(黑田長禮, 1889-1978; 새 13편), 하라구치 큐우만(原口九萬; 지질 13편), 무라야마 쇼우조우(村山醸造; 삼림해충 13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 1877-1932; 역사 12편),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 1891-1968; 민속 11편) 등 22인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조선인 3인, 일본인 12인 등 제주도 관련 주요 논저자 15인을 추려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66편의 논저를 발표한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은 '조선식물'을 테마로 한 세계적 식물 분류학자로 조선문화에 공헌이 가장 큰 사람의 하나이다.

47편의 석주명(石宙明)은 '조선산접(朝鮮産蝶)'을 전공하나 '제주도'가 그의 연구테마의 또 하나이다.

43편의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구 조선총독부의 어용학자였다.

31편의 모리 다메조(森爲三)는 '조선의 동식물'을 조사한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 그 업적에 조루성(粗漏性;소홀해 빠진 것이나 실수가 있음)은 있으나 전형적인 고등학교 정도의 교수로 일본국가의 난숙성(爛熟性:문화가 충분히 발달하여 무르익음)을 표시하는 인물이었다.

30편의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은 '조선방언'을 테마로 한 세계적 언어학자로 조선문화에 공헌한 바 가장 큰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6편의 우에다 츠네카즈(上田常一)는 '박물학(博物學)'을 전공한 사람으로 전형적인 고등학교 정도의 교수로 모리(森爲三)와 같이 일본국가의 난숙성을 표시하는 인물의 하나이다.

13편의 최남선(崔南善)은 국학(國學)의 최고권위로 국보적 존재이다.

13편의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勉)는 '조선식물'을 전공한 우수한 학자로 나카이(中井猛之進)와는 약간 노선이 다른 이로 세계적 수준에 달한 사람이었다.

13편의 구로다 나가미치(黑田長禮)는 일본의 귀족출신의 조류(鳥類)학자로 전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에까지 도달한 사람이요 따라서 '조선산조류'에까지 미친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었다.

13편의 하라구치 규우만(原口九萬)은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 기사(技師)로

있으면서 더욱이 '제주도의 지질'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였다.

12편의 무라야마 쇼우조우(村山醸造)는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기사(技師)로 있으면서 삼림해충을 전공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나무좀'에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이였다.

12편의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는 한일합병 전부터 조선에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 조선침략 인사의 하나였다.

11편의 방종현(方鍾鉉)은 조선이 낳은 우수한 조선어(朝鮮語) 학자의 하나이다.

11편의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은 '민속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젠쇼(善生永助)와 같이 구 조선총독부의 어용학자였다.

10편의 이마무라 도모(今村鞆)는 제주도사(濟州島司)까지 지낸 관리로 조선민속학을 전공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본다면 석주명은 훗날 친일파였던 최남선을 "국학의 최고권위로 국보적 존재"라 극찬하고 있고, 일본학자들도 세계적 수준의 학자와 조선침략을 위해 헌신한 어용학자들로 구분하고 있다. 그로 보아 그는 학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학문적 탁월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제주도를 월등하게 많이 다룬 학자로 식물학의 나카이(中井猛之進), 제주도학과 곤충학의 석주명(石宙明), 사회학의 젠쇼(善生永助), 동식물학의 모리(森爲三), 방언학의 오쿠라(小倉進平) 등 5인을 들면서, 단순히 논저 편수만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제주도 연구에 공헌한 정도를 질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자들에 대한 그의 평가는 당시 시대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대의 학자들을 바라보는 석주명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제주도 연구, 즉 제주학의 독보적 존재임을 자부하고 있다.

<표 1> 제주도 연구에 공헌한 주요학자들

	제주관계 단행본	제주관계 논문	제주논급 단행본	제주논급 논문	계
石 宙 明	3	11	-	-	14

그리고 그는 제주도 관련 주요 논저 183편을 다음과 같이 내용별로 분류하고 있다.

<표 2> 제주도 관련 주요논저 분야별 분류

	제주관계 단행본	제주관계 논문	제주논급 단행본	제주논급 논문	계
I. 총론부	8	2	-	-	10
II. 자연부	4	65	1	7	77
1. 기상	-	-	-	-	-
2. 해양	-	-	-	-	-
3. 지질광물	1	20	-	-	21
4. 식물	-	16	-	-	16
5. 동물(곤충을 제외)	2	23	1	2	28
6. 곤충	1	6	-	5	12
III. 인문부	14	54	9	19	96
1. 언어	1	8	-	4	13
2. 역사	2	4	-	2	8
3. 민속	-	11	1	5	17
4. 지리	2	14	2	1	19
5. 농업(임축수산포함)	-	7	2	4	13
6. 기타산업	2	2	-	-	4
7. 정치.행정	3	-	-	-	3
8. 사회	2	3	-	1	6
9. 위생	-	4	-	2	6
10. 교육.종교	1	-	-	-	1
11. 문화	1	1	4	-	6
이상 계	26	121	10	26	183

이상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 제주도의 '지질광물(21편)', '동.식물(44편)', '민속(17편)', '지리(19편)' '농임축수산업(13편)' 분야는 비교적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삶에 중요한 제주도의 '기상'과 '해양'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다. '교육.종교' 분야 역시 전체 1편에 불과하지만, 제주의 무속[巫覡]은 민속분야에서 일부 다뤄지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는『제주도문헌집』말미에 있는 <추가분>에서 그동안 빠뜨린 일부 문헌과 해방이후부터 출판 직전에 나온 다음 논저 22편을 추가하고 있다.

○ 公報處.統計局 - 濟州島 統計表 ; 大韓民國 統計月報, 제2號, 92-104頁, 1949.
○ 金起林 - 生活의 바다(濟州島 海女 尋訪記) ; 바다와 肉體(隨筆集), 191-214頁, 1948.(1935. viii 朝鮮日報所 게재분을 전재)
.....
○ 石宙明 -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一年間의 濟州島 ; 學風, 第2卷, 第1號, 100-1頁, 1949.
○ 〃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둘째해의 濟州島 ; 同上, 第2號, 112-3頁, 1949.
○ 〃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셋째해의 濟州島 ; 同上, 第3號, 116-7頁, 1949.
.....
朱基珞 - 濟州島踏查記(1-4) ; 自由新聞, 1949年3월20~24일, 2면
.....

우리는『제주도문헌집』을 통해서 석주명이 언제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을 자신의 연구에 반영하려는 지적 성실성과 치열함을 엿볼 수 있다.

3) 평가

석주명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다른 제주도(濟州島)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제주도 연구에 몰두하여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가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당시 이미 그는 세계적인 나비학자였다.

그는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생물학(朝鮮的 生物學)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우리나라 나비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산야를 누볐고, 우리의 고전들을 섭렵하였으며, 일본인과 서양인들의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용하였다. 그리고 나비를 단순한 곤충학의 영역에 묶어두지 않고, 자연과학 일반과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우리의 인문학, 더 나아가 세계의 과학사와 문화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부산물이 탄

생한 게 그의『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이다. 그리고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국학(國學)의 연장이었고, 그는 제주도의 자연, 인문,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제주학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제주도총서'는 그러한 그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다. '제주도총서'는 그가 곤충학자를 넘어 인문, 사회, 자연을 아우르는 통합학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제주도문헌집』은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가운데 제3집에 해당한다. 우선『제주도문헌집』자체가 6권의 '제주도총서' 가운데 한 권이면서 '제주도총서'의 참고문헌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문헌 제목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제주학 관련 논저들을 저자순, 내용(분야)순, 연대순 등으로 정리하여 서지학적으로 배열하여, 독자들이 쉽게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석주명은 제주도의 가치를 알고, 제주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깨닫고 '제주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했다.『제주도문헌집』에서 자신을 분명히 제주도학 연구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를 연구하였고, 그를 왜 제주학의 선구자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둘째,『제주도문헌집』은 석주명이 왜 곤충학자를 넘어서 자연, 인문,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학자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이다.『제주도문헌집』에 등장하는 논저의 총수는 무려 1,096편이다. 물론 이들 전부가 직접적인 제주도 관련 논저라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제주도 관계 문헌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는 총론부에서 제주도 일반을 다룬 논저들과 제주도의 인문, 사회, 자연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론서, 교과서, 영어사전 등 42편의 논저를 제시함으로서 그의 교양의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부에서는 기상, 해양, 지질광물, 식물, 동물(곤충을 제외), 곤충 등 6개 분야에서 총 433편의 논저를 제시하면서 곤충학자이자 자연과학도로서 전문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인문부에서는 언어, 역사, 민속, 지리, 농업(임축수산포함), 기타산업, 정치.행정, 사회, 위생, 교육.종교, 문화 등 총 11개 분야에서 599편의 논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석주명이 제주도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제주도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제주도문헌집』을 보면서 석주명이 단순히 필드의 수집가가

아니라, 제주도와 관련해서 양과 질에서 풍성하면서도 다양한 연구를 했던 학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은 '제주도에 대한 연구', 즉 '제주학'을 위한 1, 2차 문헌들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요논저와 주요논자들에 대해 간단하게 평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정종의 『제주도요람』의 경우 "내용이 비교적으로 충실하여 훌륭한 책이다."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탐라지보유』의 경우 "7000부나 소화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으로 보아 추천할 수 없는 책이다." 등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저자 15명에 대해 "나카이(中井猛之進)는 '조선식물'을 테마로 한 세계적 식물 분류학자로 조선문화에 공헌이 가장 큰 사람의 하나이다.", "젠쇼(善生永助)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구 조선총독부의 어용학자였다.", "모리(森爲三)는 '조선의 동식물'을 조사한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 그 업적에서 소홀해 빠진 것이나 실수가 있으나 전형적인 고등학교 정도의 교수로 일본국가의 난숙성(爛熟性)을 표시하는 인물이었다." 등의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문헌집』을 통해서 그의 학문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다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주체적 입장에서 수용하는 주관이 뚜렷한 학자였다. 그리고 탈고된 이후에도 새롭게 나온 22편의 논저들을 추가하는 것을 볼 때, 석주명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좀 더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하는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석주명의 『제주도문헌집』은 앞으로 제주학 관련 논저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수 참고서가 될 것이다.

4) 과제

석주명은 75만 마리의 나비를 수집하고 20여만 마리 나비를 정밀 관찰하여, 우리나라 나비학의 체계를 세웠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2년 1개월 동안 곤충채집부터 방언, 인구, 제주도 관련 문헌과 자료 등을 조사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읽은 것 중에 제주도에 관한 것이 나오면 즉시 적당한 재목을 붙여 닥치는 대로 카드에 기록하였다. '제주도총서'는 그 산물이고, 『제주도문헌집』 역시 그 덕택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기에 『제주도문헌집』은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제주도문헌집』에 수록된 1,096편의 문헌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의

자료들이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이전의 자료들이어서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일본의 주요대학 도서관 등에 산재해 있는『제주도문헌집』에 제시된 단행본, 학술지, 잡지, 보고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제주도문헌집』에 교과서, 개론서, 영어사전 등 일반적인 논저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수록된 1,094편 문헌들 전부가 직접적인 제주도 관계 문헌들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강영선・이민재의『생물학』, 권덕규의『조선사』, 황산덕의『표준세계사연표』, 홍주경・홍무경의『조선의복・혼인제도의 연구』, 석주명의 "나의 지표", "겨울의 동물" 등과 같이 제목만 보아서는 제주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논저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논저 속에 제주도가 관련 내용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명실상부한『제주도문헌집』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제주도 수필』분석 및 평가

1) 개요

『濟州島 隨筆』은 石宙明의「濟州島叢書」가운데 제4권에 해당하는 책이다. 石宙明 생전에 출간한 책에는 없는 '濟州島叢書'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활자화된 자료집이다. 이 책은 누이동생인 石宙善의 '跋文' 내용에 따르면, 石宙明의 회갑(陰9月 23日, 1968年 11月 13日)을 맞이하여 발간된 遺稿集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상단 왼쪽에 "石宙明 著/濟州島 隨筆/濟州島叢書④/寶晋齋 刊"이라 표기되어 있고, 속표지의 書名인『濟州島隨筆/<濟州島의 自然과 人文>』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곧 부제인 <濟州島의 自然과 人文>이 표지와 판권장의 책 이름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은『濟州島方言集』과『濟州島文獻集』등에서도 발견된다. 이 책들도 표지와 판권장 서명이 각각『濟州島方言集』과『濟州島文獻集』인데 반하여 속표지의 서명은『濟州島方言』과『濟州島關係文獻集 A List of the Literatures Concerning on Is. Quelpart)으로, 서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다.

맨 뒤 판권장에는 '濟州島隨筆 값 400원/1968年 11月 5日 印刷/1968年 11月 20日 發行/著者 石宙明/發行人 金駿基/發行 寶晋齋印刷所' 등으로 되어 있다.

『濟州島 隨筆』은 총 233면 분량의 책으로,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序
오돌똑(濟州道民謠)
Ⅰ. 總論

Ⅱ. 自然
1. 氣象
2. 海洋
3. 地質・鑛物
4. 植物
5. 動物(昆虫을 除外)
6. 昆虫

Ⅲ. 人文
1. 傳說・種族
2. 方言
3. 歷史
4. 外國人과의 關係
5. 關係人物
6. 民俗
7. 衣食住
8. 日常生活
9. 地理
10. 都邑・村落
11. 山岳
12. 島嶼
13. 地圖
14. 交通・通信
15. 農業
16. 林業
17. 畜産
18. 水産
19. 其他産業
20. 政治・行政
21. 社會
22. 人口・特殊部落
23. 衛生
24. 敎育・宗敎
25. 文化

2) 내용

『濟州島 隨筆』은 1949년 5월 15일자로 된 '序'를 시작으로, 제주도의 대표 민요인 '오돌똑(濟州道民謠)' 악보와 노랫말 4절 내용이 들어있다. 연이어 '目次'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目次'와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난다. 그 첫째는 '目次'에는 'Ⅰ. 總論, Ⅱ. 自然, Ⅲ. 人文'처럼 로마자 Ⅰ, Ⅱ,

Ⅲ이 표시되어 있는데 비해 본문에서는 '總論, 自然, Ⅲ. 人文'과 같이 '人文'에만 Ⅲ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요, 그 둘째는 '目次'에 없는 누이동생인 석주선의 1968년 11월의 '跋文'이 231면부터 232면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濟州島 隨筆』의 '序'는 다음과 같다.

> 「濟州島」는 나의 硏究 테에마의 하나이다. 日常生活에서도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 中에서 濟州島에 關한 것이라면, 適當한 題目을 붙들어서 隋時로 카아드에 記錄하여 쌓아 두었었다. 蓄積된 카아드 中에서 濟州島方言에 關한 것만을 뽑아서 벌써 拙著「濟州島方言, 第3篇 隨筆」에서 整理하였었다.
>
> 이제 그 나머지의 것과 그 뒤에 모인 것들을 整理한 것이 이 冊인데, 便宜上 旣著「濟州島關係文獻集」의 內容順으로, 또 카아드의 가나다 順으로 配列해 보았는데, 各 項目의 平衡을 爲하여 項目을 늘렸다. 그러나 若干의 配列의 非科學性과 內容의 重複을 避할 수가 없었다. 整理時에 時間의 餘裕만 있었다면, 著者自身의 不滿點을 어느 程度 除할 수가 있었겠지만, 形便이 그렇게 못된 것을 讀者諸位는 寬容해 주시기 바라며, 著者로서는 이 冊이 濟州島에 關心을 가진 人士들에게 多少라도 도움이 된다면 幸으로 생각한다.
>
> 1949. 5. 15. 서울에서

실제 본문은 '總論'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總論'은 '目次'와는 달리 순서를 나타내는 로마자 'Ⅰ' 표기 없이 그냥 '總論'으로 제시하고, 33개의 표제항을 나열하고 있다. 그 제시되는 표제항은 다음과 같다.

> 「까치」와 「포플라」, 踏田과 海女, 섬의 計劃의 大略, 動植物의 成立分子, 헬만·라우텐자하박사, 舊韓末頃의 産物, 「버스」에서 보는 風景, 400年前의 濟州島産物, 400年前의 濟州島産物 一覽表, 山海珍味의 雙璧, 三多·四多 혹은 八多, 世界一과 韓國一,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 1年間의 濟州島, 新聞記事로 본 解放後의 濟州島, 1880年頃의 濟州物産, 1880年頃의 大靜物産, 1880年頃의 旌義物産, 1880年頃의 濟州島物産 種類 一覽表, 1771年頃의 濟州島物産, 1295年頃의 濟州島産物, 李朝末頃의 日本에 輸出하던 産物, 1927年頃 特産品, 自然破壞의 防止策, 濟州島案內, 濟州島의 姿態, 濟州三奇, 主要産物, 地瘠民貧, 天然記念物, 土地의 割當과 景觀, 土地利用景의 楕圓環狀帶, 土地利用으로 본 地帶, 解放後 4年에 濟州島를 一周하고 느낀 점

이 '總論'은 외지인인 石宙明의 '밝은 눈과 귀'가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첫째 표제항인 '「까치」와 「포플라」'의 '半島風에서 떠난 風景'이 앞으로 제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 '總論' 표제항의 배열은 석주명이 '序'에서 밝힌, "若干의 配列의 非科學性"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까치」와 「포플라」'부터 '헬만·라우텐자하박사'까지 5개 표제항 다음에 'ㄱ'항의 '舊韓末頃의 産物'을 배열하고 있다. 또 '1880年頃' 등 연도를 'ㅅ'항 다음에 배열하는 것으로 볼 때 '일구팔팔'로 읽은 것으로 보인다. '1880年頃의 濟州物産', '1880年頃의 大靜物産', '1880年頃의 旌義物産' 등의 배열은 『東國輿地勝覽』 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것도 정상적인 배열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自然

'目次'와는 달리 순서를 표시하는 로마자 없이 '自然'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氣象, 海洋, 地質·鑛物, 植物, 動物, 昆虫' 등 6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1) 氣象

'氣象'에서는 8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降水量'을 비롯하여, '季節風과 颱風, 氣溫, 氣候, 最大의 暴風' 그리고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이 되는, '구뭄일뢰 선보럼 우친다, 바람(風), 이월 바람에 가문쇠뿔 오그라진다' 등 3개의 표제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뭄일뢰 선보럼 우친다"는 대개는 "구뭄 우치민 선보름 우친다"나 "구뭄 칠팔일 우치민 선보름 우친다"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선보럼' 앞에 '우치민(믄)'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2) 海洋

'海洋'에서는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이 되는 '무숫기'를 시작으로, '沿岸地帶 海洋觀測, 潮汐干湧의 差, 海流, 海水의 利用' 등 5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무숫기'는 "拙著 濟州島方言集 155項 參照"라 하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차이를 기록한 圖表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3) 地質・鑛物

'地質・鑛物'에서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바위'를 비롯하여 42개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 介砂層, 古地質의 資料, 中村新太郎氏의 火山考說, 大畓, 바위, 非顯晶質玄武巖, 蛇穴, 森島熔岩, 水成岩, 水源及 地下水理, 水源의 分類, 岩石과 門齒, 熔岩隨道, 圓錐山의 數와 質, 應用地質, 第三紀化石, 濟州島를 調査한 地質學者, 濟州島陸續說, 濟州島의 火山岩, 地震, 地質, 地質調査, 地形, 地形의 特徵, 1000m以上의 高峰, 天下의 一大奇觀, 天下絶品의 火口壁, 貝砂의 沙漠, 原口九萬氏, 漢拏山熔岩, 漢拏山頂上의 外輪山, 翰林面의 洞窟, 海岸의 湧水, 行路, 玄武巖噴出時代以後의 地層, 火山構成上으로 본 4期, 火山構造線, 火山岩, 火山으로서의 漢拏山, 火山의 基盤, 火山彈의 採集地, 化石

이 가운데 '熔岩隨道'는 용암동굴을 말하는 것이매 '熔岩隧道'로 수정되어야 한다.

(4) 植物

'植物'에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고롬쿨'을 시작으로 하여, 73개의 표제항이 수록되어 있다. 그 73개의 표제항은 다음과 같다.

> 고롬쿨, 高等隱花植物, 高山植物, 곰팡(黴), 꼼치, 굴거리나무의 發育, 中井博士의 植物의 垂直分布表, 中井猛之進博士의 略歷, 暖帶生 常綠闊葉樹, 녹나무(樟), 느티나무, ᄂᆞ물, ᄂᆞᆷ삐, 대죽, 나무고사리의 學名, 댕댕이덩굴, 돔박낭, 멩게낭, 면마(綿馬), 森 爲三氏의 植物의 垂直分布表, 「무릇」의 密度調査, 물롯, 蜜源植物, ᄆᆞᆯ망, 베염고장, 복닥낭, ᄇᆞ금, 속, 솔낭, 宿俗氏가 본 濟州島産 食用植物, 시로미, 植物, 植物關係, 植物區分, 植物名, 植物의 重植分布에 關한 最古文獻, 植物의 天然記念物, 植物地理學上의 位置, 野生有毒植物, 藥用植物과 有用植物, 羊齒植物, 染井吉野, 染井吉野櫻의 自生地의 確認, 染井吉野櫻의 進出, 예반초, 오랑캐꽃, 義州金剛山森林植物中 濟州島産과 共通되는 種類, 자굴, 濟州島植物과 石戶谷 勉氏, 濟州島에 分明히 不適한 樹木竹類, 濟州島의 代表的樹木, 濟州全島를 適地로 하는 樹木竹類, 韓國南部島嶼産 暖帶性常綠闊葉樹, 韓國産 柳類分布狀況, 寒國植物調査의 貢獻者, 진달래, 찔레

나무, ᄌᆞ밤낭, 最初의 染井吉野櫻의 標本, 표고버섯 天然發生地, Crinum Line, 타케(Taquet)를 記念하여 命名된 濟州島植物, 「타게」와 「포우리」, 탈, 宅木, 포우리(Faurie)를 記念하여 命名된 濟州島植物, 퐁낭, 漢拏山上峰을 除外한 全島를 適地로하는 樹木竹類, 漢拏山上部를 適地로하는 樹木竹類, 漢拏山植物의 最初의 採集家, 漢拏山의 代表的高山植物, 海藻의 분포, 향유초(香薷草)

한편,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27개의 표제항은 다음과 같다.

고롬쿨, 곰팡(黴), 꼼치, 느티나무, ᄂᆞ물, 놈삐, 대죽, 댕댕이덩굴, 돔박낭, 멩게낭, 물롯, 蜜源植物, ᄆᆞᆯ망, 베염고장, 복닥낭, ᄇᆞ금, 속, 솔낭, 시로미, 植物名, 예반초, 자굴, 진달래, 찔레나무, ᄌᆞ밤낭, 탈, 퐁낭, 향유초(香薷草)

중복되는 표제항 가운데 '퐁낭'은 그 나무 이름이 '폭'이라는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어서 '폭낭'이어야 한다. '폭'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팽'이다. 'ᄆᆞᆯ망'은 바다풀인 모자반의 濟州語로, 이 '植物' 분야에는 바다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動物(昆虫을 除外)

'動物'에서는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표제항인 '까마귀'를 비롯하여 52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까마귀, 까마귀 똥케우리듯, 개구리의 種類, 게우리, 괴기, 꿩(雉), 金錢蟹, 淡水魚, 大鰻, 돔박생이, 動物關係者, 動物名에 濟州島가 包含된 濟州島特産의 脊椎動物, 動物分布上으로 본 大韓海峽, 動物의 天然記念物, 動物學辭典과 濟州島, Duke of Bedford의 動物學探檢, 멩마구리, 무낭, 白鹿潭의 魚類, 「버렝이」와 「생이」, 복, 무당개구리, 비둘기(鳩), 酒井 恒氏의 日本蟹類圖說, 삼천발이(三千足), 앤더슨氏, 앤더슨氏와 市河三喜氏의 採集品, 원숭이의 飼育, 有尾類로 본 濟州島, 全滅된 獸類, 제비, 濟犬, 濟馬와 才馬, 濟州島南端部의 動物相, 濟州島에 갈뻔한 孔雀, 濟州島에 온 孔雀, 濟州島의 哺乳動物區系, 鳥類分布上으로 본 濟州島, 종달새, 지네種類, 진드기, 珍島 「八色鳥」, 참새, 脊椎動物로 본 濟州島의 位置, 最初에 記錄된 哺乳類, 最初의 學術調査班, 耽

羅전복, 爬虫類와 兩棲類, 捕鯨, 漢拏山의 鳥類, 蟹類, 回遊魚類

『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14개의 표제항은 다음과 같다.

까마귀, 까마귀 똥케우리듯, 게우리, 괴기, 돔박생이, 멩마구리, 무낭, 「버렝이」와 「생이」, 복, 濟犬, 濟馬와 才馬, 종달새, 지네種類, 진드기, 참새

중복 표제항 가운데 ‘무낭’은 표준어 ‘흑산호’에 해당하는 어휘로, 『동국여지승람』(권 38) ‘제주목 토산’에는 ‘無灰木’이라 하여, “우도에서 난다. 바다 가운데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여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곧 굳고 단단해 진다(出牛島在海中柔脆隨波上下出水乃堅硬)”라 기록하고 있다.

(6) 昆虫

‘昆虫’에서는 23개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고치잴」과 「왕잴」, 昆虫類로 본 濟州島의 位置, 昆虫採集의 코오스, 昆虫學關係의 來島歐美人, 大學試驗場 附近의 蝶類, 쓰르라미, 말축, 매미의 種類, 斑蟹屬昆虫, 普通寄生虫, 複雜한 蝶相, 山房山의 蝶相, 쉬, 심방나비, 岡本半次郎氏, 市河三喜氏, 잠자리, 濟州島를 調査한 昆虫學者, 珍蝶 암붉은 오색나비, 줄재기(蠟蜺科昆虫), 天牛科로 본 濟州島, 最初로 記錄된 昆虫, 最初에 記錄된 노린재(椿象科)

『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5개의 표제항은 다음과 같다.

「고치잴」과 「왕잴」, 말축, 쉬, 심방나비, 잠자리

위 표제항 가운데 ‘줄재기(蠟蜺科昆虫)’는 『濟州島方言集』(83면)의 “줍재기 挾虫(『蠟蜺』)”에 따라 ‘줍재기’로 수정되어야 한다.

3) 人文

‘人文’은 ‘1. 傳說・種族’을 시작으로 ‘25. 文化’까지 2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項目의 平衡을 爲하여 項目을 늘렸다.”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뒤의 ‘<표 2>『濟州島關係文獻集』과『濟州島 隨筆』의 인문 항목 비교표’ 참조)

(1) 傳說・種族

‘傳說・種族’에서는 25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인 ‘川崎繁太郎’을 맨 처음에 제시한 것은 ‘川崎繁太郎’을 ‘가와자키 시게타로’로 읽었기 때문이다. 다른 범주에서도 확인되는 바지만 일본인의 이름은 일본어로 읽어서 가나다 순에 맞게 배열하고 있다. 이 ‘傳說・種族’에서는 25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 川崎繁太郎博士의 三神人觀, 능청스런 濟州牧使의 理財法, 島民의 由來, 島民의 血統, 山房德, 三姓穴, 三神人名考, 三神人說話의 一說, 常夏國, 常夏國의 橘, 星主・王子의 稱號, 연날리기(放鳶)의 起源, 小田省吾氏의 耽羅建國傳說觀, 大原利武氏의 韓民族 渡東說, 濟州魂, 韓國에 들어온 南洋黑人, 種族, 左氏, 州胡, 創世神話, 耽羅와 耽津과 耽州, 耽羅族, 耽羅 中興祖 三高氏, 漢拏山翁, 海神族

이 25개 표제항 가운데 ‘三神人名考’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항목이며, ‘25. 文化’의 ‘金福壽의 로만스(傳說)’(224면)는 ‘(傳說)’이라고 손톱묶음 속에 그 영역을 밝히고 있음에도 ‘傳說・種族’에 넣지 않았다.

(2) 方言

『濟州島關係文獻集』‘言語’라는 영역이『濟州島 隨筆』에서는 ‘方言’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42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 「가슴」의 語源, 개차반, 곰배, 기러기(雁), 노루의 語源과 變遷, 동생(弟)의 語源,「되미」의 古語, 둑새기, 뚤픈다,「ㅂ」音의 變遷, 마음(心)의 古語와 濟州語,「말삼」의 古語와 濟州語와의 關係, 몬독, 바람(風)의 古語와 濟州語, 방

상, 병풍의 變遷, 뽀롱이, 봉그다, 비낭대죽, 비사야語, 「사람」의 古語, 삼키다, 「소」의 變遷, 시루(甑)의 語源, 심방, 「쑬」과 「비바리」, 억새의 語源, 오리(鴨)의 語源及 其變遷經路, 李崇寧氏의 「ㆍ」音攷, 자루(柄)의 語源, 잠긴다(沈), 丁泰鎭著 朝鮮古語方言辭典(1948年)에 나타난 濟州島方言, 濟州島方言과 馬來語,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조다(刻)와 쪼다(啄), 「짐승」의 變遷, ㄸ音의 變遷, 찰떡, 찹쌀, 첩(妾)의 古語와 變遷, 파리(蠅)의 語源과 그 變遷, 하늬바람

한편,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표제항은 '「가슴」의 語源, 「말삼」의 古語와 濟州語와의 關係, 시루(甑)의 語源, 심방' 등 5개이다. 이 가운데 '심방'은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표제항인데도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내용이다. 『濟州島方言集』(166면)의 '심방'은 '8. 日常生活'의 '심방'과 표제항은 물론 그 내용도 또한 중복된 경우다.

심방. 濟州語로 무당의 뜻으로 男女가 다 될 수 있고 大槪는 世襲的 職業이고 賤民에 屬한다. 비록 近日에는 巫事를 禁止하여 潛行的으로 하니 심방의 數가 적지만 過去에는 其數가 대단히 많았고 處處에 神堂도 많았다. 어느 집이나 1年 1次의 굿을 아니한 집이 없었다하니 그 盛事는 지금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겠다.(『濟州島方言集』, 166면)

심방. 陸地의 '무당'의 뜻이고 男女가 다 있어 世襲的 職業이며 賤民에 屬한다. 村山智順氏에 依하면 '尋訪'(shim pang)은 '神房'(shin pang)에서 由來하였고 '神房'은 '僧房'이 轉한 것 같다고 하고 이 名稱은 咸北, 濟州島 等地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分明히 '심방'이고 또 '神房'이 咸北에서 쓰인다고 하나, 咸北 어느 地方에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語源은 同音語인 馬來語인 simbang(不可信의 뜻)일 것으로 생각된다.(『濟州島 隨筆』, 54면)

(3) 歷史

'歷史'에는 83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白鹿潭에서 처음으로 水泳한 사람'도 역사가 됨을 알겠다.

柑橘科歛의 弊, 高麗때의 島擾, 高麗때의 濟州島官吏, 高麗成宗의 地方官制, 古史에 있는 記錄, 貢馬, 觀德亭, 國家性, 軍備, 盧正, 大饑, 島民의 氣質과 李朝의 鎖國政策, 流配地, 牧官, 牧馬, 牧使, 牧使輩의 惡魔的享樂, 牧使의 寫眞, 牧胡亂, 白鹿潭에서 처음으로 水泳한 사람, 別貢, 烽燧, 山場馬, 三國時代의 住居, 三郡時代의 郡勢比較, 三奇四絶五虎, 三別抄, 三別抄亂의 經過, 三別抄의 亂, 三別抄의 濟州入據, 辛丑民亂(1901年), 歷史的 特産物, 鹽漢, 小田氏의 朝鮮小史年代表에 있는 濟州島에 關한 記錄, 流配된 兩班의 生活, 陸地와의 最初의 交誼, 李朝때의 島擾, 李朝末頃까지 남아 있던 城內의 樓亭, 李朝末頃의 官吏의 俸給, 李朝末頃의 府郡의 等級, 李朝末頃의 3邑 8鎭, 李朝末頃의 漁法, 李朝末의 島政, 李朝末의 外戚專橫, 李朝成宗 때의 官制, 李朝時代의 島民의 嘆歌, 李朝時代의 濟州島, 李朝의 救恤, 李朝의 最初의 軍馬徵用, 1845年(憲宗 11年 乙巳)頃의 主要官員, 1911年 6月 13日 現在의 地方行政區域, 1912年 1月 1日 現在의 行政區域, 一門雙絶, 濟州島의 走馬技, 濟州島略, 濟州島와 高句麗, 濟州島와 高麗, 濟州島와 百濟, 濟州島와 新羅, 濟州島와 外地와의 關係, 濟州島와 古官吏, 濟州島의 隷屬史, 濟州의 分隷, 朝鮮農政史考中 高麗時代의 耽羅에 關한 記錄, 朝鮮農政史考中에 있는 濟州島에 關한 記錄, 朝鮮農政史考中 李朝時代의 飢饉과 賑政에 對한 記錄, 朝鮮農政史考中 李朝時代의 濟州島에 關한 記錄, 朝鮮農政史考中 李朝時代의 濟州島에 關한 記錄, 朝鮮農政史考中 濟州島에 關한 最大의 記錄, 朝鮮史大系年表中 高麗時代의 耽羅에 關한 記錄, 朝鮮史大系年表中 三國時代의 耽羅에 關한 記錄, 朝鮮史大系年表中 李朝時代의 濟州에 關한 記錄, 韓國歷史上 最大事件, 最近의 流配地, 出版業과 譯官, 崔南善著 歷史日鑑中 主要濟州島記事, 耽羅古史, 耽羅使者, 耽羅志, 獻馬, 洪以燮氏의 朝鮮史圖解表에 오른 濟州島 關係記事, 黃柑製, 皇(黃)龍寺九層塔

(4) 外國人과의 關係

'外國人과의 關係' 부분에서는 32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高麗文宗의 親宋策, 高麗時代의 倭寇, 郎可朔其, 蘭船의 朝鮮漂着, 達魯花赤, 蘭人과 明人의 大量漂到, 琉球世子의 橫死, 三浦倭亂의 遠因, 西洋人入國의 始, 스페르웨르, 譯官, 譯學, 元寇, 元의 濟州島進出의 遠因, 李朝顯宗朝에 濟州에 漂着한 明人, 1908年(隆熙 2年)頃의 濟州內在住外國人, 露日戰爭突發前年에 進出한 日人數, 日本 遣隨使의 順路, 日本의 移住漁民, 日本人의 根據

地, 日本帝政下의 島制, 日人移民, 日本移住漁村, 壬子倭變, 濟州島와 蒙古, 濟州島의 資源과 日本人의 進出, 濟州人의 海外漂流, 耽羅와 日本, 漂流, 漂着船에 對한 牧使의 物慾, 하멜 一行의 漂到, 하멜漂流記

이 가운데 '濟州島와 蒙古'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표제항이다.

(5) 關係人物

'關係人物'에서는 29개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洪義女는 '趙貞喆과 洪義女', '洪義女' 2개의 표제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高兆基, 具瑪瑟, 金坵, 金萬鎰, 金方慶, 金淨, 金之錫, 萬德, 朴燕, 朴泳孝의 流配, 徐福, 李邦翼, 李伯謙과 宋英, 李元鎭, 李在守, 李土亨, 林樸, 田拱之, 趙曮, 趙貞喆, 趙貞喆과 洪義女, 崔陟卿, 崔益鉉의 流配, 秋史, 耽羅民 貞一, 하멜, 許穆, 洪義女, 洪鍾宇

(6) 民俗

'民俗'에서는 38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個人祭, 敬神崇祖의 思想, 고인돌, 굿한다, 南極老人星, 動土, 馬羅島의 아미씨당, 蒙古와의 공통점, 蒙古遺風, 뫼(墓), 무당의 名稱, 巫女, 賣卜者, 祈禱者의 數, 巫神, 巫祖의 性, 巫風及神祠, 巫覡의 數, 民俗, 百中, 本鄕, 首神房, 神山說, 神意占, 아이누 族의 形跡, 燃燈, 燃燈祭, 영들뚤, 今村鞆氏의 蛇穴에 對한 解釋, 濟州島神歌, 照里劇, 芝峯類說에 있는 濟州島婦女記, 遮歸, 遮歸文化圈, 兎山堂, 吐坪里의 이레당과 여드레당, 風水思想, 風水와 類形, 風神, 風神祭

한편,『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11개 표제항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굿한다, 무당의 名稱, 本鄕, 首神房, 神山說, 영들뚤, 濟州島神歌, 照里劇, 遮歸, 風神, 風神祭

이 11개의 표제항 가운데 '영들똘'은 『濟州島方言集』(69면)에는 '영등쏠'로 표기되어 있다.

(7) 衣食住

'衣食住'에는 21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농립모(農笠帽), 대울타리(竹垣), 大門, 떡, 島民의 獨立性, 島民의 生活, 島民의 食料品, 便所兼豚舍, 便所와 便意, 奉天水, 婦女의 女裝, 燃料, 엿, 五合酒, 溫突과 燃料(온돌 더 있음), 料理, 衣服, 자리회, 住宅, 지붕, ᄌᆞ배기

『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9개의 표제항은 아래와 같다.

농립모(農笠帽), 大門, 떡, 便所兼豚舍, 奉天水, 엿, 溫突과 燃料, 자리회, ᄌᆞ배기

이 가운데 '大門'은 표준어 '마루문'에 대응하는 어휘다.

(8) 日常生活

'日常生活'은 100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어 있다. 표제항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각씨가 아까우면 처가집 주먹낭도 아까워한다, 감옷, 거릿좌수=종다리암쇠, 結婚, 겹메움, 꼭대기, 冠婚喪祭費, 꽝, 구덕, 그년의 ᄇᆞ름, 勤勞精神, 기시린 도야지가 ᄃᆞ라멘 도야지 타령ᄒᆞᆫ다=쌍얼체이가 외얼쳉이 타령ᄒᆞᆫ다, 나것일코 나함박 버른다, 男權과 女權, 男女의 일의 區分, 납해치, 넹바리, 누어서 지름떡 먹기, 대머리(禿頭), 島民의 特性, 돋잠에 개꿈, 돋추념(돼지추렴), 돋 풀아 ᄒᆞᆫ냥 개 풀아 닷돈ᄒᆞ니 양반인가, 돌담, 돌당바도 ᄆᆞᆯ방위, 동백나무 울타리 집, ᄃᆞᆨ발 그리듯, 망태기, 매, 머돌, 모관놈, 母女의 戀情, ᄆᆞᆯ발이 젖으야 잘산다, 바가지, 바구니, 바농젼동이 ᄀᆞᆯ라매여 바농질 헤여지나, 발막아 눙나, 方位, 벌찝거시다, 뼁, 불임질, 비온날 쇠ᄎᆞᆼ지 갓치, 사농캐 언똥 들어먹듯, 사

름잇수까, 山不近海不近, 産馬에 關한 韓國의 古言, 살찻보리 거죽챠 먹은덜 씨아시사 한집에 사랴, 삼승할망, 삼춘, 三無, 三地方色, 쌍얼쳉이가 외얼쳉이 타령ᄒᆞᆫ다=기시린 도야지가 ᄃᆞ라멘 도야지 타령ᄒᆞᆫ다, 새끼(새ᄭᅵ=방언집), 셍완, 소도리, 손으로 강알막듯, 솥, 수질, 숭눙, 숭어뛰면 복쟁이 뛴다, 씨름, 실푼간에 선떡, 심방, 十二支에 依한 사람의 名稱, 숫도덕분에 나팔불기, 안반, 앙살운 암캐갓치 앙앙ᄒᆞ지 마라, 애기구덕의 效用, 어비어비, 엇수다, 에미일른 송애기, 여드레 팔십리, 女權, 女子의 勤勞精神, 女子의 名稱, 女子의 物件携帶, 女子의 注力하는 일, 옛날 大靜郡의 人情, 오그랭이글ᄌᆞ, 牛馬부릴 때 내는 소리, 웃뜨릇놈, 陰六月二十日, 이슬에 큰 사름, 離虛島, 人情, 日本과의 共通點, 立春, 潛女의 潛水服, 전어(田魚), 절구(臼), 濟州女에 關한 民謠, 濟州女의 特異한 2點, 조칵매기 ᄇᆞ비듯, 종다리 암쇠=거릿좌수, 지나가는비, 지름떡먹기, 地方婦女의 性格을 나타낸 民謠, 체(篩), 풀다, 회(膾)

한편,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66개의 표제항은 아래와 같다.

각씨가 아까우면 처가집 주먹낭도 아까워한다, 감옷, 꼭대기, 꽝, 구덕, 그 년의 ᄇᆞ름, 기시린 도야지가 ᄃᆞ라멘 도야지 타령ᄒᆞᆫ다=쌍얼체이가 외얼쳉이 타령ᄒᆞᆫ다, 나것일코 나함박 버른다, 납해치(납헤치=방언집), 넹바리, 누어서 지름떡 먹기, 대머리(禿頭), 돈잠에 개꿈, 돈추념(돼지추렴), 돋 풀아 ᄒᆞᆫ냥 개 풀아 닷돈ᄒᆞ니 양반인가, 돌당바도 ᄆᆞᆯ방위, ᄃᆞᆨ발 그리듯, 망태기, 매, 머돌, 모관놈, ᄆᆞᆯ발이 젖으야 잘산다, 바가지, 바구니, 바농젼동이 줄라매여 바농질 헤여지나, 발막아 눙나, 벌찝거시다, 뼁, 불임질, 비온날 쇠충지 갓치, 사농캐 언똥 들어먹듯, 사름잇수까, 살찻보리 거죽챠 먹은덜 씨아시사 한집에 사랴, 삼승할망, 삼촌, 새끼(새ᄭᅵ=방언집), 셍완, 소도리, 손으로 강알막듯, 솥, 수질, 숭눙, 숭어뛰면 복쟁이 뛴다, 씨름, 실푼간에 선떡, 심방, 十二支에 依한 사람의 名稱, 숫도덕분에 나팔불기, 안반, 앙살운 암캐갓치 앙앙ᄒᆞ지 마라, 어비어비, 엇수다, 에미일른 송애기, 여드레 팔십리, 女子의 名稱, 오그랭이글ᄌᆞ, 牛馬부릴 때 내는 소리, 웃뜨릇놈(웃쓰릇놈=방언집, 이슬에 큰 사름, 離虛島, 전어(田魚), 조칵매기 ᄇᆞ비듯, 종다리 암쇠=거릿좌수, 지나가는비, 지름떡먹기, 地方婦女의 性格을 나타낸 民謠, 체(篩)

이 66개의 중복 표제항 가운데 '누어서 지름떡 먹기'와 '지름떡 먹기'는 그 내용이 비슷하다.

누어서 지름떡 먹기. 누어서 떡먹기. 「지름」은 「기름」의 濟州語로 「지름떡」은 가장 맛있는 떡으로 되어있다.(102면)

지름떡 먹기. 「꾀떡먹기」라고도 하고 「식은 죽 먹기」 「약과 먹기」의 뜻. 「지름」은 「기름」의 「꾀」는 「깨」의 濟州語. 지름떡이나 꾀떡은 濟州島에서는 最上品의 飮食이다.(112면)

또 '심방'은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그 표제항은 물론 그 내용도 또한 같으며, '전어(田魚)'는 '콩잎'을 말하는 것으로, "이 콩잎을 料理까지 한다면 相當하다고 해서 田魚라고 한다고."(111면) 하였다.

(9) 地理

'地理'에서는 54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甘山川, 南端部의 地域, 南北과 表裏, 南北二分, 多島海와 濟州島, 島內二大名所, 濟州島의 特色, 面積, 濟州島의 面積과 海岸線, 名勝古蹟, 물랑소, 「사미랑」과 「뻘춰」, 사미랑號航海誌, 山北人과 山南人, 三地方名, 西洋人이 命名한 諸地名, 石坡, 19世紀末에 2外國人이 測量한 朝鮮王國의 面積, 洋稱의 地名, 瀛洲, 五百將軍, 龍潭川, 邑面의 面積, 蟻項, 二大名所, 日本人이 記錄한 濟州島의 面積, 全南名物, 濟州, 濟州島와 브르타뉴, 濟州島와 志摩國石鏡, 濟州島의 孤立性, 濟州島의 區域, 濟州島의 南北, 濟州島의 別稱, 濟州島沿海를 通過하고 韓國에 關係를 가진 西洋人, 濟州十景과 耽羅八景, 濟州主島의 位置及面積, 韓半島, 地名, 天帝淵, 天池淵, China Pilot(3rd Ed. 1861年)에 나타난 地名, 「퀠파트」의 意, 耽羅의 語源, 太古朝鮮의 地域, La Pérouse, 平安道와의 共通點, 河川, 漢拏庭園, 海水浴場, 海岸線과 島形, 海岸線延長, 虹橋, 孝敦川流域

한편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8개의 표제항은 아래와 같다.

물랑소, 石坡, 瀛洲, 蟻項, 濟州, 濟州島의 別稱, 地名, 耽羅의 語源

(10) 都邑・村落

‘都邑・村落’에는 23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各里의 地形, 大市街地, 大靜, 都市, 洞里, 慕瑟浦, Moggan Mocxo, 「물미」와 「세미」, 山地와 別刀, 西歸浦, 西歸浦의 名所, 선흘, 城邑里, 首都의 位置, 溫平里, 瓦浦, 爲美里, 旌義面과 旌義邑, 濟州邑, 濟州邑內의 名勝, 濟州의 別稱, 짐병, 翰林

이 ‘都邑・村落’에서 특이한 것은 ‘首都의 位置’라는 표제항이다. “濟州島의 首都는 古來로 現在의 濟州이다.”라 하고 있다.

한편『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7개의 표제항은 아래와 같다.

慕瑟浦, 「물미」와 「세미」, 선흘, 城邑里, 瓦浦, 濟州의 別稱, 짐병

(11) 山岳

‘山岳’에는 20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角秀岩, 孤根山, 文獻備考에 依한 名山, 「文獻撮要」에 記錄된 12山, 물오름(水岳), 白鹿潭, 白鹿潭과 山房山, 別刀峰, 山房山, 石多山, 城山奇岩, 城板岳, 松岳山, 솔오름(米岳), 御乘生岳, 오름(兀音), 漢拏山, 漢拏山高, 漢拏山에 온 曆官, 漢拏山의 位置와 高

『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5개의 표제항은 아래와 같다.

물오름(水岳), 城板岳, 솔오름(米岳), 御乘生岳, 오름(兀音)

(12) 島嶼

‘島嶼’에서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牛島, 地歸島’ 등 2개의 표제항을 비롯하여 아래의 20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加波島, 加波島와 外國人, 甲沈島, 로니 부릇프岬・加波島間, 馬羅島, 문섬, 飛楊島, 森島, 새섬, 屬島, 牛島, 濟州島와 시칠리아島, 濟州島와 鬱陵島, 韓國의 代表島, 韓國의 島嶼數, 韓國의 三大島와 五大島, 竹島, 地歸島, 楸子島, 兎島, 兄弟島, 虎島

(13) 地圖

'地圖'에서는 '1892年(日本明治 25年)頃의 地圖, 1902年(日本明治 35年)頃의 地圖, 1905年(明治 38年)頃의 地圖, 1910年(明治 43年)頃의 地圖, 1913年(大正 2年)頃의 地圖, The Times 世界大地圖, 解放된 해에 出版된 地圖' 등 7개의 표제항의 지도가 제시되었다.

(14) 交通・通信

'交通・通信'에서는 다음과 같이 29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各燈臺 出入及通過 船舶數, 交通, 燈臺, 李朝末頃의 交通通信, 李朝末頃의 錨地, 木濟航路, 無電設置, 別刀港 修築工事費, 旅行, 옛날의 船舶碇泊地, 市河三喜氏의 旅程, 人力軌道車, 隣接府邑面間距離, 1904年(明治 37年)頃의 船便, 1914年(大正 3年) 12月 告示 제64號에 依한 面里數, 1915年頃의 濟州島航路, 1920年頃의 乘合自動車 運轉狀況, 1929年頃의 定期船 寄港地, 1929年頃의 航路船舶, 1929年頃의 貨物運送日本船隻數, 韓日合邦前後의 寄港地, 全盛時代의 交通機關, 朝鮮・日本間 貿易旅客 港別調, 最良港, 最初의 汽船運航, 通信史, 航路目標, 航路標識 通過及出入船舶, 港灣

(15) 農業

'農業'에는 70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柑橘類와 除虫菊, 柑橘類의 種類名, 柑橘栽培와 風土, 柑橘栽培의 歷史, 고구마, 고구마의 傳來, 고구마栽培의 現狀, 고구마 貯藏方式, 京城大學 附屬生藥硏究所 濟州島 試驗場, 南北의 土質과 農作, 農業硏究機關, 農業, 農業經營上의 長點과 短點, 農業 10個年 計劃, 農作物의 病虫害及 其他災害, 農土, 보

리와 豚肥, 大麥播種法, 벼의 品種, 斗量, 每年繼續하여 單作又는 混作하는 作物, 棉作의 沿革, 木香의 摘葉試驗, 밭(田)의 良否, 벼(稻)의 奬勵優良品種, 覆土法, 「ᄇᆞᆨ개기」와 「ᄇᆞᆺ개기」, 사과, 산뒤, 조의 品種, 三椏, 水利組合, 施肥要領, 亞熱帶果樹, 牛耕, 緯度와 暖國果物, 유자(柚子), 輪栽法, 人蔘의 産地, 1921年 統計에 依한 主要作物의 分布, 1930年現在의 農産物, 斗落(한 마지기), 1戶當 耕作面積, 適作物栽培狀況, 全南種苗場 濟州支場에서 試驗한 種類, 濟州倍取, 濟州의 柑橘類, 主要田作物의 分布, 趙藷, 主要作物의 播種量比較表(升反當), 地力, 地目, 地實, 崔南善著 歷史目鑑中의 柑橘栽培事項, 炭素率, 土性及土質, 土壤의 分類, 土壤의 特徵, 土地改良, 土地改良에 좋은 參考書, 土質과 小便, 特用作物, 播種後의 踏壓作業, 苴麻의 栽培試驗, 稗와 棉, 顯著한 柑橘의 15種, 호미, 火田耕作者數, 火田面積, 休閑栽培와 輪栽

이 목록 가운데 '「ᄇᆞᆨ개기」와 「ᄇᆞᆺ개기」'는 콩과식물로, 표준어 '살갈퀴'에 해당한다. '식물'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들이 '거름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6개의 표제항은 아래와 같다.

「ᄇᆞᆨ개기」와 「ᄇᆞᆺ개기」, 산뒤, 牛耕, 趙藷, 地實, 호미

(16) 林業

'林業'에서는 중복되는 '야마시, 초기' 2개의 표제항을 포함하여 16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菌蕈의 統計, 本島産의 朝鮮的 物産, 北朝鮮 森林樹木과의 共通種, 椪子林, 森林의 廢滅, 야마시(山師), 乙種要存林, 林産物, 林野面積, 林業의 將來目標, 林政史, 全南의 竹林과 濟州島, 韓國的 林野의 副産物, 초기, 椎茸栽培의 沿革, 漢拏山 國有林

여기서 '야마시(やまし)'는 '椎茸栽培技術'을 말한다.

(17) 畜産

'畜産'은 47개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口碑傳說에 依한 牧畜의 起源, 鹿山場, 島産蜂蜜의 質, 島産主要畜産物, 말(馬)의 種類, 1914年頃의 소(牛)의 改良事業, 목산지대, 牧場과 開闢, ᄆᆞ쉬의 나이(牛馬의 年齡), 병신말, 병신소, 四大家畜, 上中下場城, 소(牛), 新編集成牛馬醫方, 養鷄, 養鷄事業의 歷史, 養鷄奬勵要項, 養蜂, 養蜂의 利不利點, 養蠶에 有利하다는 條件, 養蠶의 歷史, 얼럭소(斑牛), 옛날의 牧場表, 牛角, 牛馬, 牛馬와 牧草, 牛馬와 放牧, 牛馬의 飼育, 牛色의 缺點, 牛의 去勢의 嚆矢, 元으로부터 持來한 駝驢羊, 遊佐幸平氏의 濟州島改良案, 乳用山羊 移入의 嚆矢, 1905年頃의 住民과 畜産, 1926年頃의 養鷄, 濟州馬의 用途, 濟州馬의 長點과 短點, 濟州馬의 特徵, 濟州馬名과 日本馬名의 對照, 濟州 十三場, 濟州牛의 特徵, 畜産, 畜牛에 對한 當局의 施設計劃要項, 畜産의 10個年計劃, 畜産奬勵機關, 畜産行政의 方針

이 목록 가운데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9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말(馬)의 種類, 목산지대, ᄆᆞ쉬의 나이(牛馬의 年齡), 병신말, 병신소, 소(牛), 얼럭소(斑牛), 牛角, 牛色의 缺點

이들 9개의 목록 가운데 '목산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목록은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말(馬)의 種類'를 그 예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말(馬의) 種類:

1. 가라ᄆᆞᆯ(眞黑)---먹가라(眞黑)----等馬
   츄가라(茶褐色)
2. 청초마(黑白混色에 靑艶 있는 말)
3. 적다ᄆᆞᆯ(赤)----고치적다(眞赤)
   구렁적다(고치적다와 초적다의 中間)
   초적다(淡赤, 모시갈기와 모시총이 生함)
4. ᄋᆞᆯ아ᄆᆞᆯ(斑)----거문ᄋᆞᆯ아(黑白斑)

노린올아(黃白斑)
5. 유마(褐)------즐유마(赤褐), 갈기총(黑色)----유마 中 1等馬
거문유마(黑褐)
부인유마(黃褐)
6. 벽마(白)
7. 고라밀(灰)
8. 거을밀(各足 上部가 白色)----最劣等馬

(18) 水産

'水産'은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1개의 표제항인 '고기잡이'를 비롯하여 20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장 重要한 海藻, 고기잡이, 磯洗, 代表的水産物, 1909年頃의 漁業根據地, 水産物, 水産의 15個年 計劃, 魚族·魚場及 魚期, 鰒魚, 李朝末頃의 在濟州島 日本人의 漁業統計, 李朝末頃의 著名한 漁區, 李朝末頃의 海産物, 1903年中의 日本人의 漁獲高, 1905年頃의 日本漁船, 1911年頃의 4大水産物, 1914년 島廳 統計로 본 漁獲高, 濟州島水産의 特異點, 最初의 膨大한 水産調査書, 海筏, 火山岩과 漁業

(19) 其他産業

'其他産業'에서는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2개의 표제항인 '사농'과 '濟涼'를 비롯하여 54개의 표제항이 들어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强化하여야 될 産業, 開發問題, 高頂輕帽, 工業, 工場, 工場候補地, 冠物, 1912-26年間의 取引港, 對中貿易品, 馬毛製笠, 李朝末頃의 需用品, 모시, 貿易關係, 貿易品, 未開의 寶庫, 副業, 사농, 産業團體 一覽表, 産業의 大開發 指針, 商業, 商業都邑, 水産製品調査員會議, 靑柳綱太郎의 濟州島經營論(明治 38年, 1905年), 會田重吉氏가 본 島當局이 取할 措置, 會田重吉氏가 본 有望한 事業, 會田重吉氏가 본 濟州島富源, 魚市場, 李朝末頃의 朝鮮的産物, 李朝末期의 輸入商品, 移入品及 購買場所, 移出入物, 日本捕鯨會社, 潛水器漁業者,

濟涼, 濟州島開發, 濟州島開發上으로의 生産部門, 濟州島開發上으로의 加工販賣部門, 濟州島開發上으로의 施設部門, 濟州島와 因緣이 적은 産業, 濟州島의 財源, 濟州의 통조림, 主要한 貿易品, 重要金融機關의 創設, 職業, 最初의 소라통조림製造所, 꿩사냥, 통조림工業, 特産物, 特産品去來統計, 貝釦工業, 海女作業, 行商人, 刑務所囚人의 作業, 會社

(20) 政治・行政

'政治・行政'에서는 9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新舊面名'은『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표제항이다.

警察署, 島司, 面名과 面事務所 所在地, 新舊面名, 諸官廳의 創設年, 濟州道警察廳, 地方法院, 地勢와 行政區域, 行政區域

(21) 社會

'社會'에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거지' 표제항을 비롯하여 48개 표제항이 제시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家族制度, 거지, 建築物, 結婚年齡, 서울의 濟友會, 經濟狀態, 契의 統計, 男少女多에 關한 古說, 男少女多에 關한 俗說, 勞動可能의 年齡, 勞動賃金이 高價인 原因, 大姓, 大阪府下의 濟州人의 團體, 島民의 經濟, 島民의 年齡에 依한 區分, 道路修理, 盜賊, 渡船證의 販賣, 同族集團數 50 以上의 姓氏, 明治末頃의 地價, 犯罪, 部落, 世帶, 小作料의 獨特한 例, 小作爭議, 市日의 分類, 漁業組合, 五圓짜리 紙幣와 고구마 없는 집이 없다, 外住者, 人口의 稠密度와 農業의 集約度, 人口 1萬人에 對한 5個年間의 犯罪件數, 1909年 現在의 市場, 1922年 現在의 市場, 1926年頃의 地價, 一周道路, 濟州島와 大阪, 濟州島 海女漁業組合, 濟州를 本貫으로 하는 姓, 族譜刊行으로 본 濟州本貫의 姓, 主要市場, 地下水와 環礁臨海聚落, 最初의 海女의 出稼, 蓄妾, 出稼人, 海女漁業組合의 目的, 海女와 客主, 解放後 濟州島動亂史, 婚費와 葬費

(22) 人口・特殊部落

‘人口・特殊部落’에는 68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各郡島別 同族部落 分布狀況, 男多洞里, 男多面, 老人과 靑年이 많은 部落, 大阪府下在住 朝鮮人數, 道別戶口의 消長, 同族部落, 同族部落이 많은 邑面, 同族集團分布狀況, 面別 人口密度, 模範部落, 模範部落과 優良部落, 性比, 衰廢해 가는 部落, 市街地의 生長, 女多部落, 女多地方, 女多現象, 50戶 以上의 著名한 同族部落, 李朝 顯宗 13年(1672年)의 戶口統計, 李朝末葉의 濟州島戶數, 李朝 世宗時代의 濟州島의 戶口, 李朝 正祖 13年(1789年)의 戶口總數, 李朝 純祖 16年(1816年)의 戶口總數, 李朝 憲宗 2年(1836年)의 戶口總數, 李朝 憲宗 3年(1837年)의 戶口總數, 李朝 哲宗元年(1859→1850年)의 濟州戶口, 李朝 哲宗 14年(1863年)의 濟州戶口, 李太王年間(1864-1877年)의 戶口, 人口構成圖, 人口構成上의 特色, 人口構成에 特異點 있는 部落, 人口密度, 人口의 自然增加率, 1915年頃의 出稼海女의 數, 1927年의 外國人集團地, 1946年 8月 25日 現在의 人口, 1947年度 南韓人口槪數, 1947年度 南韓의 推定人口, 1面 100世帶 以上의 同族居住, 1戶當 家族數, 1戶當 人口의 消長, 日本으로 出稼한 島民, 日本 在住 朝鮮人數, 著名한 同族部落, 全南의 男女性比, 全南의 同族集團中 最多의 姓氏, 濟州島의 人口密度, 濟州島統計, 濟州島戶口의 變遷, 濟州人의 大阪渡航者, 朝鮮人의 性比, 出産率, 出産子女의 性比, 通漁部落, 火田民統計

(23) 衛生

‘衛生’에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2개의 표제항인 ‘말라리아’와 ‘산물’을 비롯하여 46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高齡者, 나의 生命調査와 善生永助氏(1927年)의 朝鮮의 人口現象과의 共通點, 男女別出生率의 消長, 男女數의 支配線, 男女數의 支配線의 一覽表, 똥뀐다, 디기탈리스, 말라리아, 母體와 小兒의 死亡率, 文仁柱氏의 學位論文「象皮病의 硏究, 百歲 以上의 高齡者, 死亡率, 死亡率의 性比, 산물, 産兒에 對한 希望, 象皮病, 雙童의 調査, 生命調査, 小兒의 死亡率, 小兒의 死因, 水質, 志賀 潔博士의 衛生狀態觀察, 藥草, 熱帶産業用植物, 齲齒罹患率, 飮料水, 飮食, 人口千人當 死亡率, 人口 千人當 出生率, 咽喉의 痙攣, 1908年頃의 島內衛生

施設, 1947년 濟州島에 있어서의 性比의 逆轉, 입덧나는 現象, 全南의 高齡者, 濟州島 象皮病의 特徵,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人口論), 濟州島出生率의 全鮮的位置, 濟州醫學, 靑年期의 死亡率, 出産과 育兒의 記錄, 出生子女의 死亡率과 飮料水, 特히 많은 病, 皮膚病, 肺吸虫의 中間宿主, 風土와 健康, 虎列刺의 侵入

'똥뀐다'와 '디기탈리스', '산물'이 '衛生' 영역의 표제항으로 제시된 것이 특이하다. '디기탈리스'는 약용하는 현삼과 식물로, 특히 심장병에 좋다고 한다. 『대한식물도감』(이창복, 1982:680)을 비롯하여 『큰사전』(이 사전에는 '디기타리스'라 되어 있다.), 『국어대사전』(이희승),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표준국어대서전』(국립국어원), 『한국어대사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등에는 '디기탈리스'가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 반해, 북한의 『조선식물원색도감』(임록재, 2001, ②:28)이나 『조선어대사전』(1992)에는 '디기탈리스' 대신 '심장병풀'을 표제어로 올리고 있어 대조된다. '산물'은 '재래귤의 한 종류'로 陳皮를 이용하기 때문에 '衛生'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24) 敎育・宗敎

'敎育・宗敎' 영역에서는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당오백・절오백'이라는 표제항 1개를 비롯하여 33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觀音寺, 南崗과 濟州島, 당오백・절오백, 島民의 儒敎思想, 普天敎와 天道敎, 佛敎盛時의 濟州郡內의 著名한 寺刹, 佛敎와 祠堂의 受難, 祠宇書院, 山川壇, 三神山, 西敎의 東方傳來說, 聖所, 損失된 大銅佛, 僧普雨, 僧繹器, 僧慧日, 新敎育 最初의 學校, 儒生의 數, 「敎育史年表」에 오른 濟州島事項, 李朝科擧의 種類, 1916年 現在의 島內公立學校數, 1926年 現在의 全南道內의 中學校數, 1938年度의 學校統計, 1947年 9月末 現在 公立國民學校 道別統計表, 1948年度의 大學의 入學競爭, 1948年 現在의 濟州道內 中等學校, 日本人의 學校組合, 日語의 正式敎授, 濟州文廟, 濟州本貫의 有力儒生의 分布狀況, 地方文廟, 天主敎, 最初의 日語學堂

(25) 文化

'文化' 영역에서는 27개의 표제항이 제시되었다.

> 關係文獻, 金福壽의 로만스(傳說), 金允植氏의 雲養集, 高橋亨氏 蒐集의 民謠, 代表的民謠, 島內電話, 島民의 趣味, 鳥居龍藏氏의 講演要旨, 「東文選」에 揭載된 權近의 耽羅에 對한 唯一한 七言律詩, 明治末頃의 日本人의 濟州島觀, 民謠, 方鍾鉉氏의 濟州島特殊觀, 水道設備, 洋畵家가 본 濟州島, 오돌똑, 溫突, 溫突의 傳播, 和田一郎氏의 濟州島三多, 市河三喜氏의 濟州島觀, 電燈設備, 濟州島公園, 濟州島關係의 代表的 文獻, 捷解新語, 最初로 紹介된 民謠, 鄕土娛樂의 粹, 「헐버트」와 「벨츠」 兩氏의 濟州島民觀, 豪食

이 목록 가운데 '金福壽의 로만스(傳說)'는 '전설'이라고 그 분야를 밝히면서도 앞의 '人文 1. 傳說·種族'에 넣지 않았다.

한편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표제항은 모두 民謠와 관계된 항목으로, '高橋亨氏 蒐集의 民謠', '代表的民謠', '民謠', '오돌똑' 등 4개항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야별 표제항의 항목 수

분 야	분 류	항목 수	분 야	분 류	항목 수
Ⅰ. 총류		33	Ⅲ. 인문	11. 산악	20(5)
Ⅱ. 자연	1. 기상	8(3)		12. 도서	22(2)
	2. 해양	5(1)		13. 지도	7
	3. 지질·생물	42(1)		14. 교통·통신	29
	4. 식물	73(27)		15. 농업	70(6)
	5. 동물(곤충 제외)	52(14)		16. 임업	16(2)
	6. 곤충	23(5)		17. 축산	47(9)
Ⅲ. 인문	1. 전설·종족	25(1)		18. 수산	20(1)

분 야	분 류	항목 수	분 야	분 류	항목 수
				인구・특수부락	
	6. 민속	38(11)		23. 위생	46(2)
	7. 의식주	21(9)		24. 교육・종교	33(1)
	8. 일상생활	100(66)		25. 문화	27(4)
	9. 지리	54(8)	총 계		1,199 (195)
	10. 도읍・촌락	23(7)			

표제항은 총 1,199항목이다. 표제항이 많은 영역은 '인문 8. 일상생활'(100개), '인문 3. 역사'(83개), '자연 4. 식물'(73개), '인문 15. 농업'(70개) 순이며, 표제항이 적은 영역은 '인문 20. 정치・행정'(9개), '자연 1. 기상'(8개), '인문 13. 지도'(7개), '자연 2. 해양'(5개) 순이다.

총 1,199개 표제항 가운데 195개 표제항은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과 중복된다. '심방'은 '인문 2. 방언'과 '인문 8. 일상생활'에 각각 중복되어 나타나고(그 내용의 다름은 앞의 '인문 2. 방언' 참조) 있으므로 실제 중복되는 표제항은 194개다. 이 194개 표제항은 『濟州島方言集』 '제3편 隨筆'의 총 378개 표제항의 51%에 해당하는 많은 수이다.

이 1,199개 표제항 목록에 이어 1968년 11월의 누이동생인 石宙善의 '跋文'이 이어지고 있다(231~232면).

跋文

나비와 같이 왔다 나비와 같이 가신 오빠! 오빠 가신 지도 어언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읍니다.

원래 意志力이 강한데다가 果敢性있게 무슨 일이나 손에 잡으면 끝을 맺고야마는 그 끈기와 精力은 같은 同氣間에도 감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性格인 동시에 快活하고 솔직한 분이어서 뉘에게서나 尊敬을 받아왔고 집안에서도 石宙明先生 말씀이라면 절대적이었읍니다.

억만 년이나 사실 것 같은 생각에서 자신의 향락을 모르고 그저 학문에만 열중하시던 모습, 茶 한잔 마시는 시간조차 애석해 하시던 학문에 대한 그 애착심이야 뉘라서 감히 흉낸들 내오리까. 지금 생각하면 43년 平生에 너무나 많은 일을 남기셨고 못 다 사신 일까지도 하시고 가신 듯 싶사옵니다.

철부지인 동생이었습니다만은 오빠 말씀 하나 하나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金言이었습니다. 언제가 오빠는 저에게 「나는 한 줄의 論文을 쓰기 위해서 3萬 마리의 나비를 만저 본 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내 생활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6·25 동란에도 오빠와 같이 피란살이를 하면서 그 고달픈 속에서도 原稿정리를 하시곤 하였지요. 원고가 들어 있는 륙색은 조금도 오빠 곁을 떠날 수는 없었읍니다.

1·4 후퇴를 당하고 보니 이미 오빠는 가신 뒤라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몰라 오빠 체온도 가시지 않은 륙색을 둘러메고 뒷덜미를 땡기는 것 같은 심정으로 부산까지 내려갔었지요. 그 당시 누가 石先生遺稿가 남아 있느냐고 몇 차례 문의를 받았으니 遺稿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읍니다.

남아 있는 遺稿의 內容은 濟州島叢書 6卷中 濟州島方言集, 濟州島生命調査書, 濟州島文獻集은 이미 6·25 前에 서울신문社에서 出刊되고 아직 未刊인 濟州島資料集, 濟州島昆虫相, 濟州島隨筆, 韓國産蝶類의 硏究, 韓國産蝶類의 硏究史, 韓國産蝶類分布圖, 外國産蝶類分布圖, 世界博物學年表 등입니다.

철이 바뀌면 原稿를 한 두 번 擧風 쏘이는 정도로 볕 볼 날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있었읍니다.

오빠! 오늘 陰9月 23日(1968年 11月 13日)이 바로 오빠의 回甲이어요. 回甲이 되기 전에 오빠의 遺稿를 정리했으면 해 보았읍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던 중 오빠의 親友 金敎瑛先生님의 정성으로 濟州島叢書 중에 하나인 濟州島隨筆이 出刊케 되었읍니다.

남기고 가신 遺稿를 하나라도 정리하는 것이 오빠를 위로해 드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옵고 오빠를 追慕하는 자리에서 오빠와 가장 가까웠던 분들께 뜻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回甲을 맞이하여 삼가 靈前에 손수 쓰신 冊을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1968년 11월
石宙善

3) 평가

첫째, 1,199개의 표제항은 '외지인의 밝은 눈과 귀'로 발견되는 제주도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總論'의 첫 표제항인 '「까치」와 「포플라」'

는 매우 상징적이다.

> **「까치」와 「포플라」.** 이 兩者는 우리半島를 代表하는 動植物이다. 이 兩者가 다 本島에는 없으니 그 點으로 半島風에서 떠난 風景을 나타낸다. 까치는 까마귀가 많은 이 섬에 不適할 것이고 포플라같은 높게 되는 나무는 바람이 많은 이 섬에는 不適할 것이다.(5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半島風에서 떠난 風景' 즉 '濟州島 風景'에 있다. '濟州島 風景'은 '半島風'을 알고 있는 외지인인 石宙明의 '밝은 눈과 귀'에 의해서 발견되는 풍경이다. 사실 고향에 있으면 고향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고향은 멀리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까치'가 제주도에 없다는 것은 『동국여지승람』(1486, 권38)에서도 확인된다. 즉 '제주목 풍속'의 '산무악수(山無惡獸)'에서, "산에는 악한 짐승이 없다. 호랑이, 표범, 곰, 승냥이, 이리 등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없다. 또 여우, 토끼, 부엉이, 까치 등속이 없다(山無惡獸 無虎豹熊豺狼害人之獸 又無狐兎鵂鵲之屬)." 고 하였다. '까치'가 없으니 '까치눈(발가락 밑의 접힌 금에 살이 터지고 갈라진 자리)'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며, 그 결과 '까치눈'을 '가메귀눈'이라 표현했던 것이다. 지금 까치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진정한 '濟州島 風景'은 아니다.

키 큰 '포플러'가 없는 것은 '바람 많은' 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石宙明도 '女子의 物件携帶'에서, "구덕에 끈을매서 등에 지든지 바구니에 넣어서 옆에 낀다. 아이를 등에 지는 일도 보통은 일본식으로 지지만, 길 갈 때는 애기구덕에 넣어서 끈을 매서 진다. 여하튼 육지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頭上에 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일상생활 4-109)"라 했던 것이다. 이런 점은 16세기 제주도에 귀양 왔던 金淨의 "지기만 하고 이지 않는다(負而不戴)"(「濟州風土錄」, 1520)라든가, 17세기 李健의 "섬 안 여인들의 물 긷는 것은 머리에 이지 않고 등에 진다.(島中女人之汲水者 不戴於頭而負於背)"(「濟州島風土記」, 1628)라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표제항 분류가 과학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분류학을 전공한 과학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序'에서 밝히고 있듯

“便宜上 旣著「濟州島關係文獻集」의 內容順으로, 또 카아드의 가나다 順으로 配列해 보았는데, 各 項目의 平衡을 爲하여 項目을 늘렸다.” 하여 總論, 自然, 人文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항목을 늘인 부분은 인문 부분으로, 11개의 항목을 25개로 확대하였다.

<표 2>『濟州島關係文獻集』과『濟州島 隨筆』의 인문 항목 비교표

공통 항목	『濟州島 隨筆』 추가 항목	비 고
인문 言語 歷史 民俗 地理 農業(林畜水産을 포함) 其他産業 政治・行政 社會 衛生 敎育・宗敎 文化	傳說・種族 外國人과의 關係 關係人物 衣食住 日常生活 都邑・村落 山岳 島嶼 地圖 交通・通信 人口・特殊部落	1. 言語 → 方言 2. 農業 → 農業 林業 畜産 水産

‘言語’가 ‘方言’으로 바뀌었고, ‘林畜水産’을 포함했던 ‘農業’이 ‘農業’을 비롯하여 ‘林業, 畜産, 水産’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傳說・種族’을 위시하여 ‘外國人과의 關係, 關係人物, 衣食住, 日常生活, 都邑・村落, 山岳, 島嶼, 地圖, 交通・通信, 人口・特殊部落’ 등 14개 분야를 추가하고 있다. 이는 1991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집필할 때 <표 3>의 ‘한국민족문화분류표’와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표 3> 한국민족문화분류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범 주	상위 주제	중위 주제
총괄적 문화	1 민족	11 민족 형성 12 민족구성원 13 민족문화 특성 14 민족문화보존

범 주	상위 주제	중위 주제
		34 남북국시대 35 고려시대 36 조선시대 37 근대 38 현대
외면적 문화	4 자연과의 관계	41 자연물과의 관계 42 자연과학 43 기술 44 보건 45 체육
	5 생활	51 산업 52 의생활 53 식생활 54 주거생활
	6 사회	61 정치 62 대외관계 63 법제 64 경제 65 사회관계 66 민속 67 교육
내면적 문화	7 사고	71 학술 72 사상 73 민간신앙 74 불교 75 유교 76 도교, 도참사상 77 고유종교 78 기독교, 기타 근대 이후 외래종교
	8 언어와 정보전달	81 언어 82 문자 83 기록, 표지, 홍보 84 통신 85 언론, 출판 86 인쇄 87 서적
	9 예술	91 문학 92 미술 93 음악 94 춤 95 연극 96 영화

'문화' 영역의 '金福壽의 로만스(傳說)'는 그 내용이 '(傳說)'이라고 밝히면서도 '傳說・種族'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식물인 '븍개기・븟개기'(農業)나 '디기탈리스', '산물'(衛生) 등을 '植物'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은 '序'에서 밝힌 "若干의 配列의 非科學性"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출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나는 濟州島에 關心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濟州島에 關한 것이면 蒐集整理하는 것이 나의 硏究 테에마의 하나이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22. 人口・特殊部落'을 보면, "~에 依하면", "~을 基礎로 한 ~에 依하면"이라 하여 낱낱이 그 출전이나 근거를 밝히고 있다.

- 同族部落이 많은 邑面: 善生永助氏(1935年)에 依하면,
- 李朝 顯宗 13年(1672年)의 戶口統計: 李朝實錄에 依하면
- 李朝末葉의 濟州島戶數: 「輿載攝要」에 依하면,
- 李朝 世宗時代의 濟州島의 戶口: 世宗實錄에 依하여
- 李朝 正祖 13年(1789年)의 濟州島戶口: 「戶口總數」에 依하여
- 李朝 純祖 16年(1816年)의 戶口總數: 純宗實錄, 日省錄及 承政院日記를 基礎로 한 朝鮮史(1936年)에 依하면

- 李朝 憲宗 2年(1836年)의 戶口總數: 憲宗實錄, 日省錄을 基礎로 한 朝鮮史(1936年)에 依하면
- 李朝 憲宗 3年(1837年)의 戶口總數: 憲宗實錄, 日省錄을 基礎로 한 朝鮮史(1936年)에 依하면
- 李朝 哲宗元年(1859年)의 濟州戶口: 哲宗實錄과 日省錄을 基礎로 한 朝鮮史(1936年)에 依하면

넷째, 호기심을 자아내고, 추억과 교훈을 주는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기심의 유발은 15개의 '最初'가 붙은 표제항이 그렇다. '最初의 染井吉野櫻의 標本, 漢拏山植物의 最初 採集者, 最初에 記錄된 哺乳類, 最初의 學術調査團, 最初로 記錄된 昆虫, 最初로 記錄된 노린재, 陸地와의 最初의 交誼, 李朝의 最初의 軍馬徵用, 最初의 汽船運航, 最初의 膨大한 水産調査書, 最初 소라통조림製造所, 最初의 海女의 出稼, 最初의 日語學堂, 最初로 紹介된 民謠' 등이 그것들이다.

'발막아눙나(어긋나게 눕다의 뜻. 卽 한자리에 兩人이 누울 때, 頭足을 相反해서 눕는 것인데 이 方式이 濟州島서는 대단히 흔하다. 家庭에서 많이 하는 法 이며 初面의 손님과도 普通 이렇게 잔다. 勿論 좋은法 은 아니다./104면)'는 추억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항목이며, 다양한 관용 표현은 많은 교훈을 준다. '각씨가 아까우면 처갓집 주먹낭도 아까워한다, 기시린 도야지가 ᄃᆞ라멘 도야지 타령ᄒᆞᆫ다, 돋잠에 개꿈, 벌찝거시다, 사농캐 언똥 들어먹듯, 살찻보리 거죽챠 먹은덜 씨아시사 한집에 사랴, 쌍얼쳉이가 외얼쳉이 타령ᄒᆞᆫ다, 숭어뛰면 복쟁이 뛴다, 앙살운 암캐갓치 앙앙ᄒᆞ지 마라, 이슬에 큰 사름, 조칵매기ᄇᆞ비듯'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학문하는 성실한 자세다. 특히『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과 중복되는 표제항의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같은 내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래와 같은 몇몇 유형은 학문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밑줄은 필자가 한 것임)

① 굿한다
㉠ 本島에서는 무당 데려다 하는 行事中 굿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行事를

'굿한다'라 한다. 그러나 濟州島서는 '굿친다'라고 하니 伴奏樂器의 活動을 主로 表하는 것이다. 또 蒙古語에서는 '귀양(喇嘛式經) 웃지(읽는다)' 卽 '굿읽는다' 라고 하니 讀經을 主로 表示하는 것으로 地方에 따라 그表現에 相異가 있다.(1-143)

㉡ 陸地에서는 무당데려다 하는 行事中 '굿'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行事를 '굿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濟州島서는 '굿친다'라고 하니 伴奏樂器의 活動을 主로 表示하는 것이다. 또 蒙古語에서는 귀양(喇嘛式經) 웃지(읽는다), 卽 '굿읽는다'라고 하니 讀經을 主로 表示하는 것으로 地方에 따라 그 表現의 相異가 있다.(4-88)

② ᄉᆞᆯ오름

㉠ ᄉᆞᆯ오름(米岳) 西歸面에 있는 山名인데 濟州式으로 發音한다면 'ᄊᆞᆯ오름'이라야 되는데 'ᄉᆞᆯ오름'이라 하니 이 'ᄉᆞᆯ'은 分明히 '米'의뜻은 아니다. 'ᄉᆞᆯ오름'이란全體가 蒙古式의 地名인듯싶다.(1-169)

㉡ ᄉᆞᆯ오름(米岳) 西歸面에 있는 山名인데 濟州式으로 發音한다면 'ᄊᆞᆯ오름'이라야 되는데 'ᄉᆞᆯ오름'이라 하니 이 'ᄉᆞᆯ'은 分明히 '米'의 뜻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4-130)

③ 便所兼豚舍

㉠ 人糞을 豚의 飼料의一部로 使用하는 것은 全島的이나 濟州島獨特의 것은 아니다. 其外 豚舍를 主로 생각한 '돋통', 厠을 主로생각한 '칙간'이라는 濟州語가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다 같은 말이다.(1-160)

㉡ 人糞을 돼지의 飼料의 一部로 使用하는 것은 全島的이나 濟州島獨特의 것은 아니다. 其外에 豚舍를 主로 생각한 '돝통', 厠을 主로 생각한 '칙간'이라는 濟州語가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다 같은 말이다. 이제 이 便所兼豚舍의 分布狀態를 살펴보면 濟州島外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韓半島에서는 北으로부터 會寧, 楊口, 統營, 居昌, 陜川, 光陽의 諸地方. 內蒙西部, 山東省全部, 山西省東, 中部, 滿洲龍井, 琉球全部, 比律賓全域(北部呂宋서는 中流 以下가 便所를 않갖고 아무데나 排便하는 것을 放牧하는 돼지가 먹는다.)(4-96~97)

① '굿한다'에서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에서 잘못된 부분인 '本島에서는'을『濟州島 隨筆』에서는 '陸地에서는'으로 바로잡고 있다. ②'ᄉᆞᆯ오름'에서는,『濟州島方言集』'제3편 隨筆'의 "ᄉᆞᆯ오름'이란 全體가 蒙古式의 地名인듯싶다'라는 판단을『濟州島 隨筆』에서는 유보하고 있다. ③'便所 兼 豚舍'에서는,

“이제 이 便所兼豚舍의 分布狀態를 살펴보면 濟州島外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韓半島에서는 北으로부터 會寧, 楊口, 統營, 居昌, 陜川, 光陽의 諸地方. 內蒙西部, 山東省全部, 山西省東, 中部, 滿洲龍井, 琉球全部, 比律賓全域(北部呂宋서는 中流 以下가 便所를 않갖고 아무데나 排便하는 것을 放牧하는 돼지가 먹는다.)”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4) 과제

첫째, 『濟州島 隨筆』의 내용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① ‘最初의 海女의 出稼’

『濟州島 隨筆』(302면)에서 石宙明은 “1892年에 慶南 蔚山, 機張 兩郡沿海地方에 限하여 出漁하였는데”(4-302면)라 하여 ‘1892년’을 出稼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해녀 연구가인 康大元은 “西紀 1889年頃에는 靑山島를 비롯하여 莞島, 釜山, 影島, 巨濟島, 南海의 돌산, 기장, 蔚山, 慶北 一帶까지 출가하였다.”(『海女硏究』, 1970:37~39)고 하여 ‘1889년’을 그 원년으로 보고 있다. 비록 3년 차이가 나지만 ‘最初’를 붙이려고 한다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② 물옷

『濟州島 隨筆』(111면)에는 ‘潛女의 潛水服’이라 하여, “大槪는 自己 手製인데 普通 海水浴服과 相異한 點은, ①織物로 만든 것, ②右腕部를 터처서 四五個所에 끈 或은 단추를 달아 開閉를 自由롭게 한 것이다.”라 하였다. 지금 해녀들이 물질하는 옷은 고무옷으로, ‘織物’로 만들지도 않았고, ‘右腕部를 터처’지도 않았다. 나아가 ‘四五個所에 끈 或은 단추’를 달지도 않았다. 예전 물옷을 조사해 보면 ‘메친, 허리, 처지, 밋, 굴, 벌ᄆᆞ작, 쾌, 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③ 斗落(한 마지기)

『濟州島 隨筆』(151면)에 따르면, “읍내 130평, 정의・남원면: 150평, 한림읍 100평, 개성 200평, 개성 시외 300평”으로 되어 있다. 북한 개성의 마지기까지

언급하였다. 제주도의 각 지역을 조사를 해 보면 대충 아래와 같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100평: 성산 삼달리, 성산 온평리, 표선 성읍리, 중문 색달리, 안덕 동광리
120평: 안덕 대평리, 안덕 덕수리, 한림 옹포리, 한림 대림리, 애월 봉성리, 애월 고내리
130평: 안덕 사계리, 대정 인성리
150평: 조천 신촌리, 조천 와흘리, 조천 선흘리, 남원 태흥리, 남원 남원리, 남원 수망리, 남원 위미리, 표선 가시리, 서귀 토평동, 서귀 보목동, 중문 하원동, 한경 신창리, 한경 조수리, 제주 외도동, 제주 노형동, 제주 도련동
200평: 표선 세화리
300평: 구좌 한동리, 구좌 하도리, 성산 고성리, 우도, 애월 구엄리
400평: 조천 함덕리

각 마을마다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지표를 통계 처리할 때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戶口와 人口'를 그 예를 보자. '인문 22. 人口·特殊部落'의 표제항에 따른 각각의 호구를 도표로 다시 작성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호구 통계

연 도	호 구	남 자	여 자	비고(출전)
1672	8,490	12,557	17,021	이조실록
1789	6,700	17,052	22,710	호구총수
1816	10,305	27,370	34,425	조선사(순종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기초)
1836	15,760	35,953	39,167	조선사(헌종실록, 일성록 기초)
1837	10,789	35,194	40,737	조선사(〃)
1859	11,124	37,771	42,139	조선사(철종실록, 일성록 기초)

연 도	호 구	남 자	여 자	비고(출전)
1874	12,169	39,948	47,935	조선사(　　〃　　)
1876	12,129	40,079	48,122	조선사(　　〃　　)
1877	12,250	38,238	50,009	조선사(　　〃　　)
1946	-	126,679	146,469	8월 25일. 보건후생부 발표. 서울신문 12월 18일.
1947	-	112,703	120,742	

1836년 '戶口'가 1816년에 비해 갑절쯤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듬해인 1837년의 호구가 1년 사이를 두고 다시 갑절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1863년의 호구와 남녀의 인구수도 의심을 품게 한다. 나아가 1868년, 1874년, 1876년, 1877년의 남자의 수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검증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제시된 내용이나 해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오돌똑'을 그 예로 보자.

> **오돌똑.** 濟州島代表民謠의 題名. 陸地의 「아리랑」에 該當하고 其實 아리랑과 같은 맛이 있는 哀調를 띤 노래다. 이제 한절만 記錄한다.
>
> 오돌똑이 저기 춘향보소
> 달도 밝은데 연자머리로 갈거나
> 둥구데당실 둥구데당실
> 여도당실 연자머리로
> 달도 밝은데 내가 머리로 갈거나
>
> [註]
> 오돌똑----어떤 想像의 美男의 이름일까?
> 春香---- 韓國의 로만스에 나오는 李道令의 相對인 南原의 成春香일까 或은 濟州島의 로만스에 나오는 金福壽의 相對인 琉球女 林春香일까, 또 或은 普通名詞化한 佳人의 代名詞인 春香일까? 아마 마지막 뜻의 春香일 것 같다.
> 연자-----사랑

연자머리---密會의 場所. 勿論 想像의 곳일 것이나 地圖에서 찾아보면 西歸面中山地帶에 연자골(鷰子洞)이라고 있고, 지금은 無人之境이지만 옛날엔 小部落이 있었다고 한다.
둥구데당실, 여도당실----意味가 없다.
내가 머리로-----내가 먼저. (227면)

이 인용에서 문제는 주석에 따른 내용은 물론, "연자머리로"라는 구절 내용이다. 김영돈의 『濟州島民謠硏究(上)』(1965)나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민요사전』(2015)에는 "연자 버리고"로 되어 있다.

또 이 '오돌똑' 가사를 판소리 「박타령」이나 「변강쇠가」와 관련시킬 때 이 두 판소리 사설의 "얹어 버리고"와의 연관성이다.

"또 한 년이 나오면서, 오독도기 春香 春香月에 달은 밝고 明朗한데 여기다 저기다 얹어 버리고 말이 못 된 景이로다. 萬疊 靑山에 쑥쑥 들어가서 휘어진 버드나무 손으로 주르륵 훑어다가 물에다 두둥두둥 실실실, 여기다 저기다 얹어 버리고 말이 못 된 景이로다."(「박타령」,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1971:427)

"또 한 년이 나오면서, 오독도기 春香 春香月에 달은 밝고 明朗한데 여기다 저기다 얹어 버리고 말이 못 된 景이로다. 萬疊 靑山에 쑥쑥 들어가서 휘어진 버드나무 손으로 주르륵 훑어다가 물에다 두둥두둥 실실실, 여기다 저기다 얹어 버리고 말이 못 된 景이로다."(「변강쇠가」,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1971:609)

이 인용에서 두 판소리 사설의 '얹어 버리고'와 '오돌똑'의 '연자 버리고'는 그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石宙明의 주석인 '연자: 사랑', '연자머리: 밀회의 장소'는 너무 멀리 가버린 느낌이다.

'춘향'과 관련해서는 "濟州島의 로만스에 나오는 金福壽의 相對인 琉球女 林春香일까"는 '金福壽의 로만스(傳說)(224~225면)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다.

金福壽의 로만스(傳說). 濟州出身 金福壽란 사람이 安南에 漂流하여 역시 그곳에 온 琉球女子 林春香에게 장가를 들었다. 有子生女하고 살다가 뒤에 日本가는 使者를 따라서 大阪으로가 客館에서 仇羅婆國使를 만나 方書 12卷

과 吉伊斯端의 道를 듣기도하고 마침 琉球使者를 만나니 自己 마누라의 오라범이라 그 누이동생의 消息을 傳하고 일이 끝난 後 다시 安南으로 가다가 漢拏山을 바라보고 갑자기 故鄕이 그리워서 淡水를 얻어온다는 핑게로 혼자서 작은 배로 濟州에 돌아왔는데 늙도록 琉球마누라를 잊지못하여 가끔 山에올라 痛哭을 하였다고 한다.

넷째, 어원 문제이다.

① **방상.** 濟州語로 「친척」을 「방상」 혹은 「일가방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馬來語에서는 梵語(Sanskrit)에서 由來한 방사(bangsa)란 말이 同胞, 門族, 家族 等의 뜻으로 쓰이니 우리 濟州島의 방상도 거기에 氣脈이 通한다. 역시 根本은 Sanskrit에서 온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52)

② **봉그다.** 이 말은 濟州語로 얻다(得, 拾, 集)의 뜻으로 馬來語의 「뿡굿」(pungut)에서 유래한 것 같다.(52)

③ **모관놈.** 濟州島內서도 濟州밖의 사람은 濟州 사람을 惡稱해서 「모관놈」이라고 한다. 「모관」은 목관(牧官) 卽 牧使가 있던 곳이란 데서 由來해서 濟州를 말한다. 地方에가면 「모관놈 안즈난덴 풀도 아니 돗나」, 「모관놈 못난 놈 정잇놈 좃만도 못 하다」等의 말이 있다. 그러나 모관 卽 濟州에가면 그 反對의 말이 勿論이고 大體로보면 濟州人(山北人)은 地方人에 對하여 優越感을 가진것만은 事實이다.(103)

①의 내용에 따르면, '방상'은 범어 'bangsa'에서 왔다는 것이다. '방사>방상'처럼 'ㅇ'이 첨가되는 현상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梵語大辭典』(전수태, 2007:1049)에는 '결합, 친척, 혈족'의 뜻으로 'bandhu'가 제시되어 있어, 石宙明이 제시한 'bangsa'와도 차이가 난다.

이 '방상'은 『韓佛字典』(1880:303)의 "방셩 村 village"나 『韓英字典』(1897:388)의 "방셩 村 A ward: a village"에서 '방셩'이 '방셩>방성>방상'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같은 성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을 집성촌(集姓村)이라 하기 때문이다

②는 [得, 拾, 集] 뜻의 '봉그다'가 마래어 곧 말레이어 'punguť'에서 유래한 것 같다는 것이다. '네이버 사전'의 'punguť'은 인도네시아어로, '(땅・마루에 떨

어진 것을) 집다・줍다, 따다・뜯다, 채집하다・(세금 따위를) 징수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의 혼동부터가 의심스럽다.

③의 '모관'은 "목관(牧官) 卽 牧使가 있던 곳이란 데서 유래"한다는 것이 정당한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ㄱ' 탈락보다는 '목+안[內]'이 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濟州島方言集』과 『濟州島 隨筆』의 중복 표제항의 표기 문제이다.

『濟州島方言集』은 1947년 6월에 탈고하고 그해 12월에 발간된 책이며, 『濟州島 隨筆』은 1949년 5월에 탈고하여 1968년 11월 유고집으로 발간된 책이다. 이 두 책은 탈고를 기준으로 하면 '2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고, 발간을 기준으로 하면 '21년'의 시간적 차이가 난다. 이 두 책에서 '중복되는 한글 표제항의 표기' 변화가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2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石宙明 本人이 원고를 교정한 것인가 아니면 1968년 유고집으로 발간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교정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중복 표제항의 한글 표기 유형을 보이면 <표 5>와 같다.

<표 5> 한글 중복 표제항 표기 유형표

번 호	내 용	비 고
1	㉠이월 ᄇᆞ람에 가문쇠쌀이 오그라진다(1-72)	ᄇᆞ룸 (1-53)
	㉡이월 ᄇᆞ룸에 가문쇠쌀이 오그라진다(1-175)	
	㉢이월 바람에 가문쇠뿔이 오그라진다(4-12)	
2	㉠가마귀 똥케우리듯(1-12)	가마귀+ (합성어) (1-12)
	㉡가마귀 똥케우리듯(1-139)	
	㉢까마귀 똥케우리듯(4-32)	
3	㉠영등ᄉᆞᆯ(1-69)	
	㉡영등ᄉᆞᆯ(1-171)	

번 호	내 용	비 고
	㉢돋추렴(4-102)	
5	㉠꽝(1-19)	
	㉡꽝(1-143)	
	㉢꽝(4-100)	

<표 5>에서 ㉠과 ㉡은『濟州島方言集』내용이며, ㉢은『濟州島 隨筆』의 내용이다.『濟州島方言集』중에서도 ㉠은 '第1篇 濟州島方言集', ㉡은 '第3篇 수필'의 내용을 말한다. 끄트머리 숫자에서 앞의 '1'(총서 1권)은『濟州島方言集』을, '4'(총서 4권)는『濟州島 隨筆』을 의미하며, 뒤의 숫자는 해당 면수를 뜻한다. '(1-72)'는 '『濟州島方言集』72면'이며, '1-175'는 '『濟州島方言集』第3篇 隨筆 175면'을 가리킨다. '(4-12)'는 '『濟州島 隨筆』12면'이다.

왼편의 '번호'는 표기 유형으로 '1~4'는 어근, 5는 '된소리'에 관한 사항이다.

'1번'에서의 문제는『濟州島方言集』에서는 표준어 '바람'에 대한 濟州語가 'ᄇᆞ룸'인데, 관용 표현에서는 'ᄇᆞ람' 또는 'ᄇᆞ룸',『濟州島 隨筆』에서는 '바람'으로 표기되었다.

'2번'은 '가마귀>까마귀' 변화로, 어근이 변화한 것이다.『濟州島方言集』에서는 '가마귀'가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마귀똥'부터 '가마귀지장'까지 10개의 합성어가 몽땅 '가마귀'로 표기되었고,『濟州島 隨筆』에 와서는 표준어와 같은 '까마귀'로 표기되었다.

'3번'은 '영등ᄉᆞᆯ'이 '영들ᄯᆞᆯ'로, '영들'은 '영등'의 오자로 보인다. 이런 경우는 '8. 일상생활'의 '납해치'(4-102)와 '납헤치'(1-26, 1-145)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번'은 어근 '돗'(돼지)이 '돋'으로 변한 경우다. '돗추렴'을 비롯하여 '돗잠에 개꿈>돋잠에 개꿈', '돗ᄑᆞᆯ앙ᄒᆞᆫ냥 개ᄑᆞᆯ아닷돈ᄒᆞ니 양반인가>돋 ᄑᆞᆯ아 ᄒᆞᆫ냥 개ᄑᆞᆯ아 닷돈ᄒᆞ니 양반인가'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濟州島方言集』에는 '돗'(1-33)을 비롯하여 '돗걸름, 돗잠, 돗통, 돗헤치'(1-33) 등 모두 'ㅅ'받침인 '돗'으로 제시되어 있는데,『濟州島 隨筆』에 오면 '돗'은 모두 'ㄷ'받침인 '돋'으로 바뀌어 있다.

'5번'은 된소리로의 변화이다. 된소리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유형도 있다.

ㅅㄱ>ㄲ: 쏨치>꼼치, 개쑴>개꿈, 아까우면>아까우면, 쏙대기>꼭대기, 잇수까>잇수까

ㅅㄷ>ㄸ: 똥, 영등 똘>영등뚤, 지름썩>지름떡, 쒸면>뛰면, 웃쓰릇놈>웃뜨릇놈

ㅅㅂ>ㅃ: 쌀>뿔

ㅆ>ㅉ: 찔레나무>찔레나무, 벌찝>벌찝

이러한 표기 변화는 탈고할 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유고집을 낼 때 바뀐 것인지 고구되어야 할 과제다.

또 띄어쓰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6>은 차이가 드러나는 띄어쓰기 일람이다.

<표 6> 띄어쓰기 일람

번호	내 용	면수
1	구뭄 일뢰선 보럼 우친다	1-143
	구뭄 일뢰 선보럼 우친다	4-11
2	기시린도야지가 ᄃᆞ라멘도야지 타령ᄒᆞᆫ다	1-144
	기시린 도야지가 ᄃᆞ라멘 도야지 타령ᄒᆞᆫ다	4-101
3	나것 일코 나함박 버른다	1-145
	나것일코 나함박 버른다	4-101
4	돗풀아ᄒᆞᆫ냥 개풀아닷돈ᄒᆞ니 양반인가	1-150
	돋 풀아 ᄒᆞᆫ냥 개풀아 닷돈ᄒᆞ니 양반인가	4-102
5	돌당 바도 물방위	1-150
	돌당바도 물방위	4-103
6	물발이 저즈야 잘 산다	1-157
	물발이 젖으야 잘산다	4-104
7	바농 젼동이 졸라매여 바농질 헤여지나	1-158
	바농젼동이 졸라매여 바농질 헤여지나	4-104
8	발 막아 눙. 나	1-158
	발막아 눙나	4-104
9	벌 집 거시다	1-159
	벌찝거시다	4-105

번호	내 용	면수
12	살찻보리거쥭챠먹은덜 씨아시사 한집에살랴	1-163
	살찻보리 거죽챠 먹은덜 씨아시사 한집에 살랴	4-106
13	숭어 쒸면 복쟁이 뛴다	1-165
	숭어뛰면 복쟁이 뛴다	4-107

<표 6>에 따르면, 맞는 것을 잘못 고치거나(11. '사름 잇수까>사름잇수까' 등) 통일되지 않는 것(13. '숭어뛰면 복쟁이 뛴다' 등)도 보인다. 8의 '발 막앙 눙. 나'는 '눙' 다음에 마침표가 있는 것(눙.)으로 봐서는 문선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띄어쓰기 또한 石宙明이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발간 당시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졌는지는 밝혀야 할 문제다.

이제 마무리를 대신하여 石宙明과 함께 서귀포 토평리 생약연구소 관사에서 같이 생활했던『濟州島方言集』주제보자의 한 사람인 金南雲(1920~1998)의 아들 金光協 시인이 1965년에 쓴「어느 昆蟲學者의 죽음」이란 시 작품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의 안식을 기원한다.(金光協 제3시집『농민』, 1981:88~92, 태・멘)

「어느 昆蟲學者의 죽음」

Ⅰ

그날 아침 보내온 딸의 書信은 옥색 종이에 씌어있었다. 아래 밀밭을 거쳐온 터이라 行間에 밀밭 내음새가 물씬 배어 있었다. 그때도 그는 果樹園 주인네 옆 방에서 朝飯床에 올라온 산나물을 씹으면서 어제 잡은 네 마리의 나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琉璃 상자 속에 든 네 마리의 나비는 이 半白의 昆蟲學者를 몹시 즐겁게 해주었다. 그들이 軟한 몸둥아리를 움추리고 날개를 쉬임없이 파닥여 어떤 것은 銀가루를 뿌리며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 더없이 恍惚하였다.

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빙그레 웃었다. 老顔에 그는 능금나무 밭에서 능금꽃이 하르르 하르르 떨어질 때마다 짓던 꼭같은 웃음을 잊지 않았다. 콧가에서 떠나지 않는 밀밭 내음새를 더 진하게 맡으려고 하지마는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가운뎃 손가락으로 나비가 든 琉璃 상자의 귀텡이를 사알짝 튕기고는 일어섰다. 섰다가는 풀썩 앉아 급하게 眼鏡을 찾았다. 眼鏡알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얼굴을 보자 그는 失錯을 저지른 사람처럼 이내 그 眼鏡을 눈으로 가져가버렸다.

Ⅱ

그는 採集 日記帳 한쪽에 딸의 편지 속 이야기를 메모했다.

『아이들이나 노랑나비 배추흰나비 오색점백이나비를 잡고싶어 하는 것이지, 아버진 다 늙구섬두…. 곤충학자면 단 줄 아시나 봐. 그 과수원 집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의 아버지가 막 우리 능금나무 사이를 후벼댕겨서 꽃을 다 떨어버렸기 땜 올엔 능금이 많이 안 열릴 거래. 아버지, 빨랑 집으로 와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새 그 능금나무 밭 뒷산에 공산당들이 산대…』

그는 눈을 들었다. 果樹園집 아들이 그 흔해빠진 靑藍빛 나비 한 마리를 조여잡고 댓돌 위에 서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문지방을 넘어 이 아이의 나비를 재빨리 받아 空中으로 날려 보냈다. 아이는 오히려 좋아라 손뼉을 쳤다. 나비는 공중에서 종이 부스러지 마냥 바람에 한 바퀴 원을 그리고는 곧 두박질치듯 가까운 능금나무 꽃 속에 붙어 앉는다. 나비는 아이의 손에서 安存을 渴望하는 모양이다. 마침내 나비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이 眼界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單色의 흰 꽃구름이 이 昆蟲學者의 視力을 昏迷하게 하고 있었다.

Ⅲ

저녁 놀이 果樹園을 껴안고 흔들더니 꽃들은 金빛깔로 변하면서 아릿한 香氣를 날라다 주었다. 把守犬한 쌍이 그 香氣에 놀랐음인지 마구 짖어대었다. 그는 오늘 잡은 한 마리 껌정 甲蟲의 分泌液을 냄새맡아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꽃 향기 밖에는 없었다. 그는 人間의 識別力이 얼마나 虛弱한 것인가를 비웃듯 벌떡 일어서서는 아침에 온 딸의 편지를 들고 果樹園 주인 방으로 건너갔다. 主人은 日本版『病蟲害驅除法』에서 原色 害蟲圖를 보고 있었다. 주인은 目禮를 하곤 담배를 권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참 그 정열이 부럽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전에 못보던 벌레들이 자꾸 생기는 걸요"

"그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가요?"

"아주 고약한 벌레들이예요. 이 책에서 빠졌단 말씀이야"

"그 고약한 벌레들을 제 標本室에 갖다 놓도록 해주시겠나요?"

"그놈의 정체는 내 아들이 한번 잡아와서 보았을 뿐입죠. 한밤중에나 나와 이파리나 가지에 상채기를 내어놓곤 하는데 종당 능금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다니깐요"

"쯧쯧"

그는 燈 아래로 닥아앉아 딸의 편지에 코를 가져갔다. 아직도 行間에는 밀밭 내음새가 남아 있었다. 主人 아들을 불러 그 밀밭 내음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벌써 곤한 잠 속에 떨어져 있었다. 門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능금꽃 향기가 스물스물 방안으로 들어왔다. 주인은 굽신거리며 졸고 어디서 시냇물 소리가 木圖章을 새기는듯 나직나직 귓전에 닥아왔다. 밤이 큰 江의 支流를 헤매이듯, 아니면 萬象을 붙들고 懇求하듯 그의 옷섶에 와서 매달렸다. 이때 把守犬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으르며 또 발을 구르며 짖어대었다. 그는 움찔하고 놀랐다.

"계시오?"

"거 누구요?"

"…누구건! 좀 나오시겠소?"

그는 전에 한번도 보지 못했던 不意의 訪問客들을 맞이하였다. 그는 얼떨결에 딸이 보내온 옥색 편지를 쪼각쪼각 찢어버렸다. 그리고 果樹園 주인과 함께 이 夜半 三更에 찾아온 訪問客들의 앞장에서 果樹園의 샛길을 빠져 검은 밀밭 길을 걸었다. 이 訪問客들의 겨드랑이에는 검은 銃身이 끼어져 있었다. 밀밭 내음새가 너무 진하여 그는 정신을 가눌 수가 없었다.

Ⅳ

果樹園집 아들이 든 小銃이 봄 아침의 안개비를 먹고 있다. 이 골짜기의 아침에 찾아오는 고요 속에는 신비한 惡靈의 노랫소리와 아랫도리가 시린 死者의 言語와 빛 바래는 愛情과 凌辱 당하는 安溫이 기웃거린다. 昆蟲學者도, 原色 害蟲圖를 보는 果樹園 主人도 不在하다. 歲月 속에서 果樹園집 아들은 鐵帽의 무게에 소스라치듯 놀라며 검어쥔 銃身에 다시 힘을 주었다. 그리고 分界線의 地圖를 읽으며 능금꽃이 날릴 때마다 해해거리며 좋아하던 昆蟲學者의 딸을 생각하였다. 地圖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흰 模造紙에 검은 反目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自由도, 사랑도, 아주 조그만 모든 것들까지도 죄 잃어버렸다. 水筒의 물이 그의 아침녘 燥渴을 씻어주기에 충분하였다. 山등성이에는 기를 쓰며 전나무의 새 잎이 연두빛 匍匐을 하고 철쭉꽃이 彈雨를 먹고 불타듯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때 그는 불현듯 보오얗게 공중에 뜨는 한 떼의 나비를 보았다. 나비 떼는 하나의 點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한 點의 나비떼를 照準口 속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숨을 죽인채 방앗쇠를 당겼다. -65년

5.『제주도곤충상』분석 및 평가

1) 들어가며

세계적 나비학자인 석주명이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31년 선생이 松都高等普通學校에 재직하고 계셨을 때 미국의 '앤드루즈 탐험대'의 모리스와 만나는 계기가 되면서이다.

첫 번째 인연은 미국의 박물관과 대학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 '국토대순례 채집여행'을 하게 된다. 이때 1936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주도에 1개월 남짓 머물면서 한반도와는 다른 나비류를 접하고 '濟州島産蝶類採集記'에 58종을 기록하였으며,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두 번째 인연은 7년 후 1943년 4월 24일부터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의학부 소속인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현 제주대학교부속 아열대연구소, 서귀포시 토평동)이 개소하면서 소장으로 부임한 후 1945년 5월까지 2년 1개월간 머물게 된다. 석주명선생이 소장으로 지원하게 이유는 첫 번째 채집기간 동안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다양한 동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중 평소 선생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식에 감탄한 원홍구 선생과 모리 다메조(경성대학교 교수, 어류전공)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인연은 곤충 채집 목적이 아닌 제주의 많은 다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948년 2월경에 제주도를 일주하게 된다.

과거 정세호(2005)는 제주도 곤충류를 4,316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문헌기록과 새롭게 추가된 것을 합하면 5,000여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래전 석주명 선생의 채집 기록한 19目 141科 737種(『제주도 곤충상(1970)』)의 기록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위대한 성과이며 제주도 곤충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2) 석주명의『제주도 곤충상』의의

『제주도 곤충상(濟州島昆蟲相)』은 1950년 6월에 편집완료 되었지만 한국전

쟁으로 출간되지 못하고, 1970년 8월 동생인 석주선에 의해 유고집으로 출간되었다. 『제주도곤충상』의 구성은 제1장 연구사, 제2장 총목록, 제3장 총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1) 제1장 硏究史

석주명 선생의 저서인 『제주도 곤충상』중 제1장 연구사에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106편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 문헌을 분석하여 논문 제목, 종의 기록, 연대별 발표 건수와 연구자의 국가 그리고 연구자가 기록한 편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주도 곤충 선행 조사를 시기별로는 살펴보면

가. 일본에 합병되기 전인 1900년 전에는 2편으로서,

- 영국 선장 에드워드 벨처(E. Belcher)는 사마랑 호를 이끌고 홍콩, 오키나와, 일본, 필리핀 등을 조사하였으며, 제주는 1843년 6월25일부터 37여 일간 우도를 기지로 삼아 제주, 거문도, 거금도 일대를 정밀 측량하였고 제주도의 해안선 길이와 한라산의 높이를 1,995m로 계산하였다. 그는 중국인 통역을 대동하여 정의현감 임수룡과 의사소통을 하였다.

  애서 애덤스(Arthur Adams)는 동물학자이자 외과의사로서 그는 박물학에 조예가 깊어 조선인의 생김새와 복장(그림 1, 2 참조), 예절 무기, 선박 풍경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식물 46종, 조류 26종, 어류 7종, 곤충류 19종, 거미류 14종, 조개류 29종 그리고 해면동물 2종을 기록하였는데, 이 내용은 에드워드 벨처의 <사마랑호 탐사항해기 1843~46> 제 2권 박물관 편에 소개된 후, 1850년 런던에서 다시 <사마랑호 항해 동물지(The Zoology of the Voyage of H.M.S. Samarang)>란 표제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가 채집한 곤충류는 제주홍단딱정벌레[Coptolabrus monilifer]와 하늘소류, 끝루리등에잎벌, 사슴벌레류, 금풍뎅이, 박각시류, 장수풍뎅이, 소똥풍뎅이 등 19종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논문보다는 기행문 형태로 기록되어 정확한 종동정이 필요하다. 애서 애덤스는 어디에서 동·식

물 및 해양생물을 조사하였는가의 의문은 우도에 상륙한 후에는 정의현감 임수룡의 초청으로 정의현을 방문하면서 채집이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왜냐하면 조사된 많은 곤충들의 서식환경을 살펴보면 우도라는 섬보다는 육지부에 서식하는 식물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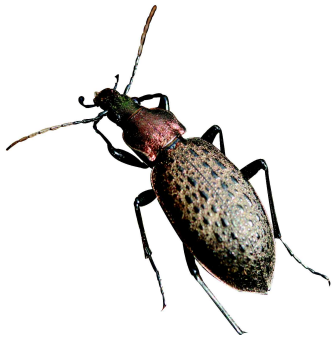
그러면 근대식 학명에 의한 최초의 기록은 애서 애덤스(Arthur Adams)가 채집한 곤충류 중 일부 딱정벌레는 타툼(Tatum T.)이라는 자국의 곤충학자에게 보내졌으며, 그 중 타툼[Tatum, T.]에 의해 기재 발표된 Description of two new species of Carabus from Asia라는 논문에 제주홍단딱정벌레 [Damaster smara gdinus Tatum, 1847]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되었던 곤충이면서 아울러 한반도에서 신종(新種)으로 발표된 최초의 곤충이었다(그림 3).



<그림 1> 정의현감 임수룡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림 2> 정의현 관리
(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콜베[Kolbe H. J., 1880]로서 Beitrge zur Kenntniss der Coleopteren-Fauna Koreas 라는 논문에 제주홍단딱정벌레[Coptolabrus monilifer] 1종을 기록하였다.

나. 1901~1920년까지는 3편으로,

- 이찌가와[Ichikawa, S., 市河三喜, 1906]로서 「제주도(濟州道)の곤충(昆蟲)」논문에서 제주도 곤충 전반에 걸쳐 11目 34科 86種의 곤충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처음으로 제주도 곤충의 종합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 디스탄트[Distant W. L., 1911]는 Rhynchoal Notes 논문에 제주노린재[Okeanos quelpartensis Distant, 1911], 장흙노린재[Pentatoma semiannulata (Motschulsky, 1859)] 등 2종을,
- 오스하닌[Oshanin, 1912]은 Katal. Palae. Hem. 논문에 제주노린재[Okeanos quelpartensis Distant, 1911], 장흙노린재[Pentatoma semiannulata (Motschulsky, 1859)] 등 2종을 재인용 기록하였다.

다. 1921~1930년까지는 21편으로,

- 앤드류[Andrewes H. E., 1923]는 Papers on Oriental Carabidae 논문에 한라길쭉먼지벌레[Pterostichus raptor] 1종을,
- 오카모토[Okamoto, H., 岡本半次郎, 1924a]는 제주도 곤충 전체를 망라하여「제주도(濟州道)の곤충상(昆蟲相)」이라는 논문에 12目 92科 527種을 기록하면서 인접 지역과의 동물 지리학적인 분포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석주명 선생은 다른 지역에서 채집되는 종들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 오카모토[Okamoto, H., 岡本半次郎, 1924b]는 “Studies on the plant and leaf-hoppers of the rice plant in Korea.”에 줄풀잠자리[Liburnia furcifera] 1종을,
- 키시다[Kishida, K., 岸田久吉, 1924]는 Introduction to studies on animals in Japan 논문에 앤드류가 기록한 한라길쭉먼지벌레[Pterostichus raptor]와 오카모토가 기록한 것을 재인용하여 12目 26科 228種을,

- 오카모토[Okamoto, H., 岡本半次郎, 1925a]는 Cicindelidae of Korea에 길앞잡이류 5종을,
- 오카모토[Okamoto, H., 岡本半次郎, 1925b]는 The Mecoptera of Corea에 제주밑들이[Panorpa approximata] 1종을 기록하였다.
- 오카모토[Okamoto, H., 岡本半次郎, 1927]는 The longicorn beetles from Corea에 하늘소류 19종을 기록하였다.
- 시부야[Shibuya, J., 1927]는 Some new and unrecorded species of Pyralidae from Corea (Lepid.)에 쌍별들명나방[Margaronia bipunctalis] 1종을,
- 도이[Doi, K., 土井久作, 1927]는 Studies of Chrysomelidae of Korea에 잎벌레류 4종을,
- 니지마와 키노시트[Niijima et Kinoshit, 新島善直・木下榮次郎, 1927]는 제주풍뎅이류[Anomala quelparta] 1종을,
- 横山桐郎과 丸毛信勝(1927)는 日本動物圖鑑에 산지가 제주도라 적힌 것은 없으나 세계 공통종이 9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마쓰무라[Matsumura S., 松村松年, 1927]는 A list of butterflies of Corea, with description of new species, subspecies and aberrations라는 논문에 남방부전나비를 신아종 Zizera maha saishutonis으로, 왕자팔랑나비도 신아종 Daimio sinica saishuana 으로 2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28]는 Supplementary notes on the Platypodidae of Formosa II 논문에 제주긴나무좀[Crossotarsus simplex] 1종을,
- 모리[Mori, T., 森爲三, 1928]는 Scarabaeids attending cattle droppings 논문에 소똥구리[Gymnopleurus mopsus] 1종이 제주도까지 분포한다고,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29a]는 Notes on overwintering of Hilyotrogus bicoloreus Heyden 논문에 쌍색풍뎅이[Hilyotrogus bicoloreus] 1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29b]는 日本領土内に産するナガキクイムシの種類及喰害라는 논문에 제주긴나무좀[Crossotarsus simplex] 1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0]는 Révisions des Familes des

Ipides et des Platypides de Corée라는 논문에 12종을,

- 에사키[Esaki, T., 江崎悌三, 1930]는 Notulae Cimicum Japonicorum [IV]. "On the two pentatomids described from Quelpart Island"라는 논문에 제주노린재[Okeanos quelpartensis]와 장흙노린재[Pentatoma semiannulata] 등 2종을,
- 카토[Kato, M., 加藤正世, 1930]는 Notes on the Membracidae of Japan라는 논문에 오카모토뿔매미[Tricentrus okamotoi] 1종을 새로 추가하였고,
- 마찌다와 아오야마[Machida・Aoyama, 町田貞一●青山哲四郎, 1930]는 朝鮮害史便(後編) 논문에 왕굼벵이벌[Tiphia popilliavora] 1종을 산지를 기록하였고,
- 방하스[Bang-Haas O., 1930]는 Novitastes Macrolepidopterologicae, Katalog, Paläarktischen Macrolepidopteren, Band 라는 논문에 남방부전나비[Pseudozizeeria maha (Kollar, 1844)] 1종을 기록하였는데 대부분 선행연구를 인용하거나 단편적인 기록에 불과하다.

라. 1931~1935년까지는 22편으로,

- 조복성(1931)은 A list of Lucanidae from Korea 라는 논문에 넓적사슴벌레[Eurytrachelus platymelus] 1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1]는 Revision des Familles des Ipides et Platypides(Coleoptertes) de l'ile de Quelpart라는 논문에 제주도산 12종을,
- 마쓰무라[Matsumura S., 松村松年, 1931]는 6000 illustrated insects of Japan Empire라는 도감에 남방부전나비의 아종 Zizera maha f. saishutonis를 비롯하여 제주도산으로 100종을,
- 조복성(1932)는 A list of Cicindelidae from Korea라는 논문에 길앞잡이류 9종을,
- 카토[Kato, M., 加藤正世, 1932]는 Studies on Cicadas라는 논문에 매미류 4종을,
- 사이토[Saito, K., 齊藤孝藏, 1934]는 On the longicorn beetles of Corea. 라는 논문에 하늘소류 16종을,

- 도이[Doi, H., 土居寬暢, 1932a]는 昆蟲雜記 논문에 장흙노린재[Pentatoma semiannulata] 1종을 재인용,
- 도이[Doi, H., 土居寬暢, 1932b]는 제주노린재[Okeanos quelpartensis] 1종을 재인용하였고,
- 나카야마[Nakayama, S., 中山昌之介, 1932]는 A guide to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Corean butterflies라는 논문에 남방부전나비와 왕자팔랑나비 2종을,
- 우찌다 등[Uchida et al., 內田淸之助 외 25인, 1932]는 Iconographia Insectorum Japonicorum 도감에 전반적인 곤충류에서 제주도 산지가 기입된 것이 8종, 세계공통 혹은 일본 전국에서 제주도산이라는 것이 63종이라고 기록하였고,
- 세이츠[Seitz, A., 1932]는 The Macrolepidoptera of the World 책자에 남방부전나비 1종을,
- 조복성(1933)은 On the variation of Xylotrupes dichotomus Linnaeus from Korea 라는 논문에 장수풍뎅이[Xylotrupes dichotoma] 第4圖 ♀은 제주도산임을 기록하였고,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3]는 Notes supplementaire à la Revision des Ipides et Platypides de Corée, II 논문에 사카쿠레좀[Xyleborus ebriosus] 1종을,
- 석주명(1934)는 A study of Korean butterflies (1) 논문에 가락지나비[Aphantopus hyperantus anzuensus]가 제주에 분포하는 것을 후에 알았고 이것을 포함하여 6과 29종을 기록,
- 조복성(1934)는 On the some Longicorn beetles from Korea라는 논문에 네줄범하늘소[Chlorophorus quinquefasciatus] 1종을,
- 가미조[Kamijo, N., 上條齊昭, 1934]는 Notes on some Forficulidae of Korea라는 논문에 큰집게벌레[Labidura japonica] 등 집게벌레류 3종을,
- 사이토[Saito, K., 齊藤孝藏, 1934]는 Notes on some longicorn beetles from Korea라는 논문에 알락수염하늘소[Apalimna liturata]와 수염하늘소[Monochamus rosenmulleri] 등 2종의 하늘소류를,
- 나가하나[Nagahana, 長花懆, 1934]는 Notes on the bed-bug in Korea라는

논문에서 빈대[Cimex lectularius] 1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4]는 On the Ipidae (Coleoptera) from Formosa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ir food plants는 논문에서 사카쿠레나무좀[Xyleborus ebriosus]과 미카도나무좀[Scolytoplatypus mikado] 1종 등 2종을,
- 모리・도이・조복성[Mori, T.・H. Doi・B.S.Cho, 森爲三・土居寬暢・趙福成,1934]는 Coloured butterflies from Korea라는 도감에서 나비류 7과 62종을,
- 석주명(1935)은 Pri la varieco de Ypthima baldus Fabricius kaj gia nomo 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 배추흰나비[Pieris rapae]를 기록하였고,
- 사이토[Saito, K., 齊藤孝藏, 1934]는 Distribution of some Korean longicorn beetles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 하늘소류 20종을 기록하였다.,

마. 1936~1940년까지는 34편으로,

- 석주명(1936)은 朝鮮産Aphantopus hyperantus Linnéに就て라는 논문에서 가락지나비 1종을,
- 조복성(1936)은 A list of Meloidae from Korea라는 논문에서 가래과(Meloidae) 6종을,
- 고노[Kono, H., 河野廣道, 1936(2)]는 Family Pyrochroidae,라는 논문에서 홍다리붙이홍날개[Pseudopyrochroa lateraria] 1종을,
- 고노[Kono, H., 河野廣道, 1936(2)]는 Family Meloidae라는 논문에서 열점박이가뢰[Mylabris calida]와 먹가뢰[Epicauta chinensis] 등 2종을,
- 키시다・나가무라[Kishida, K.・Nakamura, Y., 岸田久吉・中村倭, 1936]는 catalogue of Japanese insects. Fasc. 9, Lepidoptera라는 논문에서 왕자팔랑나비[Daimio tethys saishuana] 1종을,
- 추조[Chujo, M., 中條道夫, 1936]는 Family Erotylidae라는 논문에서 톱나무늬버섯벌레[Aulacochilus decoratus]와 모라윗왕버섯벌레[Episcapha taishoensis] 등 2종을,
- 도이[Doi, H., 土居寬暢, 1936]는 Miscellaneous notes on Insects(7)라는 논문에서 각시비단노린재[Eurydema pulchra] 1종을,

- 미와[Miwa, Y., 三輪勇四郎, 1936]는 Family Cicindelidae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 길앞잡이류를 7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6]는 Expériences sur l'Emploi des insecticides contre les deux Chrysomélides라는 논문에서 오리나무잎벌레[Agelastica caerulea] 1종을,
- 야마다[Yamada, M., 山田滿寬, 1936]는 Notes on some Heteroptera from Korea라는 논문에서 매미목 중 제주도산이 10종, 세계공통종 2종, 총괄표에 제주도산은 31종을,
- 석주명(1931)은 On the butterflies collected in Is. Quelpart라는 논문에서 1신아종을 포함하여 58종의 나비류를,
- 백갑용(1937)은 朝鮮未記錄のヲスグロハナノミに就て라는 논문에서 한라산에서 채집한 수검은왕꽃벼룩[Macrosiagon cyaniveste] 1종을,
- 카토[Kato, M., 加藤正世, 1937]는 A list of Membracidae Japan라는 논문에서 오카모토뿔매미[ricentrus okamotoi]류1종을,
- 히라야마[Hirayama, S., 平山修次郎, 1937]는 Coloured Illustrate Insects of 1,000 species라는 도감에서 왕자팔랑나비[Satarupa tethys saishuana] 1종을
- 마쓰우노[Matsuo, S., 松尾正行, 1937]는 On the Xylotrechus in Korea라는 논문에서 네줄범하늘소[Chlorophorus quinquefasciatus] 1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7a]는 Notes, au pointe de vue scientifique, sur les especes nonreconnues, rares et nouvelles de Scarabéidés de la Corée, II라는 논문에 소똥구리류 9종(그중 중복종 1종)을,
- 사와다[Sawada, 澤田玄正, 1937]는 On the genus Serica of Japan (Scarabaeidae) with descriptions of new species and varieties라는 논문에 우단풍뎅이Serica japonica], 긴수염우단풍뎅이[Serica boops]과 주황우단풍뎅이[Serica similis] 등 우단풍뎅이 3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7b]는 本邦産ナガキクイムシに就て라는 논문에 제주긴나무좀[Crossotarsus simplex] 1종을,
- 석주명(1938a)은 朝鮮産Hesperia maculataチャヌダラセセリに就て라는 논문에 흰점팔랑나비[Hesperia maculatus] 1종을,
- 석주명(1938b)는 Studo sur la varioco de Ypthima motschulskyi Bremer

et Grey de Koreujo라는 논문에 물결나비[Ypthima motschulskyi] 1종을,
- 석주명(1938c)은 Studo pri Pieris napi Linné라는 논문에 줄흰나비[Pieris napi] 1종을,
- 에사키・호리・야수마츠[Esaki, T.・Hori, H.・K. Yasumatsu, 江崎悌三・堀浩・安松京三, 1938]는 Insectorum Japonicorum Illustratio Iconographica Coloribus and Naturam Depicta라는 도감에 전반적인 곤충류중 제주도산 65종, 세계공통종 19종을,
- 마수이[Masui, M., 增井正幹, 1938]는 A list of Lucanidae from Korea라는 논문에 넓적사슴벌레[Eurytrachelus platymelus] 1종을,
- 마쓰우노[Matsuo, S., 松尾正行, 1938]는 On the family Erotylidae of Corea라는 논문에서 톱니무늬버섯벌레[Aulacochilus decoratus] 1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8a]는 Revision des Sericines (Coleoptera, Scarabaeides) de la Corée라는 논문에 제주도산 5종과 조롱박우단벌레[Serica elliptica] 1신종을 기록하였고,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938b]는 Recherches sur les Insectes chez la Terre des Pépinières dans la Coré라는 논문에서 나비류중 6과 26종을 제주도산으로 기록하였고,
- 노무라[Nomura, K., 野村健一, 1938~1939]는 Notes on the butterfly fauna in various inlands belonging to the Japanese Archipelago I~Ⅳ 라는 논문에서 나비류75종을 제주도산으로 기록하였고, 그중 고유종은 2종으로 전체에 대한 고유도가 3%라고 기록,
- 석주명(1939a)은 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from Korea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을 기록하였으며,
- 석주명(1939b)은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도감에서 제주도의 나비류를 기록하였고,
- 타나카[Tanaka, M., 田中三夫, 1939]는 Hemiptera of Korea (II) 도감에서 제주도산 노린재류 5종을,
- 나카야마[Nakayama, S., 中山昌之介, 1939]는 제주도산 나비류를,
- 히라야마[Hirayama, S., 平山修次郎, 1939]는 Coloured Illustrate butterflies 도감에서 왕자팔랑나비[Satarupa tethys saishuana] 1종을,

- 야마야[Yamaya, B., 山谷文仁, 1939]는 A list of Cicindelidae from Aomori Prefecture, Japan라는 논문에 전반적인 곤충 중 5종을 제주도산으로 기록하였고,
- 나카야마・무라마츠[Nakayama, S.・S. Muramatsu, 中山昌之介, 村松茂, 1940]는 조명나방[Pyrausta nubilalis]의 제주도에서 발생이 적다고 기록하였다.

바. 1941~1945년까지는 15편으로,

- 석주명(1941a)은 La studoj sur variecoj kaj distribuoj de la 5 specoj de papilioj abundaj en Koreujo라는 논문에서 호랑나비[Papilio xuthus], 흰뱀눈나비[Satyrus halimede], 흰줄표범나비[Argyronome laodice], 산은점선표범나비[A. selene]을 기록하고 있으나 산은점표범나비는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지 않다고 기록하였으며,
- 석주명(1941b)은 Ankoraufoje pri la varieco de Ypthima baldus Fabricius de Koreujo라는 논문에서 애물결나비[Ypthima baldus] 1종을 기록하였고,
- 석주명(1941c)은 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Colias hyale Linné of Korea라는 논문에서 노랑나비[Colias hyale] 1종을,
- 석주명(1941d)은 On some species of butterflies which show the specialities of Korean Peninsula라는 논문에서 오색나비[Apatura ilia], 은점표범나비[Argynnis cydippe], 긴은점표범나비[Argynnis vorax]와 푸른부전나비[Lycaenopsis argiolus] 등 4종을,
- 도이・다나카[Doi, H. & Tanaka, M., 土居寛暢, 田中三夫, 1941]는 On the genus Eurydema of Chosen (Heteroptera)라는 논문에서 노린재류 2종을,
- 나카야마[Nakayama, S., 中山昌之介, 1941]는 고구마뿔나방[Brachmia macroscopa] 1종을,
-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醸造, 1941]는 Nouvelles Especes de Scarabaeides du Manchoukuo et de la Corée라는 논문에서 제주그물눈풍뎅이[Holotrichia reticulata] 1종을,
- 석주명(1942a)은 Triafoje pri la varieco de Pieris rapae Linné de Koreujo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을 다루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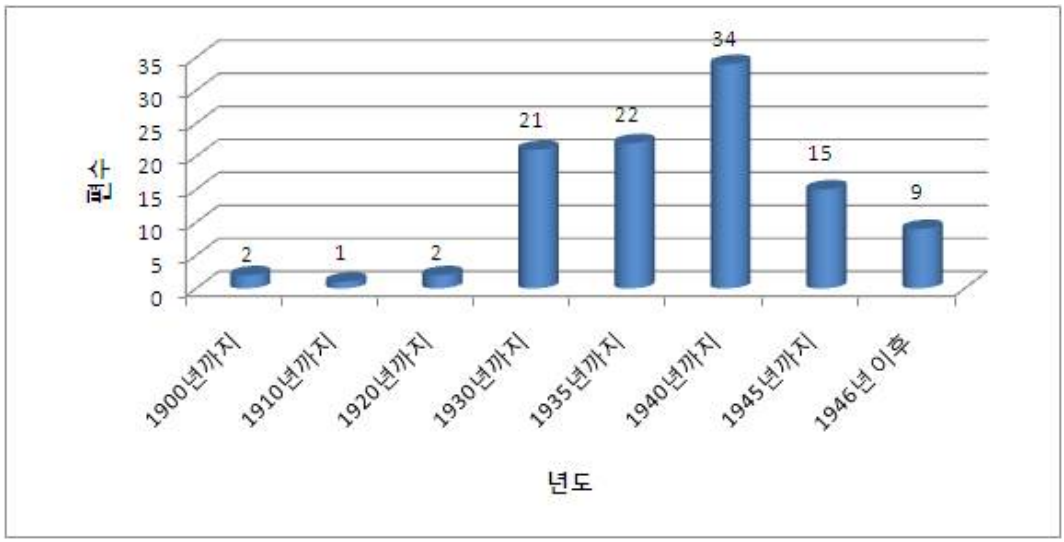
- 석주명(1942b)은 Studo pri la variecos Oeneis nanna Menetries de Koreujo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을 다루었으며,
- 석주명(1942c)은 Papilioj en Koreuj (dua raporto)라는 논문에서 나비류 6과 16종을,
- 석주명(1942d)은 Nemormalaj papilioj kaptitaj en Koreujo라는 논문에서 남방부전나비[Zizera maha], 산호랑나비[Papilio machaon], 암끝검은표범나비[Argyreus hyperbius], 암먹부전나비[Everes argiades], 먹부전나비[Everes fischeri], 남방부전나비[Zizera maha] 등 6종을,
- 타나카[Tanaka, M., 田中三夫, 1942]는 A list of Gerridae (Heteroptera) from Corea라는 논문에서 왕소금쟁이[Aquarius elongatus]와 소슴쟁이[Aquarius paludum var. remigator] 2종을,
- 석주명(1943)은 A list of the specimens of butterflies of the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in Suweon라는 논문에서 6과 48종이 나비류를,
- 시로즈・시바타니[Shirozu, T.・A. Shibatani, 白水隆, 柴谷篤弘, 1943]는 日本産ヒメハバミ, ミヤマシジミ及び其の近似種について라는 논문에서 산꼬마부전나비 학명을 Plebejus argyrognomon zezuensis 대신 [Plebejus argus seoki]로 명명하고,
- 요코[Yokoo, 横尾多美男, 1944]는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hyrcanus sinensis] 1종을 기록하였다.

사. 1946이후는 9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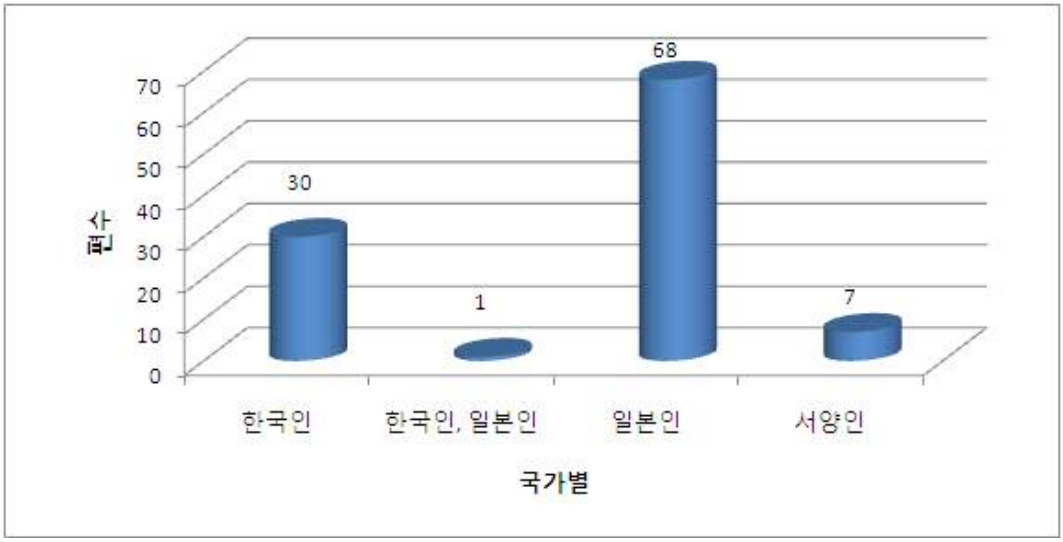
- 석주명(1946a)은 The fauna of butterflies of the environs of Experimental Station of the Is. Quelpart, Seoul University라는 논문에서 채집종 38종 중에서 연구소 주변에서 서식하는 종이 31종, 다른 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생각되는 종이 7종이라고 기록하였고,
- 석주명(1946b)은 On the nature, especially the butterflies of far southern part of the Is. Quelpart라는 논문에서 산방산, 송악산부근, 가파도와 마라도에 대한 나비류를 기록하였고,
- 조복성(1946a)은 朝鮮産 매미科의 再檢討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 매미류는 3종을,

- 조복성(1946b)은 朝鮮産하늘소(天牛)科甲蟲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산 하늘소 28종을,
- 석주명(1947a)은 濟州道의 蝶類라는 논문에서 채집종수 65종, 채집지는 8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 석주명(1947b)은 he study on the variation of Everes argiades Pallas of Korea라는 논문에서 암먹부전나비[Everes argiades] 1종을,
- 야마다[Yamada, S., 山田正輿, 1947]는 濟州道及び大阪俯産ミイデラゴミムシの斑紋に就て라는 논문에서 폭탄먼지벌레[Pheropsophus jessoensis] 1종을,
- 구로와[Kurowa, K., 黑佐和義, 1949]는 Catalogue of Carabidae from Shikoku (Japan)라는 논문에서 20종이 딱정벌레류를,
- 아라키[Araki, H.,荒木東次, 1950]는 A revision of the genus Episcapha Lacordair, (Coleoptera, Erotylidae)라는 논문에서 모라윗왕버섯벌레[Episcapha morawitzi morawitzi]와 노랑줄왕버섯벌레[Episcapha flavofasciata] 2종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곤충에 대한 연구사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00년까지 2편, 1910년까지 1편, 1920년까지 2편, 1930년까지 21편, 1935년까지 22편, 1940년까지 34편, 1945년까지 15편, 1946년 이후 9편이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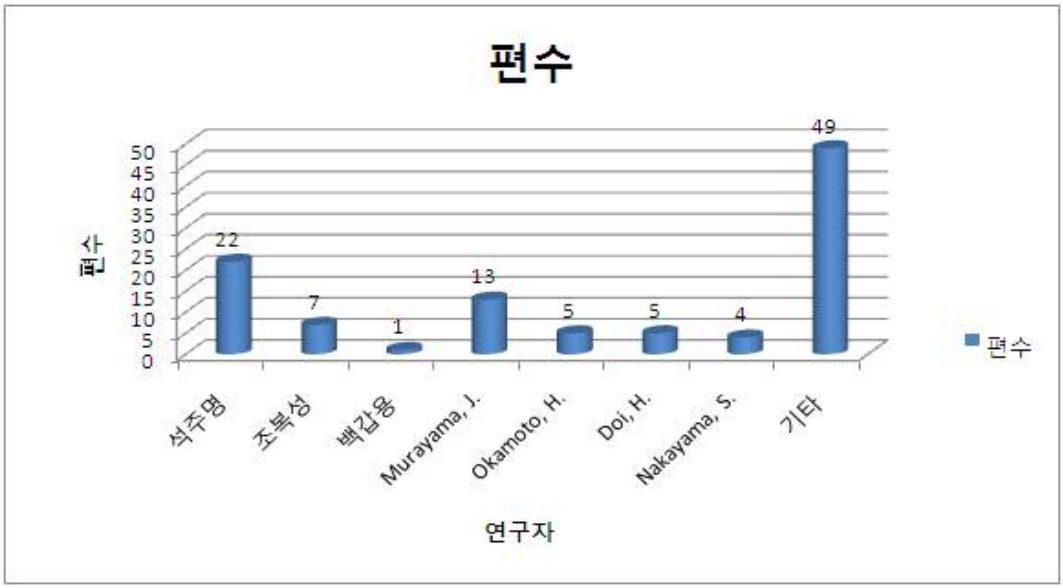


국가별로 보면 서영인의 편수는 6편, 일본인의 편수는 68편, 한국인의 편수는 30편이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공동편수는 1편이었다(그림 5).



<그림 5> 제주도 곤충연구자의 국가별 분석

제주도 곤충을 연구한 학자별로 보면 석주명 22편, 무라야마[Murayama, J., 村山釀造] 13편, 조복성 8편, 오카모토[Okamoto, H., 岡本半次郎]와 도이[Doi, H., 土居寬暢]가 5편, 나가야마[Nakayama, S., 中山昌之介]가 4편, 백갑용이 1편 그리고 기타[Ichikawa, S.; Kishida, K.; Shibuya, J.; Doi, K.; Niijima et Kinoshit; Yokoyama, T.・Marumo, S.; Matsumura S.; Mori, T.; Esaki, T.; Kato, M.; Machida・Aoyama; Saito, K.; Uchida et al.; Seitz, A.; Kamijo, N.; Nagahana; Kono, H.; Kishida, K. & Nakamura, Y.; Chujo, M.; Miwa, Y.; Yamada, M.; Hirayama, S.; Sawada; Masui, M.; Matsuo, S.; Nomura, K.; Tanaka, M.; Yamaya, B.; Nakayama, S. & S. Muramatsu; Doi, H. & Tanaka, M.; Tanaka, M.; Shirozu, T. & A. Shibatani; Yokoo; Yamada, S.; Kurowa, K.; Araki, H.] 등 49편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제주도 곤충 선행 연구자

(2) 총목록

'제2장 총목록'에서는 제주도산 곤충 19목 141과 737종에 대해서 문헌기록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어 후학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일러두기(석주명 자신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서 다음을 밝히고 있다.

가. 본 목록은 1950년 현재로 졸저 제주도총서 제3『제주도관계문헌집』중 〈곤충부〉에 수록된 문헌을 기본으로 삼아 편한 것이다. <곤충부>는 비교적 완전한 줄 알았더니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는 개정시에 증보코저 한다.

나. 배열은 Esaki, T.[江崎悌三]博士(일본곤충도감, 곤충강분류표, 1932)에 준하였고, 과(科)이하는 모두 학명의 알파벳순으로 하였다.

다. 나비 종류만은 편자의 전문인 관계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기타 부분에서는 각 저자의 의견에 맹종한 데가 많다.

라. Okamoto, H.[岡本半次郎]博士의 대저는 편자전문의 나비를 통해서 볼 때 의문점들이 많아서 전체로 믿기 어려운 저서이다. 나비부만은 편자

의 입장에서 대략 취사선택하였지만 기타 부분은 거의 그대로 포섭하였는데, 전문외인 편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타 부분의 것에도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짐작하겠으니, 금후 적당한 인사가 나타나서 본편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정리하여야 하겠다.

마. 신형출처에는 *로 표시하였다.

즉 석주명은 제주도곤충에 관련하여 모든 종들에 대한 문헌 기록과 그 한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총괄

'제3장 총괄'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을 인용하여 제주도 곤충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톡토기目[Collembela] 2科 3種, 좀目[Thysanura] 1科 1種, 잠자리目[Odonata] 4科 12種, 강도래目[Plecopterar] 1科 1種, 집게벌레目[Dermaptera]1科 4種, 메뚜기目[Orthoptera] 5科 12種, 다듬이벌레목[Psocoptera] 1科 2種, 털이目[Mallophaga] 4科 17種, 이目[Anoplura] 3科 10種, 매미目[Homoptera] 19科 75種, 총채벌레目[Thysanoptera] 2科 2種, 풀잠자리목[Neuroptera] 3科 5種, 딱정벌레目[Coleoptera] 32科 245種, 벌目[Hymenoptera] 13科 38種, 밑들이목[Mecoptera] 1科 1種, 벼룩目[Siphonaptera] 2科 7種, 파리目[Diptera] 15科 45種, 날도래目[Trichoptera], 나비目[Lepidoptera] 30科 265種 등 9目 141科 737種의 한국명과 학명을 정리하였다(표 3 참조).

<표 3> 제주도 곤충 선행연구자 및 발표 종수

研究者 目別	Ichikawa (1906)		Okamoto (1924)		Kishida, K.(1924)		趙福成 (1963)		石周明 (1970)		鄭世瑚 (2005)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Collembela 톡토기목									2	3	5	9

研究者 目別	Ichikawa (1906)		Okamoto (1924)		Kishida, K.(1924)		趙福成 (1963)		石周明 (1970)		鄭世瑚 (2005)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科數	種數
Odonata 잠자리목	2	4	3	11	3	11	4	11	4	12	8	55
Blattaria 바퀴목											2	7
Mantodea 사마귀목											2	5
Isoptera 흰개미목							1	1			1	1
Plecopterar 강도래목	1	1	1	1	1	1	1	1	1	1	5	7
Dermaptera 집게벌레목	1	1	1	3	1	3	2	3	1	4	4	11
Orthoptera 메뚜기목	1	3	5	11	5	11	8	20	5	12	11	77
Phasmida 대벌레목	1	1									3	3
Psocoptera 다듬이벌레목									1	2	2	2
Mallophaga 털이목									4	17	3	16
Anoplura 이목							1	2	3	10	4	9
Hemiptera 노린재목	4	5									32	267
Homoptera 매미목	4	8	13	41	13	41	16	49	19	75	37	370
Thysanoptera 총채벌레목									2	2	3	56
Neuroptera 풀잠자리목			3	4	3	4	3	5	3	5	5	11
Coleoptera 딱정벌레목			22	168	22	168	29	216	32	245	74	1,259
Hymenoptera 벌목	6	9	8	34	8	34	12	58	13	38	38	456
Mecoptera 밑들이목	1	1	1	1	1	1	1	2	1	1	2	5
Siphonaptera 벼룩목							1	2	2	7	3	7
Diptera 파리목	4	8	7	22	7	22	11	62	15	45	51	430
Trichoptera 날도래목			2	2	2	2	2	2	2	2	10	23
Lepidoptera 나비목	9	45	26	228	26	228	26	249	30	265	47	1,269
Total	34	86	92	527	26	228	120	685	141	737	360	4,361

3) 마치며

제주도가 외국어로 Quelpaert 또는 Quelpart라고 알려진 유래는 곤충학 분야에서는 1653년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이 제주도 근해에서 난파 표류하다 조그만 섬인 가파도에 이르러 그 섬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곳 주민들이 'Ka-pa-to'를 Quelpaert로 듣고 발음한데서 유래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조복성, 1963). 그러나 R.H.홀(R.H.Hall 1926)에 의하면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은 네덜란드 선원으로 1653년 제주 해안에 난파되어 조선에서 13년간 억류생활을 하다가 1666년 탈출한 후 그의 표류기행문에서 제주도를 퀠파트(Quelpaert)라고 표현했다. '켈파트'라는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가 동아시아에 뛰 운 배는 선폭이 좁고 긴 갤리선이었다. 이런 형태로 1630년 제작된 첫 배의 이름이 "갤리선 퀠파트 드 브락"(Galjodt't Quelpaert de Brack)이라 하였고, 차츰 '갤리선 퀠파트'라고 줄여 부르게 되었다. 바로 이 배가 1642년 동북쪽을 항해하다가 제주도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보고한 까닭에 제주도는 처음에 '퀠파트호가 발견한 섬'으로 불리었으며, 어느 날 이름 자체가 퀠파트로 바뀌고 말았다.

석주명의『제주도 곤충상』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다른 학자들이 자주 올 수 없던 제주도에 3회에 걸쳐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그 중 1943년 4월 24일부터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의학부 소속인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현 제주대학교부속 아열대연구소 , 서귀포시 토평동)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1945년 5월까지 2년 1개월간 제주도에 장기간 머물면서 곤충 채집을 하면서 정리하였던 사실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곤충학자가 많지 않아 몇몇밖에 활동하지 못하던 시대인데 당대 최고의 학자인 석주명 선생이 제주도 곤충을 정리하였다는 사실은 제주도로 보면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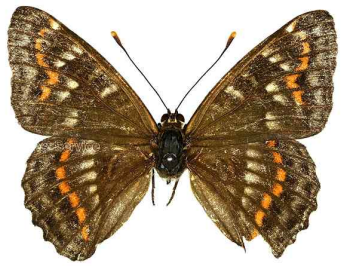
둘째로는 석주명 선생의 곤충관련 논문 또는 책자를 쓸 때에는 당시 논문이나 책자를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인데도 많은 제주도 관련 책자 또는 논문을 구입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은 오늘날 후학들에게도 학문의 모범과 더불어 학문적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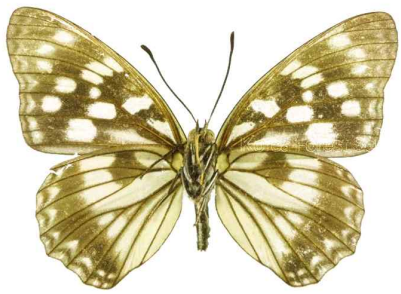
셋째로는 석주명 선생의『제주도 곤충상』발간은 1970년도이었지만 원고는 1950년 6월 전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곤충 종수가 9目 141科 737種이나 되는 것으로 제주도 곤충에 대하여 다양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이다. 제주도 곤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한 학자는 이찌가와[Ichikawa, S., 市河三喜, 1906]로서 11目 34科 86種이었고, 그 후 오카모토[Okamoto, H., 岡本半次郎, 1924]는 12目 92科 527種이었고, 키시다[Kishida, K., 岸田久吉, 1924]는 오카모토가 기록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그 후 조복성(1963)은 오카모토의 것을 재인용과 더불어 채집한 자료를 가지고 16目 120科 685種을 기록하였다. 즉 조복성보다 13년이나 빨라지만 곤충 종 수가 48종이 더 많은 종 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석주명 선생이 얼마나 자료를 수집하였는가를 보여준다.

넷째로는 제주도의 나비류 중 제주왕나비[Parantica sita (Kollar, 1833)]의 유래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해안부터 산꼭대기까지 분포도를 정리하여 서식지에 대한 분포도를 정리하였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석주명 선생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나비의 학명에 석주명 선생의 영문인 Seokia 또는 seoki를 붙여 예의를 표하고 있는데, 산꼬마부전나비[Plebejus argus seoki Shirozu et Shibatani,1943] (그림 7 참조), 홍줄나비[Seokia pratti eximia Moltrecht, 1909] (그림 8 참조), 흑백알락나비[Hestina persimilis seoki Shirozu, 1955] 이다(그림 9 참조). 또한 우리말 이름에도 석주명 선생의 성인 石을 붙여 예의를 표하고 있는데 석물결나비[Ypthima amphithea Ménétriès, 1858] 이다(그림 10 참조).







<그림 9> 흑백알락나비



<그림 10> 석물결나비

그나마 다행히도 1999년 서귀포시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당시 생약연구소 부근의 소공원에 석주명 흉상을 건립하여 업적을 기리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석주명 흉상

오늘날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으로 독특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생물 다양성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석주명 선생이 제주도 곤충사에 남긴 업적은 매우 크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鄭世瑚(1999). 원색 제주도의 곤충,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pp. 268.

石宙明(1934) 朝鮮産蝶類の研究. - 鹿兒島高農創立25周年 紀念論文集 (前篇), p. 631-784. [Seok, D. M. (1934) A study of Korean butterflies (1). - Bull. Kagoshima Imperial Coll. Agr. & Forest, 25th Anniv., p. 631-784. (In Japanese)] [제주도산 나비류 6과 29종 기록]

石宙明(1935) ヒメウラナミジャノメの變異研究竝に其學名に就て.- 動物學雜誌, 47: 626-631.

[Seok, D. M. (1935) Pri la varieco de Ypthima baldus Fabricius kaj gia nomo. - Zool. Mag., Japan, 47: 626-631. (In Japanese)]
[제주도산 애물결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36) 朝鮮産 Aphantopus hyperantus Linnéに就て. [附]眼狀紋及其他の斑紋研究上の一新様式. - 動物學雜誌, 48: 995-1000.

[Seok, D. M. (1936) Pri Aphanotopus hyperantus Linné en Koreujokaj unu nova sur la studo de ocelli (Rhopalocera). - Zool. Mag., Japan, 48: 995-1000. (In Japanese)] [제주도산 가락지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37) 濟州道蝶類採集記(一新亞種の記載を含む). - Zephyrus, 7:150-174.

[Seok, D. M. (1937) On the butterflies collected in Is. Quelpart. - Zephyus, 7: 150- 174. (In Japanese)] [제주도산 나비류 58종 기록]

石宙明(1938) 朝鮮産 Hesperia maculata チャヌダラセセリに就て. - 動物學雜誌, 50(2): 82-84.

[Seok, D. M. (1938) Pri Hesperia maculata Bremer et Grey de Koreujo. - Zool. Mag., Japan, 50(2): 82-84. (In Japanese)]
[제주도산 흰점팔랑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38) 朝鮮産ウラジャノメの變異研究. - 動物學雜誌, 50(2): 88-93.

[Seok, D. M. (1938) Studo sur la varioco de Ypthima motschulskyi Bremer et Grey de Koreujo. - Zool. Mag., Japan, 50(2): 88-93. (In Japanese)]
[제주도산 물결나비 1종 기록]

Seok, D. M. (1938) Studo pri Pieris napi Linné. - Annot. Zool. Japon,

17(3/4): 525-529. (In Japanese) [제주도산 줄흰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39) 朝鮮産蝶類の研究史. - 朝鮮博物學會雜誌, 26: 20-60. [Seok, D. M. (1939) The history of the studies on the butterflies of Korea. - Jour. Chosen Nat. Hist. Soc., 26: 20-60. (In Japanese)]

Seok, D. M.(1939)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391 pp. Seoul. [제주도산 나비 다루었음]

石宙明(1939) 朝鮮産ヒメヒカゲの變異研究. - 關西昆蟲學會會報, 8: 72-80.

[Seok, D. M. (1939) 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from Korea. - Trans. Kansai Ent. Soc., 8: 72-80. (In Japanese)] [제주도산 봄처녀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41) 濟州道の昆蟲. - 文化朝鮮, 3(4): 52-54. [Seok, D. M. (1941) (In Japanese)]

石宙明(1941) 朝鮮に産する五種の蝶の變異及分布の研究. - 朝鮮博物學會雜誌, 8(32): 39-52. [Seok, D. M. (1941) La studoj sur variecoj kaj distribuoj de la 5 specoj de papilioj abundaj en Koreujo. - Jour. Chosen Nat. Hist. Soc., 8(32): 39-52. (In Japanese)]
[제주도산 호랑나비, 흰뱀눈나비, 흰줄표범나비, 꼬마표범나비, 네발나비 5종 꼬마표범나비는 제주에 분포 않음 기록]

石宙明(1941) 再び朝鮮産ヒメウラナミジャノメの變異研究. - 動物學雜誌, 53(8): 397-402.

[Seok, D. M. (1941) Ankoraufoje pri la varieco de Ypthima baldus Fabricius de Koreujo. - Zool. Mag., Japan, 53(8): 397-402. (In Japanese)]
[제주도산 애물결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41) 朝鮮産モンキテフの變異研究. - 動物學雜誌, 53(9): 431-436.

[Seok, D. M. (1941) 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Colias hyale Linné of Korea. - Zool. Mag., Japan, 53(9): 431-439. (In Japanese)]
[제주도산 노랑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41) 朝鮮半島の特殊性を現する數種の蝶類に炊て.- 日本學會協會報告, 16(1):73-81.

[Seok, D. M. (1941) On some species of butterflies which show the

specialities of Korean Peninsula. - Report Japan Assoc. Edu. Sci., 16(1): 73-81. (In Japanese)]
[제주도산 오색나비, 은점표범나비, 긴은점표범나비 푸른부전나비 4종 기록]

石宙明(1942) 三たび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 - 動物學雜誌, 54(6): 219-229.

[Seok, D. M. (1942) Triafoje pri la varieco de Pieris rapae Linné de Koreujo. - Zool. Mag., Japan, 54(6): 219-229. (In Japanese)]
[제주도산 배추흰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42) 朝鮮産テウセンタカホヒカゲの變異研究. - 動物學雜誌, 54(10): 395- 405. [Seok, D. M. (1942) Studo pri la variecos Oeneis nanna Menetries de Koreujo. - Zool. Mag., Japan, 54(10): 395-405. (In Japanese)] [제주도산 흰뱀눈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42) 朝鮮産蝶類の研究(第二報). -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1: 5-95.

[Seok, D. M. (1942) papilioj en Koreuj (dua raporto). - Bull. Nat. Hist. Soc. Kagoshima, 1: 5-95. (In Japanese)] [제주도산 나비류 6과 16종 기록]

石宙明(1942) 朝鮮産異形及奇形の蝶. -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1: 97-139.

[Seok, D. M. (1942) Nemormalaj papilioj kaptitaj en Koreujo. - Bull. Nat. Hist. Soc. Kagoshima, 1: 97-139. (In Japanese)]
[제주도산 남방부전나비, 산호랑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암먹부전나비, 먹부전나비 5종 기록]

石宙明(1943) 朝鮮産蝶類標本目錄(水原農事試驗場所藏). - 朝鮮農事試驗場彙報, 15 (1): 48-55.

[Seok, D. M. (1943) A list of the specimens of butterflies of the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in Suweon. - Bull. Agr. Exp. Stn. Gov.-Gen. Chosen, 15(1): 48-55. (In Japanese)]
[제주도산 6과 48종 기록]

石宙明(1946) 京城大學附屬生藥研究所 濟州道試驗場附近의 蝶相. - 國立科學博物館動物剖研究報告, 1(1): 5-9.

[Seok, D. M. (1947) The fauna of butterflies of the environs of

Experimental Station of the Is. Quelpart, Seoul University. - Bull. Zool. Nat. Sci. Mus., 1(1): 5-9. (In Korean)]

[제주조산 나비류 38종, 토착종 31종, 비래종 7종 기록]

石宙明(1946) 濟州道 南端剖의 自然 더우기 그곳의 蝶相에 對하여. - 國立科學博物館動物剖研究報告, 1(1): 10-16.

[Seok, D. M. (1946) On the nature, especially the butterflies of far southern part of the Is. Quelpart. - Bull. Zool. Nat. Sci. Mus., 1(1): 10-16. (In Korean)]

石宙明(1947) 朝鮮産蝶類總目錄. - 國立科學博物館動物剖研究報告, 2(1): 10-16.

[Seok, D. M. (1946) A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 Bull. Zool. Nat. Sci. Mus., 2(1): 1-16. (In Korean)]

石宙明(1947) 濟州道의 蝶類. - 國立科學博物館動物剖研究報告, 2(2): 17-45.

[Seok, D. M. (1946) A List of Butterflies of Is. Quelpart. - Bull. Zool. Nat. Sci. Mus., 2(2): 17-45. (In Korean)]

[제주도산 68종 중 문헌에만 있는 미채집종 8종 기록]

石宙明(1947) 朝鮮産ツバメシジミの變異研究. - Zephyrus, 9(4): 283-85.

[Seok, D. M. (1947) The study on the variation of Everes argiades Pallas of Korea. - Zephyrus, (4): 282-285. (In Japanese)]

[제주도산 암먹부전나비 1종 기록]

石宙明(1970) 濟州道 昆蟲相. 186 pp. 寶晋齋 [Seok, D. M. (1970) The insect fauna of the Is. Quelpart. 186 pp. Po-Chin-Chai (In Korean)]

石宙明(1972) 韓國産 蝶類의 研究. 259 pp. 寶晋齋 [Seok, D. M. (1972) Papilioj en Koreujo. 259 pp. Po-Chin-Chai (In Korean)]

石宙明(1973) 韓國産 蝶類 分布圖. 517 pp. 寶晋齋 [Seok, D. M. (1973) The Distribution maps of butterflies in Korea. 517 pp. Po-Chin-Chai (In Korean)]

徐才哲・鄭世瑚(2005). 제주도 곤충, 일진사, p. 229.

6.『제주도자료집』분석 및 평가

1) 개요

주지하듯이, 석주명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년 간 제주도에서 살면서 제주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8.15 해방 직후 6권의 총서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애초에는 6권을 2개월에 한 권씩 1년 동안 서울신문사 출판국에서 출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뜻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석주명 생전에는 3권만이 간행되었다. 제1집『제주도방언집』(1947), 제2집『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1949), 제3집『제주도 문헌집』(1949)이 그것이다. 그의 생전에 간행되지 못한 나머지 세 권에 대해서도 석주명은 간행 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25 전쟁의 발발로 미간행 세 권은 그의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후인 1970~71년 사이에 간행되었다.

『제주도자료집』은 <제주도총서> 제6집으로 총서의 마지막 권이다.『제주도자료집』간행 준비는 두 차례에서 걸쳐서 이루어진 듯하다. 우선 석주명은 해방 직후 1년 동안 6권의 총서를 간행한다는 최초의 계획에 의해서 이 책의 간행 준비를 끝낸 것 같다. 그런데 석주명이 1950년 6월에 쓴『제주도자료집』'序'에 의하면, 애초의 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지연된 기간 동안 책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보면 최초의 계획이 지연되는 동안 석주명은『제주도자료집』에 대해 보완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의 '序'에 의하면, 이 책의 2차 간행 준비는 1950년 6월 무렵에 끝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의 와중에 석주명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미간행 책들의 간행은 한참 미루어지다가 1970년과 71년에 빛을 보게 되었다.『제주도자료집』은 총서의 맨 마지막으로 1971년 9월 10일, 보진재에서 간행되었다.

『제주도자료집』의 성격은 석주명이 쓴 위의 '序'에 잘 드러나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제6집에는 제1~5집에 들지 않은 여러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자료란 것

이 저자가 주로 잡지에 기고한 기간·미간의 졸편들로서 그 중에는 기고했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도 약간 있다. 이 제6집이 제주도 총서의 종권이므로 친지의 권고도 있고, 또 연구하는 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말에 졸저 목록을 부록으로 넣기로 하였다.

이처럼『제주도자료집』은 제주도총서 제1-5집에 수록되지 않은 글들을 모은 것이었다. 그 결과 이전의 다섯 권과는 달리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어느 글이나 제주도와 관련 있다는 점이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공통점이 될 것이다. 특히 제주어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제주도방언집』을 잇는 또 하나의 '제주어'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말에 석주명의 저술 목록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이는 그의 연구업적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目次
韓國의 姿態
제주도와 울릉도
濟州島地名을 包含한 動植物名(增補版)
제주도의 나비
濟州島方言隨筆補遺
濟州島의 植物名
濟州島의 動物名
農業關係의 濟州語
林業關係의 濟州語
牧畜關係의 濟州語
海産關係의 濟州語
漢子의 濟州語
濟州島의 洞里名
濟州島方言中의 朝鮮古語
外國語에서 由來한 濟州島方言

濟州島方言과 馬來語
濟州島方言과 比島語
濟州島方言과 安南語
濟州始祖高・良・夫 三氏考
續報
耽羅古史
兎山堂由來記
馬羅島엘레지
제주도전설 눈까진 장서방(눈먼 장꿩)
제주도 전설 독버르니
濟州島의 回想
主要作物播種量比較表
木香의 栽培試驗
莨菪의 栽培試驗
濟州島廳論
大韓民國의 女多地域
「男女數의 支配線」의 位置
島民의 食料品調査
濟州島의 象皮病
附錄: 著者의 業績目錄 及 解說

2) 내용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자료집』에 실린 글들은 총서 5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많아서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제주도자료집』에 실린 글들을 몇 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의상 분류한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일반, 2. 인구 관련, 3. 제주도 역사 관련, 4. 제주도 전설 관련, 5. 농작물 재배 관련, 6. 제주어 관련. 각 소주제에 부합한 글들을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제주도 일반: 한국의 자태, 제주도와 울릉도, 제주도의 회상, 제주도청론
(2) 인구 관련: 대한민국의 여다 지역, 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 도민의 식료품 조사, 제주도의 상피병
(3) 제주도 역사 관련: 제주시조 고량부 삼씨고, 속보, 탐라고사
(4) 제주도 전설 관련: 토산당 유래기, 마라도 엘레지, 눈까진 장서방, 독버르니
(5) 농작물 재배 관련: 주요 작물 파종량 비교표, 목향의 시험 지배, 곤마의 시험 재배
(6) 언어 관련: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글들

아래에서는 소주제별로 각각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제주도 일반

가.「한국의 자태」

「한국의 자태」란 글은 석주명이『제주신보』(1948년 2월 6일자)에 투고한 글이다. 이 글을 보면 석주명이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또 그가 총서를 간행할 수 있을 만큼 제주도에 큰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석주명은 한국 사람은 한국의 자태를 잘 알아야 세계 열국 사이에서 발언권을 얻고 세계문화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국제 생활을 하게 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국 고유의 요소가 매우 적은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제주도의 언어・풍속・습관・기타는 육지와 서로 달라서 자세히 보면 한국의 옛날 모습 내지 진정한 모습을 말해주는 자료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즉 진정한 한국의 자태를 찾으려면 제주도에서 그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한국의 자태를 간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孤島여서 육지에서와 같이 외래문화의 침윤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점, 작지 않은 면적과 인구로 인해 고유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제주도에 대한 석주명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석

주명은 한국 사회가 국제 사회에서 대우받기 위해서는 그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막상 당시 한국 사회는 국제화가 많이 진행되어 고유의 요소가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석주명이 보기에 절해고도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한국의 고유한 자태를 간직한 곳이었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한국의 자태를 밝혀줄 금쪽같은 자료가 지극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석주명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쉽게도 제주도의 특이성 내지 한국 고유 문화성을 귀한 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석주명이 제주도에 주목하고 제주도 관련 자료를 대단히 열성적으로 수집한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제주도를 한국 고유문화의 보고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 사람은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 귀함을 모르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그 가치를 인식한 자신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계통을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러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제주도 총서 6권의 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겠다.

석주명이 생각한 한국의 자태, 한국 고유의 요소가 무엇인지는 좀 더 논구가 필요해 보이며, 당시의 제주도를 한국 고유의 요소를 간직한 지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석주명이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나.「제주도와 울릉도」

이 글은『소학생』(1947년 10월호)에 실렸다. 수록 잡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울릉도를 소개한 글이다. 제주도에 국한해서 보면, 석주명은 제주도 소개는 자연과학자답게 자연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컨대 새끼 화산 즉 오름이 300개 이상인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제일이고, 현무암으로 된 김녕리의 사굴은 그 길이가 세계 제일이고, 식물이 많기로도 세계적이라고 제주도를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의 자연 환경 가운데 세계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1,950m의 한라산은 평지에서부터 정상까지 오르다 보면 아열대에서 寒帶까지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 남경에서부터 북으로 가서 북경을 지나 흥안령을 또 지나 시베리아까지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한 섬에서 그 풍경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아주 재미있는 일이라고 제주도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석주명의 제주도 소개는 자연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특히 제주도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주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

다.「제주도청론」

이 글은『제주신보』(1948년 10월 20일)에 실렸다. 일제강점기 濟州島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미군정하인 1946년 8월 1일에 가장 상급 행정단위라고 할 수 있는 濟州道로 승격하였다. 이 글은 '半제주인'이라고 자처한 석주명이 濟州道制 실시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신문 투고 시기가 4.3이 진행 중인 1948년 10월이라는 것이다. 이때는 제주도로 승격된 지 이미 2년이 더 지난 시기인데, 다소 뜬금없이 제주도 승격에 대해 쓴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석주명은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도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는 '당초부터 미국인 군정 하의 萎曲된 일 행정현상으로 보았'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주도가 특수하고도 중요하다고 해서 道로 승격시켰다고 보았다. 그런데 도 아래에 단지 2개의 군만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적고 있는데, 도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도민의 부담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도제 실시에 대한 석주명의 인식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제주도 전체가 부식질 과다의 척박한 토지로 도민은 자연히 근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심지어 그는 제주도민이 육지에 와서 일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힘든 제주도 사람들에게 도제 실시로 그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도지사 및 고관 국장의 존재가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도제 실시로 중앙 정부가 혜택의 균점을 꾀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자치제로 될 것을 기대하였다. 아울러 제주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하수 개발에 착안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하수 문제가 해결되면 제주도개발 문제는 반은 성공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대체로 석주명은 제주도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제주도 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수를 주목한 부분도 눈에 띈다. 다만 도제를 실시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또 4.3이 발발하여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제주도청론'을 투고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라.「제주도의 회상」

이 글은 석주명이 1936년에 1개월 간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동물을 채집할 당시 받은 인상을 기록한 것이다. 동물 채집 결과는「제주도산 접류 채집기」란 제목으로『제피루스』에 투고하였다. 그 글과 중복되지 않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모아, 1937년에『地理學硏究』(제14권 제5호, 1937년, 日語)에 투고한 것이 바로 이 글이다.

비록 단편적이지만, 1936년 당시 제주도에 대한 서술이 흥미를 끈다. 석주명은 제주도의 민가는 전라도 해남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도시는 인구 3만5천 명의 제주읍이 있는데, 진짜 도시는 읍내에서도 성내뿐이라고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제주도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大阪風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서술이다. 그래서 육지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보된 느낌이 있다고 적고 있다. 소도시의 상점이나 이발소 등도 개성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곳곳의 부락에는 폐병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大阪 방면에 여공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폐병이 들어서 돌아온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渡日 제주인의 존재 및 그들이 제주 사회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 연장선에서 석주명의 서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폐병 환자의 존재는 일반적인 사료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것으로 도일 제주인의 고달픈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36년 당시 석주명은, 제주도에 대해서 오사카의 영향을 받아서 대도시에 부럽지 않은 시설, 좋은 공기 등으로 건강 지역으로 더할 나위가 없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43년부터 2년여 간 체류할 때 그는 제주도 생명을 조사한 바가 있고, 그 결과는『제주도 생명조사서』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 생명조사를 통해서 그는 제주도는 건강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달하였다. 1개월 정도의 여행에서 받은 인상과 실제 현장 조사 결과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석주명은「제주도의 회고」에 '追記'를 넣어서 제주도가 건강 지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적고 있다.

이 글에는 제주도의 농경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종자를 흩뿌리고 그 위를 10여 두, 많을 때는 수십 두의 소나 말로 밟게 하는 농경 방식을 목

격한 것을 적고 있다. 석주명은 특히 소와 말을 뒤따르면서 제주도 농부들이 부르는 민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민요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국정취가 느껴지고 어딘가 로맨틱한 데가 있다고 적고 있다.

한라산 서남쪽에 있는 오백나한을 가려고 두세 차례 시도하였지만, 우천으로 갈 수 없었던 사정도 기록하였다.

감귤 관련 기록도 있는데, 당시 석주명은 서귀포에 있었던 일본인 西本의 제주농원을 방문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농원 부근이 조선 유일의 밀감 산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적고 있다. 당시 그곳의 감귤류는 제주도 내에서 전부 소비되어 육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개량 감귤의 재배 기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파도 관련 서술이다. 석주명은 곤충 채집을 위해서 직접 가파도를 찾았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가파도는 당시에서 약 80년 전에 개간되기 시작하였다. 작은 언덕도 없는 평탄한 곳이어서 개척이 수월했고 나무는 베기만 하고 심지 않아서 나무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땔감도 제주도로부터 구입하는 형편이었다.

당시 가파도 호수는 170여 호, 인구는 700여 명이었다.[4] 석주명은 辛酉義塾을 비교적 훌륭한 학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 직원은 2명이었고, 보통학교 정도의 개량 서당으로 가파도 사람들의 경영이어서 도민 전체가 이용하고 소중히 여겼다. 신유의숙의 영향으로 40세 이하의 남녀 중에 문맹은 한 사람도 없었다.

가파도의 성인 남자는 어업에 종사하고, 여자는 전부 해녀였다.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하였고, 그런 만큼 모두 기개가 있고 용감하여 애들까지도 활달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석주명은 아이들의 수영 실력에 감탄하였다. 아이들은 거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을 쳤는데, 여자 아이는 해녀가 되는 훈련, 남자 아이는 창을 갖고 바다에 들어가 고기를 찌르는 훈련을 하였다. 석주명의 눈에 그 아이들은 전부가 올림픽 수영 선수의 싹으로 보였다. 가파도 사람들의 배 다루는 솜씨에 대해서도 神技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모슬포와 가파도를 오갈 때 가파도 사람이 조종하는 작은 범선을 탔

4) 2016년 가파도 인구는 239명이라고 한다.

는데 배를 전복 안 시키는 조종술에 경탄할 뿐이었다고 적고 있다.

당시 가파도의 명물로는 큰 전복, 참외, 자리회가 있었다. 석주명은 신유의숙 교원 문시욱 씨의 호의로 앞의 두 가지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뼈 채로 먹는 자리회는 육지인인 본인과는 친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이 외에 '한라정원'이라 가칭한, 흙붉은오름[토적악] 동쪽 속밭이라는 완만한 경사지에 있는 절경과 평시에는 건천이었다가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변하는 제주도 계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1936년의 제주도 상황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지만, 당시 제주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인구 관련

석주명은 제주도총서 중 하나로『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인구론)』을 발간할 정도로 인구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관청의 인구 조사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구 현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인구 관련 몇 편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그것들이『제주도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대한민국의 여다 지역」,「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도민의 식료품 조사」,「제주도의 상피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대한민국의 여다 지역」

이 글은『대한민국 통계월보』(1950년 제8호)에 실렸다. 이 글을 읽어보면『제주도의 생명조사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제주도의 생명조사서』가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 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현상 가운데서도 특히 女多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생명조사서』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석주명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은 출생 시 성비가 남>여이고, 사망률의 성비도 남>여이고, 생존자 즉 주민의 성비도 대개는 남>여이었다. 남한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2% 포인트 많았고, 시도별로도 비슷하였다. 그런데 어떤 곳은 그렇지 않아서 남<여인 女多 지역이 있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여다 현상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서 여자가 남자보다 20% 이상 많았다. 구체적으로 당시 제주도 남자 수는 114,736명이었고, 여자 수는 139,791명이었다. 둘을 합하면 당시 제주도 인구는 254,527명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부군면 별로 여다 지역을 보면, 전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1.15배 이상 많은 지역은 모두 제주도의 군면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40배 이상 많은 지역은 북제주군 조천면, 1.35배 이상 많은 구역은 북제주군 구좌면, 1.20배 이상 많은 구역은 도 단위로서 제주도, 군 단위로서 북제주군 그리고 애월면, 한림면, 표선면, 성산면, 1.15배 이상 많은 구역은 제주읍, 군 단위로서 남제주군,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 100명에 대한 여자 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女多面 일람표 중 제주 지역

연번	군면	비율	연번	군면	비율
1	북제주군 조천면	141	7	남제주군 대정면	118
2	북제주군 구좌면	135	8	남제주군 안덕면	118
3	북제주군 한림면	125	9	남제주군 중문면	117
4	북제주군 애월면	122	10	남제주군 서귀면	115
5	남제주군 표선면	121	11	남제주군 남원읍	115
6	남제주군 성산면	120	12	제주읍	115

* 비고: 위 일람표에는 남제주군 남원읍과 제주읍이 빠져 있다. 그런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석주명은 이 두 읍면도 1.15배 이상 구역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해서 두 지역을 위 표에 수록하였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석주명이 어떤 자료에 의거해 위와 같은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는가이다. 그 자료는 1949년 5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전국의 총인구를 일제히 조사한『대한민국 제1회 총인구 조사결과 속보』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글에서 이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 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49년 5월 1일 당시 인구라고 하면 제주도의 경우 4.3의 와중이었고, 특히 4.3이 그 마지막을 향해 가던 시기였다. 당시 혼란한 제주도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인구 조사가 가능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여하튼 석주명은 1949년 5월 당시 제주도 인구의 특징을 논하고 있고 그것은 극단적인 여다 현상으로 나타났다. 4.3을 겪으면서 다수의 남자들이 희생당한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석주명은 당시 제주도에서 4.3이 발발했고 많은 인명 희생이 있고 또 수많은 가옥이 불태워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극단적인 여다 현상이 이 사건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3이 금기시되던 당시 상황에서 4.3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다만 단편적이지만 당시 인구 조사 기록을 남긴 점은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석주명의 여다 현상에 대한 관심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에서 여다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1.10배 이상 되는 구역은 강화도 길상면, 영암군 금중면, 무안군 도초면, 창원군 천가면, 통영군 연초면 등이었다. 영암군 금중면을 제외하면 모두 해안에 소재한 면들이다. 이 외에 1.05배 이상 되는 구역은 전국적으로 33곳이었다. 이 가운데 22곳이 해안 지역이었다. 석주명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해안 지방에 여다 지역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석주명은 중국의 옛 문헌을 참고하여, 해안지대에 여자가 많고 내륙 지대에는 남자가 많은 현상은 태고 적부터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였다.[5] 이 글은 앞서 언급했듯이, 4.3 당시 제주도 인구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이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남녀수의 지배선의 위치」

이 글은『대한민국 통계월보』(1949년 제5호)에 실린 것이다. 석주명에 의하면 '남녀수의 지배선'이란 출생 시에는 남>여였던 것이 생장하면서 남자가 많이 죽는 관계로 생존자는 언젠가 남<여로 되는데, 남>여이던 것이 남<여로 바뀌는 과정에서 남=여로 되는 경계선을 말한다. 이는 석주명이 명명한 것이다.『제주도생명조사서』에서는 각 마을마다 이 지배선을 추출한 적이 있다. 석주명은 이 지배선이 제주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도 적용될

5) 중국 문헌에 대한 교시는 위당 정인보가 하였고, 석주명은 본문에서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있다.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대한민국 통계월보』 제1-3호를 이용하여 남녀수의 지배선을 추출한 내용이 바로 이 글의 토대를 이룬다.

1947년 통계(대한민국 통계월보)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출생아 수의 성비는 남965(53%):여840(47%)이었고, 이는 남한 전역의 총수의 성비 남233,050(53%):여204,982(47%)와 일치하였다.

제주도에서 인구 槪數의 성비는 남112,703(48%):여120,742(52%)였다. 남한 지역 총수의 성비는 남9,268,966(51):9,817,321(49)였다.

제주도에서 추정 인구의 성비는 남129,542(47):여146,337(53)였다. 이 둘을 합하면 275,879명이 된다. 남한 지역 총수의 성비는 槪數처럼 남10,053,752(51):여9,832,482(49)였다. 이 둘을 합하면 19,886,234명이 된다.

제주도에서 출생 시의 성비와 총인구의 성비는 정반대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석주명의 연구 결과와 같다.

다만 기존에 간행된 통계월보에서, 1년 미만 아동의 최저 사망률이라든가, 인구자연 증가율에서 감소라든가, 死兒 수의 전무라든가, 출생율의 최저라든가, 사망률의 최저라든가, 모두가 제주도에 한한 신뢰할 수가 없는 통계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당시 인구 통계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면 석주명이 제시한 해방 직후의 인구 수치들은 관련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도민의 식료품 조사」

인구 혹은 생명 조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생명 유지와 관련하여 음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석주명도 인구 관련 위의 두 글 바로 뒤에 「도민의 식료품 조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그 관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제주도민이 섭취한 주요 음식과 식사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참고가 된다. 구체적인 식사량과 주요 음식은 아래와 같다.

* 주식품: 보리와 조
농부 남자: 1일 3식분 大升 8合
농부 여자: 보통 남자: 7합

평균성인남자 1일: 대승 6-8합
다만 백미라면 그 분량에 못 미치고, 감저는 주요한 대용식이다.

* 부식물
白菜: 김치, 국 또는 生으로 1년 내내 사용한다.
미역: 국(더운 국 혹은 찬 국)으로 4-7월에 많이 사용한다.
자리: 산남서는 5-12월에, 산북서는 5-9월에 나는데 회로 많이 먹고 소금에 절여서 1년 내내 식용한다.
멸치: 산북인이 비교적 많이 먹는다.
무: 김치, 국, 生으로 혹은 말려서 10-3월에 많이 먹는다.
海魚類: 종류가 많으니 1년 내내 식용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다.
콩잎(생식), 호박잎(더운 국), 호박, 오이, 달래, 쑥, 미나리, 해초, 돈육 등을 흔히 먹는다.
고사리는 전도에 豊産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쓰이는 것은, 고사리 요리에는 다소 손이 가는 때문에 분주한 주부들에게 채택되지 않는 관계다.

제주도의 40대 이상의 사람이라면 익숙한 음식들이다. 위의 음식은 대개 1950년을 전후한 시기 제주도 사람들의 주식과 부식이다. 이 음식들은 대개 1960-70년대까지 제주도 사람들의 주식이고 부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시기를 살았던 제주도 사람들이라면 석주명이 소개한 주식과 부식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라. 「제주도의 상피병」

이 글은 『조선의보』(1948년 제2권 제1호)에 실렸다. 제목 그대로 당시 제주도의 상피병에 대해 보고한 글이다.

(3) 제주 역사 관련

가. 「제주시조 고량부 삼씨고」와 「속보」

이 글은 『주간 서울』(1950년, 87호)에 실렸다. 제목만 보면 그 내용이 고량부

삼성 신화에 대한 소개이거나 기존과 다른 새로운 해석에 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고량부 세 성이 중국 해남도에 특히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고량부 세 사람이 해남도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석주명은 해방 후에 安南에서 25년 동안 생활하고 돌아온 李一來란 사람을 만나 안남어, 광동어 등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중국 해남도에서 안남에 걸쳐서 高·梁·符 3성이 많은 반면, 중국 본토에는 이 3성이 희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남도의 高·梁·符 3성이 제주도의 高·良·夫와 통한다고 생각한 석주명은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논급된 일이 없는 만큼 특필대서할 사항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보면 석주명은 이를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특히 해남도는 제주도와 꽤 잘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海事를 주로 하는 점, 언어의 액센트가 강한 점 등이 제주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주명은 단순히 비슷한 발음의 성씨가 많은 점, 해사에 능한 점, 언어의 특성 정도만 갖고 제주 신화 속 高·良·夫가 해남도에서 왔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글을 발표한 후에 중앙박물관의 金元龍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료를 소개받게 된다. 그 사료에 입각하여 제주의 高·良·夫가 해남도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 「속보」이다. 따라서 「속보」는 지상에 발표한 것은 아니고,『제주도자료집』을 내면서 추가한 내용이다.

김원룡이 알려준 자료는『후한서』권116 열전76 南蠻典 巴郡에 관한 것이다. 그 기록에는 남만에 다섯 성씨가 있는데, 그 가운데 巴氏는 赤穴에서, 나머지 네 성은 黑穴에서 나왔다는 내용, 石穴에서 검을 던져 적중시킨 이를 君으로 삼았다는 내용, 土船에 관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석주명은 二穴이어서 제주의 三穴과는 차이가 있지만 구멍에서 나왔다는 점이 비슷하고, 또 창을 던진 행위는 삼성신화의 화살을 쏜 행위와 비슷하고, 토선의 등장은 삼성신화에서 세 여인이 배를 타고 온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제창한 제주도 시조 고량부 삼씨는 해남도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한 愚見이 좀더 확연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어서 해남도와 제주도가 해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몇몇 표류 기록을 통해 보임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현재 관련 연구성과에 의하면 석주명의 추정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 제주도 사람들이 고량부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전기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 신화의 고량부 세 성씨를 토대로, 탐라에 농경문화가 들어오던 시기(기원 전으로 추정됨)의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석주명이 제주도의 거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것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전공이 아닌 곳에서는 아마추어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탐라고사」

이 글은『國學』(1947년 제3호)에 실렸다. 그 내용은 일제가 편찬한『조선사』에서 신라 통일 이전의 제주도 관계 사료를 모은 것이다. 즉 탐라와 관련된 조선 사료, 일본 사료, 중국 사료를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기록하고 필요한 곳에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사료를 제시한 후 총괄 부분에서 사료를 토대로 초기 탐라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시한 사료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탐라 초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석주명을 보면서 다방면에 관심을 가진 그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47년 당시에 탐라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한국인이 극히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초기 탐라의 사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그것을『국학』에 투고한 것 자체는 일반인들 및 연구자들의 탐라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4) 전설 관련

가.「토산당 유래기」

이 글은『향토』(1946년 9월호)에 실렸다. 석주명에 의하면 토산당 관련 내용은 이미 일본인 赤松, 秋葉 두 사람에 의해 수집된 바 있다. 석주명이 채록한 것도 그 내용의 大意는 같으나, 세목에서 차이가 있어 관련 학자들에게 참고

가 될 것 같아서 지면에 발표하였다. 석주명에 의하면 일본인은 서귀포의 남자 무당인 박봉춘의 구전을 채록한 것이고, 자신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토평리의 남자 무당인 김해춘의 구전을 채록한 것이어서, 시차와 구술자의 다름으로 인해 細目에서 차이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토산당은 남토산에 있다. 토산당은 신의 본거요 그 신은 제주도 南半을 지배하는 절대의 존재였다. 당시 대부분의 마을에는 토신인 본향이 있는데, 토산당은 그 諸神의 上位에 있었다. 토산당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나주 榮山 使道(=사또)는 부임하면 백일이 되어 죽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나주 금성산에 본거를 둔 土主神을 우대하지 않아서 토주신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 토주신은 蛇神이었다. 한 사또가 부임하였는데, 그는 토주신의 요청을 수용하여 2주일 간 굿을 하였다. 그러자 토주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사또는 부하를 시켜 화살을 쏘아 토주신을 죽였다. 본거를 잃은 토주신의 靈은 청천운간을 떠돌았다.

한편 남토산에 사는 康氏와 韓氏는 토산물을 경성 왕실에 헌상하면 상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여서 상을 받고 귀로에 올랐는데 항구에 와서 짐을 정리하던 중 한 보퉁이에서 蛇神의 靈이 환생한 금바늘을 발견하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때부터 파도가 높아져서 1주일이나 출항할 수 없었다. 그것이 금바늘을 버린 때문임을 알게 된 그들은 치성을 들려서 노여움을 달래니, 비로소 출항할 수 있었다. 제주도 성산면 온평리 방두포에 도착하니 아름다운 처녀(사신의 靈이 변한 것)가 나타나, 나주 영산 금성산에 살다 제주도로 왔음을 말하니, 강씨와 한씨의 소개로 남토산으로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신풍리의 토주신인 瀛山主(南神)의 간섭을 받았으나 개의치 않고 强行하여 남토산 해안 근처 큰 바위 아래에 좌정하였다.

몇 달이 지나도 감주 한 잔 가져오는 사람이 없자, 바다에 있는 倭船을 요술로 파선시켰다. 7명의 왜인이 조난당하여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마침 가시리 부락 오좌수의 딸이 하녀를 데리고 빨래하러 갔다가 이들 왜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 후 한씨의 딸이 오좌수 집에 시집갔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 죽게 되었다. 占人은 蛇神의 작란으로 야기된 것임을 말하니 무당을 초래하여 굿을 하였고 병인은 회복되었다. 이 영험함을 목도한 강씨, 한씨, 오씨는 때때로 공물을 올려 위무하기 시작한 것이 그 마을에 보급되고 이어서 성산에서

대정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토산당의 유래를 적은 석주명은 이어서, 토산당이 蛇神이어서 산북인들이 토산리 부근 사람들과 혼인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래서인지 토산리의 경우 여자가 좀 더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미신 타파가 고창되면서 토산당이 타격을 받고 있던 사정도 소개하고 있다.

나.「마라도 엘레지」

이 글은『城大學報』(1944년 제18호, 日文)에 실렸다. 석주명은 1936년 제주 방문 당시에도 마라도 여행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다 1943년 5월에 마라도를 방문하여 2박을 하였다. 당시 마라도는 13호에 48명이 살고 있었다.[6] 마라도 전체가 571번지라는 1개 번지였다. 동물 채집 결과는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이 글에서는 마라도에서 2박하면서 들은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마라도 북단 선창 가까이 우물 옆에는 원시적 사당이라고 할 만한 퇴석이 있었다. 마라도 사람들은 이곳을 아미씨당(본향)이라 부르며 그 영험함을 믿었다.「마라도 엘레지」는 이 사당의 유래로, 김성종 옹(1943년 당시 74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백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 모슬포의 李某란 부인이 수풀 속에서 생후 3개월도 안 된 아이를 발견하고 원님에게 신고하여 부모를 찾았지만 알 도리가 없어서 발견한 이 부인이 그 아이를 맡아 키웠다. 그 아이가 커서 8살이 되었을 때 이 부인이 아이를 낳았고, 8세의 여아는 애보개가 되었다.

매년 봄마다 망종으로부터 반달 동안은 마라도로 건너가는 것이 허락되어 해녀들은 그 시기에 마라도로 건너가 물질을 하였다. 이 부인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라도로 건너갔다. 며칠 후 바다에는 풍랑이 일고 짚은 안개가 끼어 개이지 않았다. 적은 식량을 갖고 간 일행은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일행의 비탄이 극도에 달한 어느 날 船主, 船頭, 이 부인 등 세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백발노인이 나타나 애보개를 섬에 남겨두고 떠나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애보개를 섬에 남긴 채 배를 띄었고 바다는 잔잔해져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해 4월에 다시 마라도에 건너와서 해변

6) 2016년 마라도 인구는 137명이라고 한다.

가까이 있는 동굴에서 희생되어 죽은 애보개의 백골을 발견하여 따뜻한 장례를 지냈다. 마라도 사당은 이 아이의 영을 위한 것으로, 당시까지도 바다 일하는 사람들을 잘 위한다고 하였다.

다.「눈까지 장서방(눈먼 장 꿩)」

꿩을 의인화 한 설화로, 제주도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세한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라.「독버르니」

이 글은 정의읍 근처에 '독버르니'라는 고개가 있고 그 뜻은 독이 깨진 곳이다.「'독버르니'의 내용은 육지의 '독쟁이 구구'와 거의 같아서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5) 농작물 재배 관련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글들은「주요 작물 파종량 비교표」,「목향의 시험 지배」,「곤마의 시험 재배」 등이다.

「주요 작물 파종량 비교표」는 제주도 서귀포 토평리, 경북 안동의 농림학교, 개성부 운학정의 생약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주요 작물의 파종량을 기록한 것이다. 비교 대상이 된 주요 작물은 보리, 밀, 메밀, 조, 피, 콩, 고구마, 감자였다. 비교 결과 보리만 두 지역보다 파종량이 많았고, 나머지는 남부의 안동, 중부의 개성과 비교하여 파종량이 적었다. 이런 사실만 적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목향의 시험 지배」 역시 토평리 대학시험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根頭部上에 달린 잎의 개수에 따라 수확고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시험한 것이다. 그 결과 4-6매를 남기는 것은 손해였고, 8매를 남긴 것, 花莖 摘去, 採種分은 성적이 좋았다. 그렇지만 석주명은 한 번의 시험 결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재시험하여 비교 후에 그 우열을 결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곤마의 시험 재배」는 곤마의 품종별 재배 성적을 시험한 것이다. 석주명이 시험한 곤마 품종은 赤芒, 靑芒, 赤丸, 靑丸 네 종이었다. 그런데 두의 두 종

류는 인부의 실수로 뒤섞여서 시험할 수 없었다. 앞의 두 품종을 시험한 결과 赤芒 품종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1년 더 재배 시험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석주명이 제주도에 내려온 목적, 즉 경성제대 대학시험장 근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석주명의 관심이 다방면에 걸쳐 있었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은 관련 학술지에 투고한 결과인지, 『제주도자료집』에는 그와 관련된 글이 위 세 편에 그치고 있다.

(6) 제주어 관련

①「제주도지명을 포함한 동식물명(증보판)」

이 글의 초판은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 연구보고』(제1권 제1호, 1946)에 실렸고 이후 석주명에 의해 증보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과 식물 이름(학명이나 중국 및 일본에서의 이름 등) 가운데 제주도 혹은 제주도 내의 지명을 포함한 명칭을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문 학명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을,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을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그 동식물의 분포 지역을 제시하고 있다.

석주명에 의하면 수록한 동식물 가운데는 벌써 학문적으로 무의미하게 된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대로 열거하였고, 이로 인해 이 글은 학문적 가치는 별로 없는 것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 제주도 지명이 동식물 명칭에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보면, 식물 명칭 중에 제주도 관련 지명이 포함된 것은 103개였고, 동물 명칭 중에 제주도 관련 지명이 포함된 것은 46개였다. 참고로 식물 명칭 가운데는 박만규 편 『우리나라 식물명감』(1946)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주명이 제시한 제주도 지명을 포함한 동식물명의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번	학명	우리 이름	일본 이름	중국 이름	분포지
1	Acanthopanax Koreanum Nakai	섬오가피나무	タンナトリカブト	耽羅五加皮木	제주도, 일본
2	A.quelpaertense Nakai	한라투구꽃	タンナレイジンサウ		제주도
3	Artemisia hallaisanensis	한라산쑥	タンナヨネヨモギ		제주도
4	Rubus croceacantha Leveille	섬딸기	サイシウヤマイチゴ	濟州山苺	제주도
5	Anomala quelparta Okamoto	제주풍뎅이	サイシウコガネ		제주도
6	Satyrus alcyone zezutonis Seok	산굴뚝나비	タカネジャノメ		제주도

위 표에서 밑줄 그은 것이 동식물명에 포함된 제주도 지명이다. 예컨대 1번의 섬오가피나무의 경우 영문 학명에는 제주도 관련 지명이 없지만, 일본명과 중국명에서 '탐라'가 포함되어 있다. 2번의 한라투구꽃의 경우에는 영문 학명에 제주도의 영어 명칭인 'quelpaert'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이름도 '한라투구꽃'이어서 '한라'라는 제주도 지명이 들어가 있다. 일본명에도 탐라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한라투구꽃은 학명, 우리나라 명칭, 일본명에 제주도 관련 지명이 포함된 경우이다. 3번의 한라산쑥의 경우 학명에 'hallaisan' 즉 한라산이 포함된 경우이다. 4번의 섬딸기의 경우 특히 중국명에 '제주'가 포함된 경우이다. 5번과 6번의 경우는 동물 명칭에 해당하며 용례는 식물명과 같다. 즉 5번의 제주풍뎅이의 경우에는 영문 학명, 우리나라 이름, 일본명에 제주 관련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 6번의 산굴뚝나비의 경우 석주명이 명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quelpart'가 아니라 'zezu'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석주명에 의하면 위 동식물명에 포함된 제주도 지명은 제주, 제주도, 탐라, 영주, 한라산, 홍로 등이라고 한다.

제주도 지명이 포함된 동식물명은 앞서 언급했듯이, 149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명은 매우 적다. 그래도 식물명에는 중국명칭이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동물명에서는 중국명을 거의 찾기 어렵다. 반면 거의 모든 동식물명에는

일본명이 있다. 서구 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큰 차이를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②「제주도의 나비」

이 글은 말미에 수록 학술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기존에 투고했던 글이 아니라 책을 내면서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제주도의 나비가 표고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 지를 살펴본 것이다. 당시 석주명이 잡은 나비는 7과 65종이었고, 문헌에 있지만 아직 그가 잡지 못한 종류는 4과 8종이어서 합치면 제주도 나비류는 7과 73종이 되었다. 그러나 채집하지 못한 8종에는 의심나는 것도 있어서 제주도 나비는 대략 70종이라고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석주명은 이를 크게 셋으로 분류하였다. 즉 전도에서 볼 수 있는 것, 산지성 종류, 해안성 종류가 그것이다.

전도에서 볼 수 있는 나비 종류는 모두 15종이었다.

산지성 종류는 12종이었다. 이는 다시 정상에서 잡을 수 있는 것과 정상에서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10종이고 후자는 2종에 불과하였다.

해안성 종류는 29종이었다. 이는 다시 표고에 따라 다섯으로 분류하였다.

고찰 결과 중 중요한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도에서 볼 수 있는 15종은 표고 0-1950m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생존력이 강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屬島들에서도 남방부전나비와 노랑나비 두 종류는 모두 볼 수 있으니 이 둘은 가장 생존력이 강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주도에서도 바람이 강한 남쪽 섬들인 마라도, 가파도, 지귀도 등에는 매우 희귀한 먹부전나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목할 점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 종류는 일본 큐슈 등지에도 없고 암먹부전나비처럼 보편성이 있는 종류도 아니어서 기이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③「제주도방언수필보유」

제목 그대로 제주도 방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방언』에서 소개한 것 이외에 추가된 단어들이다.

이 글에서 다룬 제주어는, 가시, 감의 변천, 같다와 곹으다와 그 古語, 꽝과 비바리, 기와의 변천, 나락의 변천, 마을의 변천, 말라리아의 병명, 매미, 미나리의 제주어, 벼루의 어원, 벼룩의 어원, 변소의 명칭, 찰떡의 제 방언과의 관계, 체와 계, 태국어, 토끼의 변천, 하품의 변천 등 18개이다. 이 중 네 단어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시: 장인, 장모를 제주어로 가시아방, 가시어멍이라 하고 丈祖, 丈祖母를 가시할방, 가시할망이라고 하니 육지의 가시할아버지, 가시할머니와도 같다. 뿐만 아니라 부부를 제주어로는 '두가시'라고 하니 대관절 이 '가시'란 말이 무엇일까.

'가시'가 우리말의 고어로 妻란 뜻임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가시'가 마래어로 Kasih 즉 사랑(愛)이란 뜻임은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어 내지 한국어의 '가시'나 마래어의 '가시'가 同源語임을 짐작하겠다.

꽝과 비바리: 제주어로 뼈를 '꽝' 처녀를 '비바리'라고 하는데 나는 연래로 이 두 말의 어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지금 겨우 억지로라도 그와 비슷한 말을 구하였기에 기록해 두겠다.

꽝-꽛(廣東語)

비바리-妣髾:범부레(벤골 주의 인도어)

말라리아 병명: 이 병은 학질이란 통칭이 있지만, 제주도에는 9개의 별칭이 있다. 즉 꾀병, 날걸리, 말거미, 물먹는병, 시늉병, 터는병, 픗터는병, 터러기, 초약 등.

태국어: 제주어와 태국어를 비교해 보고 싶으나 태국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손대지 못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제주어와 공통되는 태국어 1개를 얻었기에 여기 기록한다. 제주어의 '매미'란 말은 '마감'이란 뜻인데, 태국어로는 '없다'의 뜻이라니 서로 통하는 데가 있어서 재미가 있다.

위 언어 수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석주명은 제주어의 어원 혹은 타국어와의 관련성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리한 시도로 학술적 가치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말라리아처럼 별칭에 대한

소개는, 다양한 제주어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④「제주도의 식물명」

석주명은 이 글의 서두에서 식물의 제주 이름을 모아서 정리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섬에서 나는 많은 식물을 풍부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그 경험을 종합 정리하면 분명히 의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식물의 제주명을 모아 보았다고 한다. 제주도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컸고, 제주도 식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가능할 터인데, 그 일환으로 석주명은 제주도 식물의 제주어 이름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는 본인이 언어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자신이 수집한 것들이 이용되어, 제주 농민들의 경험이 종합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한편 일본인 중정맹지진 박사가『濟州島植物報告』(대정 3년)에서 많은 식물의 제주명을 보고한 바가 있지만 그것은 제주식 이름과 본토의 이름이 혼동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반감된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글이 갖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 식물명은 그가 직접 농민들로부터 듣고 수집한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같은 이름이 數種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1종의 식물이 수개의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된 점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약간 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제주어와 표준어 외에도 일본어도 부기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우리말의 표준어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를 위해서였다. 석주명이 수록한 제주도의 식물명은 546개이다. 제주도의 식물명에 대한 석주명의 정리는 아래와 같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개비참외	개구리참외	成歡眞瓜
꾀	참깨	ゴマ
굿가시낭	꾸지뽕나무	ハリグワ
돗채비고장	산수국	サハアチサイ

⑤「제주도의 동물명」

이 글은 앞의「제주도의 식물명」과 그 목적, 의의, 서술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석주명이 수록한 제주도의 동물명은 359개라고 한다. 제주도의 동물명에 대한 정리의 구체적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개비	청개구리	カエル
게염지	개미	アリ
공젱이	귀뚜라미	コホロギ
힌밥주리	흰잠자리	白蜻蛉

예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동물명을 일별해 보면 확실히 소와 말에 대한 명칭이 많고 또 물고기 명칭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목축이 번성하고, 섬이라는 자연 조건에 기인한 것임은 물론이다.

⑥「농업관계의 제주어」

제목 그대로 농업과 관련된 제주어를 모아서 수록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농업 관계 제주어는 586개라고 한다. 제시 방법은 앞서와 같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름팥	동리 안의 밭	部落内ノ畑
강답	천둥지기	天水畓
고고리	이삭	穗
작멸=작지	돌자갈	砂利
코박새기	조롱박	ヘウタンノバカチ

⑦「임업관계의 제주어」

여기에 수록된 임업 관계 제주어는 87개라고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

와 같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사농바치	사냥군	狩人
즈밤	메밀잣밤	椎ノ實
좌전림	묏갓	墓ノ府屬林

⑧「목축 관계의 제주어」

여기에 수록된 목축 관계 제주어는 325개라고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가라ᄆᆞᆯ	검은말	黑馬
거문월라	흑백얼럭소	黑白斑馬
무판칩	肉庫	肉店
ᄆᆞᆯ막	말외양간	馬小屋
촐눌	꼴더미	秣積

⑨「海産 관계의 제주어」

여기에 수록된 해산 관계 제주어는 116개라고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제주어	표준어	일어
강회	회	刺身
보건치	조기	石首魚
술래미	가자미	比目魚
츰때	낚시때	釣竿

⑩「한자의 제주명」

여기에서는 한자의 훈을 읽는 제주식 발음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명, 표준명, 한자 순으로 배열하고 있고, 가나다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한자의 제주명은 199개라고 한다. 그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주명	표준언	한자
가를 별	다를 별別	
드실 온	따뜻할 온	溫
탕국 탕	나라 당唐	

⑪「제주도의 동리어」

여기에서는 제주도 마을과 오름 등의 속칭과 그 한자명을 보이고 있다. 수록된 동리어는 185개이다. 참고를 위해서 그 내용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석주명은 제주도 동리에 대해서 가시, 개(浦), 내(川) 오름(岳)들이 많이 들어 있음을 알겠고 또 ᄐᆞ音으로 시작되는 지명은 없고 몽골식의 지명이 많다고 하였다.

⑫「제주도방언 중의 조선 고어」

여기에서는 제주어의 古語를 모았다. 이를 위해서 제주어, 고어, 현대 표준어 순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조선 고어는 338개이다. 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주어	고어	현대 표준어
가로기	골오기	쌍둥이
갑폴	갓블	아교
돗치	도치	도끼
멩마구리	머구리	맹꽁이
툭아리	툭	턱

석주명은「·」音이 있는 語는 대개가 고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고어와「·」音이 잔존한 점으로 보아 제주어는 조선어의 역사적 연구상 가장 가치 있는 자료라고 적고 있다.

⑬「외국어에서 유래한 제주도 방언」

여기에서는 제목 그대로 외국어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 제주어를 그 외국어 및 표준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석주명이 제주어의 어원이 된다고 생각한 외국어는 몽고어, 일본어, 중국어, 마래에, 만주어, 비도어, 안남어였다. 그가 수록한 각 외국어로부터 유래한 제주어의 수는 아래와 같다.

몽고어 184개, 일본어 49개, 중국어 41개, 마래어 33개, 만주어 16개, 비도어 15개, 안남어 12개 등. 간단히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주어	몽골어	표준어
꾀염시냐	꾀엄시너	끓느냐
귀마리	귀얼렁	복사뼈
놈삐	놈삐, 러삐이	무
밋밋	밍밍	철철

제주어	일본어	표준어
가반	カバン	가방
간딴ᄒᆞ다	簡單ダ	간단하다
화본	花盆	화병

제주어	중국어	표준어
관디청	관디청	觀德亭
궨당	췐당(眷堂)	친척
오도롱	五道弄[7]	오도동
화본	화펀(花盆)	화병

7) 산서성 당현의 村名.

제주어	마래어	표준어
각	가끼(kaki)	다리
거살	가수-르(kasar)	남루한 의복
방상	방사(bangssa)[8]	친척
심방	심방(=不可信)	무당
오라방	아방(abang)[9]	오빠

제주어	만주어	표준어
가라ᄆᆞᆯ	카라모린	검은말
니	니	이(齒)
쇠돈(牛屯)	쇠톤	상하효리
태젼	타이첸	駄價

제주어	비도어	표준어
ᄃᆞᆨ다귀	도께	도마뱀
아까시낭	아까시아	아카시아
이녁	이녀(너의)	자기
ᄆᆞᆫ독(塵)	몬독(山)	먼저

제주어	안남어	표준어
엄매	매	엄마

⑭「제주도 방언과 마래어」

이 글은『語文』(제2권 제2호, 1950)에 실렸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제주도 방언 중에서 마래어와 관계 있다고 판단한 33개 단어에 대해서 논하였다. 석주명 본인도 다소의 비약을 느끼는 것이 약간 있다고 하였다. 특히 33개 가운데 똑같은 것은 불과 6개이고, 그 의미까지 일치하는 것은 단지 3개뿐

8) 동포, 문족, 가족 등에서 유래.
9) 형, 연장자의 뜻.

이다. 그래서 석주명도 제주어와 마래어와의 類緣 관계는 몽고어,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보다는 희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주어에 마래어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았다.

⑮「제주도 방언과 비도어」

이 글은『조선교육』(제3권 제3호, 1949)에 실렸다. 석주명은 제주도 방언에 비도어의 요소도 분명히 들어 있다고 확신하였다. 다만 그 비율은 마래어에 비하여 분명히 낮았다고 보았다.

⑯「제주도 방언과 안남어」

석주명은 안남에서 25년 간이나 생활한 李一來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석주명도 안남어가 제주어와는 인연이 적은 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소 억지로 뽑아서 제주도방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안남어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제주도자료집』에 수록된 제주어를 간단히 소개해 보았다. 역사전공자인 필자는 언어학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석주명의 제주어에 대한 수집 및 정리 작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 연구자들의 평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도방언집』에서 '외국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에서 몽고어・중국어・만주어・일본어와 비교하고, 그 이후에『제주도자료집』에서는 '마래어・비도어・안남어'를 추가하고 있다. 비교언어학에서는 공통조어에서 분기되어 나온 언어라야만 비교 가능하다(차용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어나 마래어・비도어・안남어 등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또 비교 가능한 몽골어도『제주도방언집』에서는 22개 어휘에서 17개 어휘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아마도 확실한 음운론적・형태론적・의미론적 대응 없이 음이 서로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하면 그 언어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한 결과라 보인다. 그러나 계통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골어와 비교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 내지 못할 일임에 분명하다.[10]

10) 강영봉,「제주어와 석주명」.『탐라문화』22, 2002, 11쪽.

3) 평가

『제주도자료집』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총서 5권에 포함되지 않은 글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따라서 주제의 일관성은 떨어진다. 내용에서 해제를 위해서 크게 여섯 소주제로 분류했듯이, 그 글들은 대개 제주도 일반에 대한 것, 제주도 인구에 대한 것, 제주도 역사에 대한 것, 제주 설화에 대한 것, 식물 재배에 관한 것, 제주어에 관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 인구에 대한 부분은 총서 중『제주도의 생명조사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그 책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어에 대한 것 역시, 총서 중『제주도방언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 책과 함께 검토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석주명의 제주도 방언에 대한 글들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대개 그렇게 하고 있다.

제주도 일반, 제주도 역사, 제주도 설화 등 역시『제주도 수필』의 연장선에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글 역시『제주도 수필』의 많은 글들과 함께 다루어지고 분석된다면 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식물 재배 관련 글은 제주도 총서보다는 석주명이 전공으로서 그의 전문 연구성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제주도자료집』에 실려 있는 식물 관련 글은 극히 단편적이어서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석주명의『제주도자료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위 책에 실린 역사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석주명의 역사 관련 글은 긍정적인 측면과 아쉬운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제주도, 탐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관련 글들을 지면에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글의 수준을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확실히 전문 역사 연구자가 아닌 아마추어로서 지니게 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역사학 분야뿐 아니라 언어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자에 의하면, 석주명의 제주어 채집과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남긴 것은 그 자체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다. 다만 과도하게 외국어와 제주어의 관련성을 찾고 있는 것은 언어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자료집』은 여러 분야의 글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석주명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아마추어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가 기록한 1940년대 제주 관련 글들은 현재에는 사료로서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 자연과학자의 취미활동에 그치게 할 것인지는 후학들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과제

석주명이 '제주도총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고, 다루는 시기도 차이가 있지만, 적지 않은 글들이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의 제주도 상황을 담고 있다. 그의 글들 중에는 해당 시기 제주도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자료로 이용할 만한 것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많은 글들이 단편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어서 석주명의 글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 제주도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폭넓게 수집하여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시기 연구자들이 석주명의 제주도 총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도생명조사서』, 『제주도수필』, 『제주도자료집』 등의 글들 중에는 석주명 당대의 기록이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역사 자료로 이용할 만한 것도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제주도 자료집』의 인구 기록은 4.3 전후 시기의 인구 변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여성 인구가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 역시 4.3의 영향인데, 공개적으로 4.3을 언급할 수 없었던 석주명은 이런 방식으로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다.

석주명은 제주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자료를 수집한 것 같다. 그 결과 본인이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다방면에 걸쳐서 글을 쓰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석주명의 전공이 아닌 관계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자료집으로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분야 전공자들이 석주명이 수집한 자료 및 그의 분석에 관심을 갖고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석주명이 남긴 제주도총서의 성격과 그 의의가 보다 분명해지고, 나아가 석주명에 대한 평가도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석주명의 나비채집기 번역

백두산지방산 접류채집기(白頭山地方産蝶類採集記)

석 주 명(안행순 번역)

[Butterflies collected in the Paiktusan Region, Corea. By D. M. Seok]

작년 여름(1933) 나는 L. H. Snyder씨의 주선으로 미국 하버드대 비교동물학교실의 보조를 받아 백두산지방의 동물표본채집을 했다. 두 조로 나눠, 조복성씨는 장재순군과 함께 부전령(赴戰嶺) 및 관모산(冠帽山)에서, 나는 우종인 군과 함께 백두산 방면으로 가서 주로 접류와 갑충류를 채집하고, 갑충류는 조복성 씨가, 접류는 내가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차적으로 파충류, 양서류도 채집했는데 거기에도 새로운 사실이 두세 가지 있어서 기회가 되면 발표할 생각이다.

여기서는 참고로 내 채집일기 중 접류에 관한 부분만을 골라내어 두 조의 채집품 접류의 목록을 만들어 월일 및 채집지(Figs. 1-2참조)를 부기하겠다. 또한 내 학생들(송도고보)의 長津(장진)에서의 채집품도 포함하여 광범위 백두산지방산 접류채집목록을 다루기로 한다. 목록 중 신종, 미기록종, 학명변경 및 기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창립 25주년 기념 논문집(1934년 중에 발간될 예정) 중 졸저 '조선의 접류'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또한 두 조의 채집에 따른 갑충류에 관한 것은 언젠가 조복성씨가 발표할 예정이다.

함경북도 무산(茂山)과 함경남도 혜산진(惠山鎭) 양 수비대는 국경수비의 의미로 연합하여 매해 한 번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백두산정상까지 무장 행군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유지들도 보호 견학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백두산 조는 미리 무산과 혜산진 양 수비대에 의뢰한 후 무산에서 올라 혜산진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까지 제작하여 7월 21일 오후 1시 44분 개성을 출발했다. 출발할 때, 백두산견학을 위해 집을 나서는 동생 석주일도 동행하여 마지막까지 행동을 같이 했기에 백두산 채집 조는 전부 합쳐 3명이었다.

7월 22일(토) 맑은 뒤 가랑비

아침 9시 40분쯤 고무산역에서 내려 무산행 경편철도로 갈아탈 때부터 동행한 두 사람이 매 역마다 하차하거나 또는 기차 창문에서 포충망을 휘둘러 채집한 결과는 매우 좋았다. 처음에는 법규에도 걸리기에 약간 주저하고 꺼렸지만, 그곳 부근에서는 곤충채집이 신기하고 또 주로 목재운반을 위한 기차였기에 항상 혼잡하지 않아서인지 차장마저도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줘 두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채집한 결과는 고무산에서 수평(輸坪), 폐무산, 차령을 지나 금패(金佩)에 오기까지 백 수십 개에 달하고, 나는 차 안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러한 좋은 성적은 기차의 속도가 느리고 부근의 나비상이 풍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우리들 셋은 결국 지형이 잘 보이는 금패역에서 하차하여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채집하기로 했다. 금패역 부근에는 역과 관사 하나 외에는 인가가 한 채도 없어 그 부근 채집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먼저 점심을 먹고 채집을 시작하여 비를 맞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2시간 동안 셋이서 약 300개체 가까이 채집하여 바로 포장을 마치고 때마침 도착한 기차를 타고 다시 무산을 향했다. 그리고 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비가 와서 채집은 거의 할 수가 없었다.

p. 260 지도
Fig. 1. 조복성 및 장재순씨의 행로

p. 261 지도
Fig. 2. 우종인씨 및 저자의 행로

7월 23일(일) 맑음

오전 중에 두만강 유역의 조금 높은 언덕에서 3시간 정도 채집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중국부전나비(オカオビシジミ) ♂ 1마리와 ♀ 2마리를 채집한 일이었다. 사실 이 종을 처음으로 채집했을 때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나중에 정리할 때 Seitz의 Macrolep.에 따르면 틀림없이 Lycaena chinensis의 원형으로, 더구나 미기록종인 듯하여 학명을 따서 시나시지미(シナシジミ)라는 일본명을 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Zephyrus지를 조사할 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미 스기타니 이와히코(杉谷岩彦)씨가 (본지, vol. v, p.15) 발표한 것임을 나중에 알아차리고 편달을 받았다. 얘기가 잠시 샛길로 빠진 듯 하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날 오후에는 다음 날 아침 출발준비의 일환으로 무산수비대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셋 모두 2반으로 편입되었다.

7월 24일(월) 흐린 뒤 가랑비

오늘 도정(道程)은 무산 삼장(三長)사이에서 만주 측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흐리더니 10시반 쯤부터 가랑비가 내려 채집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다.

7월 25일(화) 맑음

오늘은 삼장 농사동(農事洞) 사이에서 조선측을 지나갔다. 부근 접상도 풍부하고 종일 날씨가 좋아서 맘껏 고산성 나비의 채집을 할 수 있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를 풍부하게 채집한 것으로 우군 혼자서 30마리 가까이 본종을 채집했다. 여기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어리세줄나비(Neptis raddei)♀ 한 마리를 채집한 것이다. 내가 여태껏 이 종만큼 헷갈린 적이 없을 정도로 인상 깊게 남아있다. 딱 삼장농사동 중간 정도에 관목이 이어진 곳에서 몇 마리의 눈나비(ミヤマシロテフ)와 함께 날아가고 있는 것을 어지간히 쫓아간 후에 겨우 잡을 수 있었지만,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처음부터 파손되어 있어서 눈나비의 이형이라도 되는가 하고 생각한 나머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집어넣은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 정리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시맥이 확실히 달라 Aporia가 아니라 Diagora

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계속했더니 색채는 Diagora를, 시맥은 Neptis와 일치했기 때문에 결국 양 속의 중간형으로 새로운 속(屬)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나비에 더군다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나비에 새삼스럽게 새로운 속 설립에 해당하는 종을 채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틀림없이 양 속의 중간형이었다. 외관은 Diagora, 시맥은 Neptis(색채, 시맥 외의 사항은 전부 생략)와 일치하므로 마침내 Diagoroida라는 새로운 속을 설립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나 도이 히로노부(土居寛暢)씨의 서간으로 어리세줄나비(スヂグロミスヂ)라는 것이 일찍이 조선에서도 한번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次郎)박사가 월정사에서 채집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당황해서 다시 조사해 보았더니 Seitz의 'Macrolepidoptera'에도 게재되어 있는 Neptis raddei임에 틀림없었다.

p.263
나비사진(2장)
Fig. 3. Neptis raddei Bremer(어리세줄나비) スヂグロミスヂ
♀, 상, 겉면, 아래, 뒷면

p.264

7월 26일(수) 맑음

도정(道程)은 농사동에서 무봉 사이로 채집은 좋은 성적이었다. 일본지옥나비는 무봉에 도착하기 2리 앞에서부터 두세 마리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영생활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야영지에 도착하여 야영작업을 하는 동시에 채집품의 정리(날짜, 채집지 기입 등)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들 세 명이 노력하는 것을 본 군인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였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여행 중 맑은 날에는 셋이 평균 500마리는 채집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포획하기 때문에 우리들 세 명에게는 휴식시간조차 없을 정도였다. 함께 간 두 명은 아직 소년인 중학생들이었지만 운동선수인 만큼 각자 나를 뛰어넘는 능률을 올려줬다.

7월 27일(목) 맑음

무봉에서 신무성까지의 도정(道程)으로 이 날의 채집품 중에 수위를 차지한 것은 산지옥나비(ベニヒカゲ)였다.

7월 28일(금) 비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로 텐트가 젖어 잠을 잘 못 잤다. 이로 인해 적어도 내 몸에선 고장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비에 젖은 텐트를 정리하고 빗속을 행진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 게다가 도중에 한 개의 채집도 못할 때. 예정지인 무두봉에 도착할 때까지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생쥐 꼴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채집품만은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의 다행이었다. 예정했던 야영지에 도착하긴 했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바람도 불어 불이 붙지 않는다. 자작나무 껍질이어도 등산가들 말처럼 쉽게 붙어주지 않는다.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동행한 반의 친구는 쇠약해져서 군의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때의 명예직 반장은 정말 싫어진다. 그때는 채집도구 등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 마침내 그곳에서 1개의 포충망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돌아오는 날까지 셋이서 두 개의 포충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 지금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는다. 총동원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불을 일으키고 텐트를 세워 노숙 준비를 한다.

7월 29일(토) 비

오늘도 비가 계속되어 행진은 중지하기로 함. 오후 3시쯤 겨우 비가 멈춤. 우종인군이 부근에 버려져 있던 포충망을 주워 수선하고 산지옥나비와 높은 산지옥나비(アムールクモマベニヒカゲ)를 채집. 사실 채집이라고는 해도 풀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7월 30일(일) 맑음

도정(道程)은 무두봉에서 백두산까지. 쾌청한 날씨로 이틀이나 채집을 못했던 우리들을 충분히 위로해 주었다. 무두봉을 나와 1리 정도 되는 곳에서 이미 수목대는 더할 나위 없는 초원대가 나타나 여기저기에 붉은점모시나비(ア

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가 팔랑팔랑 날고 있다. 정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나고 우리들의 채집 개체수 는 다음 날 몫까지 합쳐 150여 마리에 이르렀다. 국경정계비터를 지나 백두산기슭에 텐트 장소를 정하고 가져온 물품, 예를 들면 야영도구나 연료(마르지 않은 통나무)를 내려놓고 곧바로 정상으로 향했다. 정상에서 나중에 도착한 혜산진대와 합쳐졌다. 정상에서 볼 수 있었던 종류는 큰줄흰나비(スヂグロテフ(f. dulcinea)), 쐐기풀나비(コヒヲドシテフ)、공작나비(クジャクテフ)、은판대기(シロモンコムラサキ)、ハッパシジミ、사향제비나비(ジャカウアゲハ) 등으로 최정상 바위 위에서 약간 손상된 사향제비나비를 채집하는 것은 기념할만한 일이었다. 더구나 기분 좋은 일은 우종인군이 외륜산 위에서 포충망을 휘둘러 고공비행 중인 ハッパシジミ 한 마리를 포획하여, 동행했던 사람들을 크게 흥분시켰던 것이었다. 채집한 개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큰줄흰나비(スヂグロテフ)로 정상 외륜산 부근에서 수천이라고 하는 개체가 짙은 안개의 습격으로 인해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농무를 이겨내지 못한 개체는 낙하하여 천지의 수면에 떠올라 물결치는 대로 떠밀려가 물가에는 흰색 나비의 사체가 겹겹이 몇 줄로 쌓여 있어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P.265 사진
Fig. 4. 백두산 정상 천지. 서 있는 우종인부터 김숙보, 저자, 석주일 순

천지(화구호)로 내려갔던 32명은 늦어져서 어둠 속을 외륜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32명이 열을 지어 화산 자갈의 퇴적물을 걸어서 올라가야만 하기에 굴러 떨어지는 자갈 때문에 위험한 일은 먼저 상상만으로는 어렵다. 굴러 떨어지는 자갈 때문에 내 어깨에 메고 있었던 투구벌레를 채집하기 위한 독병이 완전히 없어진 것 또한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한 번은 길을 잃어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30분에 내려갔던 곳을 3시간이나 걸렸던 적도 있었다. 낙오하게 된 노인 한 분 탓도 있긴 했지만. 저녁을 먹고 텐트에 들어가는 것이 밤 1시 조금 넘음.

7월 31일(월) 맑음
도정(道程)은 백두산에서 무두봉을 지나 신무장까지로 즉, 올라갈 때의 이틀

간의 도정이다. 내려올 때 오전 10시경 무두봉까지 가는 도중에 이름을 모르는 꽃이끼와 같은 지의(地衣) 위에 군집을 이루어 정지해 있는 산지옥나비(ベニヒカゲ)는 백수 십 마리나 되는 것 같아 조금 기이한 광경이었기에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채집에 그치고 말았다. 한 번 휘두른 포충망에 54마리나 들어 있었으니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올 때 채집할 수 없었던 무두봉과 신무성 사이의 채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다. 공작나비를 많이 채집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8월 1일(화) 맑음

아침 우리들 3명은 무산대(茂山隊)에 이별을 고하고 혜산진대(惠山鎭隊)에 편입, 신무성에서 약 1리 정도 되는 곳에서 양쪽 부대와 동시에 이별의 건배를 했다. 저녁 포대리(胞胎里)에 도착할 때까지 많이 잡힌 것은 역시 일본지옥나비였고, 기타 ミイケシジミ도 어느 정도 채집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는 인가에 머물 수 있고, 게다가 우리들 일행은 주재소의 관사 1실을 제공받아 편리하게 지낼 수 있었다.

8월 2일(수) 맑음

이 날 도정은 포대리에서 보천보(普天堡)까지 모두 풍부하게 채집할 수 있었다. 보천보 가까이에 와서 황세줄나비(オホキイロミスヂ)를 꽤 많이 잡아 기분이 좋았다. 이 날의 채집성적이 좋았던 탓에 마음이 끌린데다 지형도 좋았고 이제 안전지대이기도 했기에 우리들 셋은 수비대에 이별을 고하고 개인행동을 개시했다.

8월 3일(목) 맑은 뒤 가랑비

큰 기대를 하고 보천보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지만, 아침에 조금 맑았을 뿐이어서 채집결과는 기대의 3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다.

8월 4일(금) 비 온 뒤 약간 맑음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오전 11시쯤 나가보았지만 혜산진에 도착할 때까

지 채집은 거의 할 수 없었다.

8월 5일(토) 맑음

오전 중에는 혜산진 시가 부근의 약간 높은 언덕에서 채집을 시도, 약간 다른 모양의 팔랑나비(セセリ) 1쌍을 채집했다. 나중에 조사해서 신종이면 이 곳을 기념해서 hesanzina가 될 종명을 붙였다. 오후 반대편 쪽 장백부(長白府)를 견학하러 가서 나비로서는 산네발나비(シータテハ) 1마리를 채집한 것이 장백부의 기념이다.

8월 6일(일) 맑은 뒤 가랑비

아침에 자전거로 갑산으로 갔다. 정오부터 약 2시간 갑산 시가 근처 산에서 채집을 했다. 우종인군이 갑자기 벌의 습격을 받아 몸에 이상을 호소해 채집 중지

8월 7일(월) 맑음

남은 한 명이 아침에 약 한 시간 동안 채집. 불완전한 먹부전나비(クロツバメシジミ) 한 마리가 잡혀 기뻤다. 우군도 거의 회복이 되어 오전 10시반 쯤 차로 응덕령(鷹德嶺)정상까지 와서 하차. 거기서 풍산까지 내리막길을 채집하면서 걸음. 역시 많은 건 산지옥나비(ベニヒカゲ)류

8월 8일(화) 구름 뒤 비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모처럼의 기회이기에 에구치 미쓰구(江口貢)씨의 소개로 농시분장(農試分場)의 시바(柴)씨와 대덕산 채집을 시도했으나 돌아오는 길에 큰 비를 만나, 지난 번 무두봉 사건과 비슷한 일을 반복한 셈이었다. 어쨌든 인가 근처라서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것은 비를 만나기 직전에 우군이 처음으로 대덕산기슭에서 신선나비를 한 마리 채집했던 일이다.

8월 9일(수) 맑음

아침에 풍산을 출발해서 차로 후상령(厚峠岭)까지 와 하차. 내리막길을 채집하면서 직동(直洞)까지 와서 다음 차를 얻어 타 북청까지 왔다.

8월 10일(목) 맑음

오전 2시 37분 신북청발 특급으로 경성까지 직행. 역을 나오던 관모산 팀의 조씨와 장씨를 만나 저녁을 함께 하고 그날 밤 돌아왔다.

이처럼 21일간의 여행을 대체로 무난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도중에 우리들 셋의 목숨을 보증하고 채집에 여러 모로 도와주신 무산, 혜산진 수비대원분들, 금패에서 채집할 때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 주셨던 역무원 분들, 그리고 대덕산 채집에 편의를 제공해 주신 풍산 농시분장 에구치씨, 시바씨에게 감사말씀 전하며 이 일기를 마친다.

채집품 목록

Ⅰ.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1. Papilio alcinous Klug ジヤカウアゲハ(사향제비나비)
   vii. 27. 무봉 신무성간, 30, 31. 백두산, viii. 24. 장진(長津)
2. Papilio maackii Ménétriès f. aest. ミヤマカラスアゲハ (산제비나비) 여름형
   vii. 30, 31. 백두산, viii. 3. 보천보, 관모산
3. Papilio machaon Linné f. aest. キアゲハ (산호랑나비) 여름형
   vii. 22. 금패, 26. 농사동 무봉간, 30. 백두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5. 혜산진, 6. 갑산
4. Papilio xuthus Linné f. aest. アゲハ (호랑나비) 여름형
   vii. 22. 금패, 23. 무산, 25. 삼장 농사동간, viii. 5. 혜산진, 6. 갑산.
5. Parnassins bremeri bremeri Felder 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붉은점모시나비)
   vii. 30, 31. 백두산.
6. Parnassius nomion Fisher 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왕붉은점모시나비)
   vii. 22. 금패,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무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7. 갑산, 19. 25. 장진

Ⅱ. Pieridae 흰나비과

7. Aporia crataegi alepica Cosmovici エゾシロテフ(상제나비)

vii. 22. 금패,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8. Aporia hippie takamukuana Matsmura ミヤマシロテフ (눈나비)

vii. 22. 금패, 폐무산, 25. 삼장 농사동간, 30, 31. 관모산.

9. Colias aurora Esper ベニモンキテフ (노랑나비)

Colias aurora chloë Eversmann 白型♀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무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5. 혜산진

10. Colias hyale Linné ミヤマモンキテフ(높은산노랑나비)

vii. 23. 무산, 25. 삼장 농사동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혜산진간, 5. 혜산진, 6,7. 갑산

11. Colias palaeno Linné ミヤマモンキテフ (높은산노랑나비)

vii.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무성간, 31. 백두산.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12. Gonepteryx Aspasia Ménétriés テウセンスヂボソヤマキテフ (각시멧노랑나비)

vii. 22. 금패

13. Gonepteryx rhamni amurensis Graeser アムールヤマキテフ (멧노랑나비)

vii. 24. 무산 삼장간, viii. 9. 후상령

14. Leptidia amurensis Ménétriés ヒメシロテフ (기생나비)

vii. 22. 수평(輸坪),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31. 백두산, viii. 5. 혜산진, 6. 갑산, 9. 후상령

15. Leptidia sinapis Linné エゾヒメシロテフ (북방기생나비)

vii. 22. 玲貨, 폐무산, 차령, 금패, 서풍산,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무성간, 30. 백두산, 관모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관모산, 5. 혜산진, 6, 갑산, 7. 응덕령, 9. 후상령

16. Leucochloë daplidice Linné テウセンシロテフ(풀흰나비)

vii. 22. 금패, 폐무산, 28. 무산, 25. 삼장 농사동간, 30. 백두산,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17. Pieris canidia canidia Sparrman タイワンモンシロテフ (대만흰나비)

vii. 30. 관모산, viii. 6. 주을(朱乙), 7. 응덕령

18. Pieris melete dulcinea Butler f. aest. アムールスヂグロテフ 여름형

vii. 22. 부령(富寧), 차령,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7. 무봉 신무성간, 30, 31.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관모산,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교미중) 7. 갑산, 응덕령

19. Pieris melete melete Ménétriés f. aest. スヂグロテフ(큰줄흰나비) 여름형

viii. 7. 응덕령, 9. 후상령

20. Pieris rapae Linné モンシロテフ (배추흰나비)

vii. 22. 서풍산, 고무산, 폐무산,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7. 부전령, 31.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관모산, 4. 보천보 혜산진간, 관모산, 5. 혜산진, 6,7 갑산, 7. 응덕령, 9. 후상령

Ⅲ. Satyridae 뱀눈나비과

21. Aphantopus hyperantus ocellatus Butler テウセンジャノメ (가락지장사)

vii. 22. 폐무산, 금패, 고무산, 수평,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관모산, 5. 혜산진, 6. 갑산, 7. 응덕령, 8. 대덕산, 9. 후상령, 14. 장진, vii. 30, 31. viii. 3. 관모산

22. Coenonympha amaryllis Cramer メイロヒメヒカゲ (시골처녀나비)

viii. 9. 후상령

23. Coenonympha hero perseis Lederer シロオビヒメヒカゲ (도시처녀나비)

vii. 22. 금패,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4. Coenonympha oedippus amurensis Rühl ヒメヒカゲ (봄처녀나비)

vii. 22.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viii. 3. 관모산, 6. 갑산

25. Erebia ligea ajanensis Ménétriés アムールクモマベニヒカゲ (높은산지옥나비)

vii. 29. 무두봉, 30, 31.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8. 대덕산, vii. 31, viii. 1,2,3, 관모산

26. Erebia sedakovii Eversmann ベニヒカゲ (산지옥나비)

vii.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29. 무두봉, 30, 31.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14,15. 장진, vii. 31. viii. 1,2,3. 관모산

27. Lethe epimenides Ménétriés キマダラモトキ (알락그늘나비)

vii. 22. 금패, 25. 삼장 농사동간, viii.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7. 응덕령

28. Lethe marginalis Motschulsky クロヒカゲモドキ (먹그늘나비붙이)

vii. 30. 관모산

29. Melanargia halimede Ménétriés シロジャノメ (흰뱀눈나비)

vii. 22. 폐무산, 고무산,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9.갑산, 7. 응덕령, 9. 후상령, vii. 27. 부전령, viii.주을, vii.30,31, viii. 3,4. 관모산

30. Mycalesis francisca perdiccas Hewitson コジャノメ (부처사촌나비)

vii. 31. 백두산

31. Pararge achine chosensis Matsumura テウセンウラジャノメ (눈많은 그늘나비)

vii. 22. 금패, 폐무산, 26. 농사동 무봉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8.대덕산, vii. 30. 관모산

32. Pararge deidamia erebina Butler テウセンツマジロウラジャノメ(뱀눈그늘나비)

vii. 31, viii. 2.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5. 혜산진, 7. 응덕령

33. Satyrus dryas bipunctatus Motschulsky ジャノメテフ (굴뚝나비)

vii. 22. 폐무산,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

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교미중),부전령,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6. 갑산, 7. 응덕령, 8. 대덕산, 9. 후상령, 25. 장진, vii. 30, viii. 3. 관모산

p. 271

Ⅳ. Nymphalidae 네발나비과

34. Apatura ilia mikuni Wileman ミクニコムラサキ (황오색나비)

vii. 27. 부전령

35. Apatura ilia substitute Butler コムラサキ (오색나비)

vii. 22. 금패,폐무산,차령, 25. 삼장 농사동간, 31.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9. 직동

36. Apatura iris amurensis Stichel テウセンコムラサキ (번개오색나비)

vii. 22. 신참(新站),차령, 25.삼장 농사동간, 31. 관모산

37. Apatura nycteis Ménétriés シロオビコムラサキ (밤오색나비)

vii.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38. Apatura schrenckii Ménétriés シロモンコムラサキ (은판대기)

vii. 22. 금패, 25. 삼장 농사동간, 27. 무봉 신무성간, 부전령, 30. 백두산, 30,31.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9. Araschnia levana Linné f. aest アカマダラ夏型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

vii. 22. 금패,차령,폐무산, 27. 무봉 신무성간, 부전령, 30.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8.대덕산, 9.후상령, vii. 30, viii. 3, 관모산

40. Argynnis adippe coredippe Leech ウラギンヘウモン (은점표범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viii. 2. 관모산 포대리 보천보간, 9. 후상령

41. Argynnis adippe pallescens Butler ウラギンヘウモン (황은점표범나비)

vii. 22. 폐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31. 관모산,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5. 혜산진, 8. 대덕산, 9. 후상령

p. 272

42. Argynnis adippe vorax Butler ウラギンヘウモン (긴은점표범나비)

vii. 22. 금패, 26. 농사동 무봉간,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관모산, 5. 혜산진, 7. 응덕령.

43. Argynnis aglaia fortuna Janson ギンボシヘウモン (풀표범나비)

vii. 22. 금패, 27. 무봉신무성간, 31. 무두봉 신무성간, 31. 무두봉 신무성간, 30, 31. viii. 2, 3. 관모산, viii. 7. 응덕령, 9. 후상령.

44. Argynnis amathusia sibirica Staudinger テウセンミヤケヘウモン(백두산표범나비)

vii. 27. 부전령, 31. 백두산, 무두봉 신무성간.

45. Argynnis argunnis daphne Schiffermüller ヘウモンテフ (큰표범나비)

vii. 25. 삼장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3. 보천보, 5. 혜산진, 6. 갑산, 9. 후상령, 24. 장진.

46. Argynnis hakutozana Matsumura ハクトウヘウモン (?백두산표범나비?)

vii.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31. 백두산,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7. 응덕령, 8. 대덕산, vii. 30. Viii. 2. 관모산.

47. Argynnis ino sibirica Staudinger シベリアコヘウモン (작은표범나비)

vii. 22. 폐무산, 금패,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30.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6. 갑산, 9. 후상령, 14. 장진, vii. 30, 31. vii. 3. 관모산.

48. Argynnis laodice Pallas 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흰줄표범나비)

vii. 22. 금패,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6. 갑산, 7. 응덕령, 9. 후상령, 14. 장진.

49. Argynnis paphia paphioides Butler ミドリヘウモン (은줄표범나비)

vii. 22. 금패, 30, 31.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9. 후상령, vii. 30, 31. viii. 2, 3. 관모산.

50. Argynnis selene Schiffermüller テウセンヒメヘウモン (작은은점선표범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25. 농사동 무봉간, viii. 5. 혜산진, 7. 갑산.

51. Argynnis selenis chosensis Matsumura テウセンチビヘウモン (제이줄나비)

vii. 22. 고무산, 폐무산,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7. 부전령, viii.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6. 주을(朱乙), 6, 7. 갑산, 9. 후상령, 25. 장진, vii. 30, viii. 2, 3. 관모산.

52. Argynnis zenobia Penelope Staudinger ヤマミドリヘウモン (산은줄표범나비)

vii. 31. 관모산.

53. Limernitis Camilla japonica Ménétriés イチモンジテフ (줄나비)

vii. 22. 금패, 31.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54. Limernitis helmanni Lederer ナガサキイチモンジ (제일줄나비)

vii. 22.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6. 갑산, 7. 응덕령, 9. 후상령, vii. 30, 31. viii. 3. 관모산.

55. Limernitis moltrechti Kardakoff テウセンイチモンジ (조선줄나비)

vii. 22. 금패, 27. 부전령, 30.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9. 후상령.

56. Limernitis populi ussuriensis Staudinger オホイチモンジ (왕줄나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관모산,

57. Limernitis sydyi Lederer ヒロイチモンジ (굵은줄나비)

vii. 22. 금패,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9. 후상령.

58. Melitaea athalia mehadiensis Gerhard ハクトウコヘウモンモドキ

vii. 22. 금패, 폐무산, 차령, 27. 무봉 신부성간, viii. 3. 보천보.

59. Melitaea dictynna erycinides Staudinger ギンボシヘウモンモドキ (은점어리표범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60. Melitaea didyma mandchurica Seitz 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 (만주산어리표범나비)

vii.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61. Melitaea phoebe scotosia Butler ヘウモンモドキ (암암어리표범나비)

vii. 22. 금패, 24. 무산 삼장간,

62. Neptis alwina Bremer et Grey オホミスヂ (왕세줄나비)

vii. 22. 신참, 서풍산, 23. 무산, 27. 부전령, 30. 관모산, viii. 3. 보천보, 9. 후상령.

63. Neptis coenobita koreana nov.subsp., in litteris.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30. 관모산,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7. 응덕령, 8. 대덕산.

64. Niptis hylas intermedia Pryer コミスヂ (애기세줄나비)

vii. 22.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7. 부전령, 30. 관모산, viii. 4. 보천보 혜산진간, 9. 후상령, 25. 장진.

65. Neptis philyra excellens Butler ミスヂテフ (세줄나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66. Neptis philyroides Staudinger テウセンミスヂ (조선세줄나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67. Neptis pryeri coreana Nakahara et Esaki テウセンホシミスヂ (조선별박이세줄나비)

viii. 24. 무산 삼장간.

68. Neptis pryeri Butler ホシミスヅ (별박이세줄나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8. 대덕산.

69. Neptis reddei Bremer スヂグロミスヂ (어리세줄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70. Neptis speyeri Staudinger スパイヤミスヂ (높은산세줄나비)

vii. 24. 무산 삼장간.

71. Neptis themis Leech ヒメキイロミスヂ (산황세줄나비)

vii. 31. 관모산, viii. 3. 보천보.

72. Neptis thisbe deliquata Stichel オホキイロミスヂ (황세줄나비-중남부지역)

vii. 27. 부전령, viii. 4. 보천보 혜산진간, 6. 갑산.

73. Neptis thisbe thisbe Ménétriès オホキイロミスヂ (황세줄나비-북부지역)

vii. 22. 금패, 차령,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8. 대덕산.

74. Polygonia c-album Linné f. aest. シータテハ夏型 (씨알붐나비)

vii. 22. 금패, 폐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viii.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장백부, 7. 응덕령.

f. autum.-vern. 추춘형

vii. 24. 무산 삼장간, 27. 무봉 신부성간, 30, 31.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23. 장진, vii. 31. viii. 1. 2. 관모산.

75. Polygonia c-aureum Linné f. aest. キタテハ夏型 (남방씨알붐나비)

vii. 24. 무산 삼장간, viii. 5, 6. 혜산진, 7. 갑산, 9. 후상령.

76. Polygonia l-album samurai Fruhstorfer エルタテハ (갈구리신선나비)

vii. 22. 금패, 폐무산.

77. Pyrameis cardui Linné ヒメアカタテハ (작은멋쟁이나비)

vii. 22. 금패, 30. 관모산, viii. 5. 혜산진, 9. 후상령.

78. Pyrameis indica indica Herbst アカタテハ (큰멋쟁이나비)

vii. 22. 차령, 30. 백두산,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5. 혜산진, 9. 후상령.

79. Vanessa antiopa Linné キベリタテハ (신선나비)

vii. 30, viii. 3, 4. 관모산, viii. 8. 대덕산, 25. 장진.

80. Vanessa canace Linné ルリタテハ (청띠신선나비)

viii. 1. 관모산.

81. Vanessa io geisha Stichel クジャクテフ (공작나비)

vii. 22. 금패, 30. 백두산, 31. 무두봉 신부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vii. 31, viii. 1, 2, 3. 관모산.

82. Vanessa urticae urticae Linné テウセンコヒヨドシ (쐐기풀나비)

vii. 22. 금패, 서풍산, 30, 31. 백두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4. 보천보 혜산진간, 7. 응덕령, vii. 31. viii. 1, 2, 3. 관모산.

83. Vanessa xanthomelas japonica Stichel ヒヨドシテフ (들신선나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Ⅴ. Lycaenidae 부전나비과

84. Chrysophanus dispar suratus Leech テウセンベニシジミ (큰주홍부전나비)
vii. 22. 금패, 26. 농사동 무봉간, 30.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5. 혜산진, 9. 직동.

85. Chrysophanus hippotoë amurensis Staudinger メスグロベニシジミ(암먹주홍부전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86. Everes argiades amurenis Rühl-Heyne ツバメシジミ (암먹부전나비)
vii.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부전령,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교미중), 6. 감산, 7. 응덕령, 8. 대덕산, 9. 후상령.

87. Everes fischeri Eversmann クロツバメシジミ (먹부전나비)
vii. 23. 무산, 27. 부전령, 30. 관모산, viii. 4. 보천보 혜산진간, 6, 7. 갑산.

88. Hysudra arata selira Moore アカトラフシジミ
vii. 27. 부전령.

89. Lycaena amandus amurensis Staudinger アムールルリシジミ(함경부전나비)
vii. 22. 금패, 26. 농사동 무봉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90. Lycaena argus insularis Leech シジミテフ (부전나비)
vii. 22. 고무산,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7. 부전령, 30.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6. 갑산.

91. Lycaena arion Linné ガウザンゴマシジミ (중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i. 6, 7. 갑산.

92. Lycaena arionides Staudinger オホゴマシジミ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 27. 부전령, 30. 관모산.

93. Lycaena astrarche allous Hübner ハマベシジミ (백두산부전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94. Lycaena chinensis chinensis Murray アカオビシジミ (작은주홍부전나비)
vii. 23. 무산.

95. Lycaena cleobis Bremer コシジミ (산부전나비)

vii. 22. 금패,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6. 갑산.

96. Lycaena divina Fixsen テウセンゴマシジミ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i. 9. 후상령.

97. Lycaena eros boisduvalii Herrich-Schäffer テウセンルリシジミ(사랑부전나비)

vii. 30, 31. 백두산, viii. 5. 혜산진, 6, 7. 갑산.

98. Lycaena euphemus Hübner ゴマシジミ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 22. 차령, 폐무산,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4. 보천보 혜산진간, 5. 혜산진, 6, 7. 갑산, 9. 후상령.

99. Lycaena happensis Matsumura ハッパシジミ

vii. 22. 금패, 23. 무산,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30. 백두산,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5. 혜산진, 6, 7. 갑산, 7. 응덕령, 8. 대덕산, 9. 후상령.

100. Lycaena lycormas Butler カバイロシシミ(귀신부전나비)

vii. 22. 금패, 24. 무산 삼장간, 26. 농사동 무봉간, 30. 관모산.

101. Lycaena optilete sibirica Staudinger カラフトルリシジミ (높은산부전나비)

vii.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31. 무두봉 신무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4. 보천보 혜산진간, 7. 응덕령, 8. 대덕산.

102. Lycaena orion Pallas ヂヤウザンシジミ (작은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 27. 부전령,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9. 후상령.

103. Lycaena putealis Matsumura ミイケシジミ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viii. 5. 혜산진.

104. Lycaena semiargus Rottemburg ゴウジレイシジミ (후치령부전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7. 응덕령.

105. Lycaenopsis argiolus Linné ルリシジミ (푸른부전나비)

vii. 22. 금패, 27. 부전령, 30, 31.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5. 혜산진, 6. 갑산, 7. 응덕령, 9. 후상령, 25. 장진.

106. Lycaenopsis levetti Butler カウライルリシジミ (주을푸른부전나비)
vii. 6, 7. 주을.

107.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クロシジミ (담흑부전나비)
vii. 24. 무산 삼장간, 27. 부전령, viii. 3. 보천보, 5. 혜산진.

108. Thecla eximia Fixsen テウセンツマアカラスシジミ (참까마귀부전나비)
viii. 5. 혜산진.

109. Thecla herzi Fixsen テウセンカラスシジミ (민꼬리까마귀부전나비)
vii. 26. 농사동 무봉간.

110. Thecla spini Schiffermüller ヒメツマアカラスシジミ (북방까마귀부전나비)
vii. 23. 무산, 25. 삼장 농사동간, viii. 5. 혜산진, 6. 갑산.

111. Thecla w-album fentoni Butler カラスシジミ (까마귀부전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27. 부전령, 31.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7. 응덕령, 8. 대덕산.

112. Zephyrus betulae coreana Nire テウセンメスアカシジミ (암고운부전나비)
vii. 23. 무산, viii. 5. 혜산진.

113. Zephyrus lutea Hewitson アカシジミ(귤빛부전나비)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114. Zephyrus orientalis Murray オホミドリシジミ (큰녹색부전나비)
vii. 31. 관모산, 7. 응덕령, 9. 후상령.

Ⅵ. Hesperiidae 팔랑나비과

115. Adopaea sylvatica Bremer ヘリグロチヤバネセセリ (수풀꼬마팔랑나비)
vii. 22. 고상령, viii. 9. 후상령.

116. Aeromachus inachus Ménétriès オシチヤバネセセリ (파리팔랑나비)
vii. 27. 부전령, 30. 관모산, viii. 9. 후상령.

117. Augiades subhyalina Bremer et Grey ウスバキマダラセセリ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vii. 27. 부전령, 30. 관모산.

118. Augiades sylvanus selas Mabille コキマダラセセリ(수풀떠들썩팔랑나비)

vii. 22.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부전령, 30. 관모산,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3. 보천보.

119. Augiades sylvanus venata Bremer et Grey クロコキマダラセセリ

vii. 25. 삼장 농사동간, 27. 무봉 신부성간, 31. 관모산.

120. Daimio tethys Ménétriès ダイミヤウセセリ (왕자팔랑나비)

vii. 27. 부전령, viii. 2. 포대리 보천보간, 9. 후상령.

121. Erynnis florinda Butler アカセセリ (꽃팔랑나비)

vii. 27. 부전령, viii. 6. 갑산.

122. Hesperia gigas minor Mabille テウセンオホチヤマダラセセリ (왕흰점팔랑나비)

vii. 22. 차령, 금패.

123. Hesperia hesanzina nov. sp., in litteris ケイセンチンセセリ(혜산진팔랑나비)

viii. 5. 혜산진.

124. Hesperia orbifer Hübner シラホシチヤマダラセセリ (함경흰점팔랑나비)

vii. 23. 무산.

125. Hesperia speyeri Staudinger テウセンチヤマダラセセリ (높은산세줄나비)

vii. 22. 금패, 23. 무산, 24. 무산 삼장간,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27. 무봉 신부성간, 31. 백두산,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2. 포대리 보천보간.

126. Hesperia zona Mabille チヤマダラセセリ (흰점팔랑나비)

vii. 27. 부전령, viii. 5. 혜산진.

127. Heteropterus Morpheus Pallas テウセンキボシセセリ (돈무늬팔랑나비)

vii. 25. 삼장 농사동간, 26. 농사동 무봉간, viii. 1. 신무성 포대리간, 9. 후상령.

128. Lobocla bifasciata Bremer マヘキセセリ (왕팔랑나비)

vii. 30. 관무산.

129. Padraona dora flava Murray キマダラセセリ (황알락팔랑나비)

vii. 27. 부전령, 30. 관무산.

130. Satarupa nymphalis sugitanii Matsumura スギタニセセリ (대왕팔랑나비)
vii 30. 관무산.

상기 목록을 총괄해 보면 다음 표처럼 아종을 가산하여 6과 130종이다. 또한 이것들을 개체수로 환산하면 약 500개에 해당됨을 附記한다.

과 별	종 수
호랑나비과	6
흰나비과	14
뱀눈나비과	13
네발나비과	50
부전나비과	31
팔랑나비과	16
합 계	6과 130종

附記 1. 편의를 위해 호랑나비과부터 팔랑나비과 순으로 나열하여 각 과에 포함되는 종은 그 학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함
2. 월일에서의 로마숫자는 월을, 아라비아 숫자는 일을 나타냄

또한 참고를 위해 백두산(무두봉 백두산정상간)만의 목록도 덧붙인다. 각 목록 중의 표본은 앞에 기재한 총목록에도 제시하는 바와 같이 7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채집한 것이다.

백두산産 접류목록

1. Papilio alcinous Klug ジヤカウアケハ (사향제비나비)
2. Papillo maackii Ménéstriès f. aest. ミヤマカラスアゲハ夏型 (산제비나비)
3. Papilio machaon Linnè f. aest. キアゲハ夏型 (산호랑나비)
4. Parnassius bremeri bremeri Felder 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붉은점모시나비)
5. Colias palaeno Linné ミヤマモンキテフ (높은산노랑나비)
6. Leptidia amureneis Ménétriès ヒメシロテフ (기생나비)
7. Leptidia sinapis Linné エゾヒメシロテフ (북방기생나비)
8. Leucochloë daplidice Linné テウセンシロテフ (풀흰나비)
9. Pieris melete dulcinea Butler f. aest. アムールスヂグロテフ夏型 (큰줄흰나비)
10. Erebia ligea ajanensis Ménétriès アムールクモマベニヒカゲ (높은산지옥나비)
11. Erebia sedakovii Eversmann ベニヒカゲ (산지옥나비)
12. Mycalesis francisca perdiccas Hewitson コジャノメ (부처사촌나비)
13. Apatura schrenckii Ménétriès シロモンコムラサキ (은판대기)
14. Araschnia levana Linné f. aest. アカマダラ夏型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
15. Argynnis amathusia sibirica Staudinger テウセンミヤケヘウモン (백두산표범나비)
16. Argynnis hakutozana Matsumura ハクトウヘウモン
17. Argynnis ino sibirica Staudinger シベィアコヘウモン (작은표범나비)
18. Argynnis paphia pahioides Butler ミドリヘウモン (은줄표범나비)
19. Polygonia c-album Linné f. autum.-vern. シータテハ秋春型 (씨알봄나비)
20. Pyrameis indica indica Herbst アカタテハ (큰멋쟁이나비)
21. Vanessa io geisha Stichel クジャクテフ(공작나비)
22. Vanessa urticae urticae Linné テウセンコヒヨドシ (쐐기풀나비)
23. Lycaena eros boisbuvalii Herrich-Schäffer テウセンルリシジミ (사랑부전나비)

24. Lycaena happensis Matsumura ハッパシジミ
25. Hesperia speyeri Staudinger テウセンチヤマダラセセリ (높은산세줄나비)

호랑나비과	4
흰나비과	5
뱀눈나비과	3
네발나비과	10
부전나비과	2
팔랑나비과	1
합 계	6과, 아종을 포함하여 25종

본고를 마치며 귀중한 자료를 대여해 준 야마우치 요시히코(山內義彦), 조복성 및 문헌수집에 도움을 주신 하시모토 시로(橋本士郞), 도이 히로노부(土居寬暢)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공표한다.

(1934. Ⅱ. 25. 개성에서)

조선동북단지역산 접류 채집기(제18~19도판)

석 주 명(안행순 번역)

먼저 본문에는 여행 중에 채집한 신종, 신이상형(新異常型) 및 기형 등의 개체는 취급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지난 여름에 조선의 가장 고지대인 백두산 지방을 채집했기에 올 여름(1934)에는 위도로 보면 백두산 이북, 조선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채집하기로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함경북도 회령, 종성, 은성, 경원, 경성으로 이 다섯 군(五郡)은 다름아닌 북변육진(北邊六鎭)의 땅이다. 회령 웅기 간의 철도 도문선도 작년 여름(1933년 8월) 전부 개통되었다. 두만강을 따라 철도 연선 지역의 채집은 매우 편리해진 것으로 이와 같은 코스로 채집하는 사람은 철도가 전면 개통된 이후로는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이다. 해당 지방은 일본, 만주, 러시아 삼국의 국경 지역인 만큼 미리 지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의 다섯 지역에 있는 주요 경찰서장 앞으로 그 일정표를 첨부해 신변 보호를 의뢰하는 공문을 학교에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채집 지역 곳곳에서 지방 경찰서장을 방문해 종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박물표본 채집 여행 일정표

7월 20일(금)	오후 1:35 개성 출발, 익일 오전 10:55 회령 도착	
21일(토)	회령 부근 채집	회령 숙박
22일(일)	오봉산 채집	동(同)
23일(월)	학포역 부근 및 세계봉 채집	상삼봉 숙박
24일(화)	삼봉동 부근 채집	동(同)
25~26일(수, 목)	종성 부근 채집	종성 2박

27~31일(5일간, 금~화) 남양, 풍서동, 은성 등 조선극북지역 채집 5박

8월	1일(수) 훈융 부근 채집	경원 숙박
	2일(목) 경원 부근 채집	동(同)
	3일(금) 신아산 및 아오지 부근 채집	아오지 숙박
	4일(토) 하여평 및 경흥 부근 채집	경흥 숙박
	5일(일) 하여평 및 청아 부근 채집	서간리 숙박
	6일(월) 웅기봉 채집	웅기 숙박
	7~8일(화, 수) 서수라 및 난도 등지 채집	미정
	9일(목) 아오지, 장안동 간 채집	장안동 숙박
	10일(금) 장안동 행영 간 채집	행영 숙박
	11일(토) 행영, 회령 간 채집	
	오후 6:47 회령 발, 개성 직행 예정	

이렇게 일정표를 짜긴 했으나 날씨나 그 외의 사정 등으로 예정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코스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1) 무산봉 (2) 중도동 오봉산 부근 (3) 회령 (4) 오국성지 (5) 세계봉 (6) 상삼봉 (7) 종성 (8) 동관 (9) 남양 (10) 풍리 (11) 풍서동 (12) 은성 (13) 훈융 (14) 경원 (15) 금월동 (16) 신아산 (17) 웅기 (18) 웅상동 (19) 서포항동 (20) 서수라 (21) 난도 (22) 나진 (23) 대초도 (24) 용정 (25) 주을 등 모든 지역에서 채집했다. 상세한 것은 후기 일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일정표 대로 7월 20일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다. 준비라고 해도 채집 기구, 나프탈렌, 약품 및 서적 몇 권 등 최소한 갖춰야 할 몇 가지였다. 무엇보다 인가 부근을 걸을 것이기에 특별히 요란한 준비는 필요치 않다. 원래 인가에서 떨어진 위험지역, 예를 들어 백두산 방면 같은 곳에서는 도를 넘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즉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무언가를 준비할 때 '대는 소를 겸한다'는 말처럼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에 백두산을 등산할 때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준비 탓에 고생을 했었다. 다만 이번 여름 코스처럼 인가 근처를 걷는 경우에는 결코 야단스레 준비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준비가 오히려 위험천만인 경우도 있다.

7월 20일(금) 흐림

예정대로 출발하기 위해 1학기 마지막 직원회의도 빠질 생각이었는데 날씨가 나쁘다. 비는 아니지만 간신히 내리지 않는 상태다. 아무튼 올해 날씨답다고나 할까? 한달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도무지 그칠 기미가 없다. 목적지는 수 백리 떨어진 곳으로 더욱이 조선 주요부인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원래 비가 적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나마 지금 내리지 않는 게 다행이다. 만약을 위해 해당 지역 인삼전매국 측후계에 물어보니 회령 지방은 요즘 흐린 날씨라고 한다. 주저하지 않고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1시 51분 개성 발, 오후 3시 21분 경성 착. 경성에서 물건 구입. 오후 5시 23분 경성 발. 이 기차는 상삼봉행 급행열차로 급행권이 필요하다. 먼저 3시 반 경성 도착 직후에 급행권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침대권을 구하려 했다. 그러나 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된 시기라 함북 지방으로 가는 귀향 학생들과 그 지역 인사들이 많아 침대권은 거의 이틀 전에 매진된 상태였다. 때마침 하단에 좌석 하나가 요금 미불로 비어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 침대 하나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 보통객차에서 견뎌보기로 했다. 어쨌든 내일 아침부터 채집해야만 하는 신세, 기차 안이기는 하나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그런데 흔한 보통객석조차 얻어걸릴 것 같지 않다. 결국 승객이 너무 많은 탓에 객차 하나를 여분으로 나중에 연결시켜서 간신히 두 사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p. 254 지도
채집지 약도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고 약 한 시간쯤 지나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두 명의 중학생이 고향 웅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기에 이것은 기회다 싶어 전혀 미덥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모한 듯한 우리의 웅기항 및 난도(卵島) 탐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그 섬에는 교목은 없고 초본뿐이라는 얘기를 들게 되었다. 상대가 아무리 나이 어린 중학생이라곤 해도 그들의 말은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대암동(채집지 지시도 참조)에서 목선이라도 세내어 이틀 간 난도(卵島)와 적도(赤島)에서 채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채집 목적물은 주로 나비였지만 특수

지역, 예를 들어 난도 같은 곳에서는 동물이라면 무엇이든 채집하기로 했다.

7월 21일(토) 흐림

다음 날 아침, 기차가 주을을 지났을 무렵, 지도를 보고 있던 나는 문득 무산령 채집을 시도하고 싶어져 곧바로 둘이 합의를 보았다. 오전 10시 5분 창평 도착. 창평역에 하차해 스무 마을 정도 떨어진 무산령에서 채집을 시도했지만, 흐린 날씨 탓에 큰 수확은 없었다. 급기야 가랑비까지 내리기 시작해 채집 중지. 여행 안내서를 꺼내보니 오후 1시 18분에 북행 기차가 있어 30분 가량 뛰어서 겨우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차 안에서 오봉산 채집을 기대해본다. 회령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그럴 필요 없이 오봉산에 가장 가까운 회령 바로 앞 중도동에 하차하면 된다. 결국 중도동에 머물기로 하고 오후 2시 9분 중도에 도착해 하차. 흐린 하늘에 바람마저 불어 할 수 없이 여인숙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이 집이 이날 밤 숙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군이 코를 골기 시작한다. 오늘이 여행 첫째 날이다. 벽촌 여인숙 한 구석에서 코 고는 일행 옆에서 능률이 오르지 않았던 무산령 채집을 연상하는 일은 유쾌하지 않았다. 심심해서 포충망을 쥐고 대조덕산 기슭을 소요했다. 그 보람이 있어 물빛긴꼬리부전나비(ミヅイロヲナガシジミ) 1개체를 채집할 수 있었다.

7월 22일(일) 맑음

한밤중부터 복통으로 시달리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주재소 전화로 회령 공의(公醫)를 불렀다. 무리하는 것은 장기 여행에는 좋지 않기에 결국 모든 일을 동행인 장 군에게 맡기고 나는 잠시 왕진 온 공의의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 중도동에서 회령까지는 딱 3리, 길도 일등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자동차 요금이 일금 8원이라니. 여행 첫 날이라 돈은 지니고 있어 다행이었지만 3리 왕복에 8원은 꽤 타격이었다. 중도동에 남겨진 장 군은 혼자서 채집하고는 오후에 병원으로 왔다.

7월 23일(월) 맑음

하룻밤 정양으로 다소 회복된 것 같아 체력을 시험할 요량으로 부근을 채집

하고 좀 더 자신이 생겨 오국성지 쪽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아플 거면 이렇게 치료 기관이 갖추어진 곳에서 아파야 한다. 오전 11시 5분 회령 발, 11시 53분 계림 착. 역에서 약 6킬로미터 되는 오국성지 부근에서 채집을 시도했다. 부근 지형은 몹시 양호했고 붉은점모시나비(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1개체와 연주노랑나비(ベニモンキテフ) 5,6개체를 채집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오전 중에 왔으면 더 많이 채집했을 것이다. 오후 5시 12분 계림 출발, 오후 5시 45분 회령 도착. 퇴원해서 여관에 묵었다.

7월 24일(화)흐림

오전 6시 발 북행 기차 탑승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안을 세웠다. 오전 6시 35분 회령 출발, 오전 7시 3분 중도 도착. 역에서 걸어 약 6킬로미터. 오봉산 채집을 시도하기 위해 등산했으나 약 3분의 1 지점에서 비를 만나 이 또한 중지. 이 날 잡은 오색나비(ガイマコムラサキ) ♀ 1개체가 유일한 위안거리다. 오후 2시 9분 중도 발, 기차 안에서 여행 안내판을 보니 이 기차는 회령에서 32분 간 정차한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여관에서 짐을 갖다 달라고 해 이 기차에 타기로 했다. 오후 2시 28분 회령 도착, 오후 3시 회령 출발, 오후 3시 23분 학포 도착. 학포역에 내려 근처의 세계봉을 둘러보니 지형이 좋지 않아, 부근에서 약 한 시간 반 채집했다. 상제나비(エゾシロテフ)가 많이 잡혀 기분이 좋았다. 오후 7시 28분 학포 출발, 오후 8시 상삼봉 도착

7월 25일(수) 흐림

오전에 근처에 있는 산에서 채집했지만 흐린 날씨 탓인지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오후 4시 25분 상삼봉 출발, 오후 4시 14분 종성 도착

7월 26일(목) 맑음

오늘은 개성을 출발한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로 어제까지의 채집은 예상했던 분량의 5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종성에서도 큰 기대 없이 산으로 나섰다. 부근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채집하던 중에 우연히 좋은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신사참배길로 신사를 지나 그 뒷산까지였다. 특히 만주산어리표범나비(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를 제법 많이 잡아 기뻤다. 준비해 간 포장용지가 부

족해서 가지고 간 점심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 오후에 재차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산 정상까지 올랐고, 그 도중에 장 군은 물빛긴꼬리부전나비 1개체를 잡아 즐거워했다. 정상에서 까마귀부전나비(カラスシジミ)와 북방까마귀부전나비(ヒメ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다수를 채집해서 유쾌했다. 이 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잡은 채집품만도 나중에 세어보니 501개체였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흰뱀눈나비(シロジヤノメ)와 봄처녀나비(ヒメヒカゲ)였다. 오후 4시 41분 종성 출발, 오후 5시 3분 동관 도착

7월 27일(금) 비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곳 사람의 얘기로는 올해처럼 많은 비가 내린 해는 기억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그 지방의 집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곳 지붕에는 암키와뿐으로 수키와를 사용하지 않는다(암키와, 수키와는 조선어로 일본의 기와와는 다르다.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암키와 줄 사이에 수키와를 얹혀 놓아 강우와 강설을 충분히 막아준다) 그리고 덧문 바깥 측에는 종이를 바른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보더라도 이 지방은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7월 28일(토) 비 온 뒤 흐림

오전 9시 반쯤 겨우 비가 그쳤다.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과 강풍으로 채집할 날씨는 아니다. 어쨌거나 명목상의 채집으로 포충망을 들고 옛날 본진족(本眞族) 발상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1리 가까운 거리의 산성산(山城山)에 올랐다. 채집 지형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곳으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와도 좋을 곳이었다. 오후 5시 8분 동관 출발, 오후 5시 38분 남양 도착

7월 29일(일) 비

7월 30일(월) 비

7월 31일(화) 흐림

오늘 아침부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고, 게다가 연일 내린 비로 진흙탕이 된 길을 걸으면서 채집을 할 수도 없으니, 고무 장화를 빌려 대암도문

(對岩圖們) 시가지를 보기 위해 외출했다. 그 시가지는 진흙의 바다 그 자체로 긴 장화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도문에 나간 김에 장 군의 서혜부임파선염 치료를 위해 회막병원에 들렀다. 오후 3시경 형식적으로 약 한 시간 가량 혼자서 남양 부근의 산에서 채집을 했다.

8월 1일(수) 흐린 후 가랑비

조선극북지역인 남양, 풍서동, 계성 등지에서 5박하며 채집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비로 인해 수확 없이 남양에서 4박! 날씨가 회복되기를 남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채집 여행이 아니다. 비는 내리지만 유람의 의미로 외출하기로 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마음 가는 곳으로 떠나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으면 그만이다. 좋은 성적을 냈던 종성에서의 채집만을 떠올려도 방법이 없다. 오후 1시 10분 남양 출발, 오후 1시 36분 은성 도착. 여관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튼 은성에서는 2박 이상은 머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날씨가 화창해진다고 해도 부근엔 양호한 채집 장소가 안 보인다. 전답뿐이다. 모레 아침에는 싫든 좋든 무조건 출발하기로 했다.

8월 2일(목) 가랑비 내리고 흐림

오후가 되어 비가 그쳐 다시 형식상 채집에 나섰다. 채집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 장소까지 거리는 30정(町)이나 된다. 흐린 날씨로 도로가 나빠서 철도 선로를 걸어서 왕복했다. 밤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농사는 다 망쳤다는 주민들의 탄식에 우리의 채집 불량 성적을 불평할 수도 없었다.

8월 3일(금) 흐린 뒤 맑음

아침에 일어나 보아도 아직까지 개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정대로 출발하기로 했다. 오전 8시 58분 은성 출발, 오전 10시 10분 경원 도착. 버스로 읍내에 도착해 우연히 그 지방에서 곤충 채집으로 유명한 桂榮 씨를 만났다. 지리에 관해 가르쳐 주어 고마웠다. 비가 내리지 않아 점심을 먹고 산에 올랐다. 약 한 시간 채집했는데도 재미가 없었다. 오후 3시,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지더니 지금까지 내린 비는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계속 비 날씨였던 뒤

였기 때문에 오후 3시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그 완만한 언덕에 나비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때로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가 등장해 우리 두 사람에게 생기를 주었다. 도로의 물웅덩이 옆에는 많은 접류, 특히 소형의, 그 중에서도 부전나비류가 밀집해 있었다. 한 번 휘두른 망에 가장 많았던 것은 제비부전나비 16개체, ハッパシジミ 1개체,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3개체 등 도합 20개체나 됐다. 또 6개체의 가락지나비(テワセンジヤノメ)를 한 망에 잡기도 했다. 약 두 시간에 447개체나 채집해 포장용지가 부족할 판이었다. 신종 스나이더어리표범나비(スナイダーヘウモンモドキ)를 채집한 곳도 이곳으로 우리는 의외의 수확에 기쁜 나머지 경원에서 오늘 하루 머물기로 했다.

8월 4일(토) 맑음

전날의 진품에 이끌려 같은 지점으로 채집하러 갔으나, 그 신종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길가에 군집한 두만강꼬마팔랑나비(カラフトセセリ)(조선에서는 미기록종), 수풀꼬마팔랑나비(ヘリグロチャバネセセリ),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등을 마음껏 채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진하면서 가까운 산 정상까지 올라 갔지만, 기대했던 붉은점모시나비(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는 볼 수도 없었고,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1개체를 산정 근처에서 채집할 수 있었을 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몇 개체와 시가도귤빛부전나비(ウラナミアカシジミ) 1개체가 잡혀 경원에서의 채집에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아무튼 경원 교외의 완만하면서 대규모의 언덕은 붉은점모시나비(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의 산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전후 이틀 간 우리 둘이서 25~26 마리나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오후 5시, 경원역 앞에서 버스를 내려 부근에 있는 桂榮 씨 댁을 방문해, 그의 경험담을 듣고 표본 등을 보았다. 더군다나 그가 채집한 아래 2개의 표본을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1. Everes argiades amurensis Rühl-Heyne ツバメシジミ　　암먹부전나비
   ♂ab. 1928. Vii. 종성산

2. Lycaena pryeri Murray　　ワラゴマダラシジミ　　선녀부전나비

1. Vii. 20. 성정(城町, 주을 부근)산

오후 7시 50분 경원 출발, 오후 8시 16분 승양 도착.

8월 5일(일) 맑음

오전 7시 20분경, 동척목양장(東拓牧羊場) 견학을 겸해 금월동으로 채집에 나섰다. 천천히 채집하면서 3리 반 길을 네 시간 반 걸었다. 도중에 채집한 품목 중에 꼬리명주나비(ホソヲテフ)가 지리적으로 흥미를 일으켰다. 더욱이 수 마리의 산부전나비(コシジミ)는 형태도 크고 반점 무늬도 훨씬 발달하여 다른 종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실제로 돌아와서 조사해 볼 때까지도 별종(別種)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목양장 견학이 끝난 게 오후 1시쯤, 오후 2시 51분 승양발 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귀로를 서둘렀다. 거의 뛰다시피 했다.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종류의 나비들을 그냥 넘기면서 달리고 있는데, 길가에 앉아 있는 밤오색나비(シロオビコムラサキ)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이번엔 꼭 잡고 말겠다고 정신을 집중해서 휘두른 망에 많이 잡혀 한 첩의 피로회복제가 되었다. 오후 2시 51분 승양 출발, 오후 5시 15분 웅기 도착. 출구에서 중학교 시절 동창 서상진 군을 만나 그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

8월 6일(월) 비

8월 7일(화) 맑음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맑아 서둘러 힘든 난도 행을 계획. 그 지역 財津仁一 씨에게 의뢰해, 내일 이른 아침에 웅기, 서수라 간 연락선(1일 1회 왕복) 제오매환(第五梅丸)으로 웅기에서 난도에, 그리고 당일 저녁 난도에서 서수라로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다. 이처럼 난도행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남은 시간에 웅기령으로 채집에 나섰다.

8월 8일(수) 맑음

계획대로 오전 6시 30분 웅기 잔교 출발, 오전 7시 30분 난도 도착. 어젯밤

그 지역 측후소 발표에 따르면 오늘은 종일 약간 흐린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짙은 안개로 착륙도 곤란할 정도여서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오전 9시 반경부터 쾌청, 채집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등대에 짐을 내려놓고 사방 3분의 1리나 될 것 같은 섬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전반적으로 접류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가끔 눈에 띄는 것은 해풍에 저항력이 강해 보이는 작은멋쟁이나비(ヒメアカタテハ), 큰멋쟁이나비(アカタテハ), 노랑나비(モンキテフ) 등으로 그 중에서도 작은멋쟁이나비가 가장 많았다. 하루 열심히 채집해 아래 기록대로 5과 12종 53개체를 모았다.

난도 채집 나비 목록

흰나비(シロテフ)과 노랑나비(モンキテフ), 큰줄흰나비(スヂグロテフ)(melete) 여름형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봄처녀나비(ヒメヒカゲ), 흰뱀눈나비(シロジャノメ)(meridicnalis)를 포함하지 않았다)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 물결나비(ウラナミジャノメ)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흰줄표범나비(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갈구리신선나비(エルタテハ), 작은멋쟁이나비(ヒメアカタテハ), 큰멋쟁이나비(アカタテハ)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암먹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줄점팔랑나비(イチモンジセセリ)

흰나비(シロテフ)과 2,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4,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4, 부전나비(シジミテフ) 1,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1.

이상 5과 12종.

(주1) 목록 중에 갈구리신선나비(エルタテハ)는 사실, 잡지 못하고 길가에 있던 날개 조각을 주어서 판단했다.

(주2) 목록 중에 줄점팔랑나비(イチモンジセセリ)를 보면 난도에는 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논밭은 조금도 없는 곳으로 줄점팔랑나비(イチモンジセセリ)는 화본과(禾本科) 식물인 잡초를 먹는 나비일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그 정도의 노력을 난도의 건너편 서수라에서도 투입했다면 족히 500개체는 돌파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섬의 나비들에겐

특이성이 보이지 않았다. 등대지기인 山口活資 씨는 우리의 채집품을 보고, 난도에도 나비가 있었냐며 감탄할 정도였다. 지난번 기차에서 만난 생도들이 난도엔 목본(木本)이 없다고 한 것은 뭘 모르고 한 소리로, 나는 실제로 찔레나무, 나무딸기 등 목본을 확인했다. 더욱이 이 섬은 괭이갈매기의 보금자리 그 자체인 것 같아, 섬에 대한 많은 것을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외의 동물에 대해서도 견문하고 싶은 사실들이 있어, 근간에 난도 견문기 같은 것을 써서 적당한 잡지에 실을 작정이다. 오후 5시 30분, 이미 부탁해 두었던 제오매환 배가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 위에서 난도를 조망하면서 서수라로 향했다. 난도의 접류 채집은 뭔가 부족했지만, 조류 표본이 부족분을 보충해 주었다. 오후 6시 30분 서수라 도착

8월 9일(목) 맑음

어젯밤 12시 반까지 제작한 임시 박제 조류 표본을 발송하는데도, 발송을 취급하는 곳이 없던 탓에 의외로 시간을 소비했다. 오전 11시 무렵에야 겨우 근처에서 채집을 할 수 있었다. 서수라는 조선반도의 동북극단지점이며, 더욱이 우리가 채집하는 지점은 거의 소련 영토와 경계가 되는 곳이다. 이 지점의 채집품만으로 목록을 만드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서수라 채집 나비 목록

흰나비(シロテフ)과 노랑나비(モンキテフ), 기생나비(ヒメシロテフ), 풀흰나비(テウセンシロテフ),큰줄흰나비(スヂグロテフ)(melete),

큰줄흰나비(スヂグロテフ)(dulcinea), 배추흰나비(モンシロテフ)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가락지장사(テウセンジャノメ), 봄처녀나비(ヒメヒカゲ), 흰뱀눈나비(シロジャノメ)(3형), 눈많은 그늘나비(テウセンウラジャノメ),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 애물결나비(ヒメウラナミジャノメ) 1 아종, 물결나비(ウラナミジャノメ)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흰줄표범나비(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은줄표범나비(ミドリヘウモン), 암검은표범나비(メスグロヘウモン), 작은은점선표범나비(テウセンヒメヘウモン) 여름형, 만주산어리표범나비(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

별박이세줄나비(テウセンホシミスヂ), 네발나비(キタテハ) 여름형, 갈구리신선나비(エルタテハ), 작은멋쟁이나비(ヒメアカタテハ)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암먹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 귀신부전나비(カバイロシジミ), ミイケシジミ, 푸른부전나비(ルリシジミ)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두만강꼬마팔랑나비(カラフトセセリ), 수풀꼬마팔랑나비(ヘリグロチャバネセセリ),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ウスバキマダラセセリ), 수풀떠들썩팔랑나비(コキマダラセセリ), 흰점팔랑나비(チャマダラセセリ), 황알락팔랑나비 (キマダラセセリ)

흰나비(シロテフ)과 6,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7,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9,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5,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7. 이상 5과 34종 322개체.

오후 3시 30분 서수라 도보로 출발. 도중에 서포항동 부근에서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한 마리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횡단하여 날아다니고 있어 뒤를 쫓았지만 잡는데 실패했다. 아쉬움에 근처에서 버틴 결과, 약 40분 사이에 4~5 개체의 본종을 채집할 수 있어 즐거웠다.

오후 7시경, 대암동에 도착했지만 이 마을엔 숙소가 없었다. 주재소에 폐를 끼치는 방법 밖엔 없었는데, 우연히 이곳 부락구장 집에서 지방 유지인 김주협 씨를 만나 그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다.

8월 10일(금) 비

8월 11일(토) 맑은 뒤 비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심해, 도저히 예정했던 적도(赤島)엔 갈 수가 없었다. 먼 바다에 있는 난도의 수확품에 특이성이 보이지 않기에 훨씬 가까이 있는 적도엔 그만큼 무리하면서 가고픈 생각이 없었다. 오전 7시 반에 출발해 걸어서 웅기로 향했다. 도중에 채집하며 오전 11시 30분 웅기 도착.

이번 여행지가 국경인만큼 가는 곳마다 다수의 경찰관에게 명함을 뺏겨 이

미 명함이 떨어진 탓에 곧바로 명함을 주문. 이것도 국경 지방 여행자에게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

8월 12일(일) 맑은 뒤 비

오전 10시 웅기 출발 승합차를 타고 오전 11시 나진 도착. 여관에 짐을 풀고 축항을 향했다. 대초도로 가는 배는 없고 나진 이진 간 1일 2회 왕복하는 대초환(大草丸)이 대초도에 들르는 모양이다. 우리는 운 좋게 오전 11시 30분경에 축항에 도착해 마침 30분 출발이 지연된 대초환에 승선할 수 있었다. 이 대초도 채집 또한 돌발적인 것으로 우연히 생각나서 왔기 때문에 온 사실에 만족한다. 승선 한 시간, 오후 12시 30분 대초도 도착. 갑자기 비가 내리기 전까지 약 두 시간 채집했다. 그런데 대초도는 난도 몇 배나 된 큰 섬인 만큼 이하 목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꽤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다.

대초도 채집 나비 목록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산호랑나비(キアゲハ) 여름형, 호랑나비(アゲハ) 여름형

흰나비(シロテフ)과 노랑나비(モンキテフ), 배추흰나비(モンシロテフ)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가락지장사(テウセンジャノメ), 봄처녀나비(ヒメヒカゲ), 황알락그늘나비(キマダラモドキ), 흰뱀눈나비(シロジャノメ)(3형),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 물결나비(ウラナミジャノメ)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アカマダラ) 여름형, 흰줄표범나비(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왕은점표범나비(テウセンオホウラギンヘウモン), 작은은점선표범나비(テウセンヒメヘウモン) 여름형, 제이줄나비(テウセンチビヘウモン), 만주산어리표범나비(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암먹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ゴマシジミ), 푸른부전나비(ルリシジミ), 큰녹색부전나비 (オホミドリシジミ)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수풀꼬마팔랑나비(ヘリグロチャバネセセリ),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유리창떠들썩나비(ウスバキマダラセセリ), 수풀

떠들썩팔랑나비(コキマダラセセリ), 왕흰점팔랑나비(テウセンオホチャマダラセセリ)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2, 흰나비(シロテフ)과 2,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6,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6,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4,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5. 이상 6과 25종 217개체.

특히 기뻤던 것은 왕흰점팔랑나비(テウセンオホチャマダラセセリ) 2개체와 만주산어리표범나비(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 암컷 이상형(異常型)을 채집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후 4시 대초도 발, 오후 4:45 나진항 착.

8월 13일(월) 맑음

도중에 관동령에서 채집할 작정으로 아침에 두 사람 모두 도보로 길을 나서 웅기로 향했다. 얼마 못 가 장 군은 몸이 아파 채집 불능. 어쩔 수 없이 때마침 달려오는 자동차를 세워 장 군을 다음 도착지인 관곡동으로 태워 보내 놓고 나 혼자 채집을 시도했다. 채집하며 가다 보니 관곡동까지 도착, 먼저 온 장 군도 조금 회복되어 오후 12시 20분 버스로 관곡 출발, 오후 12시 40분 웅기 도착.

앞에서 말한 내 친구 중앙병원장 서상진 씨에게 장 군이 진찰을 받고, 그와 헤어진 후 용정행 표를 구입해 오후 2시 10분 웅기 출발. 지난번 웅기로 오는 중에 지형이 양호하게 보였던 송학과 황파에 하차해 채집할 생각이었다. 오후 4시 7분 송학 도착. 내린 곳이 하필 간이역이라 표는 무효처리 된다고 해 다시 승차.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했다. 오후 4시 30분 신아산 도착. 날 또한 저물어 곧바로 역 근처 언덕에서 채집했다. 그 보람이 있어 미기록종 Lycaena arcus(Tab. Ⅰ. Fig. 3 표면, Tab. Ⅱ. Fig. 3 뒷면)과 재미있는 암먹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p. 126) 2개체를 채집할 수 있었다. 오후 7시 48분 신아산 출발. 차장에게 물어보니 황파 역시 간이역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로 앞 훈융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오후 8시 52분 훈융 도착

8월 14일(화) 맑음

약 1리 떨어진 마유산에서 채집을 시도했다. 그 산정에는 나비 이외의 곤충이 밀집해 있어 풍부하게 채집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

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1 개체, 대왕나비(カバイロゴマダラ) ♀ 4개체, 대왕팔랑나비(スギタニセセリ) 1개체를 채집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은 군집을 이룬 소형 접류에게 두 사람 모두 수 차례 쏘였던 일이다. 오후 3시 25분 훈융 출발, 오후 4시 24분 풍리 도착. 걸어서 채집하면서 풍서동으로 향했다. 오후 6시 30분 풍서동 도착.

8월 15일(수) 맑음

풍서동은 조선반도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돌출되어 작은 반도를 형성, 주변은 두만강에 둘러싸였으며 면적 사방 약 1리. 서쪽으로 기울고 이름도 모르는 산이 있다. 이 산엔 나비가 풍부해 약 두 시간에 202개체를 채집할 수 있었다. 이곳은 조선극북지점인 만큼 이곳만의 채집품 목록도 의미 있을 것이다.

풍서동 채집 나비 목록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호랑나비(アゲハ) 여름형,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흰나비(シロテフ)과 기생나비(ヒメシロテフ), 배추흰나비(モンシロテフ)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가락지장사(テウセンジャノメ), 봄처녀나비(ヒメヒカゲ), 황알락그늘나비(キマダラモドキ), 흰뱀눈나비(シロジャノメ) (3형), 뱀눈그늘나비(テウセンツマジロウラジャノメ),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 물결나비(ウラナミジャノメ)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アカマダラ) 여름형, 풀표범나비(ギンボシヘウモン), 흰줄표범나비(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작은은점선표범나비(テウセンヒメヘウモン) 여름형, 제일줄나비(ナガサキイチモンジ), Malitaea dictynna ericina, 애기세줄나비(コミスヂ)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암먹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 먹부전나비(クロツバメシジミ), 백두산부전나비(ハマベシジミ), 산부전나비(コシジミ),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ゴマシジミ), ハッパシジミ, ミイケシジミ, 담흑부전나비(クロシジミ), 북방까마귀부전나비(ヒメ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암고운부전나비(テウセ

ンメスアカシジミ), 큰녹색부전나비(オホミドリシジミ)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수풀떠들썩팔랑나비(コキマダラセセリ), 왕자팔랑나비(ダイミヤウセセリ), 꽃팔랑나비(アカセセリ), 왕흰점팔랑나비(テウセンオホチャマダラセセリ)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2, 흰나비(シロテフ)과 2,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7,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7,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11,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4, 이상 6과 33종.

오전 10시 52분 풍리 발 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다시 마라톤. 이 마라톤 거리는 1리 가량 되지만 어지간히 격렬했던 모양으로 이때 쏟은 땀의 양은 여행 중 최고기록이다. 오전 10시 53분 남양 도착. 작년 백두산 등산 때 동행했던 김숙보 씨가 남양에 있다는 소식을 경원에서 들어 약간이나마 시간을 할애해 그를 방문. 그의 안내로 걸어서 도문을 건너 13시 40분 도문 출발. 15시 43분 연길 도착. 이미 만주국에 들어서기 때문에 만주 시각에 따라 기차도 움직였다. 버스로 시내로 이동해 여관에 짐을 풀었다. 도시 가까운 곳에는 산이 없고 밭들뿐이어서 채집 할 수 있는 곳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 지방의 지리, 언어, 풍습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벽지로 나서는 일도 생각해 볼 만한 일로, 연길 채집은 사양키로 했다.

8월 16일(목) 맑음

11시 25분 연길 발, 11시 50분 조양천 도착, 12시 20분 조양천 발, 12시 55분 용정 착. 여관에 도착해 지난번 우연히 기차에서 알게 되었는데 오늘 역으로 나와준 용정 은진 중학생 한위현 군과 논의. 내일 아침 2~3 명 중학생과 함께 1리 반 정도 떨어진 산에서 채집하기로 했다.

8월 17일(금) 맑음

어젯밤 내내 아픈 장 군이 걱정되었지만 아침에 기상해 보니 약간 회복한 것 같아 무리인 줄 알면서도 출발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아침에 다섯 명이 일행이 되어 채집에 나섰지만, 양호한 장소가 없었고 별다른 수확품도 얻지 못했다. 어쨌든 이때 섬 지방은 채집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안전한 철도 연선에는 전답뿐이고 채집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안심하고 걸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의미가 없지는 않아서 용정 목록을 첨부한다.

용정 채집 나비 목록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호랑나비(アゲハ) 여름형

흰나비(シロテフ)과 배추흰나비(モンシロテフ)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가락지장사(テウセンジャノメ), 봄처녀나비(ヒメヒカゲ), 흰뱀눈나비(シロジャノメ)(3형), 뱀눈그늘나비(テウセンツマジロウラジャノメ),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오색나비(ミクニコムウサギ), 긴은점표범나비(アムールウラギンヘウモン), 큰표범나비(ヘウモンテフ), 왕은점표범나비(テウセンオホウラギンヘウモン), 네발나비(キタテハ) 여름형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ツバメシジミ, 먹부전나비(クロツバメシジミ), 백두산부전나비(ハマベシジミ),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ゴマシジミ), 귀신부전나비(カバイロシジミ), 푸른부전나비(ルリシジミ), クロシジミ, 북방까마귀부전나비(ヒメ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수풀꼬마팔랑나비(ヘリグロチャバネセセリ), 왕자팔랑나비(ダイミヤウセセリ), 꽃팔랑나비(アカセセリ), 혜산진팔랑나비(ケイサンチンセセリ), 높은산세줄나비(テウセンチヤマダラセセリ)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1, 흰나비(シロテフ)과 1,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5,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5,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8,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5, 이상 6과 25종 93개체

덧붙여 후기의 나남에 사는 西元藤市 씨로부터 받은 나중(羅中) 생도의 채집품 중 용정산에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돼 있어 첨부하여 용정산 목록을 보충했다.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산제비나비(ミヤマカラスアゲハ) 여름형, 1932, vii, 31.

흰나비(シロテフ)과 노랑나비(モンキテフ)1932. viii, 9. 풀흰나비(テウセンシロテフ) 1931. viii. 1.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작은표범나비(シベリアコヘウモン) 1923. viii. 19. 암검은표범나비(メスグロヘウモン) 1932, viii, 5. 제이줄나비(テウセンチビヘウモン) 1932, viii, 9. 제일줄나비(ナガサキイチモンジ) 1932, viii, 10. 왕세줄나비(オホミスヂ) 1932, viii, 2. ? 쐐기풀나비 ? (テフセンコヒヲドシ) 1932, viii, 1.

이 목록과 앞의 목록을 합하면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2, 흰나비(シロテフ)과 3,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5,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11,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8,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5, 도합 6과 34종이 된다.

오후 1시 35분 용정 출발, 오후 2시 57분 상삼봉 도착, 오후 5시 43분 상삼봉 출발, 오후 9시 4분 나남 도착. 애당초 나남에 온 것은 경원의 桂學 씨의 표본이 이곳 향토관에 진열되어 西元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밤 10시가 넘어 선배인 西元 씨를 방문했다. 그 또한 그간 채집 여행을 다니다 오늘 저녁에 막 돌아왔다고 했다. 경원의 학교에서 그에게 보낸 엽서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상담, 내일 아침 7시에 향토관에서 만나기로 하고 돌아왔다.

8월 18일(토) 맑은 뒤 흐림

오전 7시 향토관에 가서 약 1시간 반 가량 桂榮 씨가 채집한 표본을 견학하고 난 후, 西元씨의 안내를 받으며 나남중학 박물교실로 가서 표본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학생들의 채집품 중 접류 대부분을 받았다. 돌아온 후 그 표본을 정리했는데 나남산만 6과 104종이었다. 미기록종도 포함된 매우 뜻있는 목록이 작성되어, 그와 공저로 발표하기로 했다. 나남산 이외의 지방과 앞에 기술한 용정산 외 다른 곳에서 채집한 흥미로운 개체 몇 개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Parnassius bremrei ccnjuncta Staudinger 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붉은점모시나비

   경원, 1933, viii, 2, 25. 회령 1932, vii, 25.
2. Eurema hecabe Linné f. aest. キテフ 남방노랑나비 여름형

경원 1932, viii, 15. 이것이 지리적으로 북방한계선일 것이다.

3. Midea scclymus Butler ツマキテフ　　갈구리나비

경원 1933, viii, 11. 이것이 8월에 채집되어 신기했다.

4. Argynnis zenobia penolop Staudinger ヤマミドリヘウモン 산은줄표범나비 (Tab, 18, Fig, 4, 표면, Tab, 19, fig, 4, 이면)

성진 1934, viii. 10. 이것은 일본에서 최초의 암컷이며 유일한 1개체이기도 하다.

오후 5시 46분 나남 출발, 오후 6시 27분 주을 도착. 오후 7시에 다시 버스를 타고 온보에 도착하다.

8월 19일(일) 맑음

오전 9시쯤, 온보에서 5~6정(町)이나 되는 벽촌에 사는 유명한 인시류 채집가 Alexander M. Yankovsky 씨를 방문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그가 고안한 시설 및 연구하는 모습을 봄.

오전 11시 반 경, 도보로 온보를 출발 주을역으로 향하다. 일행인 장 군이 작년에 채집했던 거의 같은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가네다 온천 바로 앞 산에서 진귀종 주을푸른부전나비(カウライルリシジミ)를 약 20개체나 채집했다. 작년 장 군이 채집할 땐 5~50개체 중 암컷은 겨우 3개체뿐이었는데, 이번엔 암컷에 유의한 까닭인지 아니면 시기가 보다 가까워진 탓이었는지 채집품의 암수 비율이 약 반반이었다. 본종은 무척 진귀한 것으로 나는 아직도 이 지점 이외의 지방에서 잡은 본종의 표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후 9시 35분 주을 출발.

8월 20일(월) 맑은 뒤 흐림

오전 7시 19분 원산 도착. 송수원에선 중학교 동창 박취운 군, 명사십리에선 Snyder 씨와 만나 하루를 유쾌하게 지냈다. 오후 10시 43분 갈마 출발

8월 21일(화) 흐림

오전 6시 35분 경성 도착, 오전 11시 23분 경성 출발, 오후 1시 4분 개성 도착

위 기록에서처럼 우리들은 7월 20일 출발해 8월 21일, 정확히 33일째에 돌

아왔다. 25일 예정이 33일로 연장된 것은 전적으로 비 날씨 탓이며, 그로 인해 계획했던 지방을 모두 걷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두 사람 모두 몸이 아파 고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튼 탈 없이, 연일 계속된 비에도 굴하지 않고 이하 목록처럼 6과 121종 3,837개체를 채집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좋은 성적이라 할 만하다. 작년의 예를 생각해서 포장용지는 7,000장씩이나 갖고 갔지만 수확품은 그때의 반을 약간 넘겼다. 내가 생각해도 작년의 백두산 채집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좋은 성적이었던 것 같다.

채집품 총목록

Ⅰ.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1 Papilio binaor, f. aest カラスアゲハ 제비나비 여름형
viii, 7. 웅기

2 Papilio machacn Linné, f. aest キアゲハ 산호랑나비 여름형
vii. 25. 상삼봉 31. 남양, viii.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12. 대초도 13. 나진 15. 훈융

3. Papilio xuthus Linné, f. aest アゲハ 호랑나비 여름형
vii. 21. 22. 24 중도동 26. 종성 viii. 7. 웅기 12. 대초동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4. Parnassius nomion Fischer 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왕붉은점모시나비
vii. 23. 오국성지, viii. 3. 4. 경원 9. 서포항동 14. 훈융 15. 풍서동

5. Sercionus telamon telamon Donovan, f. aest ホソヲテフ 꼬리명주나비
vii. 22. 중도동 viii. 5. 금월동

6. Apcria crataegi Linné エゾシロテフ 상제나비
vii. 22. 24. 중도동 23. 회령 24. 세계봉 25. 상삼봉

7. Colias aurora Esper ベニモンキテフ 연주노랑나비
vii. 22. 중도동 23. 오국성지 26. 종성 vii. 3, 4. 경원

8. Colias hyale Linné モンキテフ 노랑나비
vii. 22. 회령 22,24. 중도동 25. 상삼봉 26. 종성, viii. 2. 은성 3. 경원

8. 난도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19. 주을

9. Gonepteryx sapasia Ménétrès テウセンスヂボソヤマキテフ 각시멧노랑나비

vii. 22. 중도동 26. 종성,

10. Gonepteryx rhamni amurensis Graeser アムールヤマキテフ 멧노랑나비

vii. 22. 중도동 23. 오국성지 25. 상삼봉 26. 종성 viii. 3,4. 경원 14. 훈융

11. Leptidia amurensis Ménétrès ヒメシロテフ 기생나비

vii. 23. 오국성지 26. 종성 28. 동관, viii. 5. 3,4. 경원 9. 서수라, 서포항동 11. 웅상동 14. 훈융, 풍리 15. 풍서동 19. 주을

12. Leptidia sinapis Linné エゾヒメシロテフ 북방기생나비

vii. 21. 무산령 22, 24. 중도동 23. 회령 26. 종성, viii. 13. 나진 14. 훈융

13. Leucochos daplidice Linné テウセンシロテフ 풀흰나비

vii. 22. 회령 26. 종성 viii. 9. 서수라 13. 나진

14. Pieris canidia canidia Sparmann タイワンモンシロテフ 대만흰나비

vii. 21. 무산령, viii. 19. 주을

15. Pieris melete dulcinea Butler スヂグロテフ 큰줄흰나비

vii. 22, 23. 회령 23. 오국성지 26. 종성, viii. 9. 서수라 14. 훈융

16. Pieris melete melete Ménétrès スヂグロテフ 큰줄흰나비 여름형

vii. 25 상삼봉 26. 종성, viii. 3.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14. 훈융

17. Pieris rapae Linné モンシロテフ 배추흰나비

vii. 22, 24 중도동 22, 23. 회령 23. 오국성지 25 상삼봉 26. 종성, viii. 2. 은성 3. 경원 7. 웅기 9. 서수라 12. 대초도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19. 주을

Ⅱ. Satyridae 뱀눈나비과

18. Aphantcpus hyperantus ocellatus Butler テウセンジャノメ 가락지장사

vii. 21. 무산령 23. 회령, 오국성지 24. 중주동 25. 상삼붕 26. 종성 28. 동관, viii. 2. 종성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서포항동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풍리 15. 풍서동 17. 용정 19. 주을

19. Coenonympha cedippus amurensis Rühl ヒメヒカゲ 봄처녀나비

vii. 21, 22. 중도동 22, 23. 회령 23. 오국성지 24. 세계봉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신아산 14. 훈융, 풍리 15. 풍서동 17. 용정

20. Lethe epimenides Ménétrès キマダラモドキ 황알락그늘나비

vii. 26. 종성, viii. 8,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15. 풍서동 19. 주을

21. Melanargia halimede Ménétrès シロジャノメ 흰뱀눈나비

f. ganymedes Rübl-Heyne

vii. 22. 중도동 23. 회령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viii. 2. 은성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19. 주을

f. coreana okamoto

vii. 21. 무산령 21, 24. 중도동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서포항동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vii. 21. 무산령 21, 22, 24. 중추동 23. 회령, 오국성지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3.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풍리 15. 풍서동 17. 용정

22. Pararage achine chosensis Matsumura テウセンウラジャノメ 눈많은 그늘나비

vii. 21. 무산령 21, 24. 중도동 26. 종성 28. 동관, viii. 9. 서수라

23. Pararage deidamia erebina Butler テウセンツマジロウラジャノメ 뱀눈그늘나비

viii. 11. 웅상동 13. 신아산. 15. 풍서동 17. 용정

24. Satyrus dryas bipunctatus Motschulsky ジャノメテフ 굴뚝나비

vii. 21. 무산령 21, 24. 중도동 23. 오국성지 24. 세계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2. 은성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

라, 서포항동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신아산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25. Ypthima argus Butler, ? ヒメウラナミジャノメ 애물결나비

Vii. 24. 중도동, viii. 9. 서수라

26. Ypthima mctsehulskyi Bremer et Grey ウラナミジャノメ 물결나비

vii. 23. 오국성지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viii. 2. 은성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서포항동 12. 대초도 13. 신아산 14. 훈융 15. 풍서동 19. 주을

Ⅲ. Nymphalidae 네발나비과

27. Apatura ilia mikuni Wilemen ミクニコムラサキ 오색나비

viii. 17. 용정

28. Apatura ilia substitute Butler コムラサキ 오색나비

vii. 21. 무산령 22. 중도동 23. 오국성지, viii. 2. 은성 5. 금월동 14. 풍리

29. Apatura ilia clylie Schiffmüller ガイマコムラサキ 오색나비

vii. 24. 중도동

30. Apatura iris amurensis Stichel テウセンコムラサキ 번개오색나비

vii. 21. 무산령 26. 종성, vii. 4. 경원 5. 금월동

31. Apatura nycteis Ménétrès シロヲビコムワサキ 밤오색나비

vii. 24. 중도동 26. 종군, viii. 5. 금월동

32. Apatura schrenckii Ménétrès シロモンコムワサキ 은판대기

vii. 22, 24. 중도동, viii. 3. 경원

33. Argynnis levana Linné, f. aest アカマダラ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 여름형

vii. 24. 중도동, viii. 5. 금월동 7. 웅기 12. 대초도 14. 풍리 15. 풍서동 19. 주을

34. Argynnis adippe ccredippe Leech テウセンウラギンヘウモン ?조선황은점표범나비?

vii. 21. 무산령 22. 중도동 23. 오국성지 28. 동관, viii. 4. 경원 7. 웅기 13. 나진 14. 훈융

35. Argynnis adippe pallescens Butler ウラギンヘウモン 황은점표범나비
vii. 23. 오국성지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viii. 2. 은성 3, 4. 경원 7. 웅기 14. 훈융
36. Argynnis adippe vorax Butler アムールウラギンヘウモン 긴은점표범나비
vii. 24. 세계봉 26. 종성, viii. 3. 경원 14. 훈융 17. 용정 19. 주을
37. Argynnis aglaia fcrtuna Janson ギンボシヘウモン 풀표범나비
vii.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4. 경원 7. 웅기 14. 훈융 15. 풍서동
38. Argynnis anadiomene Felder クモガタヘウモン 구름표범나비
vii. 22. 중도동
39. Argynnis dapline Schiffmüller ヘウモンテフ 큰표범나비
vii. 21. 무산령 22, 24. 중도동 23. 오국성지 25. 상삼봉, viii. 3, 4. 경원 7. 웅기 13. 나진 14. 훈융 17. 용정
40. Argynnis ino sibirica Staudinger シベリアコヘウモン 작은표범나비
vii. 21. 무산령 22. 회령 23. 오국성지 24. 중도동, viii. 3. 경원 5. 금월동 7. 웅기 13. 나진
41. Argynnislaodice Pallas 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흰줄표범나비
vii. 24. 중도동, viii.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15. 풍서리
42. Argynnis nerippe coreana Butler テウセンオホウラギンヘウモン 왕은점표범나비
viii. 12. 대초도 13. 나진 17. 용정
43. Argynnis paphia paphicides Butler ミドリヘウモン 은줄표범나비
vii. 23. 오국성지 26. 종성, viii. 7. 웅기 9. 서수라 14. 훈융
44. Argynnis ruslana Moteschulsky オホ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큰흰줄표범나비
vii. 7. 웅기 13. 나진
45. Argynnis sagana Doubleday メスグロヘウモン 암검은표범나비
vii. 9. 서수라
46. Argynnis selene Schiffmüller, f. aest. テウセンヒメヘウモン 작은은점선표범나비

vii. 25. 상삼봉, viii. 3, 4. 경원 9. 서수라 12. 대초도 12. 나진 15. 풍서동

47. Argynnis selene chosensis Matsumura テウセンチビヘウモン 제이줄나비

vii. 22. 중도동 25. 상삼봉 26. 종성, viii. 4. 경원 7. 웅기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19. 주을

48. Limenitis camiiia japonica Ménétrès イチモンジテフ 줄나비

vii. 22. 중도동, viii. 7. 웅기

49. Limenitis helmanni Lederer ナガサキイチモンジ 제일줄나비

vii. 21. 무산령 22, 24. 중도동 28. 동관, viii.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13. 나진 14. 훈융 15. 풍서동 19. 주을

50. Limenitis sydyi Lederer ヒロイチモンジ 굵은줄나비

vii. 23. 오국성지 26. 종성

51. Melitaea athalia mehadiensis Gerhard コヘウモンモドキ ?여름어리표범나비?

vii. 22. 중도동, viii.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52. Melitaea athalia niphona Butler コヘウモンモドキ 여름어리표범나비

vii. 21. 무산령 24. 중도동, viii. 5. 금월동

53. Melitaea aurinia mandschurica Staudinger テウセンヘウモンモドキ 금빛어리표범나비

viii. 3. 경원

54. Melitaea dictynna ericina Staudinger (미기록종)

vii. 22. 중도동 23. 오국성지 28. 동관, viii. 4. 경원 5. 금월동 14. 훈융 15. 풍서동

55. Melitaea didyma mandschurica Seitz 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 만주산어리표범나비

vii. 22, 24. 중도동 23. 오국성지 24. 세계봉 25. 상삼봉 26. 종성, viii. 7. 웅기 9. 서수라 12. 대초도

56. Melitaea phoebe scotosia Butler ヘウモンモドキ 암암어리표범나비

vii. 14. 풍리

57. Melitaea snyderi Seok スナイダーヘウモンモドキ 스나이더어리표범나비

viii. 3. 경원

58. Neptis alwina Bremer et Grey オホミスヂ 왕세줄나비

vii. 22. 중도동, 회령 24. 세계봉 25. 상삼봉 26. 종성 31. 남야, viii. 14. 풍리 19. 주을

59. Neptis coenobita koreana Seok テウセンフタスヂテフ ?조선두줄나비?

vii. 22. 중도동 23. 오국성지 26. 종성

60. Neptis hylas intermedia Pryer コミスヂ 애기세줄나비

vii. 22, 24. 중도동, viii. 14. 훈융 15. 풍서동

61. Neptis philyroides Staudinger テウセンミスヂ 조선세줄나비

vii. 21. 무산령 24. 중도동

62. Neptis pryeri ccreana Nakahara et Esaki テウセンホシミスヂ 별박이세줄나비

vii. 22, 24. 중도동 26. 종성, viii. 9. 아수라 14. 훈융, 풍리 19. 주을

63. Neptis pryeri pryeri Butler ホシミスヂ 별박이세줄나비

viii. 19. 주을

64. Neptis speyeri Staudinger スパイヤミスヂ 높은산세줄나비

vii. 22. 중도동

65. Neptis thisbe thisbe Ménétrès オホキミスヂ 황세줄나비

vii. 26. 종성

66. Polyonia c-album Linné シーサテハ 산네발나비

f. aest. 여름형

vii. 23. 회령, 오국성지 26. 종성, viii. 4. 경원 14. 훈융, 풍리

f. autum. 가을형

viii. 4. 경원 14. 풍리

67. Pclycnia c-aureum Linné キタテハ 네발나비

f. aest. 여름형

viii. 9. 서수라 14. 풍리 17. 용정 19. 주을

f. autum. 가을형

viii. 19. 주을

68. Pclycnia l- aibum scmurai Fruhstorfer エルタテハ 갈구리신선나비

vii. 22. 중도동 25. 상삼봉 26. 종성, viii. 3, 4. 경원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69. Pyrameis cardui Linné ヒメアカタテハ 작은멋쟁이나비

vii. 22. 회령, viii.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서포항동 11. 웅상동 19. 주을

70. Pyrameis indica indica Herbst アカタテハ 큰멋쟁이나비

vii. 28. 동관, viii. 3. 경원 5. 금월동 8. 난도 9. 서포항동 11. 웅상동

71. Sephisa dichrca princeps Fixsen カバイロゴマダラ 대왕나비

vii. 23. 오국성지 24. 중도동 26. 종성, viii. 14. 훈융

72. Vanessa io geisha Stichel クジャクテフ 공작나비

viii. 4. 경원 7. 웅기

73. Vanessa urticae urticae Linné テウセンコヒヲドシ?조선쐐기풀?

vii. 21. 무산령 23. 오국성지 24. 중도동, viii.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74. Vanessa xanthomelas japonica Stichel ヒヲドシテフ 들신선나비

vii. 21. 무산령

Lycaenidae

75. Chrysophanus dispar auratus Leech テウセンベニシジミ 큰주홍부전나비

viii. 3. 경원 5. 금월동

76. Everes argides amurensis Rühl-Heyne ツバメシジミ 암먹부전나비

vii. 21, 22, 24. 중도동 22, 23. 회령 23. 오국성지 24. 세계봉.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2. 은성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8. 난도 9. 서수라, 서포항동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신아산 14. 훈융, 풍리 15. 풍서동 17. 용정 19. 주을

77. Everes fischeri Eversmann クロツバメシジミ 먹부전나비

vii. 22, 24. 중도동 23. 회령 24. 세계봉.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2. 은성 5. 금월동 11. 웅상동 12. 대초도 13.신아산 14. 훈융, 풍리 15. 풍서동 17. 용정 19. 주을

78. Lycaena arcas Rottemburg 미기록종 コゴマシジミ(신명칭) (Tab. 18, fig. 3, 표면, Tab. 19, fig. 3, 이면) viii. 13. 신아산

79. Lycaena argus insularis Leech シジミテフ 부전나비

vii. 24. 중도동 25. 상삼봉 26. 종성 31. 남양, viii. 3. 경원 19. 주을

80. Lycaena arion ussuriensis Sheljuzhko ガウザンゴマシジミ 고운점박이푸

른부전나비

vii. 21. 무산령 23. 회령, 오국성지 24. 중도동 25. 상삼봉 26. 종성, viii. 3. 경원 14. 훈융

81. Lycaena aricnides Staudinger オホゴマシジミ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i. 7. 웅기 13. 나진 14. 훈융

82. Lycaena astrarche allcus Hübner ハマベシジミ 백두산부전나비

viii. 5. 금월동 15. 풍서동 17. 용정

83. Lycaena chinensis chinensis Murray アカオビシジミ 작은주홍부전나비

vii. 22. 회령

84. Lycaena clebis Bremer コシジミ 산부전나비

vii. 21, 22, 24. 중도동 23. 회령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viii. 3. 경원 5. 금월동 13. 나진 15. 풍서동

85. Lycaena eros boisduvalii Herrich-Schäffer テウセンルリシジミ 사랑부전나비

vii. 31, 남양

86. Lycaena euphemus Hübner ゴマシジミ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 22. 중도동, 회령 26. 종성, viii.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신아산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87. Lycaena happensis Matsumura ハッパシジミ

vii. 21. 무산령 24. 중도동, viii. 2. 은성 3,4. 경원 15. 풍서동

88. Lycaena lycoymas Butler カバイロシジミ 귀신부전나비

vii. 21, 22. 중도동 25. 종성, viii. 5. 금월동 9. 서수라 11. 웅상동 17. 용정

89. Lycaena crica Pallas ヂャウザンシジミ 작은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vii. 22. 중도동 26. 종성, viii. 4. 경원

90. Lycaena putealis Matsumura ミイケシジミ

vii. 25. 상삼봉 26. 종성, viii. 3, 4. 경원 9. 서수라 15. 풍서동

91. Lycaencpsis argiclus Linné ルリシジミ 푸른부전나비

vii. 21. 무산령 22, 24. 중도동 23. 회령 24. 세계봉 25. 상상봉 26. 종성 31. 남양, viii. 3. 경원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4. 훈융 17. 용정 19. 주을

92. Lycaencpsis levetti Butler カウライルリシジミ 주을푸른부전나비

viii. 19. 주을

93.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クロシジミ

Vii. 21. 무산령 21, 24. 중도동 23. 오국성지 24. 세계봉 25. 상상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3. 경원 7. 웅기 9. 서수라 11. 웅상동 13. 나진, 신아산 15. 풍서동 17. 용정 19. 주을

94. Thecla eximia Fixsen テウセン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조선까마귀부전나비

vii. 25. 상삼봉, viii. 13. 신아산 19. 주을

95. Thecla spini Schiffermüller ヒメ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북방까마귀부전나비

vii. 22, 24. 중도동 23. 오국성지 24. 세계봉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viii.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96. Thecla prunoides Staudinger リンゴシジミ 꼬마까마귀부전나비

vii. 23. 오국성지 26. 종성 31. 남양

97. Zephyrus aino Matsumura アイノミドリシジミ 북방녹색부전나비

vii. 22, 24. 중도동 26. 종성

98. Zephyrus attilia Btemer ミヅイロヲナガシジミ 물빛긴꼬리부전나비

vii. 21. 중도동 26. 종성

99. Zephyrus betulae coreana Nire テウセンメスアカシジミ 암고운부전나비

vii. 25. 상삼봉, viii. 4. 경원 15. 풍서동

100. Zephyrus jozanus Matsumura ヂャウザンミドリシジミ 금강석녹색부전나비

vii. 24. 중도동 26. 종성 31. 남양, viii. 7. 웅기

101. Zephyrus orientalis Murray オホミドリシジミ 큰녹색부전나비

vii. 25. 상삼봉 26. 종성 31. 남양, viii. 7. 웅기 12. 대초도 15. 풍서동 19. 주을

102. Zephyrus saepestriata Hewitson ウラナミアカシジミ 시가도귤빛부전나비

viii. 4. 경원

Ⅳ. Hesperiidae 팔랑나비과

103. Adopaea lineal Ochsenheimer カラフトセセリ 두만강꼬마팔랑나비

vii. 23. 오국성지, viii. 3, 4. 경원 9. 서수라, 서포항동 13. 나진

104. Adopaea sylvatica Bremer ヘリグロチヤバネセセリ 수풀꼬마팔랑나비
vii. 26. 종성, viii.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서포항동 11. 웅상동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17. 용정 19. 주을

105. Aermachus inachus Ménétrès ホシチヤバネセセリ 파리팔랑나비
vii. 21. 무산령 21, 22. 중도동 23. 오국성지 25. 상삼봉 26. 종성, viii.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12. 대초도 13. 나진, 신아산 14. 훈융

106. Augiades subhyalina Bremer et Grey ウスバキマダラセセリ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vii. 21. 무산령 22, 24. 중도동, viii.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11. 웅상동 12. 대초도 14. 훈융

107. Augiades sylvanus selas Mabille コキマダラセセリ 수풀떠들썩팔랑나비
vii. 21. 무산령, 중도동 23. 회령, 오국성지 24. 세계봉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viii. 2. 은성 3, 4. 경원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12. 대초도 13. 나진 14. 훈융 15. 풍서동

108. Augiades sylvanaus venata Bremer et Grey クロコキマダラセセリ 수풀떠들썩팔랑(검은형)
vii. 22. 중도동 26. 종성

109. Daimio tethys Ménétrès ダイミヤウセセリ 왕자팔랑나비
vii. 21 무산령, viii.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19. 주을

110. Erynnis ccmma Linné アムールアカセセリ 은점박이꽃팔랑나비
vii. 11. 웅상동 13. 나진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111. Erynnis ccmma Linné, ab. アムールアカセセリ 은점박이꽃팔랑나비
viii. 5. 금월동

112. Hesperia gigas minor Mabille テウセンオホチャマダラセセリ 왕흰점팔랑나비
viii. 3. 금월동 7. 웅기 12. 대초도 14. 훈융

113. Hesperia hesanzina Seok ケイサンチンセセリ 혜산진팔랑나비
vii. 36. 종성 17. 용정촌

114. Hesperia orbifer Hübner シラボシチャマダラセセリ 함경흰점팔랑나비
vii. 25. 상삼봉

115. Hesperia speryeri Staudinger テウセンチャマダラセセリ 높은산세줄나비
viii. 13. 신아산 14. 훈융 15. 풍서동 17. 용정

116. Hesperia zona Mabille チャマダラセセリ 흰점팔랑나비
vii. 23. 회령 25. 상삼봉 26. 종성 28. 동관 31. 남양, viii. 3, 4. 경원 5. 금월동 9. 서수라 11. 웅상동 13. 신아산 19. 주을

117. Hetorcpterus Morpheus Pallas テウセンキボシセセリ 돈무늬팔랑나비
viii. 3, 4. 경원, 금월동 7. 웅기 14. 훈융

118. Padraona dara flava Murray キマダラセセリ 황알락팔랑나비
viii. 5. 금월동 7. 웅기 9. 서수라

119. Parnara guttata Bremer イチモンジセセリ 줄점팔랑나비
viii. 8. 난도 14. 훈융

120. Parnara pellucid Murray オホチャバネセセリ (ハナセセリ) 직작줄점팔랑나비
viii. 7. 웅기 13. 나진 14. 훈융, 풍리

121. Satarupa nymphalis sugitanii Matsumura スギタニセセリ 대왕팔랑나비
viii. 14. 훈융

Papilionidae	5
Pieridae	12
Satyridae	9
Nymphalidae	48
Lycaenidae	28
Hesperiidae	19

6과 121종

부기 1. 편의를 위해 봉접과(鳳蝶科, 호랑나비과)부터 시작해 농접과(撈蝶科, 팔랑나비과)로 써내려갔으며, 각 과에 포함되는 종은 그 학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했다.

1. 월일(月日) 중, 로마 숫자는 월을, 아라비아 숫자는 일을 나타내도록 했다.

(1934년 10월 31일 개성에서)

조선동북지방산 접류채집기록(제9도판)

석 주 명(안행순 번역)
朝比奈正二郎(아사히나 쇼지로)

[A list of butterflies collected in north-eastern Corea.
By D. M. Seok and S. Asahina]

필자의 한 사람인 아사히나 쇼지로(朝比奈正二郎)는 아사히나 에이조(朝比奈英三)와 함께 1934년 여름, 약 2주 동안 조선북부 각지를 여행했다. 당시 접류를 조금 채집했다. 이들 표본은 아사히나가 보존하고 있지만 필자의 또 한 사람인 석주명과 함께 이것을 동정(同定)하여 109종을 확인했다. 특별히 진귀한 종류는 없지만, 이하 이들 종류의 명칭과 채집지를 기록하는 바, 이 지역의 나비상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채집여행의 행정(行程)을 표기한다. (지도참조)

Ⅰ 금강산

Ⅶ. 27. 경성-내금강(500m.)[11] - 마하연(880m.)
28. 마하연 – 내무재령(1275m.) – 일출봉(1552m.) – 월출봉(1530m.) – 비로봉(1638m.) – 구미산장(1500m.)
29. 구미산장(1500m) – 구룡연(600m.) – 온정리(50m.)

11) 숫자는 해발고도를 나타냄

Ⅱ. 부전령부근

30. 온정리 - 원산 - 함흥

31. 함흥 - 송흥(400m.)

Ⅷ. 1. 송흥(400m.) - 백암산(1530m.) - 함지원(1290m.)

2. 함지원부근(1270m. - 1500m.)

3. 함지원 - 송흥(400m.) - 함흥 - 북청

Ⅲ. 북청, 혜산진 도로

4. 북청 - 후상령(1335m.) - 풍산 - 응덕령(1546m) - 갑산 - 혜산진

10. 4일의 역코스

p. 156

採集行程略圖

지도

Ⅳ 압록강 상류

5. 혜산진 - 보천보(650m.) - 보천보부근(1050m)

6. 보천보(650m.) - 대진평(900m.)

7. 대진평(900m.) - 대평(1000m.) - 대평부근(1270m.)

8. 대평(1000m.) - 대진평(900m.) - 대진평부근(1250m.)

9. 대진평(900m.) - 보천보(650m.) - 혜산진

여름철 조선의 채집이 자주 그렇듯이 이 여행도 비 날씨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도쿄를 출발한 것은 7월 20일 밤이었으나 조선내의 철도 불통으로 인해 경성에 도착한 것은 7월 25일 오후가 되어서였다. 금강산에서도 거의 비 날씨였고, 부전령 부근의 채집도 송흥 이외, 즉 개마대지에서는 거의 비였다. 압록강 상류지방의 채집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졌지만 이미 시기가 늦어진 탓에 신선한 개체는 아주 적었다.

채집품 목록

Ⅰ.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1. Papilio machaon Linné キアゲハ (산호랑나비)
   대진평(7. viii).
2. Papilio maackii Ménétriés f. aest. ミヤマカラスアゲハ夏型 (산제비나비)
   송흥(31. vii), 보천보(6. viii).
3. Papilio bianor Cramer カラスアゲハ (제비나비)
   송흥(3. viii).
4. Parnassius nomion Fisher 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왕붉은점모시나비)
   백암산(2. viii), 후상령(4. viii), 보천보(5.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Ⅱ. Pieridae 흰나비과

5. Leptidia sinapis Linné エゾヒメシロテフ (북방기생나비)
   후상령 · 응덕령(4. viii), 보천보(5.6. viii), 대진평(7. 9. viii), 대평(8. viii).
6. Aporia crataegi Linné エゾシロテフ (상제나비)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7. Pieris canidia Sparrman タイワンモンシロテフ (대만흰나비)
   금강산(27. vii).
8. Pieris rapae Linné モンシロテフ (배추흰나비)
   금강산(27. vii), 송흥(31. vii), 보천보 · 혜산진(5. viii).
9. Pieris napi Linné スヂグロテフ (줄흰나비)
   f. aest. 금강산(27. vii).
   f. dulcinea Bulter 후상령(4. viii), 대진평(7. 9. viii), 대평(8. viii).
10. Pontia daplidice Linné テウセンシロテフ (풀흰나비)
    대진평(7. 9. viii).
11. Gonepteryx mahaguru Aspasia Ménétriès, f.aest.(각시멧노랑나비)
    マキテフ 夏型

금강산(28. vii).

12. Colias palaeno Linné ミヤマモンキテフ (높은산노랑나비)

함지원(2. viii), 후상령(4. viii).

13. Colias hyale Linné モンキテフ (노랑나비)

원산(30. vii), 후상령(4. viii), 혜산진 ·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14. Colias aurora Esper ベニモンキテフ (연주노랑나비)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viii).

Ⅲ. Satyridae 뱀눈나비과

15. Ypthima baldus Fabricius ヒメウラナミジヤノメ (애물결나비)

금강산(27. 28. vii).

16. Ypthima motschulskyi Bremer et Grey ウラナミジャノメ (물결나비)

송흥(3. viii).

17. Erebia ligea Linné クモマベニヒカゲ (높은산지옥나비)

함지원(2. viii)

18. Erebia neriene Röber ベニヒカゲ (산지옥나비)

함지원(2. viii), 백암산(3. viii), 응덕령(4. viii),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19. Satyrus halimede Ménétriès シロジャノメ (흰뱀눈나비)

금강산(27. 28. 29. v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20. Eumenis dryas Scopoli ジャノメテフ (굴뚝나비)

함지원(2. viii), 송흥(3. vi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21. Pararge deidamia deidamia Eversmann テウセンツマジロウラジャノメ 뱀눈그늘나비

함지원(2. viii), 대진평(7. viii), 응덕령(10. viii).

22. Pararge achine Scopoli ウラジャノメ (눈많은그늘나비)

금강산 (28. 29. vii), 송흥(31. vii), 함지원(2. viii), 보천보(5. viii), 대

진평(7. viii).

23. Aphantopus hyprantus ocellatus Butler ミヤマジャノメ(가락지장사)
함지원(2. viii), 백암산(3. viii), 응덕령(4. viii), 보천보(5.6. viii).

24. Lethe epimenides Ménétriès キマダラモドキ (황알락그늘나비)
금강산(28. 29. v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8. viii).

25.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ヒメヒカゲ (봄처녀나비)
보천보(5. viii).

26. Coenonympha amaryllis Cramer キイロヒメヒカゲ (시골처녀나비)
후상령(4. viii).

p. 159

Ⅳ. Nymphalidae 네발나비과

27. Melitaea athalia Rottemburg コヘウモンモドキ (여름어리표범나비)
후상령(4. viii),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28. Melitaea didynna erycinides Staudinger ギンボシヘウモンモドキ (은점어리표범나비)
대평(8. viii).

29. Melitaea didyma didyma Ochsenheimer ヒメ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산어리표범나비)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30. Argynnis miyakei Matsumura ミヤケヘウモン (ハクトウヘウモン) 백두산표범나비
함지원(2. viii),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31. Argynnis selene Schiffermüller テウセンヒメヘウモン (작은은점선표범나비)
금강산(27. vii), 대진평(6. 9. viii).

32. Argynnis selenis Eversmann チビヘウモン (꼬마표범나비)
송흥(3. viii), 보천보(5. 6. viii), 대평(8. 9 .viii).

33. Argynnis ino Rottemburg コヘウモン (작은표범나비)

함지원(2. viii),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9. viii), 대평(8. viii).

34. Argynnis daphne Schiffermüller ヘウモンテフ (큰표범나비)

보천보(5. viii).

35. Argynnis aglaia Linné ギンボシヘウモン (풀표범나비)

보천보(5. viii).

36. Argynnis adippe Linné ウラギンヘウモン (황은점표범나비)

금강산(27. 28. 29. viii).

37. Argynnis vorax Butler アムールウラギンヘウモン (긴은점표범나비)

금강산(29. vii), 보천보(5. viii).

38. Argynnis laodice Pallas 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흰줄표범나비)

후상령 • 응덕령(4. viii).

39. Argynnis ruslana Motschulsky オホ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큰흰줄표범나비)

금강산(29. vii).

40. Argynnis sagana Doubleday メスグロヘウモン (암검은표범나비)

대진평(7. viii)

41. Argynnis anadyomene Felder クモガタヘウモン (구름표범나비)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42. Argynnis paphia Linné ミドリヘウモン (은줄표범나비)

금강산(29. v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6. viii), 대평(8. viii), 대진평(9. viii).

43. Argynnis zenobia penelope Staudinger ヤマミドリヘウモン (산은줄표범나비)

대진평(9. viii), 1 ♀(Pl. 9, Figs. 6, 12).

44. Nymphalis io Linné クジャクテフ (공작나비)

보천보(5. viii).

45. Nymphalis antiopa Linné キベリタテハ (신선나비)

후상령(4. viii), 보천보(5. viii).

46. Aglais urticae Linné コヒオドシ (쐐기풀나비)

보천보(5. viii), 대평(8. viii), 대진평(9. viii).

47. Polygonia l-album samurai Fruhstorfer エルタテハ (갈구리신선나비)
대평(8. viii).
48. Polygonia c-album Linné シータテハ (산네발나비)
후상령(4. viii), 혜산진(5. viii), 보천보(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49. Polygonia c-aureum Linné キタテハ (네발나비)
동성(26. vii), 보천보(6. viii).
50. Vanessa cardui Linné ヒメアカタテハ (작은멋쟁이나비)
보천보(5. viii).
51. Araschnia levana Linné, f. aest アカマダラ夏型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 여름형
금강산(27. vii), 송흥(31. vii), 후상령(4. viii), 보천보(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52. Neptis coenobita Stoll フタスヂテフ (두줄나비)
함지원(2. viii), 송흥(3. viii),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viii).
53. Neptis pryeri Butler ホシミスヂ (별박이세줄나비)
금강산(27. 28. vii), 보천보(6. viii), 대진평(7. viii).
54. Neptis philyra Ménétriès ミスヂテフ (세줄나비)
금강산(28. vii), 송흥(31. vii).
55. Neptis alwina Bremer et Grey オホミスヂ (왕세줄나비)
보천보(5. viii).
56. Neptis thisbe Ménétriès オホキミスヂ (황세줄나비)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57. Limenitis Camilla Linné イチモンジテフ (줄나비)
금강산(27. 28. vii), 후상령(4. viii).
58. Limenitis helmanni Lederer ナガサキイチモンジ (제일줄나비)
금강산(27. v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6. viii), 대평(8. viii).
59. Limenitis duplicata Staudinger ニセナガサキイチモンジ
송흥(3. vi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6. viii), 대평(8. viii).
60. Limenitis moltrechti Kardakoff テウセンイチモンジ (참줄나비)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61. Limenitis sydyi Lederer ヒロオビイチモンジ (굵은줄나비)
보천보(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62. Limenitis populi ussuriensis Staudinger ウスリオホイチモンジ (왕줄나비)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63. a. Apatura ilia clytie Schiffermüller ガイマコムラサキ (오색나비)
후상령(4.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63. b. Apatura ilia substitute Butler コムラサキ (오색나비)
보천보(6. viii), 대진평(7. viii).

64. Apatura iris Linné テウセンコムラサキ (번개오색나비)
송흥(31. v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65. Apatura nycteis Ménétriès シロオビコムラサキ (밤오색나비-북부지역산)
혜산진(5. viii), 보천보(6. viii), 대평(8. viii).

66. Apatura schrenckii Ménétriès シロモンコムラサキ (은판대기)
보천보(6. viii), 대평(8. viii).

V. Lycaenidae 부전나비과

67. Hysudra arata Bremer, f. aest. トラフシジミ夏型 (울릉범부전나비) 여름형
금강산(29. vii), 원산(30. vii).

68. Lycaena hippotoë amurensis Staudinger メスグロベニシジミ (암먹주홍부전나비)
보천보(5. viii).

69. Lycaena virgaureae Linné フチグロメニシジミ (검은테주홍부전나비)
보천보(5. viii).

70. Lycaena disper auratus Leech テウセンベニシジミ (큰주홍부전나비)
후상령(4. viii), 보천보(5. viii).

71. Thecla jezoensis Matsumura エゾミドリシジミ(에조녹색부전나비)
금강산(28. vii). 1 ♀ (Pl. 9, Figs. 3. 9).

72. Thecla orientalis Murray オホミドリシジミ (큰녹색부전나비)

응덕령(4. viii). 1 ♂ ; 보천보(5. viii) 1 ♀.

73. Thecla diamantine Oberthür ヂャウザンミドリシジミ (금강석녹색부전나비)

금강산(28. 29. vii) 2 ♂♂ 1 ♀ ; 응덕령(10. viii) 1 ♂.

74. Thecla brillantina Staudinger アイノミドリシジミ (북방녹색부전나비)

금강산(28. vii) 4 ♂♂. (Pl. 9, Figs. 1. 7).

75. Thecla signata quercivora Staudinger クボウラミスヂシジミ

금강산(28. vii) 1 ♀ (Pl. 9, Figs. 4, 10).

일본어한줄

76. Thecla butleri Fenton ウスイロヨナガシジミ(담색긴꼬리부전나비)

금강산(28. vii) 1 ♀ (Pl. 9, Figs. 5. 11).

77. Thecla betulina Staudinger ガイマシジミ (개마암고운부전나비)

응덕령(4. viii) 1 ♂ ; 보천보(5. 7. viii) 3 ♂♂.

78. Thecla betulae coreana Nire テウセンメスアカシジミ (암고운부전나비)

보천보(5. viii) 1 ♂.

79. Thecla lutea Hewitson アカシジミ (귤빛부전나비)

금강산(28. vii) 1 ♂ ; 보천보(5. viii) 1 ♀.

80. Strymon eximia Fixsen テウセン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참까마귀부전나비)

금강산(27. vii), 응덕령(4. viii), 보천보(6. viii).

81. Strymon spini Schiffermüller ヒメ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북방까마귀부전나비)

보천보(5. 6. viii).

82. Strymon pruniodes Staudinger リンゴシジミ (꼬마까마귀부전나비)

금강산(27. 29. vii), 백암산(2. viii), 응덕령(4. 10. viii), 보천보(5. 6. viii).

83.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クロシジミ (담흑부전나비)

송흥(31. vii, 3. viii).

84. Everes argiades Pallas ツバメシジミ (암먹부전나비)

송흥(3. vii), 후상령(4. vii), 혜산진(5. viii).

85. Lycaenopsis argiolus Linné ルリシジミ (푸른부전나비)
금강산(27. 28. 29. vii), 후상령(4. viii), 대진평(7. 9. viii).

86. Plebejus cleobis Bremer コシジミ (산부전나비)
보천보(5. viii).

87. Plebejus argus Linné シジミテフ (산꼬마부전나비)
보천보(5. 6.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88. Plebejus happensis Matsumura ハッパシジミ
보천보(5. 6. viii), 대평(8. viii).

89. Plebejus lycormas Scylla Staudinger タイリクカバイロシジミ (귀신부전나비)
보천보(6. viii).

90. Plebejus eros Ochsenheimer テウセンルリシジミ (사랑부전나비)
혜산진(5. viii), 대평(8. viii), 대진평(9. viii).

91. Plegejus astrarche allous Hübner ハマベシジミ (백두산부전나비)
보천보(5. viii), 대평(8. viii).

92. Plebejus amandus amurensis Staudinger アムールルリシジミ (함경부전나비)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93. Plebejus euphemus Hübner ゴマシジミ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보천보(5. 6. viii), 대진평(8. 9. viii).

94. Plebejus pryeri Murray ウラゴマダラシジミ (선녀부전나비)
금강산(27. vii), 보천보(6. viii).

95. Plebejus arcas Rottemburg コゴマシジミ(아르카스부전나비)
보천보(5. viii), 1 ♀. 본 개체는 조선산으로서는 2개째, 게다가 최초의 ♀.

96. Scolitantides orion Pallas ヂヤウザンシジミ (작은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보천보(5. 6. viii).

97. Maculinea arionides Staudinger オホゴマシジミ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금강산(29. vii), 송흥(31. vii, 3. viii).

Ⅵ. Hesperiidae 팔랑나비과

98. Daimio Tethys Ménétriès ダイミヤウセセリ (왕자팔랑나비)
후상령(4. viii).

99. Lobocla bifasciata Bremer マヘキセセリ (왕팔랑나비)
송흥(3. viii).

100. Syrichtus gigas Bremer テウセンオホチヤマダラセセリ (왕흰점팔랑나비)
보천보(6. viii).

101. Syrichtus speyeri Staudinger テウセンチヤマダラセセリ (높은산세줄나비)
보천보(5. viii), 대평(8. viii).

102. Syrichtus maculate Bremer et Grey, f. aest. チヤマダラセセリ夏型 (흰점팔랑나비)
송흥(31. vii, 3. viii).

103. Parnara jansonis Butler ミヤマチヤバネセセリ (산줄점팔랑나비)
금강산(29. vii).

104. Heteropterus Morpheus Pallas テウセンキボシセセリ (돈무늬팔랑나비)
보천보(5. viii), 대진평(7. viii), 대평(8. viii).

105. Adopaea leonine Butler スヂクロチヤバネセセリ (줄꼬마팔랑나비)
금강산(27. vii).

106. Adopaea sylvatica Bremer ヘリグロチヤバネセセリ (수풀꼬마팔랑나비)
금강산(28. vii), 송흥(3. viii), 응덕령(4. viii).

107. Ochlodes ochracea rikuchina Butler ヒメキマダラセセリ (검은테떠들썩팔랑나비)
금강산(28. vii).

108. Ochlodes sylvanus Esper コキマダラセセリ (수풀떠들썩팔랑나비)
금강산(23. vii), 송흥(3. viii), 후상령(4. viii), 보천보(5. 6. viii), 대평(8. viii).

109. Ochlodes subhyalina Bremer et Grey ウスバキマダラセセリ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금강산(29. vii), 후상령(4. viii).

제9도판 설명

1. Thecla brillantina Staudinger アイノミドリシシミ（♂）, 7. 同裏面 (북방녹색부전나비)
2. Thecla betulina Staudinger ガイマシジミ（♂）(개마암고운부전나비)
3. Thecla jezoensis Matsumura エゾミドリシシミ（♀）(에조녹색부전나비)
4. Thecla signata quercivora Staudinger クボウラミスヂシシミ（♀）
5. Thecla butleri Fenton ウスイロヨナガシジミ（♀）(담색긴꼬리부전나비)
6. Argynnis zenobia penelope Staudinger ヤマミドリヘウモン（♂） (산은줄표범나비)

제8권(昭和15년) 제9도판 ZEPHYRUS Vol. 8(1940) Tab. 9

나비사진

관모연봉산 접류채집기(冠帽連峰産蝶類採集記)[12]

석 주 명

[On the Butterflis collected in the Mountain ridge of Kambo. By D. M. Seok]

관모봉산(産) 접류에 대해서는 이미 조복성[13], 杉谷岩彦(스기타니 이와히코)[14]씨가 몸소 관모봉에 올라, 채집하여 발표한 글이 있다. 나[15] 또한 이전에 이곳을 다룬 일이 있지만, 관모연봉을 종주하면서 채집하여 보고하는 것은 본편이 처음이다. (Fig. 1)

관모봉 내지 관모연봉은 산악으로써도 훌륭하며 그 곳의 동식물상(相)은 특이성이 많다. 그리고 부근에 산재한 많은 수의 온천은 유명한 주을(朱乙)온천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당히 알려지고 있다. 북위 42도 가까운 곳에 해발 2541미터나 되는 관모주봉은 해안선에서 10리 이내에 위치하며, 더욱이 이 지방은 문화가 뒤쳐진 함경북도에 속해 있어 인위적으로 파손된 곳도 적어서 생물상 연구 측면에서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남조선 고산에서 많이 보이는 사찰 같은 것도 관모연봉에서는 한 군데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답파하는 데는 야영을 하는 수 밖에 없는 점이 매우 불편하긴 해도 그만큼 상당히 좋은 채집 지대라 할 수 있다.

관모연봉이란 명칭은 최근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선 그 의의나 범위를 논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글에 양보하고 또한 그 지방의 기록에 관한 소견 같은 것도 다른 날 다른 잡지에 발표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룬 모든 채집 지점이 관모연봉의 주요 부분이란 점만은 명기해 두고자 한다.

나는 올 여름(1940) 함북 종성군(鍾城郡)교육회 등산대에 조수 장재순 군을

12) 일본학술진흥회 보조에 의한 업적, 다섯 번째
13) 조선박물학회잡지, 17호, 69~85페이지, 1934.
14) 조선산악, Ⅲ, 1~11페이지, 1934.
15) Zephyrus, vol. 5. P. 259~281, 1934; vol. 6, p. 114, 1935

동반하여 참가해 유쾌하면서 또한 수확이 많은 채집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종성군교육회 회장 이운붕 씨의 호의와 대원 모두의 후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욱이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고 많은 가르침을 준 齋藤龍本, 조복성, 瀧庸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느 때처럼 먼저 여행기를 요약해서 적어보겠다.

전부터 관모 등산 기회를 부탁해 두었던 나남의 齋藤龍本 씨로부터, 함북 종성군교육회 등산대에 참가해 보라는 전보를 받은 게 7월 21일 오후 2시 반이다. 마침 7월 27, 28일경에는 일본학술진흥회의 보조를 받고 북만주로 여행할 예정이었는데 북만주 여행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잘 부탁한다는 전보를 종성군교육회 회장 및 齋藤씨, 龍本씨에게 보냈다. 그 등산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날 아침까지 개성을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등산이 끝나면 집에 귀가하지 않고 진도문(儘圖們)을 경유해 북만주 여행으로 이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분주한 준비였다. 게다가 장마가 한창인 시기로 수해 때문에 내일 아침 기차가 출발할 지가 가장 보증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아무튼 준비를 했다.

P. 104

지도

Fig. 1. 채집지 지시도(採集地 指示圖)

7월 22일(월) 비

며칠 전에 도쿄에서 귀향한 장재순 군이 아침에 인사차 들렀다가 갑자기 얘기가 성립되어 둘이서 같이 떠나기로 결정. 오전 10시 59분 개성발 기차가 두 시간 가까이나 연착한 후 출발. 경성에서 물건을 사기로 예정했던 시간도 없어져 버렸기에 곧바로 환승해서 주을까지 직행. 도중에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함흥역에서 영생고녀교장(永生高女校長) 원홍구 선생님을 만났다.

7월 23일(화) 맑음

오전 6시 47분 주을 도착. 중부조선은 장마 시기라 곤혹스러웠는데 이 지방에 와보니 날씨가 전혀 달라 최근에는 오히려 가뭄이 계속되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온보(溫堡)에 집합한 종성군교육회 등산대 사람들에 가담해 유유히 등산 개시. 먼저 동척(東拓)의 삼림철도를 이용해 온보 출발. 저녁에 부령군 서상면에 있는 동척사무소에 도착할 때까지 곳곳에서 채집을 시도했다.

7월 24일(수) 맑음

오전 8시에 출발해 해발 1275미터에 있는 영정(嶺頂)정차장까지 삼림철도를 타고 돌아와 그 뒤부터 도보 행진. 종성, 부령, 무산 3군(郡) 경계점에 도달하기 전 산록에서, 거미줄에 걸린 상제나비(エゾシロテフ) 수컷 한 마리의 유해를 채집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첫날 캠프지 북도정산에 도착해 잠시 쉬고 있는 중에, 바로 전방 남측에서 흰나비(シロテフ) 한 마리가 이상한 모양으로 날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한달음에 쫓아가 잡고 보니 ?줄흰나비?(アムールスヂグロテフ) 자웅형이 아닌가! 내겐 생애 첫 자웅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최초의 자웅형이었다. 게다가 참으로 훌륭한 개체로 왼쪽 날개가 수컷, 오른쪽 날개가 암컷, 복부(체구)는 암컷인 전형적인 형질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때의 기쁨이란 한 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상상에 맡기겠다.

p. 105

사진

Fig. 2. 도정산 남쪽 산릉을 걷고 있는 종성군교육회 등산대. 포충망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이 필자와 장재순 군(1940, vii, 25)

7월 25일(목) 맑은 뒤 흐리다가 비

오전 8시 30분 북도정산 출발. 약 한 시간 걸어 남도정산 도착. 그 후 남쪽으로의 코스는 산릉을 따라 걷는 참으로 양호한 채집지로(Fig. 2), 부근에서 호랑나비 여름형 암컷 한 마리를 잡아, 어제 줄흰나비(アムールスヂグロテフ) 자웅형을 잡은 직후 호랑나비 여름형을 놓쳐 아쉬워했던 미련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위도에서 더욱이 높은 해발 지대에서 정형(正型)의 호랑나비 여름형 암컷을 잡은 일은 분명 기억할 가치가 있다.

예정했던 캠프지 견청대(見晴臺)에 도착했지만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간도 조금 일러 계속해서 전진. 그 후 약 1리 떨어진 곳에서 좋은 캠프지를 발견하고 야영. 마른 물이끼지대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한밤중엔 참으로 멋진 소파 위에 자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전 2시부터 잠시 굵은 빗방울이 텐트를 때리는 바람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7월 26일(금) 맑은 뒤 비

한기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맑은 하늘이었다. 모두 기운을 회복하고 오전 8시에 느긋하게 관모로 향했다. 도중엔 대부분 수확이 없었지만, 북관모 남관모 간에서는 큰산뱀눈나비(オホタカネヒカゲ), 관모산지옥나비(カンボウベニヒカゲ) 2종을 풍부하게 채집해 참으로 유쾌했다. 게다가 이 곳에서 장 군이 일본 미기록종 재순이지옥나비(ザイジュンベニヒカゲ)(신명칭) 암컷 1개체를 채집했기 때문에 이 북관모 중관모 간은 이번 여행 중 최고로 좋은 채집 장소로 실로 잊을 수 없는 곳이다. 더욱이 이곳은 이제껏 아무도 채집한 적이 없는 장소로 언젠가 다시 한 번 채집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음 주관모 부근은 참으로 광대한 산정 광장으로(Fig, 3) 좋은 채집지였지만, 이곳에선 완전히 비에 젖어 고생을 하며 겨우 아사노(淺野)산막까지 내려왔다. 빗속을 뚫고 산막에 도착했건만 황폐하여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철야를 해야만 했다. 밤새 비는 계속 되었지만 다행히 큰 비가 아니었고 숙련된 안내인 박신근 씨의 노력으로 모두 무사히 밤을 넘길 수 있었다.

p. 106

사진

Fig, 3. 관모주봉 정상 부근. 필자와 장 군(1940, vii, 26)

7월 27일(토) 맑은 뒤 비

오전 6시 30분 아사노 산막 출발. 우룡담에서 일동이 휴식하는 사이에 충분히 채집했다. 남하단, 북하단에서도 채집, 오후 4시에 민막곡에 도착, 수연광

(水鉛鑛) 산막에서 숙박했다. 오랜만에 인가에서 머물게 되어, 특히 어젯밤 고생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다.

7월 28일(일) 흐림

오전 8시에 민막곡 출발. 오후 1시 보상(甫上)에 도착할 때까지 신발 신은 채로 도하하기를 십 수회. 도중에 거미줄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는 왕팔랑나비(マヘキセセリ) 암컷 1개체를 채집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보상에서 시골의 조출한 연회를 열어 교육회 모든 사람에게 그간의 도움에 감사를 드리고 이별 인사를 한 후, 나와 장재순군은 보상에 체재하면서 휴양하기로 했다.

7월 29일(월) 맑음

종일 여관에 있는 정원 앞에서 채집을 하거나 강가 노천온천에 들어가거나 (Fig, 4) 낚시를 하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휴양.

p. 107

사진

Fig, 4 보상의 노천온천, 필자(1940, vii, 28)

7월 30일(화) 맑음

오전 8시 보상 발. 오후 2시 주을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 중간에 채집. 이날 오후 장재순 군은 채집품을 가지고 개성으로 향하고, 나는 온보에서 1박하고 다음날 만주로 출발하기로 했다.

이어서 채집품 목록을 첨부하는데 주을, 온보 부근, 성정 부근 평지에서 채집한 것은 모조리 빼고, 관모연봉에 속한 지점에서 채집한 종류만 적겠다. 하지만 상세함을 기하기 위해 대개의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지명도 부기했으나, 그들 지점에는 대부분 인가가 없어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치 않을 것이다.

채집품 목록

Ⅰ. Satyridae 뱀눈나비과

1. Aphantopus hyperantus Linné f. ocellatus 가락지나비 ミヤマジャノメ
   23. 봉파동, 24. 도정산 27. 양룡담
2. **Erebia kozhantschikovi** Sheljuzhko (1925) 일본 미기록종
   재순이지옥나비 ザイジュンベニヒカゲ(신명칭) (fig, 5, 6)
   이미 동시베리아, 야브로이노 산맥(동시베리아), 알타이, Olenek강, Viliu강, 아무르 등지가 산지로 알려져 있다. 신명칭인 일본명은 채집자 장재순 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p. 108 나비사진

fig, 5. 재순이지옥나비 ♀ 표면 fig, 6. 재순이지옥나비 ♀ 이면

3. Erebia ligea Linné 높은산지옥나비 クモマベニヒカゲ 24. 도정산, 25. 양룡담, 남하단
4. Erebia rossii ero Bremer (1861) 관모산지옥나비 クワンボウベニヒカゲ
   = E. kwanbozana Doi et Cho (1934), syn. Nov. 26. 북관모-중관모

다음으로 본아종의 개체변이에 관해 조금 적어보겠다.

1) 본종은 암수 모두 날개형이 현저하게 둥글지만 암컷이 더 둥글다.
2) 암컷의 색채는 수컷에 비해 희미한 느낌이 든다.
3) 앞날개 표면 제 1-3실에 있는 췌반(贅斑) 같은 작은 반문(斑紋)은 암컷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다. 이어서 췌반 수의 변이의 일단을 제시하겠다.

p. 108
제1표 앞날개 표면 췌반 모양의 부호

제2표 반문 변이표

	a	b	c	♂	♀	♂♀ 계
1	0	0		1	1	2
2		0	0		5	5
3		0			1	1
4				4	3	7
				5	10	15

제2표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반문은 정말 말 그대로 췌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앞날개 길이는 암수 모두 22-25mm로 그 변이의 일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 109

제3표 조사한 개체의 앞날개 길이 측정표

mm	22	23	24	25	계
♂	1	2	1	1	5
♀	4	3	2	1	10
			총계		15

5) 분포

국내산지……주관모, 북관모-중관모 간.

국외산지……알타이 산맥, 샤얀 산맥, 바이칼, 야브로노이 산맥, 아무르, Kara 툰드라(도보루스크 북방)

5. Eumenis dryas Scopoli 굴뚝나비 ジャノメテフ 23. 봉파동, 28. 민막곡- 보상

6. Oeneis jutta magna Graeser 큰산뱀눈나비 オホタカネヒカゲ 25. 도정산-견청대, 26. 북관모-중관모 27. 양룡담

7. Pararge achine Scopoli 눈맑은그늘나비 ウラジャノメ 23. 봉파동 24, 도정산 26. 북관모-중관모 27. 양룡담

8. Pararge deidamia Eversmann 뱀그늘나비 テウセンツマジロウラジャノメ 24. 도정산 28. 민막곡- 보상

9. Satyrus halimede Ménétriès 흰뱀눈나비 シロジャノメ
23. 봉파동, 27. 남하단 28. 민막곡- 보상
10. Ypthima baldus Fabricius 애물결나비 ヒメウラナミジャノメ 28.민막곡-보상

Ⅱ. Nymphalidae 네발나비과

1. Aglais urticae Linné f. urticae 쐐기풀나비 コヒヲドシ
24. 도정산 25. 도정산- 견청대, 26. 북관모-중관모 27. 양룡담
2. Apatura ilia Schiffermüller
f. ilia 황오색나비 クロコムラサキ 28. 민막곡- 보상
f. substitute Butler 오색나비 コムラサキ 27. 양룡담, 북하단, 28. 민막곡-보상
3. Apatura iris Linné 번개오색나비 テウセンコムラサキ 27. 양룡담, 북하단 29. 보상
4. Apatura schrenckii Ménétrès 은판나비 シロモンコムラサキ 27. 양룡담 29. 보상
5. Araschnia levana Linné f. aest.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 アカマダラ 27. 양룡담 29. 보상
6. Argynnis aglaja Linné 풀표범나비 ギンボシヘウモン 24. 도정산 27. 양룡담
7. Argynnis cydippe Linné 은점표범나비 ウラギンヘウモン 24. 도정산 28. 민막곡- 보상
8. Argynnis euphrosyne Linné 은점선표범나비 カラフトヘウモン(ミヤマヘウモン) 27. 양룡담
9. Argynnis ino Rottemburgh 작은표범나비 コヘウモン 24. 도정산 27. 양룡담
10. Argynnis laodice Pallas 흰줄표범나비 ウラギンスヂヘウモン 28. 민막곡-보상
11. Argynnis paphia Linné 은줄표범나비 ミドリヘウモン 27. 양룡담
12. Argynnis thore hyperusia Fruhstorfer 산꼬마표범나비 ホソバヘウモン 27. 양룡담

13. Limenitis camila Linné 줄나비 イモンジテフ 27. 양룡담, 28. 민막곡- 보상
14. Limenitis doerriesi Staudinger 제이줄나비 デリーズイチモンジ(ニセナガサキイチモンジ) 24. 도정산 28. 민막곡- 보상
15. Limenitis helmanni Lederer 제일줄나비 ナガサキイチモンジ 27. 양룡담
16. Limenitis homeyeri Tancré 제삼줄나비 ホソオビイチモンジ 27. 양룡담
17. Limenitis moltrechti Kardakoff 참줄나비 テウセンイチモンジ 23. 봉파동 24. 도정산 28. 민막곡- 보상 29. 보상
18. Limenitis sydyi Lederer 굵은줄나비 ヒロオビイチモンジ 29. 보상
19. Melitaea dictynna Esper 은점어리표범 ギンボシヘウモンドキ 27. 양룡담
20. Neptis alwina Bremer 왕세줄나비 オホミスヂ 29. 보상
21. Neptis coenobita Stoll 두줄나비 フタスヂテフ 24. 도정산 27. 양룡담
22. Neptis hylas intermedia Pryer 애기세줄나비 コミスヂ 28. 민막곡- 보상 29. 보상
23. Nymphalis io Linné 공작나비 クジヤクテフ 24. 도정산
24. Polygonia c_album Linné 산네발나비 シータテハ 여름형 28. 민막곡- 보상 29. 보상
25. Sephisa dichroa princeps Fixsen 대왕나비 カバイロゴマダラ 29. 보상

Ⅲ. Lycaenidae 부전나비과

1. Everes argiades Pallas 암먹부전나비 ツバメシジミ 23. 봉파동
2. Lycaenopsis argiolus Linné f. ladonides 푸른부전나비 ルリシジミ 29. 보상
3. Maculinea arionides Staudinger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オホゴマシジミ 27. 양룡담
4. Plebejus lycormas scylla Staudinger 귀신부전나비 タイリクカバイロシジミ 28. 민막곡- 보상
5. Thecla brillantina Staudinger 아이노녹색부전 アイノミドリシジミ 25. 도정산- 견청대, 26. 북관모- 중관모, 28. 민막곡- 보상
6. Thecla diamantine 금강석녹색부전 Oberthür 산녹색부전나비 ヂヤウザンミドリシジミ 26. 북관모- 중관모

7. Thecla orientalis Murray 큰녹색부전나비 オホミドリシジミ 24. 도정산
8. Vaciniina optilete sibirica Staudinger 시베리아부전나비 カラフトルリシジミ 26. 북관모- 중관모 27. 양룡담

Ⅳ. Pieridae 흰나비과

1. Aporia crataegi Linné 상제나비 エゾシロテフ 24. 도정산 27. 양룡담
2. Aporia hippie Bremer 눈나비 ミヤマシロテフ 23. 봉파동 27. 양룡담
3. Colias hyala Linné 노랑나비 モンキテフ 23. 봉파동 28. 민막곡- 보상
4. Colias palaeno Linné 높은산노랑나비 ミヤマモンキテフ 25. 도정산- 견청대
5. Leptidea sinapis Linné 북방기생나비 エゾヒメシロテフ 28. 민막곡- 보상
6. Pieris napi Linné 줄흰나비 スヂグロテフ
   f. aest 28. 민막곡- 보상
   f. dulcinea Butler アムールスヂグロテフ 24. 도정산(자웅형 1개체를 채집), 26. 북관모- 중관모 27. 양룡담, 남하단 28. 민막곡- 보상
7. Pieris rapae Linné 배추흰나비 モンシロテフ 23. 봉파동 28. 민막곡- 보상

5.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1. Papilio xuthus Linné f. aest 호랑나비 여름형 25. 도정산
2. Parnassius stubbendorfii Ménétrès 모시나비 ウスバシロテフ 24. 도정산

6. Hesperiidae 팔랑나비과

1. Aeromachus inachus Ménétriès 파리팔랑나비 ホシチヤバネセセリ 28. 민막곡- 보상
2. Carterocephalus silvius Knoch 수풀알락팔랑 カラフトタカネキマダラセセリ(タカネキマダラセセリ) 24. 도정산 27. 양룡담
3. Daimio Tethys Ménétriès 왕자팔랑나비 ダイミヤウセセリ 28. 민막곡- 보상
4. Lobocla bifasciatus Bremer et Grey 왕팔랑나비 マヘキセセリ 28. 민막곡-

보상 29. 보상

5. Ochlodes sylvanus Esper 수풀떠들썩팔랑 コキマダラセセリ 27. 양룡담
6. Syrichtus gigas minor Mabille 왕흰점팔랑나비 テウセンオホチヤマダラセセリ 23. 봉파동 27. 양룡담

총 괄

과 명	채집종 수
Satyridae	10
Nymphalidae	25
Lycaenidae	8
Pieridae	7
Papilionidae	2
Hesperiidae	6
계 6 Fam.	58 Sp.

朝鮮博物學會雜誌, 제10권 38호, 쇼와18년(1943년), 29~35.

남조선 접류채집기

경성제국대학의학부 미생물학 교실
석 주 명

D. M. Seok : Notoj pri la koleltado de papilioj en la suda la suda Koreujo.

(쇼와 18년 2월 18일 수령)

Ⅰ. 서언

전편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약 1개월간의 북한 채집여행을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와 열흘 정도 정리 겸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드디어 남한으로 여행을 떠난 것은 8월 2일이었다. 이미 시간적으로는 늦어 있었고 조선박물학회, 경성일보사 공동주최로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에서 열리는 나비展을 위해 8월 하순이 되기 전에 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이 여행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다. 게다가 남한을 엄습한 심한 가뭄은 나비의 발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라 채집여행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였다. 실제로 결과도 별로 좋지 못했고 이 점에서는 북한의 여행과는 정반대였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남한으로의 여행은 시시했다. 그렇지만 자세히 그 결과를 살펴보면 기록할만한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글을 쓰기로 했다.

이번 코스는 시간 관계상 북한 채집여행과는 반대로 주로 철도 연선을 채집하기로 했다(지도 첨부).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간이역과 같은 산간의 역에 많이 하차하기로 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간이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기차표는 그 이후 구간이 무효가 되므로 미리 그 간이역까지의 기차표를 사 두어야만 했다. 현재 조선에서는 철도운임이 원거리 체감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 관계로 원거리일수록 운임은 오히려 비쌌다.

지도 첨부

남한의 조사는 철도연선으로 자연은 거의 파괴되어 있어, 최적의 채집장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도회지의 신사 주변이 채집에 적합할 정도였다. 실제 채집에서는 초라하게 느끼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루라도 빨리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다.

Ⅱ. 채집일기

8월 2일(일) 비 온 뒤 맑음

비가 와서 출발을 미루고 있다가 14시 10분 청경리(淸京里) 출발, 14시 56분 팔당(八堂) 도착. 부근의 산은 경성을 출발하여 처음으로 보는 산으로. 이 경경선(京慶線)상으로는 경성에서 사장 가까운 거리의 좋은 채집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근을 채집. 17시 41분 팔당 출발, 18시 55분 양평 도착.

8월 3일(월) 맑음

가까운 백운산을 채집해 봐도 시기가 늦은 탓인지 성적은 불량. 하지만 줄꼬마팔랑나비(スヂグロチャバネセセリ)와 수풀꼬마팔랑나비(ヘリグロチャバネセセリ)를 비교적 풍부하게 채집할 수 있었다. 16시 10분경 양평 출발, 도중의 양동, 간현은 괜찮은 채집지로 보였지만 하차할 여유가 없다. 원주에 가까워지자 기분 좋게 큰 산이 전방에 나타났다. 치악산(일명 남대산 1132m)이다. 18시 37분 원주 도착. 원주는 느낌이 좋은 시골 마을이다.

8월 4일(화) 맑음

아침 일찍 치악산으로 가서 채집을 시도했다. 국형사, 보문사를 지나 위쪽으로 1km 정도 전진했지만 풀숲으로 가로막혀 중지하고 하산했다. 도중에 보문사, 국형사 구간에서는 약 40분간 노력하여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흑백알락나비(ゴマダラテフ) 여름형 1개를 채집했다. 내일 아침에는 반곡역에서 정상의 상원사에 오르기로 했다.

8월 5일(수) 맑은 뒤 비

6시 15분 원주 출발, 6시 40분 반곡 도착. 우연히 인부 우모군을 고용해서 정상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군의 안내로 정상의 상원사까지 무사히 도착. 부득이하게 1박. 부근에는 먹그늘나비(クロヒカゲ)가 꽤 많이 보였고 상원사 바로 앞 빗속을 행진하면서 나뭇잎 뒷면에 앉아 있는 먹그늘나비를 몇 마리 맨손으로 채집했다.

8월 6일(목) 맑음

8시에 출발하여 14시 반에 반곡역으로 돌아갈 때까지 많이 채집했다. 그 중에는 번개오색나비(テウセンコムラサキ)의 원형 ♀,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アカマダラ)여름형, 황세줄나비(オホキミスヂ),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및 수풀떠들썩팔랑(コキマダラセセリ)의 검은 형 f, venata 등 북방계 나비가 포함되어 있고,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アカマダラ)는 조선 남단의 기록이 된다. 또한 큰녹색부전나비(オホミドリシジミ)는 상수리나무 숲의 같은 한 장소에서 7,8마리나 채집했다. 나머지는 지리를 잘 몰라 상기 코스를 따라 올랐으나 치악산 등산은 오히려 다음 역인 신림이 순로로 더 나을 듯하다. 결국 치악산은 3일간 채집하고 성적도 상당히 올렸다. 정말로 좋은 산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는 신림에서 왕복해보고 싶다. 15시 7분 반곡 출발, 16시 38분 제천 도착.

8월 7일(금) 맑음

의림지, 용두산 부근까지 편도 2리 정도나 걸어 채집했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다. 대체적으로 왕복 4리 정도를 채집하면 성적은 오르기 마련인 것을.

예정보다 일찍 11시 40분 제천 출발, 12시 26분 충북 단양 도착. 읍내까지 걸으면서 채집했지만 역시나 성적불량. 다시 서둘러 14시 52분 단양 출발, 15시 29분 죽령 도착. 곧바로 부근 채집을 시도해봤지만 완전 불량. 하지만 여기서 참까마귀부전나비(テウセン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를 포획한 것은 의외였다. 전체적으로 크게 실망한 탓에 다음 날 아침에는 인부를 고용하여 희방사까지 걷기로 했다.

8월 8일(토) 비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드디어 큰 비로 바뀌었다. 여관은 불결한데다 비까지 샌다. 식량난도 있어 이곳에서는 장기전은 불가하다. 돌아오는 길에 희방사에 하차하기로 하고 아침밥도 거른 채 세차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7시 33분 죽령 출발, 좀처럼 비가 그치지 않아 결국 경북 안동 역까지 왔다. 10시 46분 경북 안동 도착. 하루 휴양.

8월 9일(일) 비

안동 역시 귀로에 다시 들르기로 하고 8시 25분 안동 출발, 9시 53분 예천 도착. 시가지를 둘러보고 12시 27분 예천 출발, 13시 33분 함창 도착. 전부터 만날 약속을 했던 김정근 군을 만나 며칠 동안 김군의 안내를 받아 채집은 물론 여러 모로 신세를 졌다. 이에 김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8월 10일(월) 구름 뒤 맑음

어제 밤에 김정근군과 상담하여 오늘은 문경군 조령(일명 이화령 548m)에 채집하러 가기로 했다. 날씨는 나빠도 동 군청에는 동창인 김병윤군도 있기에 일단 가보기로 하고 7시 28분 함창 출발, 7시 35분 점촌 도착. 그리고 버스를 타고 9시 점촌 출발, 10시 반에 문경 도착. 문경 도착 전 멋진 직선 도로 위의 벚꽃 가로수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문경도 느낌이 좋은 시골마을로 동네에서 홍점알락나비(アカホシゴマダラ)와 부처나비(ヒメジャノメ) 등을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조령방면의 제2관문까지 2리 가까이 왕복하며 채집했는데 의외로 날씨도 좋아서 호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역시 문경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주의를 기울여 온 남방부전나비(ヤマトシジミ)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견했고, 남한 미기록종인 꽃팔랑나비(アカセセリ)도 여기서 채집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곳 조령을 한 번 넘어보고 싶다.

밤에는 낮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김병윤군의 초대를 받아 4명이 24시가 넘을 때까지 이야기 꽃을 피웠다.

8월 11일(화) 맑음, 더운 날씨

8시 반에 문경을 출발하여 함창을 지나 상주로 직행, 12시 5분에 상주 도착.

상주에서는 형식적으로 채집을 시도하고서 16시 13분 상주 출발하여 함창으로 돌아왔다.

8월 12일(수) 맑음, 더운 날씨

김정근 군 집안의 모든 분들의 배웅을 받으며 8시 29분 함창 출발, 10시 31분 금천 도착. 오후 근처에서 채집을 시도했으나 실로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집하지 못했던 극남노랑나비(ツマグロキテフ)를 처음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8월 13일(목) 맑음, 더운 날씨

8시 58분 금천 출발, 9시 40분 구미 도착. 금오산 중턱까지 왕복하면서 채집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음. 하지만 좋은 장소여서 다시 한 번 오기로 함. 15시 16분 구미 출발, 16시 19분 대구 도착.

8월 14일(금) 맑음

이른 아침 석원영군의 안내로 근교로 채집을 나갔다. 성적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미기록종인 풀흰나비(テウセンシロテフ) 1개를 채집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어제 전화로 약속한 경북고녀(慶北高女) 白神교장을 방문하여 예전에 백갑용(白甲鏞)군이 수집한 곤충표본을 볼 수 있었다. 이 수집품은 내용이 풍부하여 한 번에 그곳의 나비상을 알 수 있게 되어 고마웠다. 다만 풀흰나비는 이 수집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8월 15일(토) 구름 뒤 비

7시 35분 대구 출발, 10시 41분 삼랑진 도착, 12시 45분 삼랑진 출발, 13시 48분 창원 도착, 16시 버스로 창원 출발, 17시 마금산온천 도착. 오늘은 여기까지 올 예정은 아니었지만 비가 내려 도중하차해도 어쩔 수 없는지라 여기 온천까지 온 것이다.

8월 16일(일) 맑음

오전에 근처를 채집했으나 잡힌 건 암먹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 1개 뿐.

8월 17일(월) 맑음

9시 20분 버스로 마금산온천 출발, 10시 반 구마산 도착. 옛 동료인 이영석 씨의 안내를 받아 근처를 채집하고 신세를 많이 졌다. 이에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8월 18일(화) 맑음

이씨의 안내로 9시 37분 북마산 출발, 10시 7분 산인 도착. 부근을 채집했지만 성적은 좋지 않다. 이 여행에서는 유일하게 극남부전나비(シルヴィアシジミ)를 5,6마리 채집했다. 하지만 남방부전나비는 매우 적어 겨우 1,2개 채집한 것에 불과했다. 이씨의 배웅을 받으며 12시 11분 산인 출발, 13시 17분 갈촌 도착.

이곳 갈촌도 산촌으로 주변 또한 남한 공통의 경작지가 대부분으로 채집에 적합한 장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갈촌에서는 뜻밖의 수확이 하나 있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이라서 마을의 한 청년이 긴 나팔을 불고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내가 예전에 내몽골의 라마사(喇嘛寺)에서 8월 15일 축제 때 본 긴 나팔과 같은 것으로 보였다. 이 부근 마을에서는 군데군데 볼 수 있는 것인 듯 했고 그 밖에도 악기 일식이 있어 축제 같은 때에는 사용한다고 했다. 남한에는 몽고풍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여행의 유쾌함을 한층 더 느꼈다.

16시 31분 갈촌 출발, 17시 8분 진주 도착. 곧바로 해인사행 버스를 알아봤지만 여러모로 불편이 있는지라 내일 아침 기차로 온 길을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밤에 석루에 보트를 띄워 잠시 청유(淸遊)함

8월 19일(수) 맑음

진주공원에서 채집을 하고 10시 35분 진주 출발, 14시 58분 진영 도착. 근처를 채집했지만 실패. 남한은 인구가 조밀하고 농업 집약도는 높은데다 산양을 방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진영처럼 역 부근에 꽤 큰 산이 있지만, 사방이 논에 둘러싸여 있고 산에는 산양의 방목으로 인해 대체로 자연 그 자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17시 40분 진영 출발, 삼량진에서 환승하여 18시 52분 밀양 도착.

8월 20일(목) 맑음

오전 근처에서 채집, 견학하고 11시 14분 밀양 출발, 12시 5분 남성현 도착. 긴 터널이 있는 부근을 채집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장소이다. 16시 3분 남성현 출발, 대구에서 환승해서 18시 55분 영천 도착.

8월 21일(금) 맑음

부근에서 잠시 채집하여 풀흰나비 1개를 포획. 9시 25분 영천 출발, 10시 21분 봉림 도착(군위군). 부근을 채집하고 13시 10분 봉림 출발, 13시 58분 의성 도착. 근처에 있는 산에서 채집하고 17시 반 의성 출발, 18시 35분 경북 안동 도착.

8월 22일(토) 맑음

오전에 학교에 선배인 原口良策 교장을 방문하여, 이 학교 표본실에 있는 堀씨 등이 수집한 표본을 볼 수 있었다. 이 표본은 堀씨가 예전에 곤충세계(제 39권, 1935)에 발표했던 것으로 궁금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지라 직접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原口교장에게는 신세를 많이 졌다. 이에 그분께 깊은 경의와 사의를 표한다.

15시 4분 경상북도 안동 출발 16시 12분 영천 도착. 곧바로 부근에서 채집했는데 시골처녀나비(キイロヒメヒカゲ)를 잡을 수 있어서 유쾌함. 저녁에는 선배인 慶田景憲씨를 방문하여 앞으로 경북의 오지를 채집할 때 도움을 달라고 의뢰.

8월 23일(일) 맑음

8시 15분 영천 출발, 9시 15분 희방사 도착. 용폭(龍瀑) 및 희방사를 왕복하며 채집해보니 정말로 좋은 곳으로 다시 오기로 했다. 12시 38분 희방사 출발, 20시 40분 청량리에 도착하여 이번 여행을 종료함.

채집품 목록(생략)

8. 석주명의 유품과 관련 유물들

1) 석주명의 유적과 유품들

(1) 유적

경성제대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관사, 유리온실, 돌탁자 및 의자 등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57(토평동 1200)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부지



구. 경성제대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연구소

(2) 유품

가. 나비채집 도구 및 용품들

① 등록문화재 610호 (석주명 유품)
소재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나비연구가로서 세계적인 곤충학자로도 인정되는 큰 업적을 남긴 석주명(石宙明, 1908~1950) 박사의 나비채집 관련 물품으로 기성품이 아닌 독창적으로

제작한 과학 도구와 연구 도구로서 석주명(石宙明) 박사가 활발히 활동한 1930~1940년대 우리나라 과학사 및 생활사를 밝혀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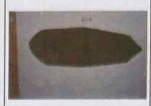


제주시험장 유리온실



석주명(1908 ~ 1950) 박사 유물 목록

근대 문화 유산 등록 문화재 : 등록 고시일 2014년 10월 29일 / 12건 14점

순번	유물번호	유물 명칭	분류 번호	사진	크기(cm)	비고
1	8538	寢囊	23枕16. 0001		88×240	石宙善기증 (1997.9.1) 석주명 유품
2	8539	寢囊	23枕16. 0002		124×170	
3	8540	비옷	21洋2. 0001		118×143	
4	8541	바바리	21洋3. 0001		길이110 화장76 품48 끈	
5	8542	장갑	21洋4. 0001		길이30.5 밤색	
6	8543	물통	26雜1. 0080		너비29 길이26	
7	8544	채집망	26雜1. 0081		길이50 너비32	
8	8545	채집망	26雜1. 0082		길이48 너비29	
9	8546	나비채	26雜1. 0083		길이75 폭70 하늘색	
10	8547	칼	26雜1. 0084		길이26 너비3.5	
11	8548	배낭	26雜1. 0085		가로50 세로54.5	
12	8549	배낭	26雜1. 0086		가로49 세로57	
13	8550	가방	10書21. 0002		가로37 세로 27	
14	8551	나비표본액자	26雜1. 0087		너비46.5	



바바리



침낭1



비옷



침낭2







채집망1



채집망2



나비채



채집망2







가방



나비표본 액자

② 기타 유품



석주명을 세계적 나비학자 반열로 올려놓은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를 쓸 수 있도록 어머니가 1938년에 사준 영문타자기

소재: 단국대석주선기념관

나. 원고 및 메모

소재지: ?

2009년 4월 11일(토)~26일(일)까지 열렸던 '나비 박사 석주명의 나비나라' 전시회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석주명의 탁상다이어리, 미발표 친필 논문, 나비 채집 때 사용하던 장비 등 50여점과 석주명에 의해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갖게 된 한국산 나비 250여 종이 국립과천과학관 1층 명예의전당 기획전시실에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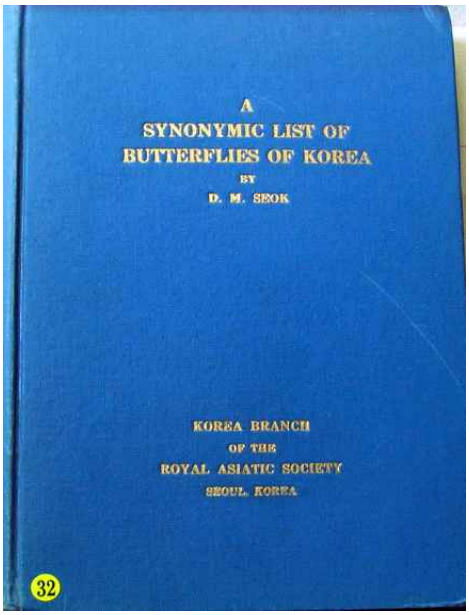
특히 석주명의 유품과 관련 사료 중에는 그가 서울대학교 부설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서귀포시 토평동 소재)에 근무하던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제주섬 구석구석을 누비며 곤충상, 방언, 민속, 향토사, 동식물 등 온갖 자료를 수집해 원고지에 깨알 같이 정리한 친필원고가 포함돼 처음 일반에 공개되었다.[16]



(3) 생전 원저

가. 저서 및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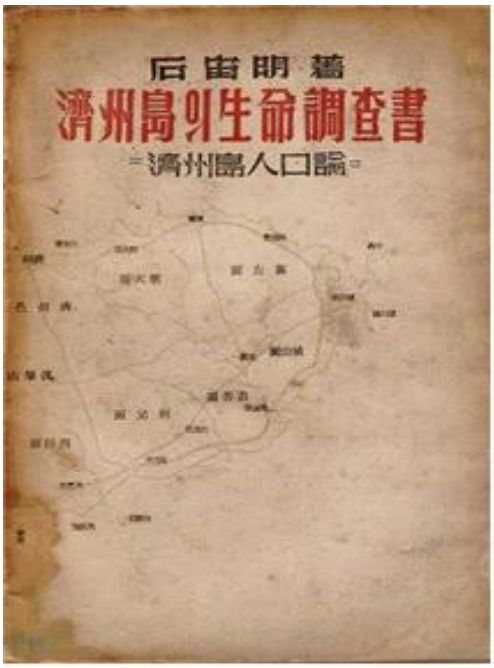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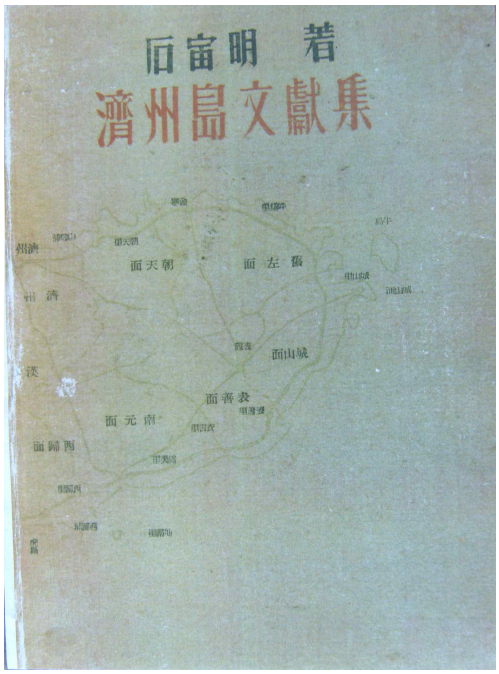


조선나비이름 유래기(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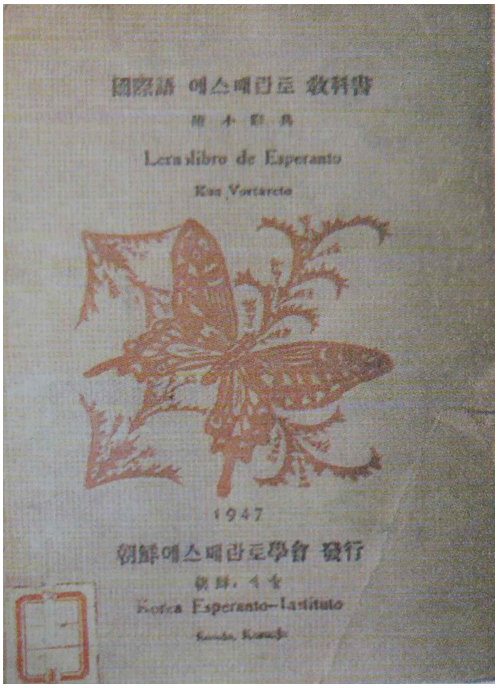
16) 한라일보(2009.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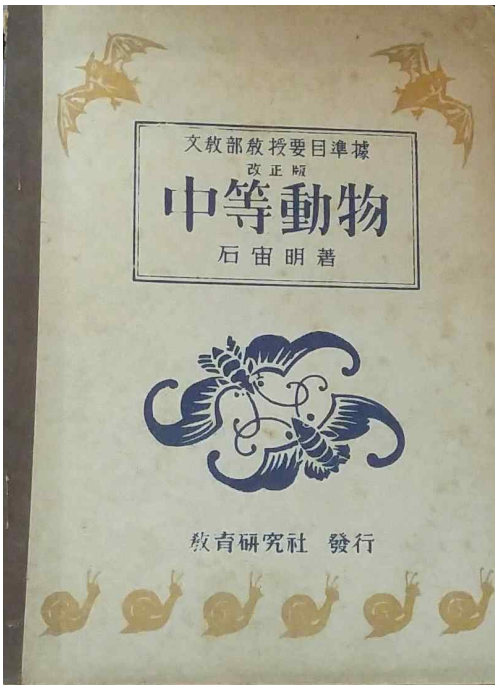
제주도의 생명조사서(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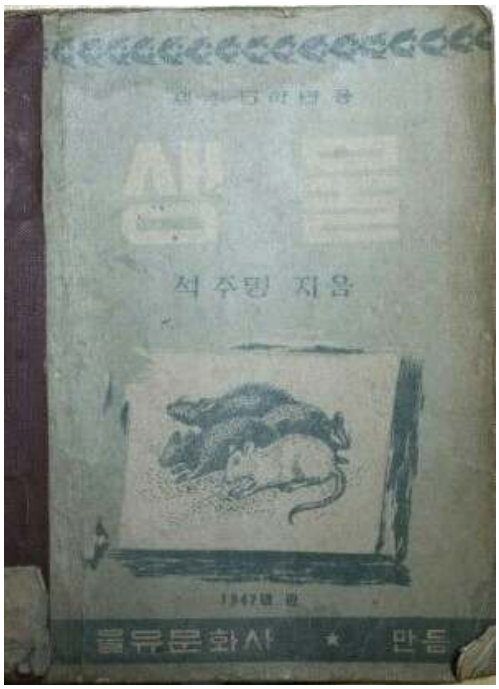
제주도문헌집(1949)







중등동물교과서(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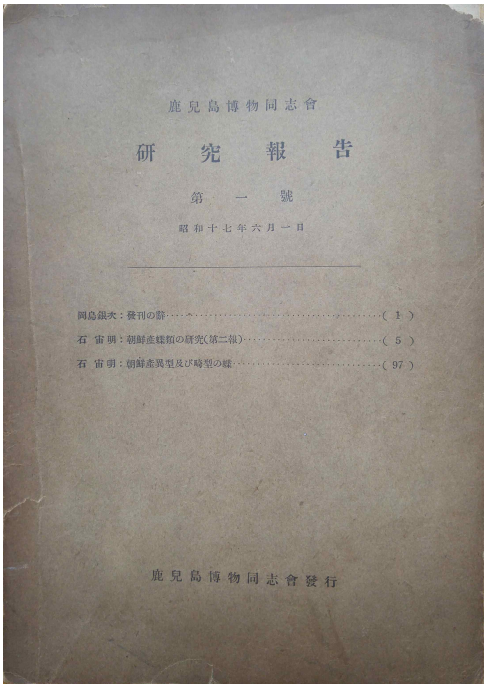


중등과학 생물[상하권](1947)

나. 나비채집기

1. 백두산지방산 접류채집기, Zephyrus, 5-4(1934) 日文/번역
2. 조선 동북단지역산 접류채집기 Zephyrus, 6-3/4(1936) 日文/번역
3. 제주도산 접류채집기 Zephyrus, 7-2/3(1937) 日文/번역 출간
4. 남조선 동물채집기 松友 10(1937) 日文/번역
5. 사할린, 북해도 나비채집기 昆蟲界 6(1938) 日文
6. 개마고태산 나비채집기I-II 곤충계 7(1939) 日文
7. 함북고지대산 나비채집기 朝鮮博物學會雜誌 27(1939) 日文
8. 조선 동북지방산 나비채집기 Zephyrus, 8-3/4(1940) 日文/번역
9. 관모연봉 나비채집기 Zephyrus, 9-2(1941) 日文/번역
10. 평북 압록강연안지대산 나비채집기 朝鮮博物學會雜誌 9(1942) 日文
11. 북조선 나비채집기 朝鮮博物學會雜誌 10-38(1943) 日文/번역출간
12. 남조선 나비채집기 朝鮮博物學會雜誌 10-38(1943) 日文/번역
13. 소백산맥의 나비채집기 서울신문(1947. 8. 16)

다.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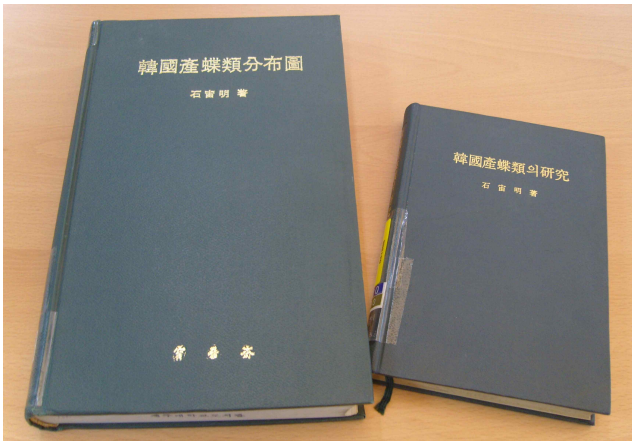
* 鹿兒島博物同志會 硏究報告書(1942)
* 제3차 국토구명사업 <소백산맥답사기> 서울신문(1947. 8, 16)
* 제6회 학술조사대보고 <다도해답사기> : 국도신문(1949. 9. 3-4)
* 전북 제도서의 학술조사를 마치고 ; 서울신보(1950. 1. 2)
* <덕적군도학술조사보고> : 신천지 5권 6호 특별부록(1950. 6), 233-253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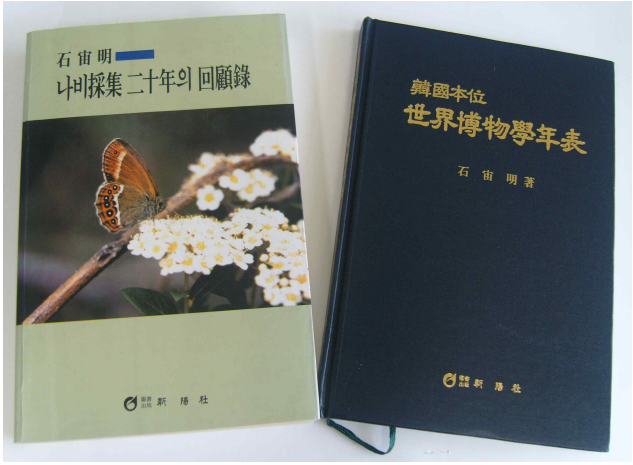
라. 사후 유고



제주도 수필(1968)
제주도곤충상(1970)
제주도자료집(1971)



한국산접류분포도(1973)
한국산접류의 연구(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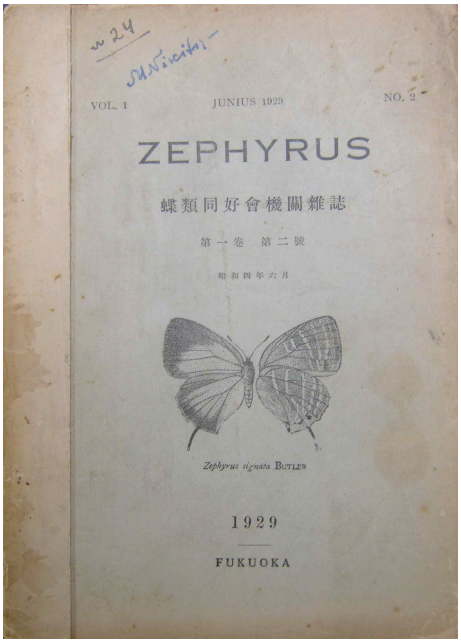


석주명 회고록(1992)
한국본위세계박물학연표(1992)





마. 기고 학술지 및 잡지



① 제피루스

Zephyrus, 蝶類同好會, 蝶類同好會機關雜誌, 1929[1권]~1947[9권]

소장처 : 제주대학교 1929~1941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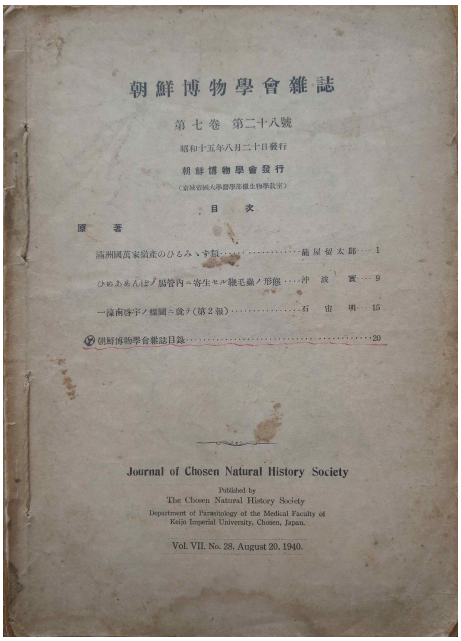
青森縣立図書館1929-1947 / 1~9 OPAC

國立科學博物館書庫1929~1947 / 1~9 OPAC

農業・食品産業技術總合研究機構 農業環境変 動研究センター 図書室1929~1947 /1~9 OPAC

北海道大學 大學院農學研究科図書室 研究室1929~1947 / 1~9 OPAC

三重大學 附屬図書館図1929-1947 / 1~9 OPAC



② 조선박물학회잡지

朝鮮博物學會雜誌, 朝鮮博物學會 [編], 1925[1호]~1944[40호]

Journal of Chosen Natural History Society

소장처 : 서울대학교

岡山大學 附屬図書館 資源植物科學研究所分館 植物研図1925~1939;1940~1944/3~18, 20~23, 25~27; 7~10 OPAC

鹿兒島大學 附屬図書館中央図1928~1944 /7~18,20~23,25~30,32~40 OPAC

國立科學博物館書庫1928~1939;1940~1944 6-7,20,25-27;7,8(30,32),9,10(38-40) OPAC

筑波大學 附屬図書館 中央図書館1927-1939;
1940-1944N-チ36770 4-18, 21-23, 25-27 ; 7(28), 8(30-32), 9(33-35), 10(38,40) OPAC
東京農業大學 図書館図1927-1944460||C54
4-18,20-27;7(28-29),8(30-32),9(33-36),10(38-39) OPAC
東北大學 附屬図書館 北青葉山分館図1925-1944 / 3-23,25-40 OPAC
琉球大學 附屬図書館1925-1944 / 3-40 OPAC

③ 곤충계

昆蟲界 : 昆蟲趣味の會機關雜誌, 四條書房, 1933[1권1호]-1955[13권 121-124호]
The entomological world
大阪府立大學 總合図書館 中百舌鳥1933-1955 / 1-8,9(83,85-94),10-13 OPAC
九州大學 附屬図書館 伊都図書館1933-1955
1-3,4(23-33),5,6(46-47,49-56),7-9,10(95-99,101-106),11(107,109,111),12-13 OPAC
神戶大學 附屬図書館 自然科學系図書館1933-1943 / 1-11 OPAC
國立科學博物館1933-1955 /1-10,11(109-115,117-118),12,13(121-124) OPAC
東京大學 農學生命科學図書館図1933-1943
1(5-6),2,3(13-14,16-22),4-8,9(84-94),10(95-102,104-106),11(107-115) OPAC
農業·食品産業技術總合研究機構 農業環境変動研究センター 図書室1933-1955
1-12,13(121-122) OPAC
北海道大學 大學院農學研究科図書室研究室1933-1955
1-3,4(23-28,32-34),5-11,13(121-122) OPAC

④ 동물학잡지

動物學雜誌 東京動物學會, 1888-1983, 1卷1号 (明21.11)-92卷4号 (昭58.12)

岡山大學 附屬図書館 資源植物科學研究所分館植物研図1889-1983103.8/D
1(13-14),2(15),3(28),5(51,53-56,58),7(77-78,81-82),11-16,17(195-205),18(207-208,210-218),19(220-230),20-31,32(375-380,382-386),33(387-388,390-398),34(400-410),35-

51,52(1-8,10-12),53-92 OPAC

京都府立医科大學 附屬図書館図1889-1983

12(136,138-139,141-144),13(147-150,153-158),16(186-194),24-26,27(316-325),28-30,31(363-365,367-369,372),32-33,34(399-404,406-410),35,36(423-433),37(435-444,446),38,39(459-466,468),40(474-475,477-482),41(483-489,491-494),42(495-496,498-506),43-50,51(1-9),52-55,57-92 OPAC

國立研究開發法人 水産研究・教育機構 日本海區水産研究所図書1889-1983

3(28),4(45-46,49-50),7(77-86),8(89-90,92-94,96,98),9(100-107,110),10(112,119-122),12(137-138,141,143-146),13(147-150,153-155,157-158),14(163-164,166-170),15-31,32(375),33(387-389,391-396),34-39,40(1-5,7-12),41-47,48(1-3,5-12),49-55,56(1-3,7-12),57-59,60(1-9,11-12),61-92 OPAC

東京医科大學 図書館分館図1905-1983

17(205),18(212-218),19(228),20(233-235,237,239-242),21(243-245),22(257,266),23(267,269-271,273-278),24,25(291,293-294,300),26-27,29(339,342-349),31(363-364,366-371,373-374),33(391-392,395),34(400-404,406-410),35(411-416),38(448-454,456,458),39(461-470),40-42,43(507,511-518),44(519-525),57(1-3,11-12),58-60,61(1-4,6-12),62-92 OPAC

⑤ 기타잡지

조광 : 1935년 11월(창간)~1948년 12월(종간), 조선일보사
신천지 : 1946년 1월(창간)~1954년 말(종간), 서울신문사
과학나라 : 미군정기 청소년 과학잡지

⑥ 기고 신문

서울신문, 연합신문, 제주신보

(6) 관련 사진, 영상

가. 사진

평양(가족사진, 숭실중학 시기)

개성(송도고보 학생 및 교사 시기)
일본(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 유학 시기)
제주도(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시기)
서울(에스페란토, 한국산악회 부회장, 국립과학관 동물부장 시기)

나. 영상

제7차 국토구명사업(1949.8.9~24) '多島海 叢海 學術調査' 記錄映畵 <多島海>

2) 석주명 관련 물품과 논저들

(1) 물품 및 기념품

가. 기념비



서귀포시 토평동(2003. 6.)

나.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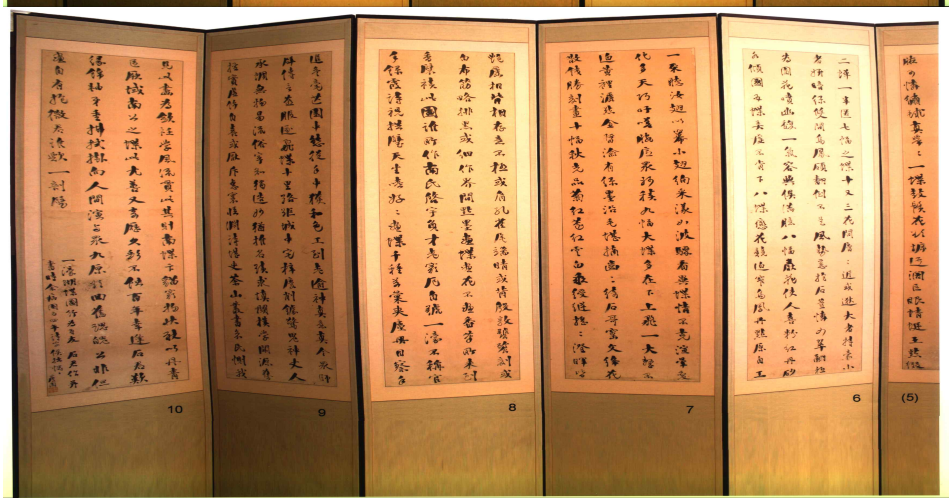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 2010. 10)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2015.4)







정인보 일호호접도행병풍(1940년대 후반?)
소장자 : 정양모



일호 남계우(1811~1890)
호접도

(2) 관련 논저

가. 평전

석주명 평전(이병철)

나비박사 석주명의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동천사, 1985; 아카데미서적, 1989; 성현출판사, 1993; 그물코, 2011.

나비박사 석주명선생(홍성조, 길경자 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5.

나. 위인전

석주명위인전[어린이용] 다수

다. 연구서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9윤용택 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보고사), 2012.

라. 학술지, 잡지, 신문

姜永善, "生物學과 故石宙明 그 五周忌에", <동아일보>, 1955-10-06

柴谷篤弘, 石宙明(セォク・ドウミョン), やどりが 123, 日本鱗翅學會, 1985

柴谷篤弘, 再說・石宙明（ソク・ジュミョング）, やどりが 128, 日本鱗翅學會, 1987.

마. 교과서

초등 교과서 '탐구생활 6-1'(한국위 나비븍사 석주명), 1990

바. 기타 문헌

송도학원80년사, 송도학원.송도중고등학교 동창회, 1989.

『舊制鹿兒島高等農林學校の 底力』 http://hdl.handle.net/10232/25898

4월의 문화인물 <석주명>,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8.

(3) 기념행사 자료

자료집 및 팜플렛, 포스터, 기타



1998년 4월의 문화인물 석주명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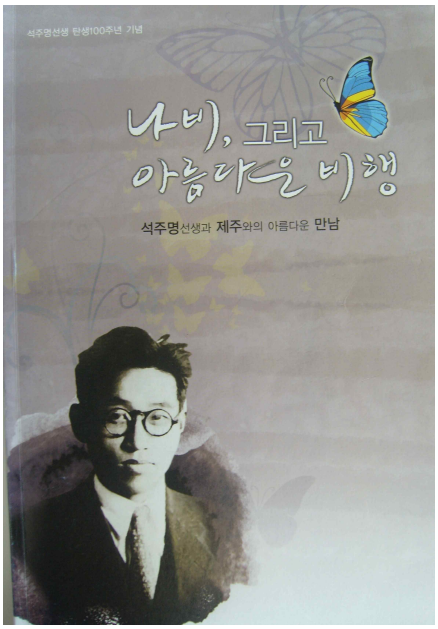
* 석주명 유물 및 나비표본 전시회
  · 주관: 국립서울과학관 후원회
  · 기간: 1998.4.16(목)~26(일)
  · 장소: 국립서울과학관 전시실
  · 내용: 석주명선생 연구보고서 및 저술원본(20종), 유품 및 유고(30종), 남북한나비표본(200종)

* 강연회
  · 주관: 국립서울과학관 후원회
  · 기간: 1998. 4. 18(토)/24(금) 오후2시
  · 장소: 국립서울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대전)
  · 내용: 석주명선생 생애 및 업적 강연

* CA-TV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 채널: CNT(센츄리TV, CH29)
  · 프로명: 석주명선생 생애 및 업적(30분)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후 7시(30분간)

* CA-TV SB 제작 방영
  · 채널: 국립영상(KTV ch14), 다솜방송(ch 26) 등
  · 내용: 석주명 관련 영상물 및 안내자막
  · 방영회수: 매일 1~3회(2분내외)

* 홍보포스터 및 소책자 발간 등
  · 발간처: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내용: 포스터 2만부, 소책자(2만5천부), 문화달력(2만5천부), 현수막 등



나비, 그리고 아름다운 비행
-석주명 선생과 제주와의 아름다운 만남
2008. 10. 18, 난대산림연구소

나비박사 석주명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18일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남상호·양영철·이석창)는 이날 오전 11시 난대산림연구소에서 '나비, 그리고 아름다운 비행'이란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나비박사로 유명한 석주명 선생(1908~1950)은 나비박사라는 호칭과 더불어 제주도박사라는 별칭도 받고 있다. 석주명 선생은 지난 1943년부터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현재 제주대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제주 나비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와 언어, 문화, 산업, 생태 등 여러 분야에 업적을 남겼다. 오는 22일은 석주명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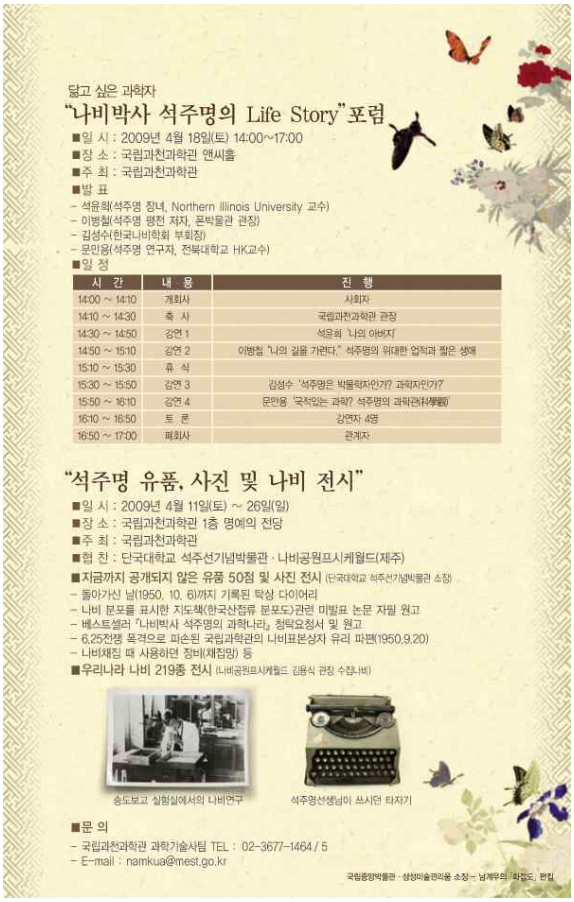
이날 세부적인 행사로는 11시부터 기념식과 강연, 영상물 상영이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행사에 한중출판학회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 출판계 대표 10여명도 참석했다. 강연에서는 제주대 명예박사인 민속학자 현용준 교수가 석주명 선생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중식 후 오후 1시부터는 석주명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연구소, 석주명선생 기념비, 프시케월드 등을 탐방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귀포문화사업회가 주관했다.

서귀포신문 김승범 기자

나비분류학의 아버지 석주명의 유품과 한국 나비 전종이 한자리에
- 닮고 싶은 과학자 '나비박사 석주명' 강연회 및 전시회 개최 -



일시 : 2009.4.11(토)~26(일)
장소 : 국립과천과학관
엔씨홀/명예의 전당
주최 :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장기열)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나비박사 석주명의 유품 및 관련 사료 50여점(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과 한국나비 전종 표본(나비공원프시케월드 김용식 관장 소장)을 2009년 4월 11일(토)~26일(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 전시하고, 4월 18일(토)에는 '닮고 싶은 과학자 나비박사 석주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와 전시회는 2008년 「명예로운 과학자」로 헌정된 나비박사 석주명(1908.9.23.~1950.10.6)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석주명 선생 관련 과학사료(史料)를 수집·보존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2009년 4월 18일에 개최되는 '닮고 싶은 과학자 나비박사 석주명' 포럼은 석주명의 장녀 석윤희(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교수), 평전 저자 이병철(폰박물관 관장), 나비연구자 김성수(한국나비학회 부회장), 석주명 연구자 문만용(전북대학교 HK교수)이 참석하여 석주명의 생애와 연구 업적에 대해 강연을 하고 토론한다.

2009년 4월 11일(토)~26일(일)까지 열리는 '나비 박사 석주명의 나비나라' 전시회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석주명의 탁상다이어리, 미발표 친필 논문, 나비 채집 때 사용하던 장비 등 50여점과 석주명에 의해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갖게 된 한국산 나비 250여 종이 국립과천과학관 1층 명예의 전당 기획전시실에 전시된다.

과학기술사료관 담당자(namkua@mest.go.kr)



2011. 10. 7일(금)~8일(토)
석주명 선생 탄생 110주년 기념학술대회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을 조명하다



2012. 10. 27(토)~11.11(일)
나비박사 석주명 일대기 뮤지컬
부활 - 더 골든데이즈

(4) 석주명 관련 사진, 영상, 음성, 원고

가. 행사 관련사진

나. 영상

* KBS TV <석주명>(1980),
* CA-TV(CNT[센츄리TV], CH29) 특집 석주명의 생애 및 업적 (2009)
* KBS제주TV, 제주학개론 [제주학의 선구자 석주명](2016.6.22.~7.20) 총 4회 방영
* EBS지식채널ⓔ [나비에 미치다석주명](2013.4.22.)
* 석주명 선생 탄생 110주년 기념학술대회 녹화영상(2011. 10. 7~8)

다. 음성

* KBS라디오 '빛을 남긴 사람들, 석주명 편'[연출: 홍종화, 작가: 최헌](1960)
* 제주 MBC라디오,WCC총회 기념특집 라디오드라마 2부작
  석주명 일대기 '나비의 꿈'[연출 지건보, 작가:한진오](2012)
* KBS제주라디오, 제주의오늘[인문학으로 보는 제주, 석주명](2017.3.9.~5.18) 총 11회 방송

3) 유품 수집 및 활용 방안

(1) 유품 수집방안

가. 유족으로부터 기증 또는 임대 (석윤희, 박성실 교수와 협의)
나. 원저 매입 또는 영인 (고서점 및 도서관)
다. 기타 유물과 나비표본 매입 또는 기증 (공고 및 광고)
라. 학회 협조(한국과학사학회,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한국곤충학회, 한국나비학회, 한국산악회, 제주학회 등)
마. 언론 협조(동영상 및 음성 파일, 시나리오 및 대본)
바. 개인소장자 협조

(2) 유품 보전 및 활용 방안

가.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사무실 문화재 등록
나. 문화재 미등록된 생전 원고 및 유품 문화재 등록
다. 생전 논저(저서, 발표논문) 원문 확보
라. 생전 논저들 영인 및 디지털화
마. [제주도문헌집]에 언급된 문헌들 확보
바. 일본어로 된 주요 논저들 번역
사. 제주도총서 복원 (제주방언집, 제주도생명조사서, 제주도문헌집, 제주도수필,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자료집)
아. 석주명 논저들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

Ⅲ. 결 론

석주명은 '제주적인 것'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다. 그는 제주도의 특이한 자연과 문화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바삐 한국의 식자들이 금싸라기 같은 제주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행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곤충학도였던 그가 직접 제주도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 직접 뛰어들어 제주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제주도총서를 결집(結集)해 냄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제주도 연구의 넓이와 깊이는 그를 제주도 박사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매일 보는 사람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미 다른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은 그들과 비교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석주명은 나비채집을 하느라 전국을 거의 다 섭렵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2년간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제주도에 관련해서 보고, 듣고, 읽고,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기록하여 분석하고 분류였으며, 그것들을 엮어 6권의 제주도총서를 만들어냈다.

그의 제주도총서는 제주도라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출판사나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석주명 자신이 혼자서 기획하고 출판하였다. 하지만 해방이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혼란된 시국(時局)에서 그동안 모은 제주도 자료들을 분석하고 결집해야 했다. 하지만 제주도총서는 그 자신이 총서 곳곳에서 밝히고 있듯이 훗날 보완을 염두에 둔 미완의 총서이고,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서 영원히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석주명의 제주도총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그가 남긴 자료들은 제주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내지는 제주학 연구를 위한 원재료서 가치를 지닌다. 제주도와 관련해서 그가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들은 제주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제주4·3 직전의 것들이어서 제주도 자연과 인문사회가 파괴되기 이전 모습들이다. 그는 일찍이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알고,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연구함

으로서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주도 연구가 이뤄졌다. 당시 일본 어용학자들이 제주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들의 연구 목적은 자원을 수탈하고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양과 질에서 일본인 학자들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반(半)제주인의 입장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연구했다.

셋째, 석주명은 지역문화의 융성은 곧 민족문화의 융성을 가져온다고 믿고, 제주도 연구(제주학)를 국학의 연장선상에서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주도 연구는 제주도의 생물상과 문화는 일본의 그것보다 우리나라의 그것과 가깝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우리 민족의 터전과 뿌리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넷째, 자연과학의 정량적 방법을 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즉 나비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 분류, 분석 방법들을 방언연구, 인구조사, 문헌자료 분류 등에서도 응용하고 있다. 그리 본다면 석주명은 이미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문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문융합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를 통해 통합학자가 되었다. 석주명의 학문연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주도 연구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다르다. 석주명은 제주도 연구 이전에는 한낱 곤충학자에 불과했지만, 제주도를 입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자연, 인문, 사회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학자로 성장했다.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자연과 인문사회 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기에 한계도 있다. 특히 그는 제주도로 보자면 이방인이었고, 곤충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전공자였다. 특정 분야에서는 탁월한 전문가일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비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석주명의 업적에는 공과(功過)가 공존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주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참신성과 과감성을 가졌지만, 그만큼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제주도에 오기 전에 이미 나비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였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한 권위에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점도 지닌다. 즉 나비연구의 대가였기에, 그가 범한 잘못들마저도 대중들은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의 제주도 연구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

다. 하지만 그가 범한 오류에 비해 그가 이룬 성과가 워낙 크다. 따라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각 분야에서의 전공자들이 몫이다.

강영봉(2008)은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관심 또는 호기심이 전공자에게 자극을 주고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공자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외연을 넓힐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실로 믿거나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어서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자의 거르개를 거쳐 정제된 자료를 내놓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공과를 제주학의 다른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석주명은 평양에서 태어나 개성에서 중등교사로 있으면서 나비연구로 이름을 떨쳤고, 말년에는 제주도와 서울에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전문대학(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출신임에도 각고의 노력과 성실성으로 학벌을 뛰어넘어 자신의 전공분야인 ‘나비학’에서 세계적 반열에 오른 학자이다. 그는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존경할 수 있고, 자연과학도와 인문사회학도가 동시에 흠모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학자이다. 그리고 제주도와 관련된 그의 논저와 자료들은 제주학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귀중한 자산이다.

<참고문헌>

● 논문/단행본

강영봉, 2002,「제주어와 석주명」,『탐라문화』2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 2008,「석주명의 제주어와 몽골어」, <나비, 그리고 아름다운 비행> 석주명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

강영봉, 2012,「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187-197쪽.

강영봉, 2018,「'제주도수필'의 분석과 평가」,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김치완, 2012,「석주명의 제주도자료에 비친 제주문화」『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248~255쪽.

문만용, 2018,「석주명의 한국산 나비 연구 3부작」,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서귀포시, 2003, <제주학의 선구자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의 삶> 석주명 선생 흉상 제막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재철・정세호, 2005,『제주도곤충』, 일진사.

석주명, 1937,「제주도산 접류채집기」, 윤용택 외,『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2012) 385~419쪽에 로 번역 수록.

석주명, 1937,「濟州島の思ひ出」,『지리학연구』14(5): 27-29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375-378쪽에 재수록,『제주도자료집』(1971) 190-193쪽에「제주도의 회상」으로 번역 수록.

석주명, 1944,「마라도エレヂー」,『城大學報』80: 2;『제주도자료집』(1971) 182-184쪽에「마라도 엘레지」로 번역 수록.

석주명, 1945,「濟州島의 女多現象」,『조광』11(2): 39-41;『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1992) 149-156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6,「濟州島地名을 包含한 動植物名」,『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

보고』 1(1): 1-4;『제주도자료집』(1971) 11-20쪽에 증보 재수록.

석주명, 1946,「兎山堂由來記」,『향토』 9월호: 15-18;『제주도자료집』(1971) 177-181쪽 및『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73-178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7,「제주도와 울릉도」,『소학생』 51: 18-19;『제주도자료집』(1971) 9-10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7,「濟州島의 蝶類」,『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2(2);『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1992) 55-60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7,「濟州島의 蝶類」,『국립과학박물관동물학부연구보고』, 2(2): 17-45.

석주명, 1947,「耽羅古史」,『국학』 3: 25-28, 36;『제주도자료집』 (1971) 172-176쪽 및『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67-171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7,『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석주명, 1947,『조선나비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석주명, 1948,「國學과 生物學」, 김정환 편『현대문화독본』(1947년에 서울신문학예란에 투고했던 과학수필 중 5편을 재편한 것);『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71, 190~193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8,「濟州島의 象皮病」,『조선의보』 2(1): 38-39;『제주도자료집』(1971) 213-214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8,「濟州島廳論」, <제주신보> 1948. 10. 20.;『제주도자료집』(1971) 197-198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8,「韓國의 姿態」, <제주신보> 1948. 2. 6.;『제주도자료집』(1971) 7-8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9,「'男女數의 支配線'의 位置, 附 濟州道統計에 대하여」『대한민국통계월보』 5: 1-3;『제주도자료집』(1971) 209-212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9,「나비채집 20년 회고록(1949)」,『석주명 나비채집 20년 회고록』, 신양사, 1992, 6쪽.

석주명, 1949,「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1년간의 제주도」,『학풍』 2(1): 100-101;『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79-181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9,「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둘째해의 제주도」,『학풍』 2(2): 112-113;

『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83-186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9,「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셋째해의 제주도」,『학풍』 2(3): 116-117쪽;『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87-190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9,「濟州島方言과 比島語」,『조선교육』 3(3): 17-19.『제주도자료집』(1971) 161-164쪽 및『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157-161쪽에 재수록.
석주명, 1949,『濟州島文獻集』, 서울신문사.
석주명, 1949,『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 人口論-』, 서울신문사.
석주명, 1950,「신문기사로 본 해방후 넷째해의 제주도」,『제주신보』 부록 제1호(1950. 4. 5.), 4쪽.
석주명, 1950,「濟州島方言과 馬來語」,『語文』 2: 1-4;『제주도자료집』(1971) 157-160쪽 및『석주명 나비채집 20년의 회고록』163-166쪽에 재수록.
석주명, 1950,「濟州始祖 高・良・夫 三氏考」,『주간서울』 87: 13;『제주도자료집』(1971) 168-171쪽에 증보하여 재수록.
석주명, 1968,『濟州島隨筆 -濟州의 自然과 人文-』, 보진재.
석주명, 1970,『濟州島昆蟲相』, 보진재.
석주명, 1971,『濟州島資料集』, 보진재.
석주명, 1972,『韓國産 蝶類의 硏究』, 보진재.
석주명, 1973,『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석주명, 1992,『석주명의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석주명, 2008,『濟州島昆蟲相』, 서귀포문화원.
석주명, 2008,『濟州島關係文獻集』, 서귀포문화원.
석주명, 2008,『濟州島方言集』, 서귀포문화원.
석주명, 2008,『濟州島隨筆』, 서귀포문화원.
석주명, 2008,『濟州島의 生命調査書』, 서귀포문화원.
석주명, 2008,『濟州島資料集』, 서귀포문화원.
송도학원, 『송도학원 80년사』, 학교법인 송도학원・송도중고등학교동창회, 1989.
송상용, 2008,「토종 과학자 석주명」,『한겨레』, 2008. 11. 12.
송상용, 2012,「한국 현대 학문사에서의 석주명의 위치」,『학문융복합의 선구

자 석주명』, 보고사, 2012.
송상용, 2018,「석주명의 삶과 학문」,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숭실학원,『숭실100년사(1897~1997)』, 숭실학원・숭실중고등학교, 1997.
신동원, 2012,「한국과학사에서 본 석주명」,『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양정필, 2018,「'제주도자료집'의 분석과 평가」,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양창용, 2011,「세계어, 지역어, 그리고 영어의 위상」,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을 조명하다>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오성찬, 2004,『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푸른사상.
오홍석, 2005,『내가 만난 세상』, 줌.
우종인, 1938,「남부조선채집기」,『곤충계』6(55): 721-728;『석주명 나비채집20년의 회고록』(1992) 330-337쪽에 재수록.
윤용택 외, 2012,『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윤용택, 2003,「나비박사 석주명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며」, <제주문화포럼소식지> 7월호.
윤용택, 2007,「석주명 선생, 업적 재조명 제주도가 앞장서야」, 제주대신문, 2007. 5. 16.
윤용택, 2011,「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탐라문화』3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윤용택, 2012,「학문융복합의 선구자」,『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윤용택, 2017,「석주명의 학문이념에 대한 연구」,『철학사상문화』25,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윤용택, 2018,「석주명의 유품과 관련 물품들」,,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윤용택, 2018,「석주명의 재주도총서의 의의」,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윤용택, 2018,『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 궁리.
이병철, 1985,『석주명 평전』, 동천사.
이병철, 1989,『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 나비박사 석주명 평전』, 아카데미 서적.
이병철, 1997,「나비박사 석주명의 생애와 학문」,『과학사상』21, 범양사.
이병철, 2011,「'석주명 제대로 알기' 여정을 돌아보다」,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을 조명하다>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이병철, 2011,『석주명 평전』(복간), 그물코.
이영구, 2012,「석주명의 에스페란토 운동의 의의」,『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이영구, 2018,「석주명의 에스페란토운동의 의의」,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전경수, 2001,「석주명의 학문세계: 나비학과 에스페란토, 그리고 제주학」,『민속학연구』8, 국립민속박물관.
전경수, 2018,「石宙明의 野學과 鹿兒島高等農林學校의 敎育課程:因果論」,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정 민, 2018,「정인보와 석주명, 그리고 남계우」,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정세호, 1999,『원색 제주도의 곤충』,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정세호, 2012,「석주명의 제주도 곤충 연구에 대한 의의」,『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정세호, 2018,「'제주도곤충상'의 분석과 평가」,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정세호, 2018,「석주명의 제주도 곤충 연구의 의의」,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정승철, 2018,「석주명의 방언연구-'제주도방언'(1947)을 중심으로」, 석주명 탄생 1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석주명의 삶과 학문세계>, 제주학회(10월 12일,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2007,『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900-2006)』2, 제주특별자치도.

최낙진, 2007,「석주명의 <제주도총서>에 관한 연구」,『한국출판학연구』52, 한국출판학회.

최낙진, 2012,「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출판학적 의미」,『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보고사, 2012.

한국방송공사, 1980, <나비박사 석주명>(TV인물평전), KBS.

한림화, 2000,「국학자 석주명의 생애에 대한 고찰」,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고 석주명 선생 재조명> 2000제주전통문화학술세미나 자료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한창영, 1969,「이야기를 남긴 사람들 '석주명 선생'」,『제주도』41, 제주도.

홍성조・길경자 편, 2005,『나비박사 석주명선생』,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홍순만, 2000,「제주도학 연구와 석주명 선생의 공헌」, <제주학 연구의 선구자 고 석주명 선생 재조명> 2000제주전통문화 학술세미나 자료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石宙明, 1934,「白頭山地方産 蝶類採集記」, Zephyrus, vol.5[4], 日本蝶類同好會, 259-281쪽.

石宙明, 1936,「朝鮮東北端地域産 蝶類採集記」, Zephyrus, vol.6[3], 日本蝶類同好會, 252-277쪽.

石宙明, 1937,「濟州島産蝶類採集記」, Zephyrus, vol.7[2/3], 日本蝶類同好會, 1937.; 150-174쪽

石宙明, 1940,「朝鮮東北地方産 蝶類採集記」, Zephyrus, vol.8[3], 日本蝶類同好會, 155-168쪽.

石宙明, 1941,「冠帽連峯産 蝶類採集記」, Zephyrus, vol.9[2], 日本蝶類同好會, 103-111쪽.

石宙明, 1943,「北朝鮮 蝶類採集記」,『朝鮮博物學會雜誌』, 第10卷38號, 朝鮮博物學會, 16-28쪽.
石宙明, 1943,「北朝鮮 蝶類採集記」,『朝鮮博物學會雜誌』, 第10卷38號, 朝鮮博物學會, 28-35쪽.
平成27年度鹿兒島大學附屬図書館貴重書公開, 『舊制鹿兒島高等農林學校の底力』, 鹿兒島大學付屬圖書館, 2015.
末永一 ,「故 岡島 銀次 先生を憶う」,『昆蟲(KONTYU)』 Vol.23, No.2, 日本昆蟲學會, 1955. 5.
長谷川 仁, 明治以降「物故昆虫學關係者経歷資料集-日本の昆虫學を育てた人々-」, 『昆蟲(KONTYU)』Vol.35, No.3, Supple., 日本昆蟲學會, 1967. 10.
やまだ あつし,「鹿兒島高等農林からみた 臺灣・沖縄・朝鮮」,『翰林日本學』, 第29輯, 翰林大學校 日本學研究所, 2016. 12
蟹江松雄, 鹿兒島高等農林學校における 農芸化學の歩み,「鹿兒島高等農林と農芸化學その2」 *Nippon Nogeikagaku Kaishi* Vol. 57, No, 4. 日本農芸化學會, 1983.

● 홈페이지 및 웹페이지

Royal Asiatic Society-Korea Branch http://www.raskb.com
鹿兒島大學付屬圖書館 貴重書公開 http://hdl.handle.net/10232/25898
鹿兒島大學總合研究博物館 http://www.museum.kagoshima-u.ac.jp/
日本昆蟲學會 http://www.entsoc.jp/about/ayumi.php

■ 분야별 전문가 회의록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14:00~18:00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진앙현석관
발표 및 토론

1. 강영봉,『제주방언집』해제 / 토론: 김순자
2. 양정필,『제주도의 생명조사서』해제 / 토론: 김일방
3. 윤용택,『제주도문헌집』해제 / 토론: 김유정
4. 정세호,『제주도곤충상』해제 / 토론: 정상배
5. 안행순『제피루스』번역 / 토론: 고영자
6. 윤용택,『석주명의 유품과 관련 물품들 / 토론: 김태일

■ 회의록

1. 강영봉,『제주방언집』해제 / 토론: 김일방, 김순자

질의　　발표할 때 돌하르방의 크기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순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순이 아닌지요?

답변　　혹 그 순서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순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입니다. 『동국여지승람』이나 이원진의 『탐라지』를 보면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순으로 기술되어 있고, 또 그 순에 따라 돌하르방의 크기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 드리면 시계방향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목'은 지금의 제주시 지역이기 때문에 6개의 읍면이 해당되고, '정의현'은 서귀포를 비롯하여 성산읍, 표선읍, 남원면 등 4개의 읍면, '대정현'은 중문면, 화순면, 대정읍 등 3개 읍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대식으로 말씀 드리면 6개의 사단, 4개의 사단, 3개의 사단을 거느리고 있는 부대장의 계급이 다른 것처럼 돌하르방이 크기도 다르다고 유추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질의　어원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답변　‘어원’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석주명의 밝히고 있는 어원 문제는 어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발표문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몇 개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어학적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　『제주도방언집』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방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방언 수집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어원을 밝히는 작업이 지난한 작업임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석주명의 자료를 보면서 뜻풀이를 하고, 어원을 밝힐 때 또한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석주명이 조사한 어원을 가지고 재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께서 과제로 제시한 어원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까합니다. 석주명이 몽골어로 제시한 ‘야로ᄉᆞᆫ떼’와 ‘장겐ᄉᆞᆫ’ 항목에 대한 견해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야로ᄉᆞᆫ떼’와 ‘장겐ᄉᆞᆫ’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석주명은 ‘야로ᄉᆞᆫ떼’와 ‘장겐ᄉᆞᆫ’ 항목의 ‘털락쇼시’를 몽골어라고 하고, ‘장겐ᄉᆞᆫ’는 표준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주명이 몽골어로 지목한 ‘털락쇼시’가 정말 몽골어에서 온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이해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앞의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 대로 어원에 관한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방언집』에 언급된 “~어원” 등을 정말 쫀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로 든 ‘야로ᄉᆞᆫ떼’ 등은 발음만 해 보아도 일본어 냄새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장겐ᄉᆞᆫ’를 표준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응하는 몽골어를 ‘털락쇼시’라고 했는데, 몽골어에 그런 어휘는 없습니다. 또 몽골에는 ‘장겐뽀’와 같은 놀이도 없습니다. 오로지 손가락을 내미는 ‘뎀베’라는 놀이가 있을 뿐입니다.

2. 양정필,『제주도의 생명조사서』해제 / 토론: 김일방

질의 당시에도 인구통계 등이 존재하는데 굳이 석주명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주도 인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이유가 궁금하다.

답변 석주명은 기존 인구 조사 및 통계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 신고하여 호적에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태어난 아이의 실태를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석주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을마다 출생아를 포함하여 인구를 전수조사하여 제주도의 실제 인구를 실제에 가깝게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질의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여다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생명조사서에 의하면 출생 당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답변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도 제주도가 여다 지역인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대개 남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어로 활동 등을 하다가 조난당해 돌아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여자보다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다 지역이라고 해서 출생 당시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꼭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3. 윤용택,『제주도문헌집』해제 / 토론: 김유정

질의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1,000여편의 논저를 확인하고 분류한 것은 대단한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제주도문헌집』에 실린 논저들을 대부분 해방 이전 것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 희귀본들이 되었다. 하지만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 과정을 살피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그 논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인터넷, 대학도서관, 고서점 등만이 아니라 옥션과 신문광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답변　4차산업혁명시대에 사는 우리도 아직 제주도 연구를 위한 논저들을 목록화하지 못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제주도문헌집』에 실린 논저들 가운데는 영어사전, 생물학개론서 등도 일부 섞여 있어서 우선『제주도문헌집』에 실린 논저들 가운데 제주학을 위해서 필수자료들은 어떤 것인지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의 인문, 사회, 자연을 연구하는 데 필수자료로 확인된 것들은 제주학연구센터 차원에서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정세호,『제주도곤충상』해제 / 토론: 정상배

질의　석주명 당시 곤충학자들의 연구 환경도 힘들었지만, 오늘날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곤충 관련 석사 박사가 탄생한다 해도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 분야에서 기초연구를 담당할 학문 후속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석주명의『제주도곤충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답변　공감한다. 오늘날 어떤 연구든 경제적 보장 없이 연구자들에게 순수 학문적 열정만으로 연구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석주명 선생 역시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나비채집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도 외국의 자연사박물관과 대학의 곤충연구소 등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기초연구자들에게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과제를 주면서라도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윤용택,『석주명의 유품과 관련 물품들』/ 토론: 김태일, 김유정

질의　석주명기념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생약연구소(현 제주대학교 아열대연구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고 원형을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석주명 선생이 거주하면서 연구했던 경성제대 생약연구소(현 제주대학교 아열대연구소)의 사무실은 지금도 당시의 도면이 남아있다. 따라서 그것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복원과 보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복원해야 한다. 그의 연대기를 만들고 그의 유품과 유물들을 조사하여 전시계획을 새워야 한다.

답변 석주명기념관은 도시과와 문화예술과가 서로 협력하면서 건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석주명기념관 건립 주무부서는 서귀포시 도시과이다. 사무실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당시의 사무실은 가급적 손을 대지 말고 원형 보전하는 게 맞다. 그래야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살아남게 된다. 석주명 선생의 연대기는 곧 나오게 될(10월에 출간) 예정인 저의 책『한국의 르네상스인 석주명-나비박사 석주명의 삶과 사상』에 거의 완벽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웬만한 유품과 유물들의 목록은 대체로 구비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입수하고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질의 석주명 선생의 유품들도 옥션과 신문광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석주명 선생의 논저들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용과 노력이 드는 만큼 서귀포시에서도 그의 유품과 관련물품들을 확보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전문가 워크숍 회의록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 13:00~18:00
장소: 제주대학교 인문대학2호관 진앙현석관
발표 및 토론

1. 강영봉, 『제주도수필』의 분석과 평가 / 토론: 고영자
2. 양정필, 『제주도자료집』의 분석과 평가 / 토론: 김일방
3. 정세호, 『제주도곤충상』의 분석과 평가 / 토론: 김재훈
4. 윤용택,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의의 / 토론: 최낙진
5. 안행순, 석주명의 나비 채집기 소개
6. 윤용택, 석주명의 유품과 관련 유물들

1. 강영봉, 『제주도수필』의 분석과 평가 / 토론: 고영자

질의　왜 책 제목으로 '隨筆'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답변　제주도총서 제1권인 『濟州島方言集』부터 '수필'이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주로 어학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서 저는 '언어 수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용의 다양성에서 비롯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필'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라고 할 때, '반도풍에서 떠난 풍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른 '비판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봅니까?

답변　전문가에 해당하는 영역별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또 영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단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객석질의 제주인에 대한 석주명의 견해는 어떠했다고 봅니까?

답변 제 연구 영역이 아니어서 무어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석주명의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를 참고하시면 단편적인 견해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객석질의 어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발표자의 견해는?

답변 오늘 이 자리는 석주명을 추앙하는 자리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 양정필, 『제주도자료집』의 분석과 평가 / 토론: 김일방

질의 제주도를 한국의 고유한 자태를 지닌 곳으로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본토와 별개의 문화권을 형성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제주도 문화를 한국 고유의 문화로 등치시키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 판단된다.

답변 제주도 문화가 본토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석주명이 제주도를 한국 고유의 자태를 간직한 곳으로 본 이유는 외래 문화에 대한 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석주명이 보기에 당시 제주도는 본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외래문화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았고, 그런 만큼 제주도에는 한국 고유의 자태가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의 제주도에서 고사리가 많이 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를 고사리 요리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고사리는 제수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 제주도 사람들이 제사상에 고사리를 올린 것은 사실이고, 제주도 곳곳에서 고사리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고사리

를 평소에 섭취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를 석주명은 요리의 불편을 들었고 토론자는 제수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제주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사리를 캐면서 우선 제사상에 올릴 것을 생각하므로, 토론자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의 농부 남자의 1일 3식 식사량이 대승으로 8합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공기밥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답변 현재 공기밥은 2합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제주도 농부들은 현재 우리보다 식사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반찬이 풍부하지 않아서 곡식으로 배를 채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 식사량 이외에 식사 시간, 식사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는지 궁금하다.

답변 제주도 자료집에는 식사 시간, 식사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다른 기록에 실려 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3. 정세호, 『제주도곤충상』의 분석과 평가 / 토론: 김재훈

질의 필자는 석주명 동생인 석주선에 의해 유고집으로 출간된 '제주도 곤충상'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제1장 연구사에서 일본에 합병되기 전 1987년에 제주홍단 딱정벌레가 최초로 한반도 신종으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1906년 일본 이찌가와가 발표한 논문에서 86종의 곤충을 보고하고 있다. 1950년대까지 발표된 논문 총 105편 중 한국인은 30편이고, 그중에 석주명이 22편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하고 있고, 제주도 곤충상에 수록된 곤충수는 9目 141科 737種으로 매우 많은 종을 분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라산의 곤충 분포를 구북구계와 동양구계로 구분하여 볼 때 2.4:1로 한대성 곤충이 우위에 있다. 이로 미루어 곤충 분포상은 한반도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특징있는 곤충들은 아열대성이 23종이고 한대

성은 47종이며, 제주도 특산종은 19종에 달한다. 현재 제주도에 분포하는 곤충은 25목 301과 3,315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 딱정벌레목이 930종으로 가장 많은 곤충이며, 나비류, 파리류, 벌류 등도 비교적 많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에도 새로운 종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고, 2018년에도 구상나무에서 큰속알락명나방, 톡토기 등이 새롭게 발견되었고, 특히 이번에 발견된 톡토기는 국내미기록종으로 밝혀졌다. 석주명은 곤충 중에서 특히, 나비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이었다. 특히, 조선산 나비류 총목록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가 1940년 영국왕립아시아 학회의 지원을 받아 뉴욕에서 발간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석주명은 '조선에는 많은 까지나 맹꽁이는 미국에도 소련에도 없고, 조선 사람이 늘 먹는 쌀도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그리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학만큼 향토색이 농후한 것도 없어서 조선적 생물학 또는 조선 생물학이라는 학문도 성립할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문적으로 독립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의하여 무단으로 생물자원이 외국으로 방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시절에 석주명이 갖고 있던 사고는 진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석주명은 다른 종으로 보고된 20여개의 학명이 배추흰나비에 속하는 종임을 밝혀내었고, 관련된 논문을 쓰기 위하여 16만 마리의 나비를 분석하였다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또한 제주도가 외국어로 Quelpaert 로 불리는 이유에 대하여, 네덜란드 선적의 '퀠파드호가 발견한 섬'에서 유래된 것임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제주도가 온난화에 의해서 생태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고, 한라산 구상나무 숲이 사라지고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같은 곤충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등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인류의 문화와 복지,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생물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 생물들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곤충상'은 한

국 근대생물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연구자료라 할 수 있다.

답변 저의 발표에 대해 요약해주신 것 같다. 김 교수님의 지적대로 석주명의『제주도곤충상』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제주도의 환경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자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제주도곤충상』에 나타난 생명종들을 현장 확인하고 오늘날의 것들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4. 윤용택,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의의 / 토론: 최낙진

최낙진 석주명의 제주도총서는 제주도라는 특정주제에 대하여 출판사나 국가의 지원 없이 순전히 석주명 자신이 혼자서 기획하고 출판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석주명총서는 제주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즉 원재료라고 할 수 있다. 후학들은 그것을 가지고 2차, 3차 연구들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살려서 제주학 내지는 제주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답변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제주인들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나 석주명과 같은 외지인들이다. 자기 얼굴 자기가 못 보듯이 제주인들은 제주도가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다. 다라서 외지인들이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에 대해소 관심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잘못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강영봉 교수가 제주방언에 대한 석주명의 연구에 대해서 언어학에 대한 비전문가이면서 외지인이기 때문에 참신한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의 제주학총서 전부에 해당되는 말이다. 하지만 몇몇 사소한 오류들이 그의 성과를 감쇄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후학들이 그의 제주도총서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Abstract

An Elementary Study of Seok Ju-myeong, the Pioneer of Jeju Studies

Seok Ju-myeong(石宙明, 1908~1950) is widely known as the butterfly expert and pioneer of Jeju studies. He knew Jeju island better and loved it more than anybody else, so that he called himself as 'half-Jeju native'. Seok told the world of island's true value practically for the first time, but Jeju natives, let alone Korean people, do not know about his contribution and his life as well. Thus, basic research and study of his life, butterfly studies, and Jeju studies are indeed necessary.

This study, therefore, has deeply analyzed and evaluated Seok Ju-myeong's six-volume *Jeju Island Collection*(JIC). This work was mentioned in presentations and seminars on his Jeju studies, but rarely was discussed in depth except 'Jeju island dialect' part. So the paper has attempted to introduce the whole volume in detail, assess its significance, and point out its limitations, so as to suggest the future of Jeju studies. The entire volume of JIC consists of 'Jeju island dialect', 'research on Jeju's life and population', 'Jeju literature', 'Jeju essays', 'Jeju insects', and 'sources on Jeju island'.

This article has also translated and introduced Seok's record of butterfly gathering. This record consists of 20 years of his butterfly gathering process and results, which Seok eventually contributed to related journals in the 1930s and 1940s. However, his records were in Japanese, and those

journals were mostly lost during WWII and the Korean War, so that little is known as of present. Fortunately, I was able to obtain the Japanese butterfly journal *Zephyrus*, in which Seok Ju-myeong's records were documented. Accordingly, this study has translated and introduced five of this butterfly gathering records. Hopefully, this effort will bring light to Seok's true looks as a butterly scholar.

This paper has also searched and organized his articles left, photographs, manuscripts, books, biographies, critical biographies, research books, video and audio recordings, and materials related to his commemorations, as part of an elementary survey of Seok Ju-myeong.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his future celebration projects.

To illuminate Seok Ju-myeong, the pioneer of Jeju studies, means finding the origins of Jeju studies and expose its new tasks. Since Seok's Jeju studies are extended on the foundation of Korean studies, understanding his Jeju studies will ultimately heighten the status of Jeju studies within the discipline of Korean studies.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양 정 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공 동 연 구	**윤 용 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공 동 연 구	**강 영 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공 동 연 구	**정 세 호**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공 동 연 구	**안 행 순**	일본어 번역가

제주학연구 53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8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637-6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